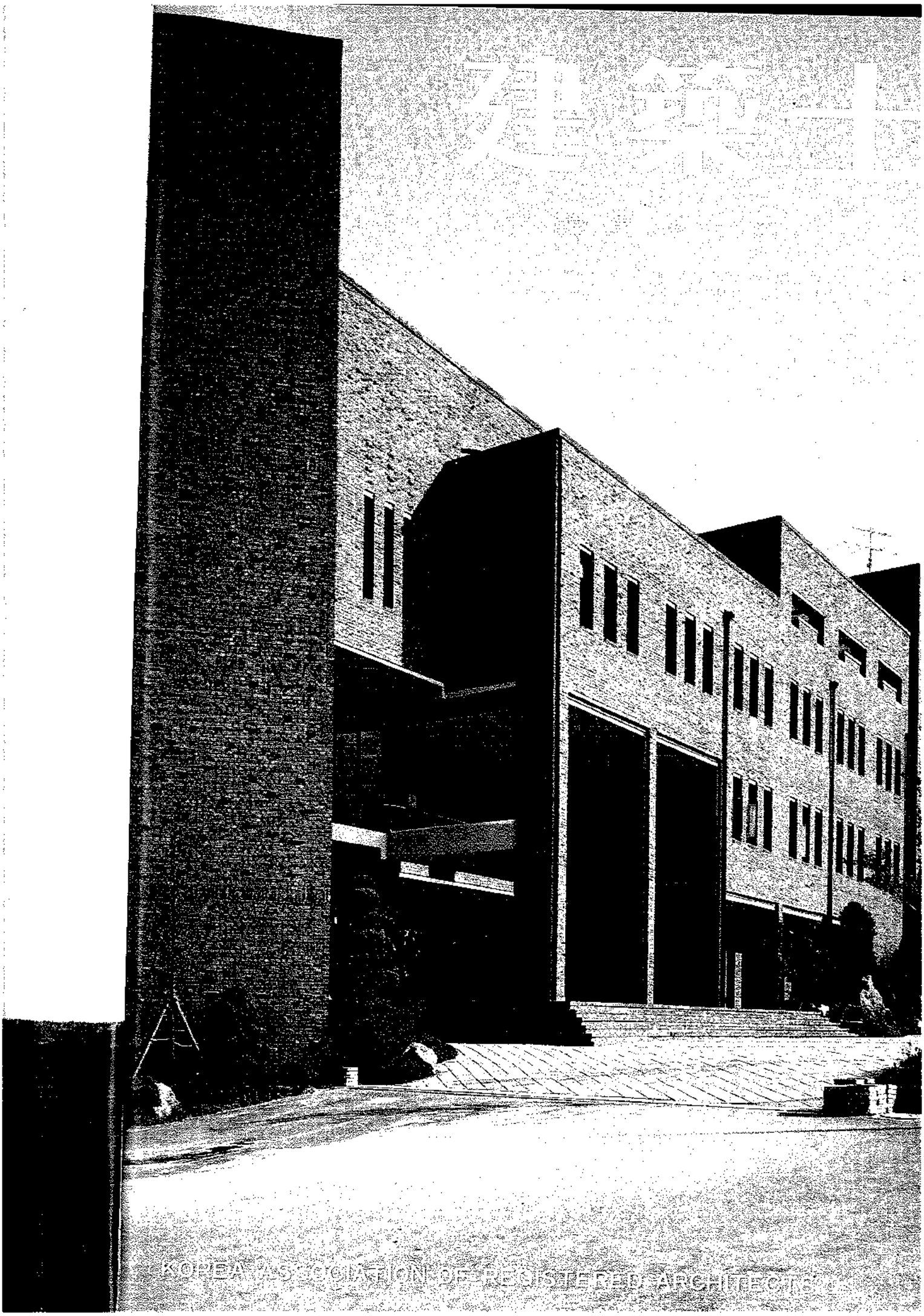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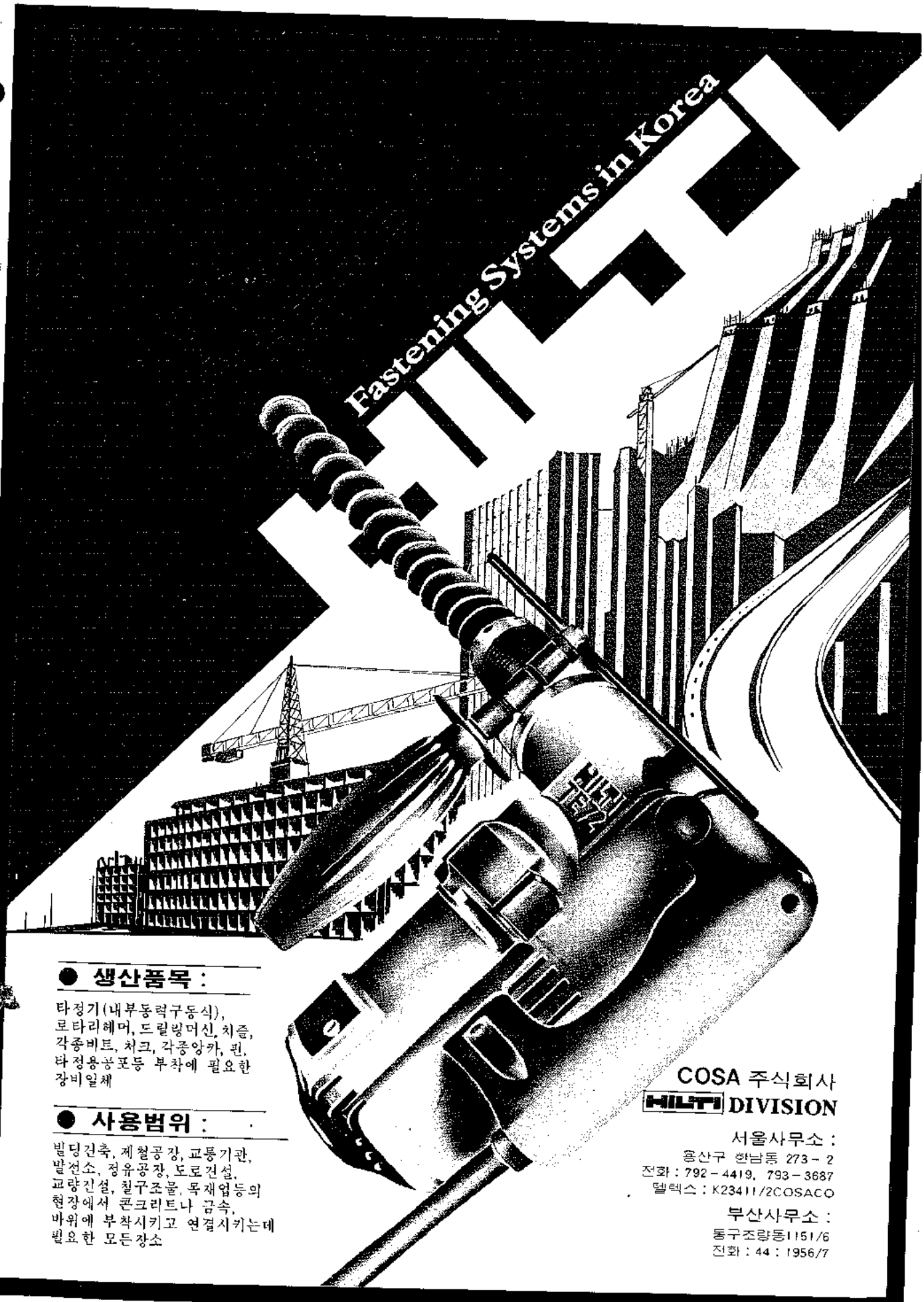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 생산품목 :

타정기(내부동력구동식),
로타리헤머, 드릴링머신, 치즐,
각종비트, 처크, 각종앙카, 핀,
타정용공포등 부착에 필요한
장비일체

● 사용범위 :

빌딩건축, 제철공장, 교통기관,
발전소, 정유공장, 도로건설,
교량건설, 철구조물, 목재업등의
현장에서 콘크리트나 금속,
바위에 부착시키고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모든장소

COSA 주식회사
HILTI DIVISION

서울사무소 :
용산구 한남동 273-2
전화 : 792-4419, 793-3687
텔렉스 : K23411/2COSACO

부산사무소 :
동구조량동1151/6
전화 : 44 : 1956/7

表紙說明 / 永樂商業高等學校
設計 / 金正澈　撮影 / 林正義

분류번호	建 築 士 誌
도서번호	통권 제 151 호
구입년월일	198 · ·
대한건축사협회 전북도지부	

月刊 建築士

U.D.C. 69 / 72 (054 – 2) : 0612 (519)

通巻151号　**1981. 10**

目 次

論　壇 / "自律淨化 및 請託排擊運動에 즈음하여"…具玧會……2

論說·論文 / 日本의 새로운 居住環境……朴胤成……13
泉谷寺(址)에 対한 小考……玄錫洪……28
白然学習園 施設計劃……田燦珍……34
海外工事(Ⅱ)……都強會……37
偏心基礎……金澤辰……41
鉄筋콘크리트 슬래브의 構造最適化……全成男……65

紀行文 / 서독 · 애급紀行……崔昌奎……19
海外特選 / 建築家의 資質……朴商浩……60
建築講座 / 建築積算資料(2)……曺浚鉉……68

元老建築家探訪 / 金熙春博士……編輯部……10

会員作品 /……43
□ 영락상업고등학교　● (주)정림건축……金正澈……44
□ 중앙대안성기숙사　● 부림종합설계……金　浩……46
□ 商銀속초직원합숙소　● 서인건축연구소……金基弘……48
□ 김사장댁　● 삼원엔지니어링……朴吉榮……50
□ 전주유아원(전북지부편)　● 전주건축사무소……金光煥……52
□ 전주시 경로회관(전북지부편)　● 인주성연합건축……印柱成……53
□ 전북체육고체육관(〃)　● 신원건축사무소……金哲秀……54

支部巡訪 / 江原支部編……56

□ 協会消息……3　□ 建築界뉴스……6
□ 10월의 인터뷰……55　□ 質疑 · 応答……71
□ 建築行政相談……76　□ 月間建築情報……73
□ 전국 건축허가 통계……86　□ 会員動静……94
□ 資料……87

海外作品……78
• A + U

編 纂 委 員 会

委員長　金 正 澈
委　員　金 奉 勳
〃　吳 昌 熙
〃　尹 道 根
〃　尹 鳳 源
〃　李 文 輔
〃　張 錫 雄
〃　洪 淳 寅
〃　黃 一 仁

□ 発行所 大韓建築士協会 / 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89 / 郵便番号 110
光化門郵遞局 私書函 第795番 / 電話 723 – 9491~2, 723 – 4287, 724 – 1045
□ 発行人 兼 編輯人 具 玧 會 □ 登録番号 第라 – 1251 □ 登録 1967. 3. 23
□ 発行 1981.10.1 □ 非売品 □ 印刷人 郭 得 龍 / 三文印刷所 / 261 – 7676

/論壇/

自律浄化 및 請託배격 운동에 즈음하여

大韓建築士協会 会長 具 玩 會

예로부터 우리民族은 나라의 큰 일을 치뤄 나감에 있어 国民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気風을 造成해서 훌륭한 結果를 거두는 슬기를 지니고 있음을 안다.

国難으로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는 수많은 愛国志士들을 中心으로 기틀이 세워지고 国民을 警覚케해서 어려움을 이겨 나갔고, 国民倫理가 매말랐을 때에는 이를 걱정하는 많은 知識人들이 앞장서서高尚한 気概를 펼쳐 国民生活의 情緒的 밑바탕을 기름지게 가꾸어왔던 것이다.

그만큼 우리民族에게는 自助하는 힘과 協助하는 힘이 内面 깊숙히 피로 이어오고 있음은 부정되어 지지 않는다.

새로운 気風과 새로운 意志는 비단 舊態에서 벗어나 탈바꿈을 한다는 단순한 過程의 一部라기 보다는 보다 폭넓은 意味에서 우리의 살 길을 겨냥한 次元높은 世界観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올 바른 것이고 또 来日의 希望이라면 国民모두가 힘써 이뤄나가야 하는것이라 믿는다.

제 5 공화국의 出帆과 함께 우리는 正義社会 具現과 福祉社会建設이라는 旗幟아래서 다시한번 中興을 向한 前進을 다짐한바 있었다.

이는 우리스스로의 約束이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어야만하는 것이라 여겨 그 基盤을 다지는 準備作業으로 이미 우리의 精神과 行為를 바르게 가꾸는 浄化運動과 請託排撃運動이 汎国民的으로 実施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作品을 남기기 위해 온갖 知恵를 짜내 設計를 하고 좋은 資材를 골라 훌륭한 建築物을 創造해 놓는다. 이 過程에서 어느 한 部分만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걸맞지않는 資材를 使用한다면 아무리 精誠들인 設計라도 결국 한낱 휴지에 지나지 않게 됨을 안다.

正義社会 具現과 福祉社会 建設이라는 国民的 理想의 実現은 결국 国民스스로가 自身부터 바르게 가꿔나가는 作業없이는 요원한 꿈일 수 밖에 없으며, 스스로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나갈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살기좋은 世上이되는 것이라 믿는다.

헤아려보면 浄化나 請託배격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혹은 집단적인 운동에 의해서 척결되는것이 아니라 자기스스로가 정리해서 定立하는 個人的인 運動이기도 하다. 따라서 個人의 人格과 명예가 크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솔선해야하며 나아가 自己革新의 계기로 살아야 할 것이다.

本会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会員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建築文化를 이끌어 왔고 또 앞으로도 主人公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召命感을 품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時点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建築界를 보는것이고 그 風土를 따져보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建築界에는 많은 不条理가 횡행하게되었고, 그것이 큰 社会悪으로 지적되서 国民的원망을 받고 있음을 볼 때, 그것이 制度的모순에서 비롯되었건 혹은 또 다른 理由에서건 간에 建築人인 우리로서는 슬픈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反省이라는 自覚에서 더나아가 반드시 고쳐야한다는 行動으로 責任을 져야 할 때라고 믿는다. 그동안 本会에서는 이의 根源的인 解決을 위해 不条理의 여지가 発生되는 許可制度를 바로잡고자 많은 研究를 해 왔고, 관계당국과의 협의도 하고있어 조속한 時日내에 是正이 되리라 본다.

또 委員会를 構成해서 이 運動의 活成化와 나아가 生活化에 힘쓰고 있으며 보다 핵심화해서 建築界의 새로운 倫理定立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本会를 中心 으로 펼쳐지는 自律浄化운동과 請託배격운동의 性格은 官主導型의 탈을 벗고 보다 自律的인 立場에서 우리 스스로의 허물을 밝혀내서 公開的으로 잘못을 바로잡자는데 뜻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우리의 人格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큰 命題로서 正義社会가 具現될 때 까지 口頭禪이 아닌 実際로 行動하고 実践해 나가는 운동이어야 한다.

부디 未来의 보다 큰 理想을 実現하려는 国民的 意志를 함께 펴보이기 위해 우리의 努力은 그치지 않아야 하며, 보다 앞장서서 솔선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실추된 地位가 向上되리라 본다. 〈*〉

定期理事会 개최

열세번째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23일 본 회의실에서 具玧会회장을 비롯한 理事 全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具会長의 개회사에 이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2년도 본회 살림규모를 확정짓는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확정의 건을 비롯해서 본회가 현실에 맞게 개정작업을 마친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확정의 건등이 폭넓게 논의 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회원중 65세이상의 회원에게 부여되는 추대회원 추대의 건이 상정돼 서울支部소속의 이도승회원을 비롯한 11명의 회원이 추대회원으로 추대되었다.

그밖에 직원 표창건과 總会 議題 결정의 건등이 논의되었다.

제4회 支部長회의 개최

제 4 회 支部長회의가 지난달 18일 오후 2 시에 본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玧会회장 주최로 개최된 이날 支部長회의에는 各 市道支部長 이 전원 참석해서 주요 업무보고 및 협의사항등을 논의했다.

주요 업무보고에는 弘報 활동사항을 비롯해서 대만 건축사일행의 본회 방문, 3 단체장 조찬회 개최, 건축관계 법령집 가제본 발송건등이 보고 되었다.

그밖에 会員技術向上을 위한 教育실시건과 本部 및 서울支部 任員 연석회의 내용, 忠北支部 会員과의 간담회, 会員福祉年金제도연구 등 모두 27건의 업무에 대한상세한 보고가 있었다.

협의사항으로는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비롯해서 82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등이 협의되었으며 그밖에 복지연금조성 방안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住宅庁및建築研究所 新設 建議

3 단체 월례조찬회서 합의

건축 3 단체 월례 조찬회가 지난 6 일 본회 주관으로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있었다.

본회 具玧会회장을 비롯해서 각 단체장 및 실무관계자등이 참석한 이날 조찬회에서는 88년도 올림픽 유치에 따른 건축계의 동향과 역할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과 그밖에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당면한 国政의 중대과업인 住宅建設의 목표달성과 국제적경쟁력 강화 그리고 역사적인 올림픽 경기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발전적인 견지에서 政府 건축부서의 보강을 위한 건축 3 단체 공동명의의 건의서를 당국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건의 취지는 ① 각국이 주택건축 및 도시에 관한 업무 전담기구로서 住宅都市部를 두고 있으며 ② 건축은 技術과 文化의 根幹으로서 社会性을 띄고있기 때문에 종사인구가 많고 활동이 활발해서 고급기술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전담기구의 보강이 필요하고 ③ 더우기 올림픽경기 유치에 따른 각종 시설이 건축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한국의 건축문화를 세

계에 선보이는 기회가 되므로 기구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① 건설부내에 건축행정과 건축기술지도 기능을 強化하여 최소한 建設局만이라도 설치할것과 ② 건축문화 및 건축기술에 종사하는 모든 단체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育成되도록 협조해 줄것을 건의했다.

大邱 建築士 복지회관 기공식
경북支部 조기청소실시

大邱支部 건축사 복지회관 기공식이 지난달 23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현장에서 많은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대구지역 건축사들의 요람이 될 복지회관은 대지면적 8백30여 평방미터에 연면적 총 2천여평방미터 규모로 지어진다.

오는 82년 6월15일경에 준공예정인 본 회관설계는 현대 건축의 김무권회원이 맡았다.

한편 경북지부회원들은 매월 1일을 조기청소의 날로 정하고 깨끗하거리 가꾸기에 솔선키로했다. 지난 9월 1일에는 대구 일신학원 앞에서 회원 및 직원20여명이 조기청소를 실시했다.

報酬基準研究小委열려

3차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연구소위원회(위원장 安箕泰)가 지난달 28일 개최되었다.

보수기준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위해 열린 이날 小委員会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1·2차 改正案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서 常駐監理時 건축사보에 대한 經費策定문제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아울러 設計監理보수율표 가운데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種別再調整등이 논의되었다.

10회 편찬위 열어

제10회 편찬위원회(위원장 金正澈)가 지난달 28일 본회회의실에서 편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지 9월호 合評을 비롯해서 10월호 発刊에 따른 편찬내용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는 본지의 보다 발전적인 발간을 위한 현행 문제점 제기와 이에 따른 대책등이 폭넓게 숙의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住宅특집으로 色度化한 9월호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적사항으로는 ① 사진상태가 좋지않고 ② 인쇄선명도 부족하며 ③ 오자 및 탈자등을 들었다.

한편 10월호 기본편찬 계획으로는 ① 연구 논문을 줄이고 ② 회원업무에 도움이 되는 논문을 게재하며 ③ 편집을 새롭게해서 발간키로 했다. 아울러 9월호와 같이 会誌의 色度化방안을 연구해서 보다 새로운 화지로의 발돋움을 시도할것을 촉구했다.

協会大賞審査委

지난 1년간(80년 10월~81년 9월까지) 본지에 게재된 会員設計作品 및 研究論文을 대상으로 協会大賞作品을 가리는 協会大賞審査委員会(위원장 具琉会)가 지난 7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学界 및 斯界 권위자들로 구성된 8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이

날 1차회의에서는 施賞 및 審査基準에 대한 확정과 1차심사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번 大賞 후보 設計作品은 모두 97개 作品이며 論文은 총 70여점으로 우선 각 심사위원이 1점씩 작품을 선정해서 이를 취합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作品을 大賞으로 가리기로 했다.

한편 본회는 会員設計作品에 대한 展示会를 본회 전시실에서 15일부터 개최한다.

이번에 展示될 작품은 모두 45명의 会員이 出品한 1백여점의판넬 및 모형이 선을 보이게 된다.

淨化推進委員会 개최

9차 정화추진위원회 및 3·4분기 중앙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具琉会委員長 주재로 열린 이날 정화추진위원회에는 20여명의 위원이 참석, 그동안의 정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새로 제정된 社会淨化 国民運動 推進委員会 設置 및 運営規程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금년도 정화운동 추진계획중 보완 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회원 및 임직원 풍토쇄신을 위한 특별감사활동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한편 정화운동과 관련된 비위회원에 대한 조치로 적발된 비위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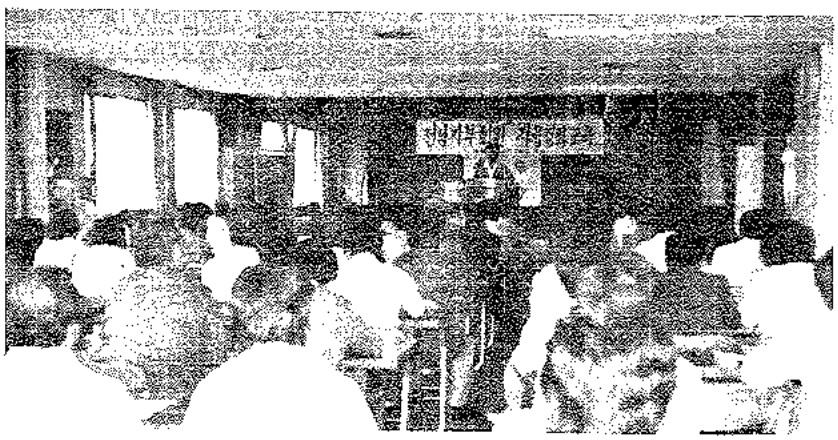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화운동의 활성화와 생활화를 위해 결의문안을 채택해서 적극적인 실천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우리 건축사일동은 건축행정부조리 척결에 선봉이 되자.

□ 둘째 : 회원의 정신자세 확립으로 정화운동과 청탁배격에 솔선수범하자.

□ 셋째 : 우리 건축사일동은 건전사회 육성에 역군으로서 솔선수범하자.

支部別 淨化運動 활발



淨化運動의 생활화를 위한 支部別 활동 상황이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중 본회 산하 市道支部別로 벌인 정화추진사항을 보면, 서울支部는 지난달 25일 회원간의 단합을 통한 동운동의 활성을 위해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겸한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보다 앞서 10일에는 동支部 사무국장이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상담을 통해 일반시민과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 상담회수는 총 6백81건으로 집계되었다.

부산支部도 태풍피해로 인한 이재민 돕기운동을 전개해서 회원들로부터 답지한 1백22만원의 성금을 부산시에 기탁했으며 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핵심위원 선발과 회원진정건에 대한 정화위원의 조사등을 실시했다.

강원도支部는 허례허식추방, 불량제품고발, 명랑한 직장분위기조성, 질서관념의 체질화, 분수지키기, 봉사자세확립을 통한 정화운동의 심화를 꾀했으며 불우이웃돕

기로 20여만원을 모아 전달한데이어 수재민 돕기로 34만4천원을내놓았다.

충남支部의 경우는 일부회원의 물의를 조사해서 정화소위원회에서 경고키로 했으며 질서 이념의 체질화와 자체교육을 통해 정화이념을 고취시켰다.

전북支部도 건전한 국민정신과 사회기강확립을 위한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정화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전북대학교 장명수 김귀달교수를 초빙, 정화운동과 우리의 자세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전남支部는 자율정화결의 대회 및 회원정화교육을 지난 8일실시하고 동 운동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는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支部 회의실에서 2시간 30분에 걸쳐 실시 되었으며 결의문 채택도 있었다.

특히 대회가 끝난 자리에서 태풍으로 인한 수재민을위한 즉석모금으로 51만2천원을 모아 관계처에 기탁하기도 했고, 수재민 복구주택에 대한 설계비 전액을 무료로 봉사하기로 결의했다.

경북支部도 질서관념의 체질화와 불우이웃돕기 회원 정신교육 등을 통해 동운동의 적극화에 힘썼으며 경남支部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대민봉사 및 기강확립 등으로 동운동을 다졌다.

제주支部에서는 보수요율지키기를 통한 덤핑 방지, 회원정화교육, 봉사정신 발휘하기, 부당한압력·청탁배격·기강확립등을 펴 정화운동의 심층화에 주력했다.

建築界뉴스

건축가 축제가져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81 건축가축제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에서 열렸다.

문공부를 비롯한 보사부 문화예술진흥원 예총 건축학회 건축사협회등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등의후원으로 막을 올린 이번 행사에는 作家展을 비롯해서 집합주택전등이 있었으며 강연 및 토론과 협회시상등이 있었다.

屋上美觀심의
모든 새건물에 적용

앞으로 서울시내에 세워지는 모든건축물은 옥상부분에 대한 미관심의를 통해야한다. 서울시는 이제까지 지상에서의 건물가시권,측면과 측면의 미관에 대해 규제해 왔으나 88년 올림픽 서울유치를 계기로 공중에서의 경관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건축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현재 건설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옥상면적이 넓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는등 조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建築不況으로 市財政압박

건축경기가 2년가까이 침체됨에 따라 서울시가 심한 재정압박을 받고있다, 이때문에 서울시는 금년 추경에 일체의 신규사업을계획하지 못하고 유류대 인건비등의 인상에 따른 유지관리비증액과 잠수교 2층공사에 따른 자재구입비등 불가피한 지출세목만을 정해놓고 있다.

서울시는 추경세입을 예산 절감으로 남은 50억원, 과년도체납세입 85억원, 재산매각등 3백억규모로 잡고 있으나, 세출부문을 보면 유류대 및 인건비상승 1백20억원, 잠수교 2층공사 자재구입비 70억원, 제1한강교 및 상도터널 공사비증액 20억원, 전국체전준비금15억원등 굵직한 세목만도 2백5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이처럼 재정압박에 시달리게된것은 금년 일반회계에서 5백84억원을 지하철 2호선건설에 투입한데다 2년가까이 건설경기가 침체, 취득세및 등록세 수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때문이다.

8월말 현재 취득세징수액은 3백16억원으로 작년같은 기간 3백15억원에 비해 불과 1억원이 늘어났을 뿐이고 등록세는 작년 8월 현재 3백60억원 보다 90여억원이 많은 4백54억원이었다. 등록세 부문에서 90여억원이 늘어난 것은 롯데 두산 한일 빌딩등 10억원이상 등록금을 낸 대형건물이동록했기 때문이어서 이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물가상승률에 불과한 25%정도가 늘어난것이다.

서울시 당국자는 『8월말 현재 건축허가건수가 2만4천6백15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87%선으로 처져 내년도 세입도 어둡다.』고전망하고 『내년 예산도 정부예산 증가폭 22%선보다 낮은 18%선에그치지않을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내년에도 지하철 2호선 건설비와 3-4호선보상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신규사업은 극히 제한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일반호텔 新設허용
88올림픽 대비해서

서울시는 숙박업소의 종류에 일반호텔을 신설, 이날부터허가를내주기로 하는 한편 여관丙 등급은 폐지키로 했다.

이는 숙박업소의 질을 높이고대규모화 하기위한것인데 신설된업종

인 일반호텔과 여관 甲·乙은 오는 88년 올림픽 개최에따른 관광객의 수용에 큰 몫을 할것으로 보인다.

일반호텔은 관광사업법에 따른 객실 40개이상이면 甲, 30개이상이면 乙호텔로 허가가 나간다.

일반호텔은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서 폭12m 이상의 도로변등지에 신축할 수있고 객실요금은 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일반호텔은 방의구조를 양식(9m²이상), 한식(7m²이상)으로 나누고 각 방마다 수세식 변기 및 냉·온수도전을 설비한 욕실, 적당한면적의 현관과 로비시설을 갖추도록했다.

서울시는 특히 기존여관에 대해서도 조건부호텔허가를 내주고 1년내에 시설을 완비토록할 방침(1차에 한해 3개월연장)으로 있어 앞으로 일반호텔이 대폭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建設業면허계속 제한키로

건설부는 건설업신규면허발급에 대한 제한을 다소완화, 현행처럼 계속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성있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각종 면허발급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건설업면허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국내에서 발주되는 工事量과 기술人力, 장비등에 한계가 있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아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신규면허는 계속 제한키로 한것이다.

현재 전국의 건설업체(면허소지자)수는 5백8개에 이르고있지만 30%이상이 심한 자금난으로 도산직전상태에 있고 건설업체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年間 17억원이상의 工事物量을 맡아야하는데 올들어 工事受注실적이 17억원이상인 업체는 1백36개社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신규면허는 발급이 사실상 중단되지있어 재무구조가 나쁜 不実業体라도 면허자체에 프리미엄이 2~3억원이 상이 붙어 거래되고 있으며 市道에서 발급하는 単種면허도 2~3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을 주어야 살수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림픽投資축소조정

서울시는 오는 88년도 올림픽개최를 위해 과도한 투자를 하지않는다는 방침 아래 당초계획했던경기장시설과 선수촌건립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오는88년에 개최될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과도한 지출을 피하고 가급적 기존시설을 확충보완해서 알뜰한 경기운영효과를 올리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江東구 둔촌동 80여만평위에 건립할 예정인 국립경기장내 보조 경기장들의 규모 및 시설내용을 일부축소하고 선수촌의 건립도 가급적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선수촌의 건립을 억제하고 그대신 각대학기숙사에 자금을 지원, 올림픽 참가선수와 임원들이 묵을 수 있도록 기숙사시설을 확충, 개선해 나가고 국립경기장의 보조경기장건립을 대폭 취소, 승마장과 자전거 경기장만 건립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IOC에 제출한 경비소요액중 직접투자비로 책정한 6억달러를 절대 초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市廳舍의江南구 瑞草동 이전 계획도 올림픽이후로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있다.

首都圈内 골재 品貴예상

首都圈地域에 供給할 수 있는 京畿도内의 骨材埋藏量이 앞으로 10餘年안에 完全히 바닥날 것으로보여져 이에 대한 對策이 時急한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京畿도에 의하면 지난 78년부터 서울등 首都圈地域에 骨材를 供給해온 京畿도 廣州군 東部면 消沙리 漢江邊一帶의 採取可能 殘存骨材量은 이날現在 1천300만m³에 不過, 오는 82년 下半期중에는 바닥이 나게된다는 것이다.

그 以後부터는 京畿도 驪州군驪州읍 羊島의 漢江邊一帶와 波州군 汶山읍 草坪島 臨津江周邊의 骨材를 採取, 首都圈에 供給할 豫定이나 이곳의 埋藏量 1억6천만m³(驪州 1억m³ 波州 6천만m³)도 現在의 年間 平均消費量 1천500만m³씩이 繼続 供給되면 오는 92년末께 바닥날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骨材供給價格面에서도 洋沙地區의 骨材는 서울과 隣接, 모래의 경우 한트럭(7m³)当 3만5천원씩에 供給되고 있으나 앞으로 採取될 여주등지의 骨材는 需要處인 서울과의 距離가 80km가량 떨어져 있어 運搬費를 包含, 5만원線을 넘을것으로 보여져 消費者負擔이 커질것이 豫想되기도 한다.

京畿도는 1餘年後에 닥칠 骨材供給難을 解消키위한 方案의 하나로 지난79년 安養시 石水동 冠岳山一帶의 돌산開發에 着手, 지난해에는 쇄석骨材 30만m³를 올해는 지난8월末 現在 80m³를 生産, 道路鋪裝用등으로 供給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業体에서 이의 使用을 꺼려 20餘만屯의 在庫가 쌓이고있다는 것이다.

住宅신축許可크게低調

올들어 서울의 住居用建築物 新

築事業이 繼続沈滯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市에 의하면 올들어 8월末 現在 아파트등 住居用建築物 新築事業承認實績은 모두 2만4천615家口로 最近 몇년사이 最低水準을 記録했던 지난해의 같은期間 2만8천426家口에 比해서도 87%線에 머물고 있는 實情이다.

이를 形態別로 보면 民營과 市營 및 住公아파트를 包含한 아파트許可件數가 1만3천330만 家口分이고 民間人이 짓는 聯立住宅도 6천832家口分, 單獨住宅이 4천453家口分으로 돼있는데 지난해同期에 比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턴키·베이스入札止場촉구

邊康雨「建協」 서울市支部長은 『建設業界가 어려운 局面에 處해 있는 이때 政府가 大型住宅工事를 「턴키·베이스」또는 代案 入札등으로 發注하고 있어 中小建設業界의 經營難이 더욱 加重되고 있다』고 指摘, 『政府는 이같은 入札 方式을 止揚, 中小建設業者도 大企業과 共同으로 參与할 수 있도록 許容해줄것』을 促求했다.

邊支部長은 지난 7일저녁 6시부터 8시30분까지 코리아나 호텔 22층 스테이트 룸에서 開催된 서울支部所屬 代議員·幹事 連席懇談會에서 人事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明年에는 教育税가 新設되고 福祉國家建設을 위한 150만戶住宅建設計劃이 마련된 만큼 住宅 및 學校建設에 中小建設業者의 參与幅을 더욱 擴大해주고, 特히 88年度 올림픽施設工事에는 國内 建設業者만 參与시켜줄것』을 当局에 要望했다.

이어 邊支部長은 『建設業이야말로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産業임에도 不拘하고 社會一角에서는 如前히 建設業을 賤視하고 있다』고 指摘, 『建設業界가 合心團結하여 이와같이 그릇된 認識을 바로 잡아나가자』고 당부했다.

無許可건물 철거전면중단

서울市는 政府의 無許可建物 陽性化方針에 따라 이날부터 無許可建物撤去를 全面中断키로했다.

市의 이같은 方針은 겨울철을앞두고 無許可建物住民들의 生活을 安定시키고 政府가 9월 定期国会에 提出키로한 「竣工未畢既存建物整理에 関한 特別措置法 改正案」이 確定될때까지 現状을 保存, 陽性化対象과 範囲를 確定하기 為한 것이다.

現在 서울市内에는 総15만4천여채의 無許可建物이 道路·公園用地·河川敷地등 国公有地와 私有地를 占有하고 있다.

市는 이들 無許可建物에 대해 지금까지 全面撤去再開発為主行政에서 一部 改良해서 使用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保存 陽性化한다는 政府의 方針이지난 6월 確定됨에 따라 그동안 一部 都市計画抵触区域 및 工事区間에 있는 無許可建物을 除外하고는 事実上 撤去를 中断해 왔다.

태양열시설 資金 대폭支援

政府는 産業部分의 太陽熱 利用을 促進하기 위해 太陽熱集熱器50m^2以上 設置하는 事業場에 施設資金융자 및 税制 支援을 하기로 했다.

動資部와 에너지管理公団에 의하면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에서融資되는 太陽熱施設資金은 融資対象이 太陽熱集合器 50m^2以上을 設置하고자하는 事業者로 公団의 推薦을 받은 者이며 融資範囲는 生産業体의 경우 施設費 및 人件費, 그리고 集熱器設置者는 太陽熱施設에 必要한 資金의 90%이다.

이 資金은 償還期間이 3년据置 5년으로 融資金利는 3년까지 15%, 3년超過 8년까지 16%이며 이같은 太陽熱施設投資에는 地方税 및 取得税·財産税가 免除되고 法人税에서 8~10%控除 또는 特別減価償却範囲額의 100%중 選択的으로 支援恵沢이 주어진다. 現在 太陽熱利用現況을 보면 住宅部門에서는 漸次 利用度가 높아지고있으나 産業体는 低調한 実情이다.

建設 새 需要5천억 예상

민간업계는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오는 88년까지 전기 전자 통신분야에 1조원, 건설부문에 5천억원등의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기술 및 신제품개발, 유망품목의 量産体制확립을 위한 장기투자전략을 서두르고 있으며 식품및 자동판매기업계도 판매급증에 대비, 제품개발에 나설계획이다.

재계에 따르면 컬러TV보급률이 현재의 20%에서 오는 88년까지는 80%, VTR VDP비디오관련제품은 1%에서 10%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金星社등 가전메이커들은이같은 내수급증을 기반으로 우리전자제품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대규모시설투자 및 신제품개발과 품질고급화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다.

통신분야의 경우 통신수용량을 크게 증가시켜주는 光纖維 케이블의 실용화를 오는 83년까지 달성하기위해 金星電線과 KAIST (한국과학기술원)가 현재 제5차실용화시험에 돌입하는 등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光通信端局장치 개발도 당초보다 2~3년 앞당겨 83년까지 실용화될 전망이다.

또한 올림픽개최로 국제통신시설의 대폭 확장에 따른 테렉스량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전자식 텔레프린터 팩시밀리등이 82년 까지 개발될 예정이고 인공위성을통해 중계할 수 있는 장거리 무선통신설비도 업계가 체신부의 계획에 따라 현재의 7백64회선에서 3천

회선으로 증가시킬 생산능력을 갖출 방침이다.

업계는 이같은 전기 전자 통신 설비확대로 인해 반도체와 컴퓨터 분야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를 계기로 반도체기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컴퓨터 터미널(CRT) 및 중앙제어장치(CPU)의 국산화등 야심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올림픽경기시설건설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의의를 두고 시설건축시 건축공법상의 새로운 기법도입등에 주력, 올림픽대회를 건축공법상의 질적인 개선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아파트값 自律化계속

정부는 아파트건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는한 아파트값을스스로 정하도록 自律에 맡기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건설업자들로부터 받고있는 공공용지 무상증여를 규제, 아파트값 상승요인을 줄이기로했다.

李圭孝건설부차관은 아파트건설업자들이 常識線을 훨씬 뛰어넘어 폭리를 취하거나 無住宅국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투기군들이 몰려드는 경우 정부가 당연히 지도와 단속에 나서겠지만 상식선을 지킬 때는 간섭없이 업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하실 베란다등 불필요한 공간을 넓힘으로써 아파트값을 비싸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승인때 설계심사에서 감리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李차관은 또한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아파트건설업자들로부터 학교부지등 공공용지를 기부받고 있는것을 규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간접적으로 아파트값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아파트 건설업자들의 25평이하 서민용 건설은 기업의 사회적윤리측면에서 권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李차관이 정부의 아파트가격 자율화방침을 밝힌것은 지난번 韓信工營아파트폭리사건으로 침체돼있는 민간아파트 건설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아파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육공원 크게 擴充키로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할수 있도록 체육공원 및 야영장 등산로 자연공원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漢江을 비롯한 中浪川변등의 폐천부지와 서울근교산을 비롯 ▲龍門山 ▲天馬山 ▲鐵馬山▲鷹峰山 ▲蘇利峰등가까운 경기도지역산에 대한 입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또 지난 4월착공한 蠶室洞 漢江고수부지 체육공원 2만 1천평을 이달말까지 완공, 개방하기로 했는데 3억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공원은 축구장 2개, 야구장 1개, 배구장 3개, 롤러스케이트장 1개소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도에 개발될 고수부지 체육공원은 ▲汝矣島 샛강 24만평 ▲安養川변의 高尺洞-楊花橋사이 14만평 ▲千戶大橋-蠶室대교사이의 蠶室쪽 4만평 ▲中浪川변 5만평등 47만여평으로 모두 개발하는데 약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올겨울부터 漢江하상등에 대단위 간이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무료로 개방, 어린이들이 얼음을지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당국자는 『7년후의 올림픽에 참가할주역들을 국민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들이므로 이들이골목을 벗어나 자연속에서 맘껏 뛰어놀수 있도록 하는게 서울시의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汝矣島 10만평 ▲第3漢江橋 남쪽 2만5천평 ▲蠶室2洞 2만1천평등 모두 7개소에 23만 5천평의 체육공원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또 ▲北漢山 ▲道峰山 ▲水落山 ▲佛岩山 ▲龍馬山 ▲大母山 ▲淸溪山 ▲冠岳山등 8개근교산에 4억 8천여만원을 들여 46개소의 야영장을 설치하고 1백40km의 등산로를 정비, 청소년 들이 자연과 벗하고 인격을 순화할 수양의 장소로 개방했다.

안정위에 다진도약 이룩되는 자주외교

元老建築家探訪

金 熙 春 博士

건축은 그 시대 생활상의 종합적 지표

□ 出生地 / 함경 함흥시/ □ 학력 및 경력 /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졸업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수료 / 조선총독부영선계기수 / 서울공대 건축학과교수 / 한국건축가협회장 / 대한 건축학회장 / 국전운영위원 / □ 주요작품 / 서울농대교사 · 강당 / 서울공대 기숙사 / 서울사대 과학관 · 도서관 / 워커 · 힐 주건물 / 수원 종합원호원 / 경기도청사 / 서울대 종합캠퍼스마스터플랜 / 정신문화연구원 / 한국태양에너지 태양열주택모델하우스 및 보급센터 / □ 수상경력 / 서울특별시문화상 / 대통령표창상 / 대한건축학회작품상 / 국민훈장목련장

□ 対談 黃一仁 (본지 편찬위원)

□ 日人들 틈에서 공부— 열세명중 셋만 한국인, 결국 혼자만 남아

□ 黃 완연한 가을 날씨 입니다. 건강은 언제 뵈어도 좋아 보이십니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 모양 이지요.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 金 사실은 지나간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이렇쿵 저렇쿵 회고담이나 하고 싶지가 않아 다른데서도 이런 기회를 갖자고 하는걸 모두 사양해 오고 있는 터입니다. 지난봄 정년퇴임한 후에 학교는 일주일에 하루씩 나가고 있읍니다만 몇군데 기관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고 또 딴 대학에도 몇개 강의를 떠 받게 되어 한일없이 바쁩니다.

□ 黃 박사님은 고향이 함경도시지요?

□ 金 저는 함흥시에서 소지주의 세째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 서당을 다니다가 함흥고보에 들어갔읍니다. 여기서 항일 학생운동과 관련되어 퇴학당하고 서울로 오게 되었죠. 보성고보를 거쳐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신인 경성고공 건축과엘 진학했읍니다. 당시 건축과 학생이 모두 열세명이었는데 한국인 학생은 세명 뿐이었읍니다. 한분(安尙英)은 이미 작고하고 한분(李樑)은 기계과로 전공을 바꾸셨기 때문에 건축과 동기생(1937년 졸업) 중 혼자 남은 셈입니다.

□ 黃 지금은 건축과를 나온 후 취직할 수 있는 길이 비교적 다양하고 또 사회적 수요도 매우 많아서 건축과졸업생의 인기가 괜찮은 편입니다만 그때는 어떠 하였는지 모르겠읍니다.

□ 金 당시는 졸업 후 주로 관공서 같은데로 취직하지 않으면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던 때라 지금하고는 사정이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지요. 저는 졸업후에 군대로 끌려갈 수도 없고 해서 소위 조선총독부의 관방회계과 영선계에 취직했읍니다. 그 후 동경 건물회사에 근무하였읍니다. 그 당시 설계했던 건물이 황해도의 명신중학교 강당,

□ 설계사무소 운영하며 서울농대·사범대·공대 기숙사등 작품남겨

현 그랜드호텔 자리에 있던 건물, 명동의 白井빌딩, 또 田中씨주택(旧대법원장 공관)등이 있읍니다.

□ 黃 현대 건축을 수용하는 과정이 일본이라는 통치국을 통해서였다는 것과 해방후의 민족 분단에서온 비극적 혼란때문에 한국은 현대건축의 시작부터가 상당히 파행적이었다고 보아 집니다.

□ 金 비단 건축뿐 아니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요. 제가 학교다니고 할 무렵 꼬르뷔제 전집같은 것이 건축도들에게 상당한 감명을 주긴 했지만 물론 한국적 건축의 바탕이랄까. 주관적 입장에서 이를 볼 처지는 전혀 되어있지 않았읍니다. 해방후 저는 처음 주택영단에서, 육이오 동란시 부산 피난지에서 철도청 건물에서 전후 북구등 당장 필요한 건물 설계를 하였읍니다마는 사실상 60년대에 들어가기 까지는 「건축」다운 작업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었죠.

□ 해방직후 9~10여명이 모여 家協会 만들고 우리나라 건축계 이끌어

□ 黃 일제시대를 제외하면 50년대말 부터 60년대 까지가 우리손에 의한 현대 건축의 수용기가 되겠군요. 당시 이야기를 좀더 해 주시죠.

□ 金 6.25피난시절인 부산에서 서울공대에 부임했읍니다. 57년 미국에서 돌아와 본격적으로 건축설계에 종사했다고 할 수 있지요. 당시 건축계에는 20~30명 정도가 활약하고 계셨읍니다. 저는 엄덕문, 김창집씨 등과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였지요. 그때 남긴 것이 서울농대의 교사 및 강당을 비롯하여 사범대, 서울공대의 기숙사 등입니다. 당시 건축가들중 9~10명이 모여서 지금 건축가 협회등을 발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합시다.

□ 黃 최초의 본격적인 현상공모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의 현상설계가 60년대에 있었죠?

□ 金 그렇지요. 남산의 국회의사당계획은 결국 자유당 정권의 붕괴와 함께 취소되고 말았지만 당시로는 커다란 행사였읍니다. 김수근, 박춘명씨등이 이때 데뷰 하게 되지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된 아파트단지라 할 수 있는 마포아파트, 또 위락시설 콤플렉스인 워커힐등 규모에 있어서나 시설 내용에 있어서나 한 걸음진보한 사업들이 계획되었읍니다. 워커힐은 강명구, 엄덕문, 이희태, 나상진, 김수근 제씨등과 함께 참여했었는데 제가 설계했던 메인 빌딩은 몇년전 호텔을 짓느라고 없어져 버렸읍니다.

□ 黃 전통문제에 대한 논의도 그 무렵에 대두되기 시작하였죠.

□ 金 종합박물관을 건립하면서 대두되었읍니다. 돌이

□ 종합박물관 건립하며 전통성 논의 시작돼—. 계속 정진되어야 할 숙제

켜보면 60년대 우리나라 건축계는 우리 근대사의 비극처럼 정통성이라는 뿌리에서 피어난 식물은 아니었읍니다. 소위 국제주의적인 경향이 무비판하게 수용되던 극단적인 상황이었지요. 전통에 대한 해석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읍니다. 「버나글러」문제는 사실상 지금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읍니다. 「팀10」이후 현대건축에서 추구해온 것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풍토주의적 경향이라고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약간 이상한 경로로 제기되긴 했지만 전통성에 대한 추구는 건축의 본질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黃 서양의 근대건축이 산업사회의 산물인데 비하여 우리에게는 그러한 당위성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A. 토플라 에 의하면 서양의 산업사회는 50년대 중반부터 제3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산업사회로 진출했던 시기와 일치한 것이 재미있읍니다. 어쨌던 70년대 우리 건축에는 산업사회의 특질이라고 하는 「표준화」「동시화(SYCHRONIZATION)」의 경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새마을 주택등에 나타난 이런 조류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요?

□ 金 70년대에 양적으로는 건축물이 많이 늘어났으나 이에 상응할 만한 질적 성장이 있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영동지역만해도 과연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생활환경이 이러한 것인가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읍니다. 70년도 건축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온 새마을 주택만해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지도급 건축가의 참여가 외면된 채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한, 또 앞으로 지불해야 할 실패작입니다.

어쩌다 찌그러져가는 옛 동네에 들어서게 되면 가슴에 반짝하며 참 좋았구나, 마을이란 것이 있었구나—하고 느낍니다. 요즈음 새마을 주택은 마치 도시 산업의 찌꺼기 같이 보입니다.

□ 양적으로 늘어난 70년대의 한국건축—. 앞으로 이점에 대한 평가 있어야.

아시다시피 건축은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일찌기 기디온은 「어느시대의 성격은 그 시대가 아무리 위장하려해도 건축으로 반영된다」고 했지요. 건축은 단적으로 그 시대 생활상의 종합적 지표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다양해 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에 미칠 수 있는 건축가의 역할은 점점 제한되어 진다고 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이러니 별수 없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럴수

록 건축가는 더욱 한발 앞서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진취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黃 그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인 좋은 기회를 슬기롭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국가적인 불행으로 생각됩니다.

A. 알토 같은 분이 말했듯이 좋은 하우징은 좋은 개개의 건물을 아무리 갖다 놓아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놓인 마을, 도시, 지역들이 서로 조화있는 배경으로 될때 가능한 것 같읍니다. 말씀하신것 같이 이는 사회 전체의 문화적 수준의 향상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하겠읍니다. 앞으로의 설계 조직으로써 토탈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평소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 金 미국의 베케트가 「토탈디자인」의 개념을 말했죠. 어느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작품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사람이 모인 총체적인 의견이 건축물에 반영되어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는 개인의 영웅주의적인 의식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픽도 내부 혹은 외부에 큰 영향을 주고있고, 혹은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외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여러가지가 현재에는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축가 개인이 다할 수는 없고, 따라서 앞으로 설계사무소 운영도 여러 아이디어가 총체적으로 모여 공동체로서 움직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黃 김박사님께서는 평생을 교육계에 바치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건축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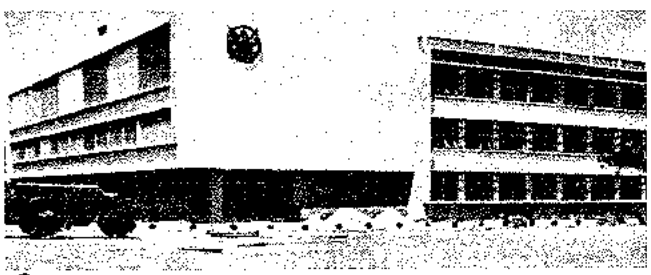
□ 金 할얘기가 많으나 내가 못한것이라서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건축공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건축작품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설업체등으로 나가고 있는것도 나름대로 의의가있겠죠. 그러나 역시 작품을 빼면 건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의 범위도 人文社会的인 것에 많은 포지션을 두어야 합니다. 건축만으로는 이제는 안될 것입니다. 분야가 넓어지잖아요. 오히려 기술등은 자료를 통해 쉽게 얻을수 있지만 철학, 사상등은 역시 많은 공부를해야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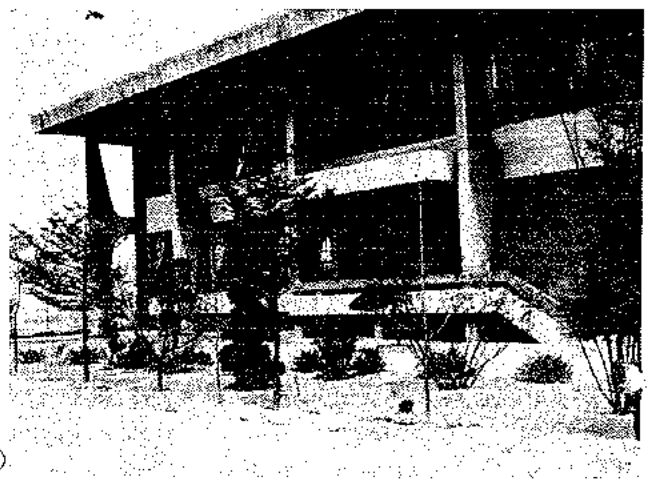
이렇게 되려면 건축은 독립된 대학으로 되어서 종합적으로 육성시켜야 될겁니다. 또 대학교수들의 논문을 작품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어야 합니다. 책이나 글만으로는 안되고 교수들도 역시 작품활동을 해야 할줄 압니다.

□ 黃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 金 무엇보다도 우리 건축사들이 건축행위를 단순히 건물에 국한하여 생각지 말고 환경창조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다룸으로서 우리 생활의 질을 높히는데 힘써야 겠읍니다. 국민주택의 보급, 올림픽등 많은 문제, 산적한 일거리를 앞두고 건축사 협회가 앞장서서 건축인들의 유대강화에 힘써주기를 당부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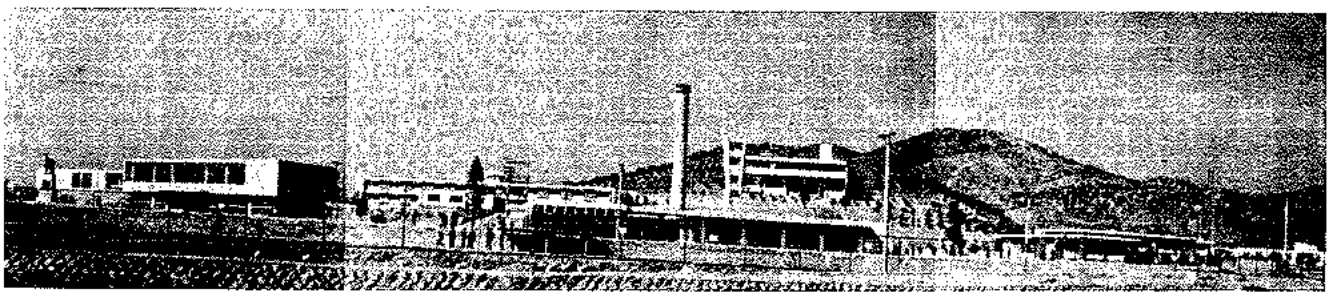
①



③

①서울대 농대
②종합원호원
③서울공대도서관

②



"日本의 새로운 居住環境"

朴 亂 成
(高麗大学校 教授)

1) 居住環境 調査를 위한 紀行 :

1979년 7월중순경 더위가 본격적으로 더해가는 여름의 季節에, 東京의 무더위는 서울의 여름의 더위와는 아주 다른 견디기 힘들정도의 지독한 더위였던 것이다.

이 무렵 필자는 동경에 滯在중 일본의 早稱田大学 교수진을 중심으로하는 "日本의 새로운 居住環境"에 대한 調査研究를 課題로하는 연구팀에 가담하게 되어서 일본의 大阪을 중심으로하는 지구에 새롭게 개발하여가는 住居団地의 개발상황을 직접 돌볼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여기에서 大阪지구에 속하는 泉北New town과 奈良부근에 있는 平城New town을 現地訪問한 내용을 몇자 紀行文식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紹介하여보고져 하는 것이다.

이 조사연구팀의 구성을 보면

건축·도시계획 …… 6명

사회학·경제학 …… 5명

으로서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이 되었고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각교수밑에 1~2명정도의 보조연구원이 따르는 大家族의 구성이었던 것이다.

필자가 본연구팀에 参與하게 된것은 早稱田大学의 戸沼幸市教授의 적극적인 후원과 吉阪隆正教授의 호의에 의한것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필자가 많은 연구비를 축내게하고 이렇다할 成果도 못올리고 歸国하게 된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팀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전에 몇차례에 걸친 会合을 가졌었으며, 이때마다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의 진행상황과 연구내용에 대한 토의를 가졌던 것이다. 현장조사에 대한 실시계획은 출발 2개월전에 이미 출발일자와 조사진행에 대한 계획내용 그리고 방향성 등을 확정지었던 것이다.

조사를 위한 연구에 참가할 사람들은 7월16일 하오 7시에 大阪驛에서 가까운 新阪急호텔의 로비에서 集合을 하기로 정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이기회에 京都의 여기저기를 求景하기로 작정을하고 이날 아침 일찍이 早稱田大学의 舍宅을 떠나 東京駅에가서 新幹線의 電鉄車를 타고 京都로 向하였던 것이다.

이 전철차는 동경의 빌딩群을 순식간에 지나쳐갔고, 郊外의 주택군도 지나, 빨리도 시골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의 시골風景은 여기서 찾아볼수가 없었던 것이다. 京都가까이의 시골風景을 빼놓고는 車窓을 통한 시골風景은 시골아닌 오로지 住宅群만이 힘찬 勢力을 갖고 뻗어가서 논이나 밭의 形狀은 이 住宅群사이에서 萎縮的으로 되어 언제 宅地로 変할지 모르는 마치 敗北軍과 같은 비참한꼴로 남아있는 실정인 것이다. 実로 동경에서 경도사이는 線状의 巨大都市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国土가 서울에서 釜山까지 새마을号를 타고 차창을 통하여 논밭과 林野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住宅群만이 断續的으로 계속이 되어 있다고 상상을 할때 이것이 과연 좋은 未来가 될수 있을것인가 하는 疑心만이 筆者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마는 것이었다.

京都에 도착하여 필자는 정오이전이지만 빨리 点心을 들고 京都市内의 観光버스에 몸을 委託하고 京都의 名所를 관광버스案内員의 얘기를 들으면서 옛 遺跡들을 구경을 하였다. 경도市内는 高層建物이 別로 없고 옛 建物과 現代的인 建物이 混合이 잘된 기분좋은 都市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저녁에 京都에서 国鉄로 大阪으로 向하였던 것이다. 京都와 大阪사이는 工場建築과 住宅群으로 꽉차있어서 숨쉴틈도없는 여유없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地図上으로는 大阪과 京都와의 사이의 行政的인 구분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나 外観上으로나 大阪과 京都는 한덩어리의 커다란 巨大都市인 것이었다.

하오 7시경 大阪에 도착하여, 금방 新阪急호텔을 찾을수 있었으며 徒歩로 거리구경을 하면서 新阪急호텔로비에 들어섰던 것이다. 로비에는 몇명의 一行中의 조사연구원들이 도착하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다.

모두 모여서 연구간사인 寺門氏의 지휘아래 호텔의 投宿計劃의 설명을 듣고 각실에 2人씩 마련이 되어 필자는 吉阪교수와 같은방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방을 정하고 방에 들려서 휴대품을 놓고 나와서 로비에 다시 모여서 一行은 호텔부근의 中国料理점에가서 저녁을 들면서 談笑할 시간을 가졌으며, 夕食后 다시 몇名이 모여서 茶房에 들려 이야기를 나누고 난后에 호텔에서 一泊을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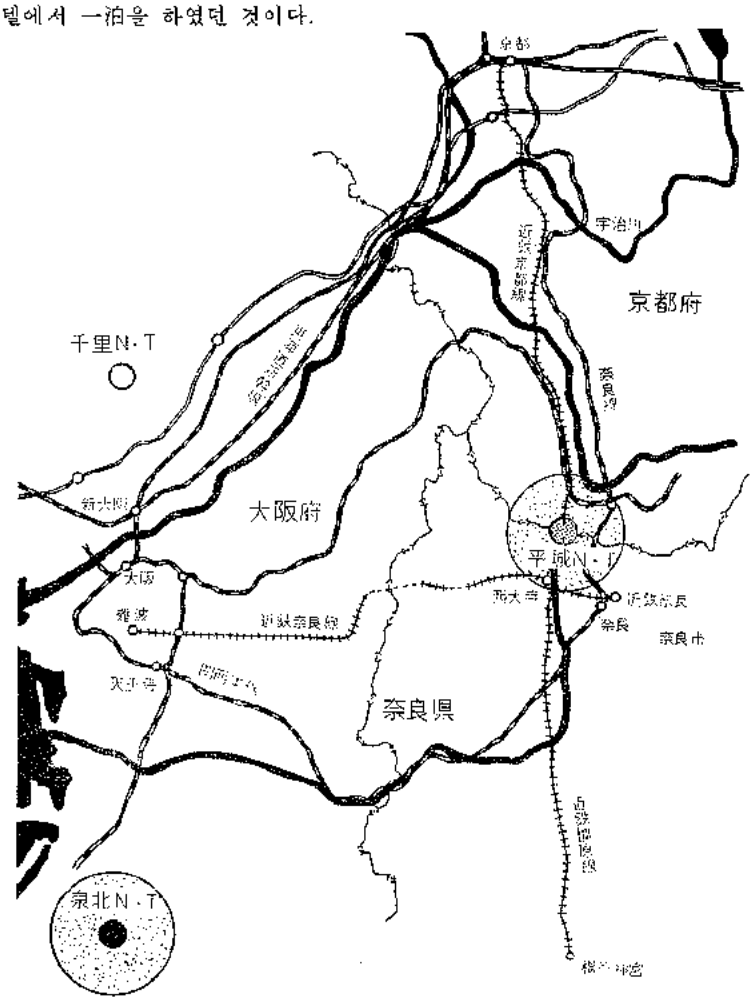


그림-1. 泉北 및 平城 New town의 위치.

2) 泉北New town :

다음날 아침은 비가 약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침을 호텔에서 들고 준비된 車輛으로 一行은 大阪府의 청사로 향하였던것이다. 大阪府청사의 企業局의 会議室에서 泉北New town計劃에대한 설명을 들은것이다. 이 会議室 窓밖에는 우뚝솟은 大阪城의 遺跡이 裝観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서 大阪府의 관계직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泉北New town에 관한 計劃에서부터 공사사업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内容을 説明하였던 것이다. 어느듯 点心時間이 되어 大阪府에서 준비시킨 도시락을 들면서 泉北New town에 대한 여러가지의 質問과 대답을 교환하면서 下后 1時경에 준비하여논 마이크로버스便으로 泉北New town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泉北New town은 大阪의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20km떨어진곳에 위치하고 있고, 堺市에서는 10km떨어진곳에 있는 것이다. 이곳은 周囲가 모두 田園地帯로서 既成農村聚落이 산재하여 있으며, 이 泉北New town은 3개의 丘陵으로 구성된 야산으로된 林野를 개간하여 開発한곳으로서 어디까지나 住居環境을 中心으로한 새로운 town인 것이다.

이 泉北New town은 처음부터 計劃的으로 만들어진곳이며, 大阪과 堺市의 都市의 通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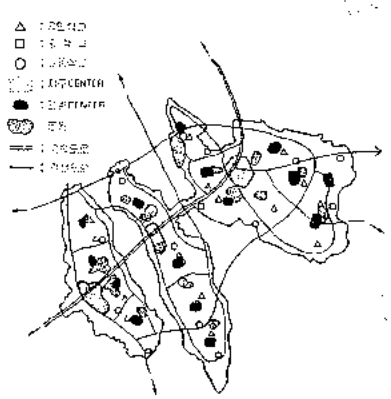


그림-2. 泉北 New town의 計劃図

人口를 対象으로하여 設定한 住宅団地를 為主로하여 개발을 한것이 특징인 것이다. 여기의 人口는 18万名을 수용할 계획이며, 1헥타아르당 평균 130명의 밀도를 갖는 지역계획을 갖는곳이다. 주택의 공급은 약5만3천5백戶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의 개발事業은 이미 마무리段階에 들어가고 있으며, 入住者들이 13만명이나 이 새로운 Town에서 生活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개발지역에는 幹線道路와 철도가 연결되어 있었고, 지구Center와 국민학교, 유치원, 近隣公園등의 공공적인 시설들이 계획적으로 調和를 갖추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행은 우선 여기에 到着하여, 地区Center가 있는 부근에 공원이 있는 곳으로 이지역에서 약간 높은곳에 자리잡고 주위를 잘 살필수있는 鉄骨造의 현대적인 감각을 주는 展望塔이 있는곳으로 안내되어, 車에서 내려 이 전망탑에 올라가서 주위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전망탑에서 바라본 泉北New town의 印象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住宅環境을 가지고 있는 快適한 곳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전망탑을 한바퀴 도는동안 中層의 아파트群과 高層의 아파트群이 서로 調和있게 배치가 된 장관을 볼수가 있었고, 여기저기에 自然的으로 형성이된 湖水와 그 주위의 緑化부분의 여유있는 Open Space는 깨끗하고 상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전망탑을 내려서 여기저기 실지로 답사를 하였으나 내리는 비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충분한 見学을 할수 없었던 것이 아쉬었다.

이 New town은 3개의 지구로 나뉘어져 있고 각지구는 다시 細分이 되어서 近隣Center를 중심으로 공원과 학교 그리고 診療所등의 공공건물이 近接하여있는 한 덩어리의 周囲에는 住宅地가 구성이 되어있고, 이 住宅地도 다시 高層아파트의 高密度部分과 中層아파아트部分 그리고 Town house와 独立住宅의 地域이 計劃的으로 区分이 되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独立住宅지역을 달리는 車속에서 車窓을 통하여 住宅環境을 본 인상은 주택 그 자체의 건물보다도 垈地축성을 위한 築台구성이 대형의 自然石을 採取하여 보기좋게 꾸미고 그위에 담장을 돌린 그 形態는 각양각색의 것이나, 여기에서 풍기는것은 누구에게나 威圧感을 주게할 정도의 것이었다. 車속에서 누구인지 "벼락富者의 집들이 아니냐"고 중얼거리는말을 들을때 필자도 역시 이 豪侈한 인상이 머리속에 깊이 새겨져 지울수 없는 강한것의 하나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다음에 一行은 이지구에서 개발時 発掘하여 만든 考古資料館의 展示場을 방문한 것이다. 이 展示場은 公園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緑陰속에서 쉬면서 見学을 할수있게 마련된것은 참으로 特色있는것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理蔵되어있는 遺物들을 工事中에 発掘하여 保存할 수 있게한것은 실로 価値있고 귀중한것임은 더말할나위가 없는것이다. 이러한 発見은 이 開発工事진행에 많은 차질을 주어 개발속도를 늦추게한것은 이 개발사업에 관계한 사람들에게 준 고충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좌우간에 考古資料展示場을 갖는 New town도 特色이 있고 평가할만한것이라고 判断되는 것이다.

一行은 다시 비가내리는속을 이동하면서 見学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얼마안가서 2층건물로된 Town house가 있는곳에 도착하여, 徒歩로 이 주위의 生活環境을 돌볼수 있었던 것이다. 약간의 경사진 대지위에 세워진 Town house는 그 外観도 재미있게 꾸미어져 있었고, 각戶마다 approach에 의하여 区切된 현관앞部分에는 개인의 취미에 따라서 심어진 花草가 여러가지의 色彩를 가지고 찬란하게 꽃피어 있었던 것이다. 2例의 Town house 사이의 空地는 적당한 간격의 共用空間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이 사이에는 절대로 車輛이 못들어오도록되어있고, 중간에는 壇을 만들어서 잔디를 심는다던가 관상수를 심는다던가 꽃을 심는등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壇과 住宅사이에는 歩道가 만들어져있고 여기에서 玄関까지 approach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의 이 環境은 일견 平和로웠고, 아름다우며, 人情이 넘쳐흐르는 近隣관계를 가진 庶民的이고도 対話가 풍부한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生活環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格式的이고 豪侈하고, 威圧的인 独立住宅보다는 오히려 보다 人間的이고 따뜻한 温情이 넘쳐흐르는 居住環境이 바로 이 Town house가 아니겠느냐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反面에 이와같은 Town house가 近隣관계가 차커울고, 個人主義的인 입장에서 말썽이 빈번히 생기고 서로 協力이 되지 않는다고 할때라면 이 住居環境은 어떻게 될것인가 하고 상상도 하여 본 것이다.

그리고 中層의 아파트와 高層의 아파트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들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고있는 変化있고 좋은 景観을 나타나게하고 있는것은 外観的으로 볼때 気分좋은 環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居住하는 高密度의 아파트의 住民들이 意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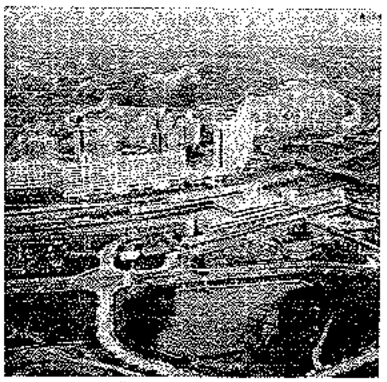


그림-3. 泉北New town의 地区Center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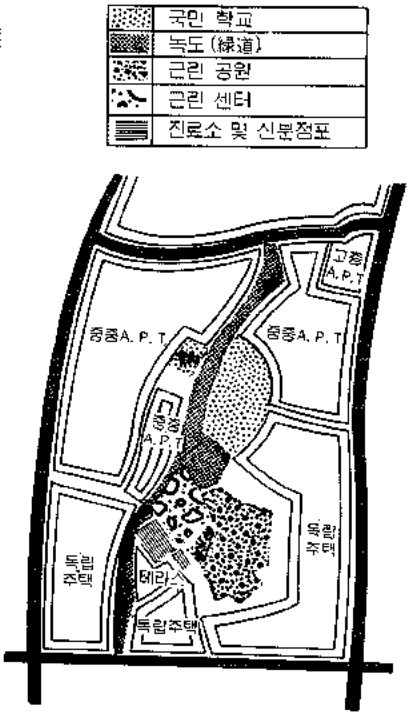


그림-4. 泉北 N.T.의 居住環境 構成.

는 살기좋은 環境에 대한 見解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變하느냐 하는것을 궁금하게 여기면서 이 아파트群을 지나친 것이다.

計劃的으로 그리고 合理的으로 시행되고있는 이 New town에서도, 개발計劃図와 현장견학을 통하여 보아, 어려운 고민이 있을것으로 생각된 것이다. 그하나는 3개의 丘陵위에 계획된 이 New town과 이 3개의 丘陵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에 있는 旣成 農村住居群과 또한 New town 周辺에 散在하여있는 農村住民들과의 合理的인 融合을 어떻게 도모하여 나가느냐는것도 하나의 커다란 課題가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住居団地의 一部分을 여기의 地主와 農村住民을 위하여 割愛시킨 団地가 있어서 자체에서 調整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中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원만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誘導가 된다고 하면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結果가 円満하게 그리고 調和를 이루는 調整이 미치지 못할때에는 New town과 旣成農村의 住居群과의 사이에는 자연히 틈이 생기고 差別的인 격리된 서로 융합이 어렵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이것은 New town 의 苦悶의 발생이 된다고 볼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泉北의 New town은 大阪에 직장 전무자를 가지고 있을때 大阪의 北쪽에 자리잡고있는 千里 New town에 比하면 利便性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千里New town의 경우 新幹線의 電鉄車도 쉬웁게 利用이 가능하며, 그리고 国道를 위시하여 각종의 中央으로 연결되는 道路와의 연결성이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比하여 泉北은 New town은 交通의 利便이 떨어지고, 특히 大阪←→泉北 New town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地下鉄+鉄道+버스라고 하는 3중의 교통수단에 의존해야 하기때문에 시간적으로나 교통비에 있어서도 개인의 負担이 커지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不利한 조건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泉北New town의 計劃당시에는 地区Center를 중심으로 하여, 駐車場의 計劃을 하지 않았던것을 事業도중에 주차장의 必要性에 따라서 駐車場計劃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Master plan이 완성된后에 자동차의 駐車場計劃을 추가로 해결을 해야한다는것도 상당한 노고가 뒤따랐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이 見学의 시간도 다 되어서 一行은 빗속을 車便으로 一但 地区Center에 가서 거기에있는 茶房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관계자들과 談笑를 할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필자는 泉北의 New town을 떠나면서 車속에서 지난 1973年 가을 PARIS의 北方에 자리잡은 Cergy pontoise의 New town을 見学한것이 聯想되었던 것이다. 이 泉北의 New town은 Pontoise New town의 切半밖에 안되는 규모이지만 그 풍기는 냄새가 비슷한 感을 금치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人間들은 누구나 이 世上에 태어나서 보다 나은 生活을 向하여 끊임없는 努力과 情熱을 바치고 있는것은 어느나라의 사람들이건, 어는階層의 사람들이건, 어느時代의 사람들이건간에 不拘하고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念願인 것이다. 이러한 念願을 실천하는 것은 또한 공통된 진실한 人間의 참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보다나은 生活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이 New town의 人間居住環境이 항상 快適性을 잃지 않고 生活의 利便性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一行은 마이크로버스편으로 難波의 地下 電鉄駅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難波駅에서 奈良행 전철을 타고 下后 7시경 奈良에 도착하여 역전부근에 있는 春日호텔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림-5. 泉北 N. T. 의 高層아파트群.

그림-6. 泉北 New town의 Town house

3) 平城 New town :

18일 아침은 비도 개이고 아직 하늘에는 구름이 완전히 걷히지 않았으나 비교적 상쾌한 날씨이었다. 9시경에 마이크로버스편으로 日本住宅公団에서 온 직원들의 안내로 一行은 호텔을 출발한 것이다.

平城New town에 직접向하지 않고 이 車는 奈良부근에 있는 높은 山頂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잘 포장된 道路는 거의 山頂가까이까지 있었고, 올라가는 途中에는 사슴들이 떼를 지면서 먹이를 뜯고 있는 아름답고 自由스러운 放牧光景을 볼수 있었던 것이다. 버스에서 내려서 一行은 좀걸어 올라가서 頂上에 도달한 것이다. 정상부분에는 약간의 平地를 가지고 있고 몇그루의 古松이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傾斜진 아랫쪽에는 나무의 숲이 우거져있었다. 이 경사지에는 잔디밭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사슴들이와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움고 평화로운 風景이었다.

頂上에서 한눈으로 奈良의 市内를 내려다 볼수 있었고 또한 그 주위의 멀리까지도 잘 보였었다. 여기에서 平城의 New town의 위치도 쉬웁게 발견할수 있었고, 또한 주위환경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立地條件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고 山

을 내려와 平城New town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平城New town은 大阪市에서 東쪽으로 27km 떨어진곳에 자리잡고 있고, 京都市에 서는 南쪽으로 29km나 떨어진곳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奈良市에서는 北西로 5.5km정도 떨어져 있는곳이기도 한 것이다.

일행은 얼마 안있다가 平城New town의 住宅公団의 開発事務所로 간 것이다.여기MAIN HALL에는 New town의 計劃図가 周壁에 걸리어 있었고, 中央部分에는 模型이 만들어져 있는 아주 정돈이 잘되어있는곳으로서 전시실과 会議室을 겸하고 있기도 한곳이었다. 여기에서 住宅公団직원들의 계획에 대한 개요와 개발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던 것이다.

여기 平城New town은 泉北New town에 比하면 그 규모가 작으며, 人口의 수용계획은 7만3천명이고 면적은 613ha에서 開発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이 New town은 奈良縣의 奈良市에 속하는 平城지구와 京都府의 相楽郡에 속하여 있는 相楽지구를 聯合한 곳으로서 行政的으로 2分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 New town의 개발사업은 平城지구에서 부터 시작을 하였던 것이다.(1970~1979) 그리고 相楽지구의 개발사업은 그당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었던 것이다.(1977~1985계획)

이 平城New town도 주택지를 중심으로한 통근人口에 대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town인 것이다. 현재 入住하고있는 人口의 70%가 大阪에 직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행은 회의실에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동안 시간이 흘러서 또한 大阪府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住宅公団에서 마련한 점심용 도시락을 회의실에서 들면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 받었던 것이다. 점심을 마치고 맑은 날씨의 무더움속을 헤치면서 현장견학을 하였던 것이다. 현장직원의 안내로 좀 높게 자리잡고있는 公園이 있는곳에 도착하여 주위를 바라보면서 현장 설명을 들었던 것이다. 이 공원은 비교적 넓고 큰 pool장도 갖춘곳이기도 하다.

여기도 역시 丘陵지대를 깎어서 住宅団地化한것을 엿볼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泉北New town과 같은 고밀도의 고층아파트라던가, 호화로운 독립주택등은 볼수가 없었으며, 中層의 공단아파트와 비교적 견실한 독립주택을 중심으로 이 New town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中層의 아파트群은 그 景観이 人間의 마음을 위압할 정도로 큰 건물들은 없었고, 어딘지모르게 여유가 있고 田園的인 情景이 넘쳐흐르는 居住環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률적이고 변화가 없는 中層아파트群은 인간의 감정을 가라앉게하여주는 反面에 인간생활에 活気를 불어주는 자극性을 볼수가 없는 아쉬움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독립주택의 団地도 泉北New town의 독립주택의 団地와 같이 豪侈한 석축의 풍경도 볼수가 없는, 泉北New town의 독립주택보다 規模가 작고 아주 庶民적인 風景을 볼수 있는 住宅地인 것이었다.

그리고 近隣센타에서 멀어진 住居地域에는 주택과 併用한 店舗가 마련된것도 있었고, 주택지의 모서리부분에는 露店도 있었던 것을 볼수 있었다. 計劃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점포의 주택의 併用과 露店에 대하여서는 생각한 일이 없고 오로지 모든 商行為는 지역Center에서 이루어지도록 計劃을 하였다는 말이 었다. 이것은 옛날부터 利用을 하여온 店舗併用住宅이 과연 計劃的인 New town에서 住宅과 店舗의 分離가 어떻게 合理的으로 進行 시켜야 할것인가도 또한 하나의 해결되어야할 課題이기도 한 것이다. 즉 理想的인 理論과 어려운 現実을 어떻게 잘 융합시켜 나가느냐가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일행은 中層아파트群이 있는 一角에 도착하여, 徒歩로 아파트群사이의 居住環境을 견학할수가 있었다. 이 아파트群의 住棟사이에 만들어진 共用空間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小川이 잘 정비가되어있었고, 곳곳에 어린아이들이 물장난을 할수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으며 어느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물장난에 熱中하여있는 모습을 엿볼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물이 아주 깨끗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餘暇를 즐기기 위하여 곳곳에 共用의 새장을 두어서 서로 먹이를 주며 近隣人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談笑를 하는 光景도 엿볼수 있었던 것이다. Community의 성격이 商業中心地에 설정시키는것만이 아닌것도 여기에서 볼수 있는 特징이기도 한 것이었다.

여기에도 아파트群 사이의 野菜장사들의 露店이 펼쳐져있는 光景은 참으로 점포를 主体로하는 近隣센터의 계획의 어려움을 볼수가 있는 것이다.

일행은 이 아파트群사이를 거닐면서 見学을 하고, 또한 장래에 건설되어갈 集合住宅의 Model house를 견학하였던 것이다. 이 Model house의 주택내용은 欧美의 立式生活양식과 일본의 전통적인 다다미방을 주체로하는 좌식생활을 組合한 것으로서 계획이 잘된 평면을

그림-7. 泉北 N. T.의 独立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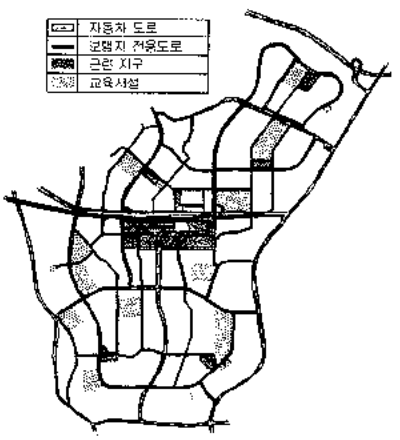


그림-8. 平城 New town의 計劃図

가진 주거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엌의 설비등은 그 계획이 잘되어 있었고 훌륭하고 아름다웁게 되어있었던 것이다.

이 平城New town은 泉北New town과는 다른 이미지를 주는 거주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泉北New town이 收入階層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居住環境을 가지고있는데에 反하여, 平城New town은 Simple한 平準化되어있는 느낌을 갖게하는 곳이라고 판단되고 있는것이 있다.

4) 日本의 居住環境研究와 住宅問題

日本에서 새로운 居住環境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居住環境을 정확하게 評価할수있는 因子들을 추려서 調査하고 分析을 통하여 그 方向性을 찾고있는것을 엿볼수 있었던 것이다.

住宅에 관한것으로는

적정한 住宅의 規模에 대하여
住宅의 計劃에대하여
住宅의 設備에대하여
庭園과 Veranda에 대하여
日照와 바람의 소통에 대하여
隣棟간격 등을 細分하여서 調査検討를 하고 分析을하여서 決定의 方向性을 調整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近隣環境에 관계되는 것으로는

周辺道路의 安全性에 대하여
騒音관계에 대하여
住宅周辺의 차분한環境의 여부
集団住居의 景観과 整頓에 대하여
풍부한 緑陰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가벼운 운동을 할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隣近住民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에 대하여

등을 細分하여 近隣状況에 대한 評価因子들을 綜合的으로 考慮할수있게 誘導하여 가는 것이다.

또한 生活施設과 利便性에 대하여는

医療施設状況
教育施設状況
文化福祉施設状況
日常用品구입의 容易性에 대하여
団地内의 교통의 利便性에 대하여
通勤할수있는 교통의 利便性에 대하여

등도 細密하게 分析을 하여 보는 것이다.

이러한 細分事項의 分析을 통하여

住戸内의 居住性과 生活의 施設, 日常生活과 交通의 利便性, 相隣環境, Open space, 그리고 住宅地의 image등의 6개의 因子를 가지고 綜合的인 評価를 통하여 開発의 方向性을 가지려고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의 住宅問題는 住宅의 量的인 不足에 대하여는 이미 解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1973年度의 住宅雖世帯가 8.5%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統計的인 数字를 통하여 보아도 알수있는 바와같이 住宅不足에 대하여는 神経을 쓰지 않고 있는 実情인 것이다.

여기에 日本의 住宅問題는 住宅의 質的인 向上과 居住環境의 水準을 높이고저 하는데에 力点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두개의 New town의 開発事業도 이러한 두개의 課題를 充足시키려고 하는데에 意義를 가진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 韓国의 立場은 住宅의 不足率을 打開시키면서 住居의 質的인 向上과 居住環境의 水準向上을 図謀해야하는 過重한 課題를 지니고 있다는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일행은 見学을 마치고 일단 奈良에서 해산을 하고 각자 개인행동을 하면서 東京으로 갈 計劃을 세웠던 것이다. 필자도 혼자 近鉄京都線의 전철을 타고 京都로 向하였던 것이다. 京都駅에 도착하여보니 吉阪先生과 몇몇분들이 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吉阪先生일행과 合流하여 鴨川의 川辺에서 시원한 바람을 안고서 저녁식사를 같이하면서 談笑할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저녁을 마치고 京都市内의 特有한 골목길과 住居環境의 特殊性에 대한 例를 説明들을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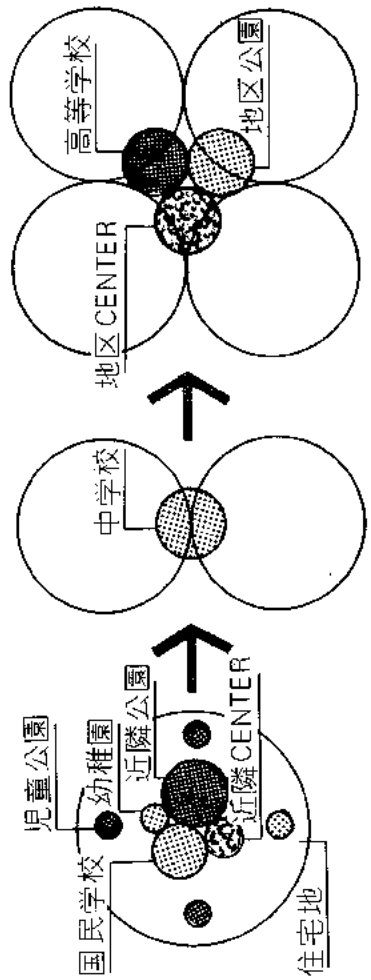


그림-9. 平城 N. T. 의 住宅構成의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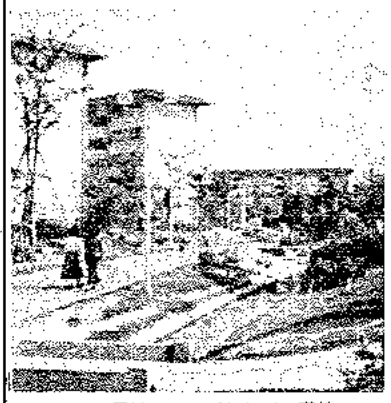


그림-10. 平城 N. T. 의 아파트団地

서독, 애급 紀行

崔 昌 奎
(新進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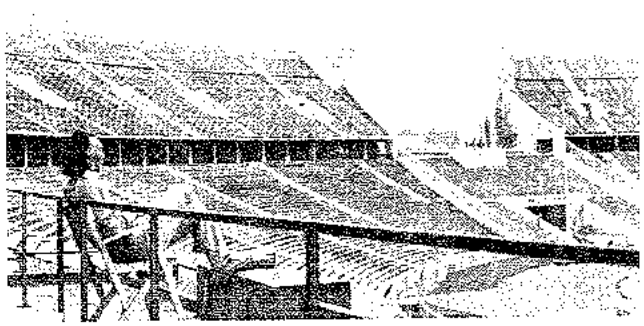
우리 두사람은 너무도 짧은 時間에 이 아름다운 北欧의 세나라를 駆歩여행을 한셈이다. 이 世界에 그리 알려지지도 않은 이 나라들은 떠나기가 싫을 程度로 아름답고 살기좋은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 공기, 물, 숲, 人心이 맑은 이 나라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의 조상들의 피눈물나는 努力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도 우리 後孫들이 잘살게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空港으로 나갔다. 마치 서울 簡易駅 같은 느낌이나는OSLO 공항에서午後 5시 30分発 루프트한자機에 몸을 싣고 1시간 20分 만에 서독의 港口都市인 HAMBURG에 着陸했다. 이곳은 數年前에 한번 다니간곳이므로 제법 地理도 익숙했다. 埠頭가에 있는 半地下 Bar에서 굵직한 소세지를 먹어보았던 생각이난다. 都心에 두개의 큰 湖水를 가지고 있는 이 都市는 서독에서도 물의 도시라고 불리우고 그 옛날 中世紀때는 欧羅巴의 三大港의 하나였었다. (브레－멘, 하노바－) 即 독일의 海上門戸 役割을 한 도시이다.

우리가 서울거리에서 흔히 먹을수 있는 햄버거 는 이곳 市民들의 평소의 食単인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현재로는 세계각국에 햄버거가 없는곳이 없고 미국의 "맥도날드" "Big BOY"等은 도처에 체인店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特히 이곳의 소세지는 白色外皮에다 굵기로 有名하다. 서울 朝鮮HOTEL 地下식당에 이런 소세지를 파는 집이 있어 가끔 가서 먹어본일도 있다. 세계각국의 港口는 거의다 그러한 特色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 HAMBURG도 例外는 아니다. 그것은 各国의 船員들이 득실거리므로 風紀가 문란하기가 말이 아니다. 이곳 埠頭한쪽에 位置한 "레이바－반" 地区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類가 아닌 大端한 곳이다. 섹스, 포르노 店이 수백개가 한 地区를 차지하고 밤이면 이 거리는 壮観이고 不夜城이 된다. 内国人은 勿論이고 관광객이 어울려 웅성거리고 sex에 관한것이면 없는것이 없다. 필름, 録音테이프, 寫眞, 各種 奇怪한 연장들 冊子, 奇抜한 sex show等 요란한 곳이다. 이런곳은 精神을 차리고 다니지 않으면 바가지를 쓰기에 알맞은 곳이다. 入場料없는 show店에선 샴페인 한병에 4백마르크(약10만원)이면 희랍, 아테네는 両班이고 比較도 되지 않는다. 우리도 이거리를 操心操心 눈요기를 하면서 一周하고 돌아왔다. 二次大戦後 "에르하르트" 時代에 라이강의 奇蹟으로 経済復興을 한 서독이라고는 하지만 戦中의 貧困의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어 달러獲得에 전국민이 血眼이 되어있나보다. 남녀를 莫論하고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는 肉体까지도 판다는 것쯤은 当然한 일로 알고있는 것 같았다. 6月 30日 서독국내선으로 BERLIN까지는 45分밖에 걸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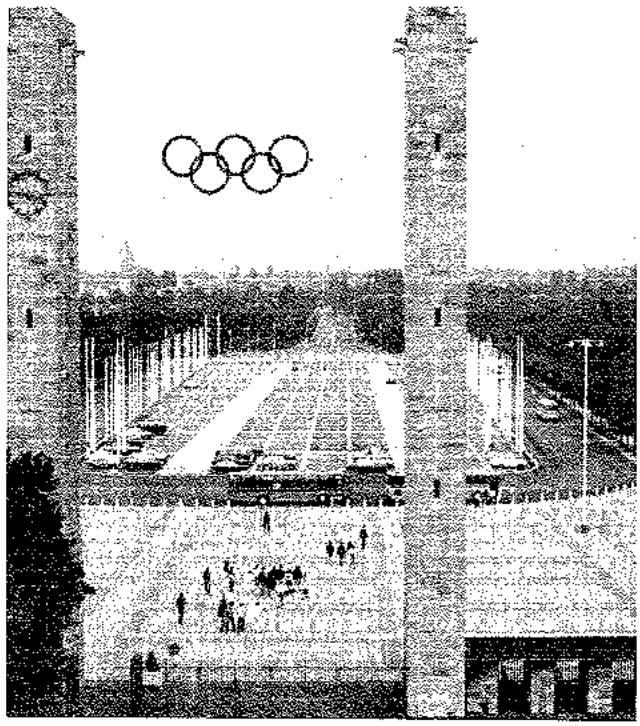
西伯林! 奇巧한 運命의 都市, 동독領土内에 孤鳥처럼 남아있는 서독領土이다. 運命의 장난으로 동서로 分割되어 陸路 二個 鉄道二個와 空路一個라는 回廊으로 延命하고 있는 奇朽한 도시인 것이다. 西伯林하면 우린 尹伊桑氏의 西伯林事件을 想起한다. 특하면 回廊을 遮断하는 소련의 態度에 미군이 強制武装通過 할 때마다 세계의 緊張이 高潮되는곳 1日間에 1,000回의 空輸作戦을 敢行한 記録을 가진 도시이기도 하다. 우린 運좋게드 독일풍의 清潔하고 아담한 뒷골목의 조용한곳인 ALSTAR HOTEL에 짐을 풀고는 바로 市内 観光会社에 가서 東伯林으로 들어가는 버스표를 샀다. 係員의 말이 韓国人은 못들어가게 되어있지만 한번 試図해볼만도 하다는것이다. 旅券을 運転手에게 맡기고 大型버스에 탑승했다. 외국인이 大部分이었다. 우린 無事히 서방측 CHECK POINT를 지나 300m程度 東伯林市街에 들어가 共産測 CHECK POINT에 停止했다. 동독憲兵이 들어와서 書類들을 검열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손님들을 살피다가 갑자기 "韓国人 두사람 나오시요"한다. 아, 걸렸구나 하고 우린 그를 따라갔다. 버스内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두사람을 疑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憲兵은 運転手 에게서 우리의 旅券과 票를 가지고 鉄条網이 쳐진 迷路같은 좁은길을 가르키며 손짓으로 걸어가라 한다. 그는 우리뒤에서 따라온다. 몸이 오싹해지고 오한이 난다. 그는 권총에 손을 댄채로 우리를 따라온다. 300m의 이런 길을 걸는동안 十年減寿하는 진땀이나는 行進이었다. 鉄門앞

□伯林올림픽 경기장 로얄·박스에서



에 와서 步哨에게 열라고 하더니 우리를 나가라고 한다. 바로 그곳은 서방측 CHECK POINT가 눈앞에 보이는 地点이었다. 우린 돌아서서 旅券과 버스票를 달라고 했다. 순순히 주곤 철컥 소리를 내면서 철문을 닫고는 돌아가 버렸다. 아-하고 한숨이 나왔다. 이마의 땀을 닦으면서 미군초소까지 나오는데 미국 흑인 남녀 3-4명이 깔깔대며 웃는다. 그리고는 共産測 초소에 대고 辱찌거리를 해댄다. 그쪽 초소는 二層으로 되어 있고 위엔 望遠鏡과 機関銃이 이쪽을 向해 겨누어져 있었다. 미국초소의 초병은 책상위에 다리를 걸치고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十余名의 사람들이 東伯林쪽을 보며 写真도 찍기도 하고 놀려주기도 한다. 한 日本女人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도 우리가 돌아오는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日本人은 들어갈 수 있는데 쫓겨나오니 異想하다 해서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일본인 인줄 안 모양이다.

自己는 日本外交官의 한 家族이며 매일 한번씩 西伯林市에 나와서 市場을 보아갖고 東伯林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東伯林은 밤이면 캄캄하고 생필품도 부족해서 외국 公館員들은 西伯林에서 購入 해간다고 했다. 우린 다시 버스회사에 가서 다른버스를 타고 서백림의 名所들을 찾았다. Olympic競技場은 学生時節에 図面과 사진은 다 본 것이기에 낯익은 競技場 같았다. 학교에 田辺平学教授가 現地에 가보고와서 授業時間에 詳細히 說明해준대로였다. 民族의 祭典이니 美의 祭典으로 二篇의 映画가 競技場을 主題로 製作되었고 그 当時는 世界 最大最良 競技場이었다. 히틀러 全盛時代의 독일이 大端했던것은 사실이다. 記録映画에서 女子400m 계주에 독일팀이 선두로 가다가 바톤을 떨어뜨렸을 때 ROYAL BOX에 앉아있던 히틀러가 무릎을 치며 일어서서 분해하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사진을 찍고 그 当時를 想像해 보았다. 優勝者記録板에 우리의 손기정選手가 日本으로 되어있는 것을 某 우리 国会議員이 수년전 부수어 버렸던것을 다시 補修해서 JAPAN으로 해놓은것이 歷歷히 보인다. 主競技場 後面에 30만명 収容의 行事用大広場도 大端했고 관람석 나무가 썩어서 職工들이 補修를 하고 있었다. 주위 숲속에 창문 루버에 삼원색 칠을 한 르골비제의 아파트가 보인다. 부란덴브르크문이며 東西伯林의 길고긴 장벽에 落書(거의가 辱찌거리다)가 乱雜하게 쓰여져 있고 到処에 望台를 設置해서 観光客들이 그 위에서 東伯林을 쳐다보고 있다. 이쪽엔 아무런 施設이나 步哨도 없는데 비해 東쪽은 그 牆壁内에도 三重의 鉄条網이 쳐있고 到処에 執銃한 軍人들이 지키고 있다. 아주 対照的인 光景이다. 牆壁到処에 paint로 十字架가 그려져있고 그 아래에 年, 月, 日과 人名이 적혀있다. 이것은 東伯林市民이 넘어오다가 그곳에서 銃에 맞아 死亡한 時日과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다. 現在도 毎年 数千名이 그 危険을 무릅쓰고 決死的으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無事히 넘어만 오면 直席에서 西伯林市民権을 준다고 한다. 三八線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른 관광객과는 다른 感懷로 물끄러미 망대에 서서 東伯林을 살펴보았다. 市内의 繁華街이며 카이젤빌헬름 1世의 기념관이 파괴된채로 남겨져있다. 마치 일본廣島의 평화공원에 원폭塔처럼 말이다. 바로 그옆에 기념교회가 초현대식으로 유리브럭으로 된 원형건물이 있는데 내부의 장식이 세계각국의 언어중의 모음의 첫자로 조각되어 있다. 살펴보니 우리 한글의 아字가 있다. 일본은 「ア」字와, 「あ」字 중국은 「阿, 亜」字가 있다. 아주 재미있는 착상이라고 생각했다. 七月二十六日街라는 이상한 이름의 거리며 동물원, 박물관 등 많은곳을 쏘다니면서 보았다. 江가에 있는 국제회의장 建物은 그 規模나 DESIGN 이나 施設이 파리의 퐁피드紀念館을 凌駕할만하다. 彫刻과 숲, 鉄道, 地下鉄 等 西欧平原에서 가장 큰 都市임을 알 수가 있었다. 西伯林에는 몇개의 大学도 있지만 독일의 어느대학보다도 외국留学生을 많이 받아준다고 한다. 그것은 西伯林의 人口가 減少一路에 있다는 点도 있겠지만 可能한 限 西方側 外国人들에게 西伯林의 事情을 알린다든지 자체의 運命의 防禦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믿고 있는것 같았다. 우린 발이 아프도록 여러곳을 살펴보았다. 게르만民族의 독특한 気質이나 근면성, 연구욕, 낭만성을 느낄수가 있었다. 우린 다음날도 뒷골목이며 책방, 미술관 等을 찾아 다녔고 중국집이나 햄버거店, 路上의 소세지집에서 食事를 거의 때웠다. 독일에 관한 冊 몇권과 그림 몇장을 샀을뿐이다. 特히 市内到処에 우거진 숲을 가진 公園이 많은데는 놀랐고 역시 독일은 가무를 사



□伯林올림픽 경기장

랑하는 나라임을 알았다. 세계 林学界에서도 독일은 最高権威가 있다. 우린 가무하면 山을 연상하는데 이곳에서는 평원에 森林이 있다는것이 우리와는 다른 것이다. 7月2日에 FRANK FURT로 向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CAIRO로 가는 LUFTHANSA AIR LINE機가 出発하는 時間과 到着하는 時間의 差는 30分밖에 되지 않아서 몹시 걱정했다. 다행히도 FRANF FURT공항건물의 도면을 가지고 있어서 着陸하자 그 도면을 들고 LUA 出口로 달려갔다. 가까스로 CHECK IN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카운터 女職員도 웃으면서 용케 빨리 왔다고 한다. 그것은 空港建物이 하도 커서 우리가 到着한 곳이 出発하는 곳의 正反対便이였기 때문에 그들도 外国人이 어떻게 빨리 찾아왔느냐는 表情이었다. 우리는 건축장이들이니까 可能했던 것이라고 했더니 "아-그러면 그렇지" 하고 感歎을 했다.

나는 LU機에 搭乘하고서 곰곰히 독일이란 나라를 생각해보았다. 医学의 나라, 林学의 나라, 勤勉한 나라, 倹素한 나라, 무서운民族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地中海를 건너 수에즈地峽을 지나 午後 5時에 삭막한 CAIRO 空港에 到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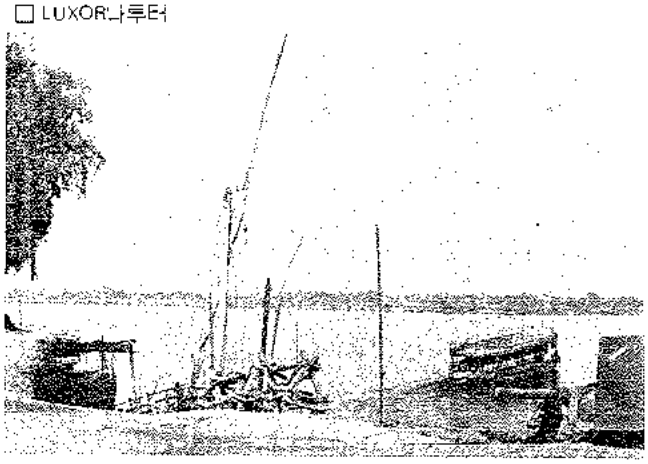
□ 西伯林西方側 초소

"埃 及" (Egypt)

7月2日 午後5時서부터 7月3日 午前 10時까지의時間은 나의 一生中 잊을수 없는 困辱과 念怒와 焦燥의 시간이었다.

그것은 今般旅行中 가장 흥분과 기대에 부풀어 찾아온 이 나라였건만, CAIRO공항에서의 日夜는 발광직전의 극한의 심경이었다. 열풍과 불결과 무지와 횡포의 도가니속에서 모든것을 포기하고 일각이라도 빨리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다. 나는 이 여행 출발시 어떤 예감으로서 우리 여권에 애급에 대한 経由証이나, VISA等이 없음을 보고 직접 外務部旅券課에 電話로 問議했던 바 그런것이 없어도 入国可能 하다는 対答을 듣고는 왔지만 어쩐지 우리와 領事協定이 되어있지 않고, 소련勢力이 압도적인 이 나라에서 무사하게 입국시켜줄 것인가가 걱정스러워서 前에 埃及을 다녀온 몇명 친구들에게까지 물어보았더니 80$만 공항에서 환전하면 입국에 문제없다는 이야기들이다. 막상 공항에 들어 서니 이것 돗때기 市場같은 雰囲気이다. 空気는 후끈 하게 뜨겁고 탁한데다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초라한 제복의 세관원이나 공항직원들이며 이루말할 수 없다. 입국검사대보 가기전에 각 은행의 출장소가 있어서 환전하라고 호객경쟁이나 하듯이 요란하다. 내심 이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환전이 UISA보다 우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 5日間 머무를 계획으로 150$을 환전했으니 은행원이 좋아서인지 놀라면서 환전증을 주었다 入国査証検査台앞은 수라장이다. 列을 서서 차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 아우성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곳을 통과 하는데는 몇시간이 걸릴것만 같았다. 아마 1時間半이 걸려서 내차례가 왔다. 나의 旅券을 보더니 손짓으로 당신은 저쪽 counter로 가라고 한다. 그래서 나보다도 뒤쪽에 서있는 朴兄을 데리고 그곳에 갔더니 하는말이 経由証도 査証도 없으니 입국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기가 막혀서 환전증을 내보이면서 150$이나 환전했다고 했다. 그래도 그 뚱뚱 보(약간 계급이 높은 모양이다)가 으시대면서 査証이 없을뿐더러 애급이란 말 한마디도 적혀있지 않은데 무슨 소리야 귀찮으니 저쪽에 가 앉아있으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곳엔 벌써 10여명이 앉아 있었다. 할수없이 우리도 그곳에 가서 앉았다. 몇시간을 기다렸을까 아무런 조치도 없다. 해는 벌써 지고

□ LUXOR나루터



밖에는 電燈이 켜지고 있었다. 이윽고 貨物 홀쪽에서, LUFTHANSA 制服을 입은 女子가 와서 우리에게 LU機로 왔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했더니 저쪽에 놓여있는 우리의 짐을 갖다주면서 自己責任을 다했다는 表情이다. 옆에 앉아있는 젊은 青年에게 말을 걸었더니 시리아 人으로 工大土木 三学年生인데 自己家族이 다 CAIRO 에 살고있고 VISA며 다 갖추어 있는데 入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抗議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는 웃으면서 당신들은 이 나라에 初行인 모양인데 이 나라에서는, "안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라는 아리송한 말을 한다. 結局 우리는 20~30名 程度의 사람은 좁은 廊下를 거쳐 鉄格子가 붙여져 있는 房안에 끌려갔다. 勿論 짐도 가지고갔다. 私服을 한 二名이 고함을 지르며 마치 죄인 취급을 하면서 房에 들어가라고 하더니 우리 둘만 廊下에 의자를 갖다 앉으라고 특별대우를 해준다. 우린 시리아 청년을 통역으로 삼고 물었더니 밤11시에, 지정 HOTEL에 가서 자고 내일 애급에서 떠나라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밖에서는 열풍이 불어오고 낭하는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쥐가 뛰어다니고 고양이가 이슬링거리고 이것은 형용할수 없는 상황이다. 집총한 바보같은 보초병이 물 심부름을 하는 것을 보고 계원에게 한국 담배 한갑을 주고 먹을것과 마실것을 사다줄 수 없겠느냐 했더니 돈을 달라고한다. 애급 돈을 주었다. 초병이 銃을 놓고 거리에 나가 코카콜라 4병과 빵을 두봉지 사왔다. 도저히 먹을수가 없었다. 시리아학생과 계원과 병사에게 주었더니 잘들 먹는다. 아 -이때의 상황은 표현할수도 쓸수도 없는 극한의 발광직전 같은 기분이고 두통이 나고 나의 体力은 이 상황에 적응할 능력이 없는것만 같았다.

뜬눈으로 샌 하룻밤 새벽이 되고 係員이 交代되고 7月 3日 아침의 태양이 호리멍텅하게 떠올랐다. 朴兄도 나와같이 녹초가 되어 말조차 없다. 다른 사람들은 태연하게 툭툭 털고 일어난다. 이들 아랍 사람들은 異想할 程度로 아무일도 없었다는 表情들이다. 나는 係員에게 東洋쪽으로 가는 어떤 비행기래도 좋으니 타게 해 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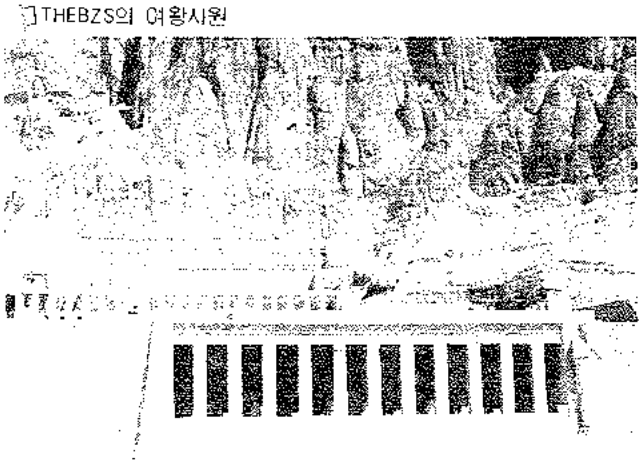
□ SAKKARA지하유적

□ MEMPHIS의 스핑크스

하며 나의 비행기표를 주었다. 그가 왔다갔다 하더니 우리 둘을 손짓으로 짐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이다. 우린 시리아 학생에게 악수를 청했더니 그도 good ruck하면서 힘주어 악수를 해주었다. 그의 표정이 서글퍼 보였다. CHECKING COUNTER 에서 어제와는 다른 젊은 制服을 입은 官員이 우리 旅券을 돌려주면서 특별히 2일간의 체류를 허용하거나 二日内로 출국해야하며 市内移民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안했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울화통이 터져서 그에게 "우린 建築家들이다. 너희 나라의 古代文明의 遺蹟을 보러왔는데 이젠 볼 필요도 없다. 다시는 안오겠다 지금이라도 機便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이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뇌까렸다. 그도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표정이고 우리를 데리고 갔던 계원도 좀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돈을 요구해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곤란한 표정으로 어쩔줄 몰라했다. 짐을 끌고 공항밖으로 나오는데 또 몇곳에서 찝적거린다 본체도 안하고 나왔다. Taxi를 잡아타고 예약해 놓은 NILE HILLTON HOTEL로 달렸다. HOTEL FRONT에서도 어제부터 예약이 되어있으니 어제 房 값도 내야된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지만 그 女職員이 너무 미인이기에 승낙하고 호화로운 방에 들었다. 응접실까지 있는 12층에 있는 방인데 NILE江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다. 우린 coffee를 한잔 마시고 샤워를 하곤 그냥 깊은잠에 들었다. 눈을 떠보니 오후 4시이다. 6시간을 잘 셈이다. 기분이 제법 가벼워지고 정신이 난다. 우린 새로운 눈과 기분으로 애급을 보기 始作했다. Front에 내려가니 WALSAW에서 늦게 떠난 조형과 오늘 이곳에서 合流하기로 했는데 아무런 memo도 없다. 올 시

간은 지났는데 걱정이 되었다. 조 형이 어제의 우리와꼭 같은 봉변을 공항에서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공항에 나가볼까 했으나 나가보았자 만날 방법이 없어 그저 기다리기만 했으나 밤이 되어도 오질 않았다. 안타깝기만 했다. Hotel에 이민국 출장소가 있기 여권을 가지고 신고하러갔다. 박형은 모래 SPAIN 으로 가는 기편이 있어 FIX시켰으나 나는 MANIRA로 가는 機便이 내일도 모레도 없어 어찌할 수가 없었다.
가 없었다. 사정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무슨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하루 이틀 더 머물러도 좋다는 것이다. 참 이상한 나라이다. 시리아학생의 말이 생각났다. "안되는 일도없고 되는일도 없다"라는 뜻을 알것만 같았다. 우린 죽은 고생을 해서 올 바에야 "피라밋"과 "스핑크스"라도 보고 가야지. 내일 아침 일찌기「기제」로 가는 TAXI를 예약해 놓았다. 그리곤 강변에 나가서 저물어가는 NILE江上의 저녁노을을 쳐다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사실 이곳에서는 보고 가야할 곳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계획은' 5日間을 잡았는데 이 모양이 된 것이다.
RUXOR 며 ABUSIMBEL,가능하면ASWAN까지가볼려 한것이 그만 이렇게 되었다. Hotel 1층에 있는 책방에서 애굽에 관한 冊과 기념품 몇가지를 사고는 거리로 나가보았다. 오늘이 이곳의 종교적인 공휴일이여서 조용하고 어두컴컴한 뿐이다. 이곳에서는 7月이 금욕의 달이여서("아마달"이라고 부른다) 술이나 여자나 식사까지도 단식하는 날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명한 배꼽춤이나 누드쇼 等도 삼가는 달이라고 TAXI운전수가 말하면서 당신들은 재수없는때에 왔군요 하면서 웃어댔다. 사실 우리 재수없는 달에와서 재수없는 일을 당한 셈이된다. 꼭 보아야 할 CAIRO 博物館을 못보았고 배꼽춤을 못보았고 ASWAN에 못갔고 늘씬한 埃及女人을 못 만났고 Bar에도 못가보았고 nude쇼도 못보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볼수 있는 유적은 거의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하게 생각해야만 하겠다. 그래도 우린 저녁때에 사우디에서 철수 해서 이곳에 왔다는 한국음식점을 찾아내서

THEBZS의 여왕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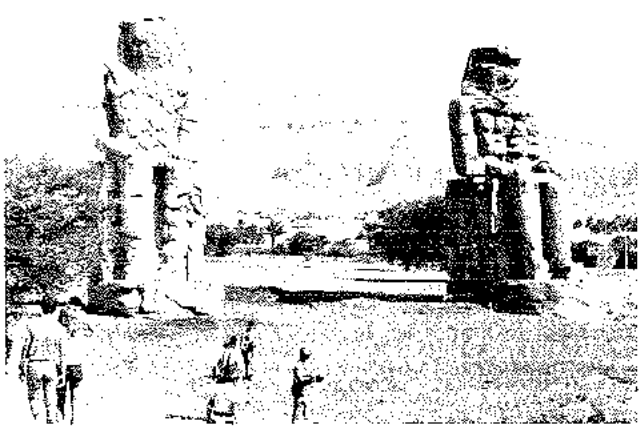
미역국과 불고기백반을 먹고 맛있는 깍두기도 먹었 다는 것을 기적적인 일이고 이때부터 우리에겐 행운이 따라오는것만 같았다. 한국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마음까지 훈훈하게 누그러짐은 웬일일까? 亦是 한국사람은 한국음식을 먹어야만 육체나 정신이 正常的이 된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되었다. 우린 식사후 먼 밤거리를 걸어서 Hotel로 돌아왔다. 7月4日 쾌청의 날씨에 바람도 없는 무더운 날씨였다. 마치 황사현상의 날씨처럼 누런 공기가 침체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어쩌면 중국대륙이나 인도대륙의 공기와 색깔과 냄새와 꼭 같은것을 느꼈다. 古代의 文明을 가졌던 地方의 공통된 자연 환경이 우연한일만은 아닌것이고 무엇인가 조물주의 섭리이든 지구의 상태이든 간에 너무 흡사한 기후와 환경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언어나 생활양식이나 의복까지도 생활동작 마져도 흡사한 것은 웬일일까? 고대의 서구적이고 문화적인 민족들이 今日의 零落에서 가진 공통된 속성일까? 現代의 文化 民族들과는 너무도 差가 있는 印象을 엿볼수가 있다. 아침 약속시간에 예약한 TAXI가 Hotel앞에 와 있었다. 우린짧은바지에 운동화, 모자와 카메라만의 輕裝으로 GEZE로 출발했다.

GEZE는 CAIRO에서 Taxi로 2時間程度의 거리내에 있다. NILE江을 건너서 시골길로 들어서니 어쩌면 NEWDELHI서 "타지마할"로 가는 印度의 풍경과 꼭 같은 것을 느꼈다. 길가의 농가는 貧弱하기만 했고 불결하고 괴상한 냄새가 난다. 명랑하고 유창한 영어를 하는안내인은 신이나서 途中을 說明한다. GEZE에 가기에 앞서 MENFIS에 먼저 들렸다. SAKKARA에 있는 寺院跡와 적은 段式으로 된 피라밋드는 埃及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광막한 사막의 사구에 홀로 서있는 그 피라밋드는 안내서에 그려져있는 복원도를 보면 그 옛날엔 大端한 規模의 境內를 가졌던 곳임은 알 수 있다. 顔面이 부서진 巨大한 彫刻像이 椰子樹그늘에 딩굴고 있다. 이곳은 AMENOPHIS 2世 RAMSES 2世 時代의 것이고 콩크리트 蓋屋속에 와상은 RAMESES Ⅱ의 像이라고 한다. 건너편 椰子숲속에 이상한것이 보이길래 자세히 보았더니 미사일기지인 것이다. ALASKA에서도 미군사시설이 노출되어 있었지만 이곳도 미사일 기지가 노출되어 있음은 이해가 가지않는다.

우린 安保라느니 保安이라느니 하면서 야단들인데 왜 이런 나라들은 군사물을 옴폐하지 않는지 알수가 없다. 아마도 문화유적 부근의 군사시설은 유사시에도 폭격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에서인지 모른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昆虫界에서도 보호색과 경계색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이치와 같은것이 될것이다. 여하튼 이 광대한 사막의 도처의 지하에 유적이있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유적들이 자주 발굴되는것을 보면 인류사상 가장 오래된(5,000

年,~6,000年)이나라에는 장차 어떤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새로이 발견될지 모르는 일이고 근자에 와서 서독 고고학팀이 고대 애굽의 상형문자를 해독 했다고하니 확실한 고증들이 세계에 알려질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우리는 MENPHIS와 SAKKARA를 보고 GEZE로 向했다. 멀리 NILE江이 보이고 鋪裝된 길가엔 띄엄띄엄 椰子나무가 서있고 적은 灌漑用運河며 農家가 초라하게 산재해있는 벌판을 달렸다. GEZE는 작은都市이다. 거리엔 飮食店과 土産品이나 記念品店, 酒店 等이 많고, 3층이상의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가로수는 야자나무 일색이고 중앙분기대엔 사철나무를 피라밋드式으로 분재같이 잘 가꾸어있다. 그 사이는 가끔 언덕위의 피라밋의 雄姿가 보인다. 사진이나 영화에서만 보았던 진짜 피라밋곁에 와있구나 하는 흥분과 기쁨이 용솟음쳤다. 멀리서 보면 그표면이 직선적이고 평활하게 보였지만 막상 가까이 와보니 階段같이 우툴두툴하다. 이렇다면 정상까지도 올라갈수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안내자를 따라 내부 통로로 들어가는 구멍으로 기다시피해서 따라갔다. 도중에서 답답하고 냄새가 나고 공포감과 숨이 막힐것 같아졌다. 박형과 몇사람이 못가겠다고 해서 그자리에서 기다리라하고 나는 무리해서 따라 올라갔다. 희미한 백열선전구의 빛을따라 겨우 몸 하나가 통할만큼인곳을 약 50m나가니 천장이 약간 높아진 斜通路가 되어있고 사다리같은 계단을 탐색해서 계속 올라갔다. 막다른곳에 사각주형의 분실이다. 중앙에 석관이 놓여있고 그속에 모조의 해골이 놓여있다. 진짜해골(미이라)를 CAIRO 박물관에 전시되었다고 안내문에 써있다. 약 5,000년전의 분묘실에 서있는것이다. 피라밋의 내부 중앙부에 들어와 있는것이다. 다시 내려오면서 살펴보니 측면과 저면부로 가는 통로도 있는데 철판으로 뚜껑을해서 자물쇠로 잠가놓아있다. 안내자 말이 위험해서 이 통로들은 관람할수 없다는 것이다. 나와서 단면도를 보고야 내가 들어갔던곳을 알수 있었고 어디쯤에까지 들어갔다왔다는 것이 感이 잡힌다. 내려오다가 박형을 다시만나서 밖으로 나왔다. 거기서부터 낙타를 타고

□THEBZS로 가는 길목에서



건들거리면서 제三피라밋과 스핑크스 쪽으로 갔다. 스핑크스앞 광장엔 무대같은 것이 있고 백여개의 의자가 나란히 있었다. 밤이되면 피라밋과 스핑크스에 5색의 광선조명을 시키고 그 무대에서 고전극이나 무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SHOW는 희랍 아크로폴리스 언덕 야천극장에서도 MEXICO의 MAYA의 유적에서도 있었으나 여기처럼 巨大한 피라밋과 크로테스크 한 人頭獸身의 스핑크스를 背景으로 풍요한 肉体派들이 官能的인 허리를 振動시키면서 그 有名한 배꼽춤을 추어댄다면 果然壯觀일 것은 틀림없고 觀光客들에게 独特한 印象을 줄것을 틀림없다. 젊은 案内人들중에는 손님에게서 몇푼의 돈을받고 5分以内에 피라밋 頂上에 쏜살같이 올라갔다가 万歲를 부르고 또 急速度로 내려오는 神技를 보여주는 者도 있다. 이러한 神技는 世界的인 登山家들도 못할것이다. 三個의 大피라밋과 構造物들로 散在해 있다. 스핑크스의 顔面은 나폴레옹 軍隊가 아프리카 遠征때 장난으로 砲를 쏘아 破壞한것인데 오히려 奇怪한 그모습이 더욱 神秘스럽고 敬畏心마저 불러 일으킨다. 나는 그앞에 直接서서 그의 눈을 凝視하면서 생각해보았다. 너무 먼 上古時代에서부터 이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생각했고 지금 우리 人間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는 默默히 沙漠의 地平線을 凝視하면서 沈默을 지키면서 永劫으로의 時間을 재고있는것만 같았다. 그는수많은 인간들의 波瀾을 보았고 風雲과 戰禍를 겪더어냈고 그 옛날의 栄華를 돼씹으면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 永遠히 이자리에 그 雄姿를 지킬것이다.

우리는 GEZE市内로나와 食堂에서 點心을 먹었다. 밀점병, 오이지, 젓갈 等 怪常한 飮食을 먹었다. 식당앞 街路에는 콘크리트로된 제법 洗練된 "크레오파트라"의 彫刻이 噴水台옆에 있었다. 몇개의 記念品店을 기웃거리다가 다시 Taxi로 CAIRO로 돌아왔다. 採石場 公共墓地무하메드알리寺院 旧市街의 市場 等을 돌아보았다. 採石場은 GEZE의 피라밋에 사용된 石材를 이곳에서 採取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옛날에 그많은 量의 石材를 어떻게 運搬했는지를 물었더니 案内者는 서슴치않고 배로 運搬했다고 했다. 公共墓地는 처음에 貧民街인줄만 알았다 곳곳에서 煙気가나고 냄새가 고약해서 이것이 빈민가냐고 물었더니 公共墓地라고 한다. 異常하게도 너무 조용하다 했더니 墓地였다. 그들의 死生觀은 우리와는 다르다. 死者의 靈은 반드시 언젠가 온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가끔 野獸의 울음소리 같은 哭声이 들리곤했다. 아주 表現하기 어려운 光景이었다. 아래寺院은 CAIRO에 있는이슬람사원의 総本山이다. 그 規模나 内庭의 크기 洗足所設備나 사원전체의 장식이 이스탄불의 소피아사원과는 약간의 양식이 다르나 이에 못지않은 큰 寺院이고 이 内庭에 서면 CRIAO市街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인다. 旧市場에서 큰 수박 한개를 샀다. 너무도 쌌다. Hotel로 돌아와

□농가의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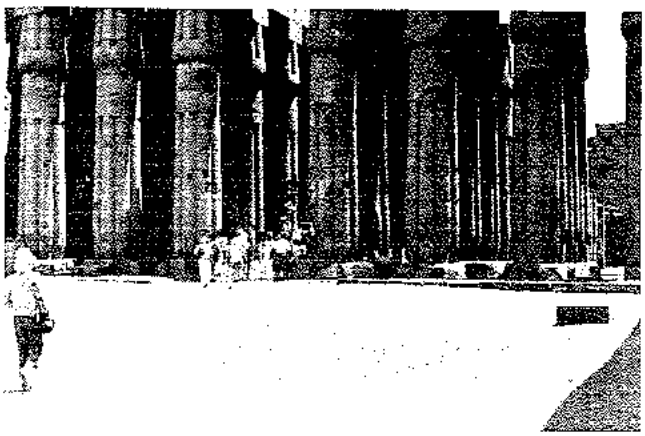
□悠久한 나일강/카이로에서/

보니 오후 5시였다. 상당히 빨리 많은곳을 보고 온 셈이다. Lobby에서 조형을 만나 몹시 반가와서 얼싸안았다. Coffee Shop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一行은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우린 아침에 GEZE로 떠날때 혹시나해서 공영토건 CAIRO지사에 조형의 동창을 찾아 GEZE에 갔다온다는 말과 Hotel방 No.를 알리고 연락되면 꼭 알려주라고 하고 떠난것이 奏效했다. 사실은 再昨日 조형은 CAIRO에 와서 NILE HILTON에 와서 보았드니 우리가 없어서 MeMo만 적어놓고 어제 혼자서 GEZE에 다녀왔고 내일 RUXOR에 갈 준비가 되어있었다. 그래서 방에 올라가 수박을 먹으면서 내일의 여행계획을 짰다. 즉 明日 아침에 공항에 가서 박형은 SPAIN으로 가고 조형과 나는 국내선을 타고 RUXOR로 가기로 하고 모레 아침에나는 MANILA로 떠나고 조형은 저녁에 PARIS로 떠나기로 했다. 그리곤 한국집을 찾아서 저녁을 먹고 CAIRO塔에 올라가서 埃及의 저녁노을을 보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일 아침은 오전 4시에 출발하니 조형도 우리와 같이 자고 떠나기로 했다. 우린 沐浴을 하고 寢台가 두개뿐이기에 mat를 방바닥에 내려깔고 셋이 바닥에 자기로했다. 누가 오늘 저녁 마당에서자는군 해서 웃어댔다. WALSAW에서 約束했던대로 우린 셋이었다. CAIRO에서 만났으니 아주 多幸했다. 7月 5日 快晴, 無風, 暑의 埃及古有의 날씨다. 아침 4時에 큰Taxi가Hotel 앞에와서(旅行社서 보내옴) 기다리고 있었다. 朴兄은 완전히 떠날 차비로 짐도 가지고 나왔고 나와 趙兄은 어제 GEZE에 半바지를 입고 갔다가 혼이나서 日光에 対한 萬般의 차의로 긴바지, 긴소매, 帽子, 카메라, 적은메다지 가방, 運動靴의 軽装으로 나섰다. 空港에서 国際線出国口 앞에서 우린 서로 握手하고 이별했다. 近一個月을 同行했던 朴兄과 途中에서의 이별이다. 어쩐지 이상야릇한 기분이다. "자-서울에서 만납시다"라고 泰然히 인사는 했지만 헤어지는 서로가 이별이 가져는 그 짜릿한 감정을 느꼈다. 趙兄과 나는 RUXOR行軽비행기를 탔다. 형편없는 적은 비행기였다. 機上에서 보는 下界는 온통 沙漠이다. 지도를 보는 느낌이든 程度로 뚜렷했다. NILE江은 悠久한 長江이다. 江兩岸의 緑地帯가 있을뿐 나머지는 다 沙漠이다. 가끔 軍事施設이 보이기도 하고 江上의 船舶도 보인다. 埃及의 전국토란 바로 江畔의 緑地帯뿐인 것이다. 1時間半程度 비행하고 활주로가 沙漠의 一部로 된 간이역같은 RUXOR비행장에 착륙했다. 이곳은 군용비행장장에서 軍施設과는 철조망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100명도 못되는 승객이니 아주 조용하고 한산한 기분이다. 여행사의 中型 Bus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RUXOR地区는 埃及에서 유적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곳이다. RUXOR, KARNAK, THEBES, KINGVALLEY 等이 이웃에 산재해 있어 一日観光으로서는도저히불가능하나 우린 시간이 없어서 강행했다. RUXOR 비행장에서 시내로 들어가서 어떤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는 곧장 나루터로 나가 배를타고 강을 건넜다. 그곳에도 여행사의 Bus가 기다리고 있었다. 맨처음QUEENHATSHEPSUT 寺院엘 가기로 했다. 가는 途中 밭 가운데와 路面에 巨大한 조각이며 스핑크스 等이 산재해있었다. 有名한 埃及의 典型的인 농가의 우물에서 소가 연자방아처럼 돌면서 물을 길어 올리는것도 보았다. 영화 王家의 계곡이 생각 나며 이곳에서 撮影한것이 틀림없구나 했다. 과거 전세가 人端했고 미인이였다는 女王의 寺院은 巨大한 岩壁을 背景으로 그 山麓에 아름답게 建設되어 있다.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들도 있었다. 날씨는 뜨겁고 목에서는 마른 침이 나오고 말도 하기 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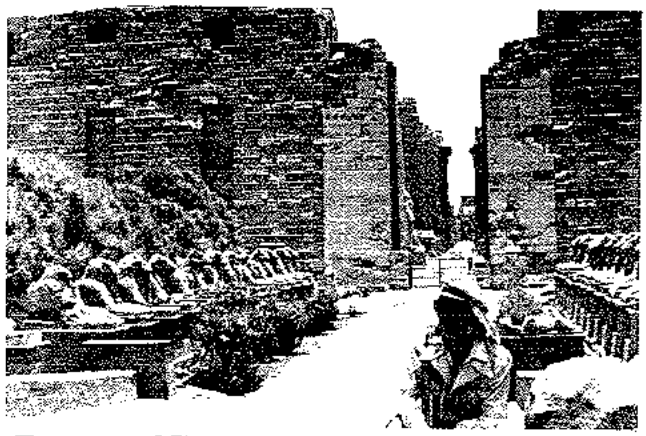
우린 埃及人들을 게으르다고 나무라지만 우리라도이곳에서 산다면 별도리가 없을것만 같았다. 大自然은 그 민족성을 생성시키는가 보다.王家의 계곡에 왔을때는 코카콜라 두병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나는 서울서 출발하기 전에 경희대 조창한 교수에게서 부탁 받은일을 생각하고 TUTENKHAMON王墓(地下墓)의 天井畫를 꼭 촬영해 달라고 했기에 사진기에 SLIDE FILM을 넣고 여러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入口에 상자가 놓여있고 카메라를 에치하고 들어가라는 것이다. 그전에는 마구 찍을

수가 있었는데 요즈음 애급정부가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王家의 계곡은 발견하고 발굴한지가 얼마되지 않는다. 이곳에 수천점의 보물과 비운의 소년왕의 미이라는 CAIRO博物館에 安置되어있다. 英国考古学者가 発掘했고 어마어마한 보화가 나왔다고 한다. 우리는 곧장 배를 타고 다시 RUXOR로 와서KARNAK으로 갔다. 전면에 72個의 동물의 스핑크스가 있고 어마어마한 기둥이 즐비한 이 유적은 EUERGETES Ⅱ代의 것이다. "나일의 殺人"이라는 영화를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하며 그때자기가 안내했다면서 안내인이 자랑했다. 그는 신이나서 어떤 彫刻柱앞에서 영화촬영시의 흉내를 내면서 說明해주었다. 다행히도 서울서 출발전에 이 영화를 보고 時間이 있으면 저 유람선을 타고 CAIRO에서 ASWAN까지 강변에 있는 모든 유적은 볼것이다.라고 결심했지만 前記한바와 같은 사정으로 시간에 쫓기며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다시 마차를 타고 THEBES로 갔다. 이곳은 Span이 좁은 집중된 柱列이 壯観이다. 바로 江가에 있어 가장 경치가 좋은 전망이다. 안내서에 B.C1,400年에 건립했다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3,400年 정도의 것이 되겠으나 柱頭의 장식이며 내정의 공간처리며 沐室이 3층위에 있다든지 다른 유적과는 좀 이색적인 면이 많은 곳이고 특히 왕이나 신하들의 조각상의 크기가 너무도 거대해서 그앞에 서면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다. 애급의 유적중에는 조각상의 크기로는 ABUSIMBEL 다음가는 크기라고 안내자가 말했다. 一行中에 日本人青年과 카나다人家族도 있었는데 그들이 반바지를 입고와서 허벅다리와 팔이 새빨갛게 타서 어린여아는 아파서 울상을 했다. 우린 어제 GEZE에서의 체험으로 고통은 없었다. 원래 그 지방에 가면 그 地方人들의 복장은 왜그렇게 두루마기 같은 긴옷과 머리에 백색포를 싸고 女人들은 얼굴까지도 가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그 흉내를 내면 된다는것을 알았다. 중국에서도 그러했고 印度에서도 그러했고 PERU에서도 그런 이치는 적중했다. 여행사의 젊은이가 와서 안내자와 귓속말로 무어라고 하더니 案内의 速度가 빨라지고 대강대강 해치운다. 알고보니 CAIRO로 가는 비행기가 2時間 빨리 出発한다는 연락이다. 제멋대로구나 埃及人들은 우리의 常識과는 다른것을 알수가 있었다. 再昨日 趙兄은 空港에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사통과 했다는 것과 우리가 당한 困辱 오늘 여기서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시키는 일들 여행사의 독선이나, 관공서의 횡포, 수많은 CHECK POINT를거쳐야 하는곳이 너무도 많은 이 나라 社会状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 안내자도 도중에 案内를 중지하고 처음 왔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Bus가 오면 비행장으로 가라고 하곤 어디론가 가버렸다. 기가막힌 일이다. 우린 하는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뜨거운 강변포장도로를 터벅터벅 걸어서 식당엘 왔더니 형식적인 점심을 준다. 먹을수도 없는 괴상한 음식이다. 그래도 먹어야지 하고 빵 몇조각을 먹고 Coffee를 마시면서 생각해보았다. 江가의 나루터엔 船舶Hotel도 있고 音楽도 들려온다. 그러나 한적한 시골 나루터 같기만 하다. 유유히 NILE江은 말없이 흐르고 있다. 매미 울음도 없고 가끔 당나귀 울음이 들린다. 나는 이것으로 埃及의 유적은 더 볼수가 없구나 생각하니 몹시 섭섭했다. ABUSIMBCL과ASWAN은 꼭 보고 갈려고 했는데 아쉽기 한이없다. 趙兄은 역시 젊으니 신이나서 이곳저곳 달려다니며 사진도 찍고 한다 부럽기만 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나를 노인으로 대우해서인지 모든 궂은일을 다—잘해주었다. 애급에서 뿐만 아니라 POLAND 에서부터 나를 몹시 아끼고 도와주었다. 사람은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사람의 人品을 잘 알수가 있다. 나는 이번 여행처럼 쉬운 旅行을 해본적이 없다. 젊은 一行들이 하나같이 率先해서 다해주었다. 참 고마운 일이였다고 感謝하는 것이다. CAIRO에 돌아오니 午後5時였다. 온終日 뙤약볕속을 쏘다녔으니 몹시도 疲困하다. 沐浴을 하고 침대에 누워서 埃及의 人類文化史的인 側面에서의 位置며 여러가지 埃及에 관한 생각을 整理해보았다. 알번 토푸러 의 "제3의 衝撃"이나 어원 긴스바그의 "創世紀"를 보면 사하라沙漠은 지구의 生態学上에서 볼때 約8만년전 부터 沙漠이 되기 始作했고 그전에는 樹木이 울창한 沃土였다고 한다. 埃及의 歴史가 5천5백년에서 6천년전이라면 그전의 애급은 어떠했을까? 어원 긴스버그博士는 歴史家이자 우주물리학자이다. 그는 6000년전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고장으로 지구에 불시착했다가 문화와 언어와 문자 等의 공해를 남기고 다시 外界로 갔는데 一行中의 外界人 몇명이 남아서 소위 창세기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文化나 言語를 공해라고 부른것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다. 바로 그 착륙한곳이 애급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教의 旧約創世紀篇이 바로 긴스버그박사의 說에 부합되는 대목이다.. 아렉스 레이리의 "뿌리"가 발간되자 세계는 뿌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간다. 民族의 뿌리, 文化의 뿌리, 人類의 뿌리 等은 찾다보니 우연히도 各 民族의 源泉地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집중됨은 웬일일까? 우

□나일강과 힐튼호텔/카이로/



□ LUXOR의 寺院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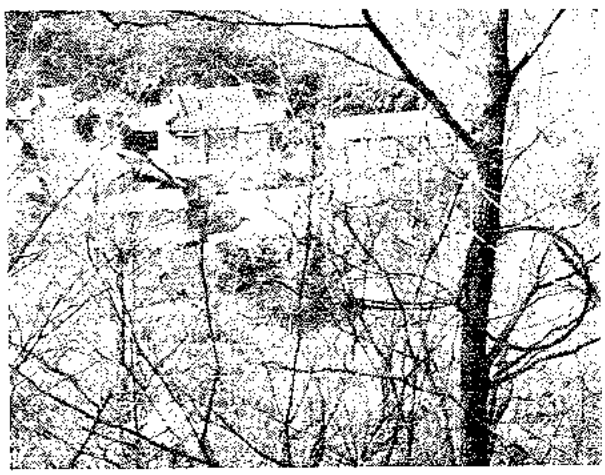
□ KARNAK의 유적

리 韓民族의 뿌리도 몽고로해서 중앙아세아초원, 스에즈지형, 애급, 이디오피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단군신화가 4500年 이고보면 애급과 거의 맞먹는 셈이 된다. MAYA와 INCA가 3000年이 좀더 된다. 회랍이 2500年 程度이다. 이씨조선 왕조가 500年에 28代王이라면埃及은 現在까지 알려진것이 30王朝라니 王의 代만해도 大端한 수가 될것이다. 고대 애굽이 NILE江으로 인해 每年 1回式 그 범람의 시련을 겪었다기에 "유그리트"의 기하학과 측량학이 애급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수렵으로 食을 동굴로 住를 목피엽으로 衣를 骨齒로 장식을 했다는 고대 애굽인 들이 또는 현재의 애굽인들의 体格이나 容貌나 원시성을 볼때 도저히 그의 조상들이 이런 文化를 建設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타민족이나 外界人이 건설했다는 說도 나올만한 이야기이다. 불행중 다행으로 여인들의 풍만한 육체나 미모는 과연 "클레오 파트라"의 후예답게 世界의 色鄕이라고까지 評할만도하다 "Shakespeare"는 이에 착안해서 "시이져"와 "클레오파트라"를 쓴것이 아닐까? 현재애급엔 "클레오 파트라"에 관계되는 유적은 거의없고 애급인들의 기억속에도 잊어진것만 같다. 宗教가 이슬람教이고 人種이 아랍族이라지만 言語와 종교로서만으로 規定지을 일은 못된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定期的으로 단식과 금욕을 한다. 가끔 구토제를 복용해서 위를 보호하는 건강법은 알고있다. 특히 靈에 対한 사상은 타 민족과는 판이하다. 알라神이 전지전능한 것인지 불시착한 초인간적인 외계인을 알라신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애급의 역사나 年代나 유적엔 의문이 많다. 建築史에서도 몇王朝 무슨王 운운하지만 애매한것이라고 생각한다. 4,000여년전의 단군신화가 구전의 신화라면 그보다 2,000이 더한 애급의 사적은 보호하기 짝이없는 일이다. 1922年 영국 고고학자가 왕가의 계곡을 발굴할때 역대 王의 陵의 주술로 발굴자들이 이유없이 죽어갔다는 일이든지 3천3백年이나 잠자다가 발굴된 少年王 "투탄카멘"王의 비운等도 의문은많다. 분묘가 다 사막의 깊은 지하에 만들어졌고 그 벽면의 우수한 회화의 상형문자와 조각들은 장식이라기 보다 대하적인 애급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다행히도 근자에와서 서독의 고고학팀이 이 상형문자를 해독했다니 진실에 가까운 역사가 밝혀질것이라고 믿는것이다. 이 서독팀은 전에도 MAYA의 "만년록"도 해독한바 있지만 들리는바에 의하면 왕가의 계곡에서 나온 기록중에는 馬蹄로된 5指가 달린 장갑이 사용됐다고 본다면 당시의 농업이나 생활을 수속할수도 있는것으로 믿어진다. 너무도 광할한 大沙漠의 地下엔 아직도 발견되지않은 유적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일은 비단 애급에만 국한된것은 아니고 고대인류, 문화, 유적은 MAYA도 INCA에도 계속 새로운것이 발견되고 있는것이다. 하영든 아득한 옛날 돌도 말하고 나무도, 동물들도 人間과 언어가 통했다고하는 그먼옛날에 인류의 조상이든 外界人이든 간에 현대인들이 보아도 감탄 할 만한 거대한 건설을 해냈다는데는 그저 아찔할뿐이다. 나는 趙兄과도 다음날 헤어져 부상한 韓國船員을 부축해서 MANIRA-SEOUL 向行 비행기속에서 埃及의 불가사의, 文化와 言語와는 公害地球의 생태, 創世紀 靈魂, 生과死, 時向과空間, 宗教, 等"의 錯綜한 생각에 잠기어 "사우디" 紅海의 上空을 날으며 인도양을 횡단하는 긴 비행시간에 생각해도 생각해도 알수가 없었다. 태국과 월남의 창연한 밀림을 내려다보면서 서독에 가서 임학을 공부하는 아들 생각이 나서 아-나도 凡夫에 지나지 않는구나 했고 주머니속에 가지고온 외손자놈의 사진을 보면서 아! 나도 늙었구나 하고 혼자 중얼댔다. 아직 못가본 캄코르와트와 "바이칼湖" "달단고원""포리네시아 群島"를 죽기전에 꼭 보고죽어야지 하고 마음속에 다짐했다. 긴비행도 끝나고 下界에 파란 "필리핀"의 카버테만이 보인다. 마닐라의 우리大使館에 勤務하는 동생과 3년만에 만나는 어린 조카놈들의 "큰아빠"하며 반기는 귀여운 얼굴들이 떠올라 마음이 焦燥해졌다. 〈*〉

会員同志 여러분, 三回에 걸친(東欧, 北欧, 埃及) 보잘것없는 나의 紀行文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로서 会員 여러분에게 여행선물을 대신합니다. /필자/

泉谷寺(址)에 対한 小考

玄 錫 洪
(한양건축설계사무소)



(사진 1) 泉谷寺(址) 중심부인 現 法堂주위
○표 나무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나타난 石柱

(사진 2) 천곡사 경내의 藥水. 황색이끼가 보인다.

경북 浦項에서 서북간방 嶺蔭山(해발 384m) 麓에 泉谷寺(址)가 있다. 영일군 의창읍 학천동에 속한다.

浦項 高速버스터미널 근방에서 車로 泉谷寺(址)를 向하여 출발하였다. 金容寬所長은 볼일로 빠지고 鞠鐘淳君이 동승 하였다.

東海岸高速化道路로 가다가 달천(6.5km)에서 좌측으로 갈림길인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어 鶴川洞 貯水池앞(3.5km)에서 下車 道步로 그 저수지를 좌측에 두고 올라가길 2km 정도가 천곡사 境內였다.

그 한가닥 계곡이 左右로 갈라지면서 주먹같이 둔덕을 이룬 그 위에 절이 자리하고 있다. 그 右側계곡 흐르는 맑은물에 징검다리를 건너, 둔덕밑 좌측 계곡따라 언덕길을 오르게 된다. 그 가파른길 밑에 뚫은 홈통으로 뻗쳐흐르는 물로 목을 추겼다. 철분이 섞인듯한 물맛이었다. 그밑에 황색? 이끼가 끼여 있다. 그 옛날에 있었다던 약수터는 저 위지대라 하였다.(사진 2)

泉谷寺에 関하여

日月鄕誌 泉谷寺址조에 6.25사변전에는「境內 13棟의 建物」이「壯觀이었는데 애석하게도」兵火로「歷史的 新羅古刹을 찾아볼 수 없게」되었고「千年巨閣안에千年老佛은 形態조차 永遠히 回復하지 못하리라」하고「新羅27代 善德女王께서 遇然疲疾羅病으로 呻吟하심이 長久」하여 群臣이 上奏하길 阿等辺退火之縣 泉谷嶺下」에「萬病通治의藥水라 하오니 幸監沐浴」하시길 권하여 王은「行幸하여 數日沐浴하시니 完治」되어 그「靈水의 神効에 感謝하여 慈蔵律師로 하여금 寺刹을 創立케하고 泉谷寺라 命名」하였다

迎日邑誌 泉台及数조 泉谷寺石函泉에서 「羅代古泉長霖不增溢 大旱無減流 每歲除夜子正 沸騰其時若飲則 勇力培加云焉」이라. 그 약수는 기운이 생겨 장사 된다는 말이다.

同誌 題詠조 江海張心学(通津府使지내신분)의 泉谷詠에서「歸田暇日訪禪楼白石清溪認旧遊 古殿清涼羅漢界 名山鎭圧曲江州 靈水可滌塵埃病…下略」여기에서「靈水」는 善德女王의 병환을 낫게하였다는 그 영약수를 연상케 한다.

여하간에 泉谷寺는 藥水와 관계 있는것 같다.

同志 名所古蹟조에서「泉谷寺事蹟碑在八相殿前」이라하고 그 碑文도 수록되어있으며「獨聖閣記」와「獨聖羅漢記」도 전하고 있다.

그 泉谷寺事蹟碑文에서 두서너어가지를 들어 다음과 같이 考察하여 본다.

「国之伽藍碁置星布 間多奇蹟異聞可詑…略」로 시작하여 「…泉谷寺赤東海之巨刹也 筆自新羅善德王時 所謂慈蔵律師者而其祝盥之有験…略」이라.

선덕여왕께서 언제 병환으로 그리하셨나. 三国史記(金鍾權譯)에서 善德王 5年(서기 636) 3月에 「王이 병들어서 医員을 불러 薬을 쓰기도 하였으나 효력이 없으므로 皇龍寺에 百高座를 베풀고 중들을 모아서 仁王経을 講讀하였고 百名의 중되는 것을 허락하였다」하였고, 三国遺事(李丙燾譯註) 密本摧邪조에 「善德王 德曼이 병환이 든지 오래 되었다. 興輪寺僧法惕(척)이 불리어 병환을 볼새 오래도록 効果가 없었다. 때에 密本法師의 德行이 国内에 알려졌으므로 左右의 신하가 바꾸기를 청하였다. 王이(그를) 宮中에 불러드리니 그는 宸仗(제왕의 침실)밖에서 薬師経을 읽었다. 経을 다 읽자마자 가졌던 六環杖이 寢室内로 날아 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法惕을 찔러 뜰아래로 거꾸로 내던지며 王의 병환이 나았다」하였으며, 善德王知畿(予知)三事조 中에서 「셋째는 王이 無病할 때에 群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某年某月日에 죽음터이니 나를 忉利天中에 묻어라」하였다. 선덕여왕께서는 어딘지 약하셨던 감을 준다. 언제 王께서 泉谷嶺下 약수터에 다녀 가셨을까? 더 窮究하여야 될것이다.

大德 慈蔵의 행적을 간추려보면 慈蔵定律조에서 「大臣자리가 비어 門閥로 衆議에 올라 累次 불리었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 王은 詔勅을 내려 「就任치 않으면 목을 베리라」하였다. 蔵이 듣고 이르기를 「내 차라리 하루라도 戒를 堅持하고 죽을지언정 百年을 破戒하고 살기를 願치 않는다」하였다. 이말이 上達되어 王은 그의 出家를許諾하였다」. 이리하여 善德王 5年(636)에 그는 「詔勅을받아 門人僧 實等 十餘人과 더불어 西쪽 唐에 건너가 清涼山에 갔었다」하였고, 韓国佛教史(禹貞相 金煐泰 共著)에서도 「유학 도중 清涼山에서는 文殊菩薩의 感応으로 梵偈와 袈裟·舎利 등을 받았고, 大和池의 龍神한테서는 本国으로 돌아가면 皇龍寺에다 九層塔을 세우라는 말을 들었었다. 그리고 唐太宗의 厚待를 받고, 善德王 12年(643)에 蔵経 4백여函과 幡幢花蓋 등을 가지고 돌아 왔다」하였고, 慈蔵定律조에「啓勅蔵為大国統 凡僧尼一切規猷 総委僧統主之」라 하였다. 그는 国家로부터 大任을 받아 外寺를 歴検僧尼의 紀綱을 바로 잡으면서 教団整備도 수립하고, 佛教 기틀을 정립하였다. 新羅 全国民의 精神을 護国護法으로 순화시키면서 앞으로 三国統一의 歴史的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国民자세를 확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上奏하여 皇龍寺에 九層塔을 善德王14年(서기 645)에 建立하였다. 韓国의 寺刹③, 新羅의 発寺 1 참조). 通度寺를 선덕왕15年(646年)에 創建하였다. 통도사는 戒律의 根本道場이 되었다. (韓国의 寺刹④, ⑤참조). 그는 水多寺 石南院(浄巖寺)등 10여소에 寺塔을 創建하였고, 晩年에는 文殊真身을 親見하려고 五台山에 들어가 보냈다. 以上에서는 慈蔵律師가 創立하였다는 寺庵들 中에서는 泉谷寺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하나 그가 세운 사업이 다 기록하진 못한것 같다. 자장율사는 한평생을 오로지 그 길로 정진 쉴새 없었던 분으로서 천곡영에 다녀가셨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 또한 더 캐보아야 알일이다.

「…貞観至正之間 廃興不一修改赤勤其間寺蹟絶統 有歴伝説者皆可記…略」라, 貞観은 唐太宗의 年号이다. 新羅善德王 元年(서기 632)壬辰은 貞観6年이 된다. 至正은 元朝 順帝의 年号이다. 至正27年이 끝이며, 高麗朝 恭愍王16年(서기 1367년)丁未가 된다. 創建后 七百여년간의 기록들이 不分明 하였던것 같다.

「…惟我世祖大王於興学設教…略…天順年間親酒御墨遺以寺 僧永作宝券俾加完護 銀鉤玉劃炳然尚存…下略」. 天順은 明朝 英宗元年부터 8年(1457~1464)까지의 年号이다. 李朝 世祖大王3年 丁丑에서 同王 10年甲申之間을 말한다. 世祖大王께서 親이 御墨을 내리시여 잔치를 베풀게 하셨고, 그 珠玉같이 아름답게 잘쓴 글씨는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셔서 지금도 炳然히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90여년전 이야기이다.

이상에서 오늘날의 천곡사가 그 폐흥의 우여곡절이 6.25사변 같은것 보다는 日月郷誌 史蹟編「이 地方에 倭寇의 侵略」조에서 말한 영향이 더 컸던것 같다.

그 寺蹟碑 現위치에 대하여 朴一天(前浦項市長, 日月郷誌著者)氏는 「泉谷寺가 6.25동란 때 전파되었고 그 碑도 흙속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 다시 세웠다」하였다. 現住持인 金宝雨스님은 「그 자리는 前 普済楼」라 하였고, 寺蹟記 없어 걱정하였다. 近50年동안 천곡사에다녔다는 李辰雨君의 外祖母 法名 보경화 李今伊(74세)女史는 「그 윗층에 종과 큰북이 있었고 그 아랫층 한편으로는 通路였고 지금 그 돌기둥이 그때 것이며 그옆에 碑도 서」있다고 하였다.

視線을 멈추게 하는것들.

그 普済楼址에 한편은 대발이 또 한편끝은 채마밭 그리고 벚꽃나무등 몇그루가 서있으며 아직 구춧돌이 박혀 있으며 길이 되었다.

그 길 左側에 泉谷寺事蹟碑가 서있다. 碑身이 동강났던 흉터와 총탄자국이 나 있다. 그 悽絶했던 惨状의 痕迹들이다. 나그네의 손길이 그 상처를 어루만지니 소리없이 흐르는 쓰라림 차다.

천곡사사적비 이면에 建立年月이 있다. 「康熙二十八年四月立」이라 陰刻되어있다. 康熙는 清朝 聖祖 年号이다. 李朝 肅宗15年(1689年)己巳 4月에 建立한 것이다. 그 碑文은 그 당시 興海郡守 柳栢의 撰文이다. 碑身의 크기는 넓이 53cm에 두께 18.5cm이며 머리는 굴렸는데 제일높은데가 1.45m이다.

石柱는 그 碑뒷편에 비신에서 97cm 간격을 두고 서 있

(사진 3) 普濟樓址에 길. 左側 앞 泉谷寺事蹟碑 뒷편 左右兩側에 石柱.

고, 그 길 右便에 돌기둥이 또하나 서있다. 石柱와 石柱 사이는 2.8m로 측적된다. 그러니까 길좌우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이다. (사진 3)

그 石柱의 주춧돌은 山에서 굴려다 그대로 놓은듯 그 뿌리를 땅에 박고 돌기둥앉은자리는 편편치 않다. 그 위에 서있는 石柱 감싸줌없는 우로풍상에 시달려둥근듯 미동 없이 서서, 어찌보면 우직스럽기도한 그 순박성 그리고 구수한 바탕에서 지성어린 情의 힘에 감싸여 굳건한 표정 말없이 마주서 외롭지 않다는 듯하다.

그 左側의 주춧돌은 둘레 2.85m 크기의 자연석이 뿌리를 땅에 밖고 55cm솟아있다 (그위에 서있는 石柱는 거친 다듬면의 8각인데 둘레 1.60m에 高는 1.05m이다. 서쪽으로 약간기울어져 불안정감을 주는듯한 모습으로 서 있다. 그는 주춧돌면이 편편치 않은데서 오는것이다. 그右側의 주춧돌도 自然石그대로인데 깨어졌으나 둘레크기는 左側것과 비슷하며 地面에서 30cm솟아있다. 그위의 石柱도 좌측것과 같은 수법의 8각인데 둘레는 1.80m에 높이는 1.33m이다. 남서쪽으로 약간기울어져 서있다.

基壇, 비교적 넓은 뜰 좌우에 부속건물이 있고, 그뜰을 앞에두고 築石된 基壇이다. 기단의 전면已長이 13.20m이며 측면은 10.50m로 측정되는 方角의 기단이다. 그 兩側面과 后面은 묻혀서 장대석 위면만 나타나 있다. 그前面 기단중간에 石階는 同時에 造成된것 같이 않다. 그 築石은 1m높이를 세벌대로 쌓았는데 돌면은 거친다듬이며 맨 아랫대인 첫단은 내 놓여 있으면서 地面에서 20cm내외솟아있고 그 윗두단은 돌높이 40cm씩이며 긴것은 2m內外되는것도 있다.

이러한 築石方法은 「長台石·武砂石」(空間誌 1968年 1月号 韓国古建築断章 참조)에 속한다. 그리고 新羅 때에도 보이며 李朝時期에 비교적 많이 보인다는 쌓기방법이다.

그 基壇(建物)의 座向은 亥座巳向이다. 風水地理說 에 의한것 같다. 그 東쪽편이 얕아 허해보인다. 그 方向 現 庫舍뒷편 비탈진곳에 대(竹)밭이 있다. 그 法堂 주위는 修道処인 道場으로서 숲은 전날부터 가꾸어져 왔으리라.

(사진 4) 基壇과 現 大雄殿

(사진 5) 眼象石

現在의 大雄殿은 그 基壇 위에 서있다. 그처마밑에「大雄殿重修記」가 걸여있다. 「佛紀2989年 4月 8日」이루어졌다는 것이다. 共佛로는 2505年(서기 1962년)이 된다. 그 蓋瓦와 体材들은 그 破古材에서 추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붕에 용마루 합각 추녀 各마루끝에 그古瓦에 銘記암막새를 썼는데 거꾸로 놓여 있다. 대웅전안에는 八相図(通度寺에 있는 팔상도보다는 간략하다)가 안치되어있다. (사진 4)

山靈閣은 한칸집인데 昨年에 시작하여 긋기단청까지 끝나 견실한堂宇이다. 그러하나 추녀마루끝에 그 古銘記암막새라 바로 놓여있지 않다.

共外建物들은 仮設的이다. 그러하나 나그네가 하루쉬어갈 수는 있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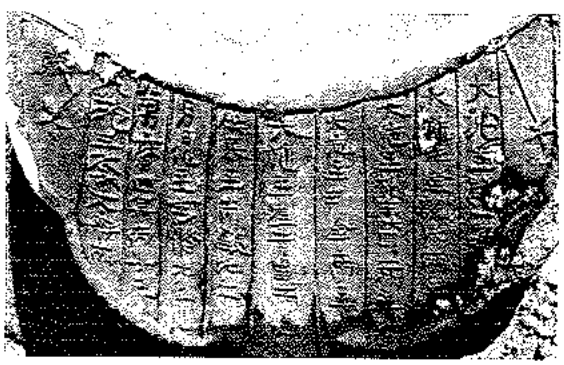
(사진 5)는 眼象이 彫刻되어있는 板石이다. 法堂앞 기단좌측끝에 놓여있다. 크기는 두께 19cm에 폭은 58cm이며 已長은 58cm에서와 그반대편은 56cm에서 끊기어져 나간 長方形의 板石이다. 두께 19cm의 前后兩面의 長方框內에 眼象을 彫刻하여 있다. 마구리와 넓은 上下面에는 다듬어져 있을뿐이다. 거치른 제품이다. 何処用? 부처님座臺의 下臺石이었을까 아니면 石塔앞의 禮拜石(床石格)이었을까 애매한 모습하고 있다. 그 眼象石위에 놓여있는 돌은 8각을이룬 것인데 끊기운돌기둥쪽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 造成年代는 基壇과도 다르게 보인다.

(사진 6)은 石燈의 竿石柱이다. 석질은 다른것보다 비교적 좋은 花剛石이다. 竿石柱部分은 8각인데 正角이아

(사진 6) 竿石柱

거꾸로 놓여있다. 확대 바로본것. 六月日 泉谷寺로 나타난다.

니며 徑 28cm이다. 그 同一材로 이루어진 火舍石의 臺石部分은 두께 3.60cm의 四角板面으로 되어 있으며 8각과 4각이 마주다아져있는 부위에는 그 8각의 各面에 伏蓮 2瓣式을 陽刻하였다. 그 竿石柱 8각의 一面에 음각되었던 글자가 있는데 뭉개버린흔적으로 판독이 곤란하나 …六月日泉谷寺…는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수장구멍 같이 깊게 파낸구멍도 있는데 후에 뚫은것 같으며 무엇에 썼던 구멍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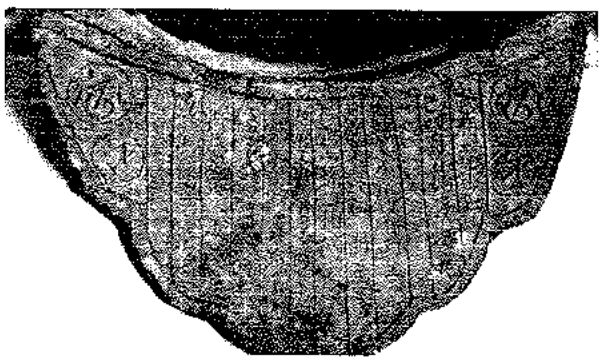


(사진 7) 「萬曆四年丙子三」銘記암막새

(사진 7)은 「萬曆四年丙子三」銘 암막새이다. 萬曆은 明나라 神宗 年号이다. 李朝 宣祖王 9年(1576) 丙子三月에 만든것이 된다. 雲文形(多樣半月形)판에 文字를 다음과 같이 돌기시켰다.

大施主蔡莫三兩
大施主金殷辰兩主
大施主朴壽同兩主
大施主尹 金兩主
大施主崔昔留兩主
供養主尚觀比丘
月日化主享修比丘
萬曆四年丙子三
大施主李文齊兩

(사진 8)은 「崇禎二年 己巳四月日」銘記 암막새이다. 崇禎은 明나라 毅宗(莊烈) 2年이며, 李朝 仁祖王 7年(1629) 己巳 4月이 된다. 銘記는 雲文形(多稜半月形)에 돌기시켰는데 그 左右兩 上端部에 上下로 쿠고작은 원내에 각기 다른 梵字를 새겼다.



(사진 8) 「崇禎二年 己巳四月日」銘記 암막새

崇禎二年己
巳四月日始後燔瓦
大施主金得春兩主
大施主興知兩主
大施主孫二相兩主
大施主李今連兩主
大施主金軍朴兩主
大施主鄭自香兩主
幹善道人上卞比丘
助緣信嘗比丘

(주술적인 범자문이다)

(사진 9) 「乾隆 四年己未月日」銘記 암막새

(사진 10) 「乾隆二十六年 辛巳三月 造成」銘記암막새

(사진 9)는 「乾隆四年己未月日」銘 암막새이다. 乾隆은 清朝 高宗 年号이다. 李朝 英祖王 15年(1739) 己未가 된다. 이것은 처음에 판독 못했었다. 그러한데 그 지붕에 같은 것이 있었다. 銘記는 雲文形(多樣半月形)판에 다음과 같이 돌기 시켰다.

乾隆四年
己未月日

(사진 10)은 「乾隆二十六年辛巳三月造成」銘 암막새이다. (사진 9)다보다 22年后의 것이다. 英祖 37年(1761) 辛巳 3月에 조성했다는 것이다. 半月形판에 글자와 문양을 돌기 시켰다.

副片手明贊

(사진 11) 「甲申 二月日」 銘記 암기와

(사진 12「巳丑 二月」銘記 암기와

(사진 13) 「卐」字銘 암기와

(탁본한 것)

都片手日湛

□将穎□ (牌将=役事할때 匠工을 거느린 사람)

乾隆=十六年辛巳=月造成

都監三湜 (都監=総務 格)

別座日訓 (別座=공양할 반찬과 음식을 만드는 소임)

□□□印

그리고 문양은 蓮蕾같이 보인다.

(그림 11)은 「甲申二月日」銘 암기와이다. 八相殿址에서수습한 것이다. 배면에 波形文 바탕에 간간의 区間内에 左手로 쓴 글자가 다음과 같이 돌기되어 있다.

甲申

三月日

글자 크기는 1cm内外이며 胎土는 좀 거친편이다. 두께는 2.30cm에 바닥에는 삼베자국도 있다.

(사진 12)는 「巳丑二月」銘 암기와이다. 法堂앞뜰에는 우물가에서 길바닥에서 밟히는 것을 수습하였다. 그 至誠어린 청수뜨려 오각는 발길만의 길이 아니다. 무심한 세월속에 귀열이 나면서 멍들어 있다. 깍이고 달았으나 波形文様이 보이며 銘記도 남아있다. 左手로쓴 글자크기는 1cm内外이며 年号는 판독 될듯하면서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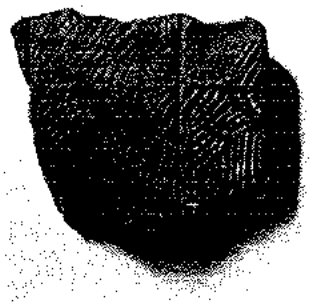
□□ 巳丑 二月

두께는 2.10cm에 바닥에는 삼베자국이 있다. 색깔은 시멘트기와 만들때 흑연쓰듯이 진회색 입힌 흔적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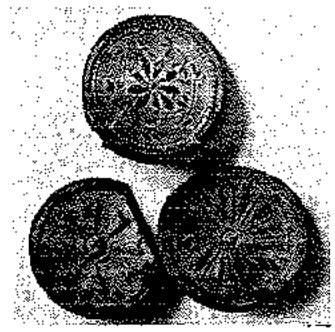
(사진 13)은 「卐」字文 암기와이다. 樹葉形成文 바탕에 조그마한 6角을 돌기시키고 그안에 十字를 陽刻하였다. 그 瓦匠의 손끝을 通하여 그 무엇을 표현하려 하였을까. 佛教 修行에 있어서 6角으로는 六行인 布施 持戒 忍辱 精進禪定 智慧로 그리고 十字는 十波羅密을 뜻하였을까? 胎土는 좀거친편에 바닥에 삼베자국, 두께는 2cm, 6각 크기는 1.10cm이다.

그 樹葉文은 慶州 皇福寺址에서 出土한 것들과 흡사하다. (사진 14)의 암기와문양도 그러하다. (空間誌 1970年 9月호 韓国古建築断章〈13〉 참조)

(사진 15)는 男瓦當들이다. 문양들이 그 간 알려진 新羅 시대 瓦當에 비할반 못된다 하겠으나 모두가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희구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리라.



(사진 14) 암기와 문양



(사진 15) 수막새들 「옴」자인 梵字文도 있다. 径 17.2cm

(사진 16) 蓮華文숫기와

(사진 17) 숫기와 문양

그중에는 梵字文도 있다. 기와에 범자를 새기지 시작한 것이 高麗時代부터라 한다.

密教的 유래에서 그 오래전부터 있어온 「옴」자라 한다.

(사진 16)은 蓮華文숫기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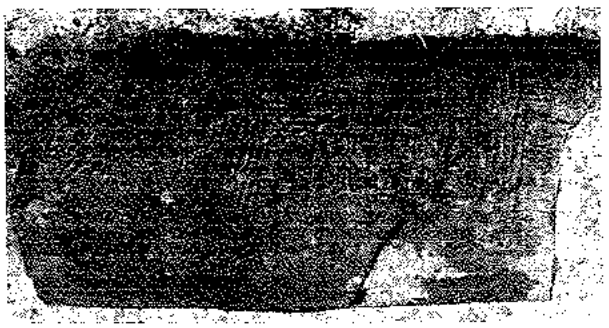
우리조상들은 사군자 중에 하나인 菊花文도 애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화문이 아닌것으로 본다.

佛事에서의 문양은 연꽃문이 주류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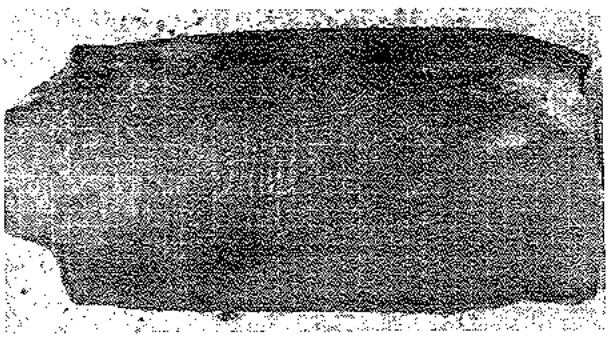
가로 平行線들에 간혹 넣은사전은 3각을 연상케한다. 径은 4cm의 돌기된 周縁과 子房과의 내구에 蓮華 12瓣式을 陽刻하여 横으로 나란히 배치하였다. 굽기전에 취급 잘못에서인지 눌렸던자국이 보인다. 색갈은 엷은회색, 두께는 1.90cm, 胎土는 고운편이다.

(사진 17)은 그 대(竹)밭 길가에서 수습한 숫기와이다. 문양의 전모를 볼 수 없으나 재미있다.

어찌보면 心葉形 宝相華的 蓮華瓣 蓮蕾文을 연상시키면서 그 한편만을 중첩연결 시킨것 같다. 두께는 얇은데가 2.20cm에, 태토는 좀 거친편, 이면에 삼베자국도 있다.



(사진 18) 吉祥字(壽)文 숫기와.



(사진 19) 숫기와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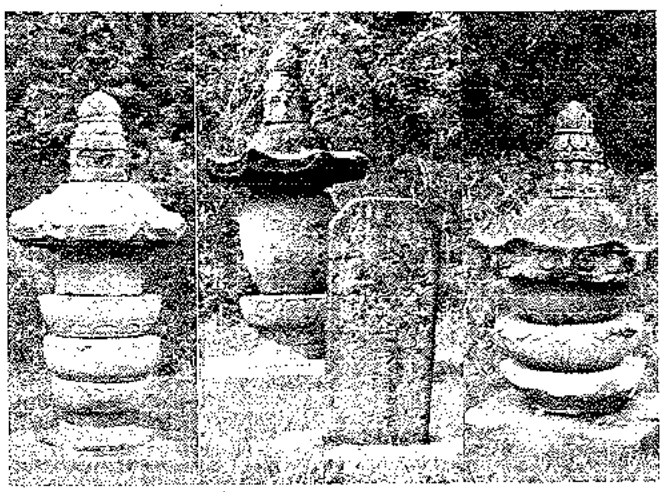
(사진 20) 엷은주황색 숫기와

(사진 18)은 吉祥文 숫기와이다. 오지같이 잘구어진 것인데, 굽었으며 중간부위의 등이텄고 좀오그라졌다. 문양은 파형과 종횡으로 넣은 선조문 中에 변형시킨 壽字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색깔은 잿빛, 두께는 2.10cm. 徑은 12cm의 그 半分이다. 外周는 27cm이다. 이면에도 튼곳도 있으며 삼베자국이 있다.

(사진 19)는 숫기와인데 (사진 18)과 비슷한 문양을 하고 있다. 같은 가마 한날에 구어진것은 아니다. 胎土色은 황토색? 바탕 위에 진회색을 입힌것이 아직남아 있다. 문양은 정교 하다. 두께는 2.60cm, 徑은 12cm의 그 半分으로 측정되며 外周는 26cm이다. 이면에 삼베자국이 있다.

사진 ⑰⑱⑲를 처음 그 대밭 길가에서 수습하였을때 푸른이끼도 이끼려니와 釉藥을 먹였던 용마루用 청기와로 보았었다. 조심하여 물을주면서 부드러운솔로 그틈새에 낀 먼지같은것을 씻었더니 애석하게도 그 유약이 다 벗겨진것 같다.

(사진 20)은 엷은주황색 숫기와이다. 표면에 樹葉文이 남아있다. 원형이 퍼져 상당히 큰 숫기와로 보인다. 이면



(사진 21) 浮屠들, 옥개석 전각면에 八卦가 보인다.

에는 삼베자국에 오지로 구어지던것인지 그자국이 뚜렷하다. 두께는 2.60cm. 外周는 27cm, 이것역시 용마루用으로 추측된다.

(사진 21)은 浮屠이다. 그절에서 동북간방으로 계곡을 건넌 산록에 9기가 서있는데 그 탑비는 8이라, 수차 변란의 이설로 대부분이 제짝들이 아닌것 같다. 그 中의 것이다.

8각을 이룬 屋蓋石 처마 전각된 면에 八卦가 彫刻되어 있는것이 보인다.

그 相輪部分 등이 지의 비슷한 手法들이다. 다 그런것은 아니다.

여기 보이는 塔碑는 乾隆 8年(李朝 英祖 19年, 서기 1743년)癸亥 2月20日立이며, 月河堂大禪師塔으로 되어있다.

浮屠에 八卦, 周易「繫辭伝」과 朴容淑氏 著書中의 「샤아머니즘建築」을 상기시킨다.

前記한 암기와에 나타난 甲申과 己丑이 그 암막새들의 年月과 맞는 것이 있는가 살펴 보았으나 같은것이 없다. (대조표 略).

天順年間인 世祖大王 10年(1464)이 甲申이다. 그 甲申年에 서울 13層塔으로 유명한 圓覚寺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해이기도하다. 그 5年后가 己丑이 된다.

그리고 泉谷寺에 石塔이 있었을법한데 처음부터 없었는지, 하기야 三国遺事 二恵同塵조에 恵空스님과 元曉로 이름있는 吾魚寺에도 현재 石塔은 보이지 아니한다.

上述한 것들은 筆者가 보고 듣고 또 地表面에 노출되어 눈에 띄이는것을 손쉽게 수습한 것들이다.

우선 破瓦더미라도 하나하나 파 헤치면서 얻은것들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 造成年代를 추정한다든가 하는일은 삼가하였다.

우리의 뿌리인 微細根 하나라도 더 傷하기전에 保護 発展시키려는 이 때이니 此際에 더 考究하여 그에 対한 相応한 対策이 時急히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아니한다.〈*〉

自然学習園과 施設計劃

田 燦 珍
(喜雲建築設計事務所)

1. 自然学習園

自然学習園이란 文字그대로 自然을 学習하는 場所를 말한다. 都市주위의 山과 들, 논, 밭, 樹林, 溪谷, 江 또는 人工으로 造成한 植物園, 動物園등도 넓은 意味의 自然学習園의 범주에 속할수 있다.

建築的 意味이거나 狹意로서는 自然을 통하여 心身의 鍛練을 목적으로 하는 施設物(自然修練園, 自然步道, 야외캠프장 自然觀察路, 야외体育公園 等)들이 이러한 範疇에 들수있다.

2. 自然과 人間

自然이란 하늘과 땅, 그안에 있는 모든것을 뜻한다. 이중 人間은 動物界에 속한 一部分에 불과하다.

宇宙住復船이 발사 회수되어 우주開拓의 時代를 지나 宇宙旅行이 운위되고 있는 이즈음도 自然의 혜택없이는 그 発展의 寸步도 進前 시킬수 없다.

日用하는 食糧과 日常品, 各種에너지의 供給原, 木材와 鉄과 세멘트, 유리, 이러한 것들은 모두 人間이 自然을 征服하고 開拓하여 얻어낸 産物이다. 그러나 産業技術의 発展과 팽창의 가속화는 開拓의 度를 넘어 乱開発의 막다른 길로 몰아 붙이고 局部的으로는 生態系의 파괴 오염을 自招하고 人間을 公害의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人口의 팽창과 都市集中은 住居環境의 都市化를 가속시켜 自然을 忘却한 人間, 文明의 利器만으로 둘러싸인 허약하고 무기력한 人間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뒤늦게 이러한 과오를 깨닫고 "自然을 保護하자"라는 스로건을 내걸고 定期的인 自然保護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이것이 일요일 近郊의 "휴지, 병줍기", "나무꺾지 않기",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산불조심", "입산금지"…等의 스로건 運動次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自然保護運動은 "지키기 一辺倒"의 方法과 段階에서 탈피하여 파괴되어가는 自然을 保護하고 自然의 질서와 法則을 인식하고 그 無限한 生命力을 活用開発하여 人間과 自然이 共存할 수 있는 길을 自然으로 부터 얻는 段階로 끌어올려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3. 自然学習園

自然学習園은 自然과 人間의 基本的인 関係構造를 보여줌으로써 自然과 人間의 調和와 신비스러운 均衡의 짜임새를 배워 스스로 人間의 바람직한 活路의 모색을 찾도록하는 自然과 人間의 "対話의 広場"이다. 自然과 人間의 유대관계를 튼튼히 하고 自然理解에 바탕을 둔 思考와 活動이 社会에 充満될때 社会는 더욱 理想에 접근될 것이다. 또한 아동교육 과정과 初等教育過程에 自然을 実物로 제시함으로서 산 교재원이 되어 日常生活에 自然애호의 思想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것이다.

요약하여 自然学習園에서의 学習은 다음 4가지로 볼수 있다.

가) 自然속에 묻혀 생활 함으로서 野外活動의 基本技術 습득.

나) 自然과 実際로 接触하면서 自然과 人間의 共存関係를 理解하여 自然을 소중히 다루는 心性의 함양.

다) 野外活動을 통한 心身의 鍛練.

라) 그룹活動을 통한 훌륭한 社会人으로서의 資質涵養.

4. 自然学習園의 計劃

学習園은 운영규모 環境条件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立地를 選択하기 前에 학습원의 主対象을 파악하여 이에따른 운영규모를 산정하고 산정된 운영규모에 따라 적합한 立地를 選択하거나 적정한 立地에 따라 운영규모와 대상인원 性格을 규제하여 가정한 후 필요한 부분적 시설물 계획을 하여야 한다.

環境条件
自然条件
←→ 立地選定 → 配置計劃 → 施設物計劃

5. 立地選定

自然学習園의 造成予定地의 決定은 学習園의 機能的特性을 판가름하며 이는 自然条件과 環境条件의 두가지 側面에서 明確한 基準에 맞추어 物色되어야한다. 天然 그대로의 雄大하고 莊厳한 自然이 가장 바람직하며 "自然이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의 答이 될수 있는 条件이어야 한다. 그러나 実際로 이런 理想的 自然環境을 찾아내기란 손쉽지 않으며 또한 雄大하고 莊厳한 自然을 찾아 都市圏을 벗어나 閑寂한 地域에 自然学習園을 設置한다면 本来의 目的에 부합되는 理想的 施設을 갖출수 있으나 所在地에 도착할때까지의 時間과 経費等의 難題가 뒤따르

기 마련이다. 따라서 坪担하고 넓은 草原과 헤치고 들어갈만한 숲이 함께 이어져 있으면 일단 바람직한 自然環境이라고 判定내릴수 있다.

피부로 느낄수 있는 自然, 냇가에서 몸을 담구고, 풀밭에서 뒹구며, 그윽한 숲속의 큰키나무 밑에서 아름다운 잎새들을 줍고, 새와 곤충들의 동작을 살피며 물고기와 벌레들의 모양을 흉내내는 광경이 連想될수 있는 곳이면 充分하다. 이러한 行動의 自然的 유발을 為해서는 敷地內에 四季節을 통하여 巾넓은 自然현상을 관찰 습득할 수 있는 산, 언덕, 골짜기, 내, 늪, 연못등의 環境要素와 충분한 植生, 動物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敷地外의 環境要素로서 敷地外郭에 전통적인 농촌 취락이나 어촌 역사적 유원지 文化財가 있다면 여기에서 실제로 自然과 人間이 共存하는 実態를 관찰 이해할수 있으며 地域社会人들과의 対話를 통하여 農業이나 林業 또는 魚業에 종사해서 現業을 遂行하는 모습을 体験하게 되고 自然의 은혜를 배우며 일을한다는 高貴한 姿勢를 理解하는 과정이 成長에 큰 도움을 준다.

6. 敷地의 規模 및 収容能力

敷地의 規模는 自然環境의 領域感을 주고 効率的인 프로그램 学習이 遂行되도록 적정 규모이어야 한다.

自然学習園 設置를 為한 所要 부지의 적정기준은 대체로 利用者 一人当 3,000m²이상이면 理想的이며 実際로 小規模 学習園의 경우 1人当 300~600m², 大規模인 경우 1,500~5,000m²의 규모이면 적정하고 都市圏에 隣接하여 経済性이 고려될 경우 1人当 400m²로 함이 적정하다. 収容能力은 来訪하는 学習그룹의 種類, 規模, 利用期間, 利用季節을 予測함으로서 収容規模를 산정하고 이에따른 学習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서 그 容量이 決定될 것이다.

学習그룹 단위는 지나치게 크면 教育活動이 画一的으로 진행되고 施設의 特徴을 充分히 活用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으며 너무 적은 그룹일 경우 마련된 教育施設을 充分히 活用하지 못한채 断片的인 学習이 되어 散漫한 教育이 되고 말아질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学校団体인 경우 100~200名 써클団体는 50~60名 程度이며 利用期間은 ㉮当日型 ㉯1泊2日型 ㉰2泊3日型이 대부분이다. 利用季節은 여름, 봄, 가을, 겨울의 순서이나 여름이 압도적으로 많다.

7. 配置計画

学習園의 主要 施設物은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 学習 教育施設 1) 展示館, 水族館, 博物館, 植物園, 図書館, 鳥舎.
2) 관찰로, 学習路, 展望台, 휴게소, 야외学習場, 集会所.

㉯ 지원施設 1) 관리棟, 安内館, 강당, 研究棟

㉰ 宿泊施設 1) 宿泊棟, 방가로, 오두막

2) 캠프장

敷地內의 施設物들은 自然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各種施設物의 人為的인 연결을 위하여 훼손하여서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날것이다. 따라서 관찰로는 급경사와 낭떨어지도 있으며 경사진 平地는 야외 학습장으로 쓰이게되고 시냇물이 있는 곳은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게 된다. "입산금지", "나무를 꺾지 마시오"等의 규제의 팻말이 없는 計画된 歩道나 観察路만을 利用하도록 지형을 교묘히 利用, 철저히 意図的으로 計画함으로서 질서의식과 자연애호의 사상을 体験토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완성된 배치는 当初의 自然感이 유지되어야 하며 全地域에 걸쳐 散漫하게 배치하거나 지나치게 人工的이 되어, 内部空間이 "유리조심", "뛰지 마시오" "신발을 벗으시오" 等의 수많은 규제의 連想이 되어서는 안된다.

敷地의 環境条件에 따라 이러한 施設物의 배치 방법은

①分散型 ②集中型 ③절충형

으로 분류할수 있으나 集合型의 경우 進入路 가까이에서 自然変化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事前에 적절한 対備策이 마련되어 바람직한 領域感이 確保되도록 한다.

分散型의 경우 오두막집이 본래의 利点을 살리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띄워 놓아 서로마주 보이지 않도록배치상 유의하여야 한다. 절충형의 경우에는 中央施設과 오두막집 사이에 서로 独立된 雰囲気가 살려지도록 배치하며 또한 여러채의 오두막집을 배치할때는 서로다른 환경에 배치함으로서 자연을 유효 적절하며 교묘히 살려주는 일이 바람직하다.

8. 屋外学習施設 計画

施設物은 大別하여 屋外学習施設과 屋内学習施設로 나눌수 있으며 屋外学習旋設中 가장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 自然学習路이다. 이는 原来 美国의 네이처 트레일(Nature Trail)에서 유래된 말로 漢字로 번역되면서 自然観察歩道, 自然学習路, 自然歩道 等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며 원래의 취지는 자연관찰을 통하여 自然学習을 野外에서 直接할 수 있는 동시에 청소년의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정신의 앙양이란 부수적 효과도 함께 얻으려고 한것이었다. 따라서 경치가 좋은 국립공원이나 自然保護区域内에 地域을 선정하여 걷기운동을 겸한 심신의 연마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다. 또 自然学習路는 생태학적 지식 및 그 응용에 도움되는 관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歴史的인 동시에 文化的 유산도 함께 連結시켜, 공부할수 있는 利点을 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自然景観의 탐승을 위한 一般人에게도 自然理解의 기회를 주어 自然保存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으므로 여러나라에서 앞다투어 시설하기에 이르렀다.

自然学習路는 教育対象에 따라서 差가 있으나 日本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걷는 観察路, 観察歩道로

해석되며 주변에 각종 학습재료를 따라 걸어 다니게 설계하고 있다.

9. 学習路의 計劃

㉑ 学習路의 区分

• 정규적 自然学習路(Formal Nature Trails)한 장소에서 다른장소로 옮겨갈때마다 정확히 步道를 안내 해주며 장소別로 주변의 動植物상과 地形을 설명해 준다.

• 半정규적 自然学習路(Semi-Formal Nature Trails)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때마다 역시 步道를 案內해 주지만 서식지에 중심을 두고 각 장소간을 차지하는 서식지에서의 動植物상과 地形을 설명해 준다.

• 비정규적 自然学習路(Informal Nature Trails)보행을 안내하는 제도나 시설은 없지만 이용자가 步行할수 있도록 정보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흥미를 갖고있는 분야를 그 지역내에서 스스로 탐색하게 되어있다.

㉒ 学習路의 선정과 규모

学習路는 地域의 環境条件과 生態学的 形状과 학생들의 체력을 고려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地形에 따른 植生의 비교 배수상태 및 수문학적 배경 기후의 변화상태 식물상 동물상의 비교등에 観察 대상으로하고 짧은거리에 学習資料가 많은것이 효과적이다. 日本의 경우는 하루 걷는 시간을 6時間내외 6～7km정도로 하고 3～4개의 관찰코스를 둔 곳도 있으며 美国의 경우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필요한 学習路에서는 하차하여 관찰하는 大規模의 것도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1mile을 기준으로 하며 중간에 짧은 학습로(3～400m)를 두어 하루에 약 3～4개소의 학습로 즉 7～8km를 걷게하고 있다.

(외국의 예)

국 명	위 치		규 모	
영 국			1.5mile (평 균)	
미 국			0.5mile (평 균)	
일 본	高尾	1号線	3.8km	1시간30분
		2号線	0.9km	30분
		3号線	2.4km	1시간
		4号線	1.5km	45분
		5号線	0.9km	30분
		6号線	3.3km	1시간30분

㉓ 学習路의 設計

가장 重要한것은 自然의 原形을 最大한 살리는 것이다. 既存의 등산로나 길이있는 경우 이를 活用하여 관찰対象에 접근되도록 하고 직선으로 山頂과 연결시키는 무리한 方法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어진 環境에 적합한 형태로 하되 산을 우회 시킨다거나 ∽형으로 환상선을 만든다거나 크로바 형태로 할수도 있다. 2개 이상의 환상로가 생길 경우 관찰대상의 수준이나 식생등의 형태를 달리함으로서 효과를 거둘수 있고 水生植物과 乾燥類와 같이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중간중간 적당한 지점에 휴게소 집합소등을 설 치하고 인원 점검이나 식수등을 공급할수 있는 설비를 하고 정상이나 視野가 트이는 부분에는 展望台를 설치하여도 좋다.

도로의 포장은 비포장이 원칙이나 降雨時의 流水에 依한 침식등을 防止해야 할때는 포장과 側溝나 석축을 쌓을수도 있다. 人工的이 되지 않고 주위와의 조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10. 屋内 学習施設의 計劃

博物館 水族館 等의 屋内 学習施設이 일반市街地의 것과 달라야 하는 점은 실제로 学生들이 学習路에서 관찰한 対象을 研究 검토하도록 하는 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조류의 보호를 위한 새집과 먹이통은 직접 제작하여 달아주고 조류의 먹이습성과 群集생활을 관찰하여 물고기나 양서류를 직접 채집하여 그 외관을 자세히 관찰하고 오염된 물에서의 行態를 직접 보여주고 곤충들의 허물을 벗고 성충이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주는 기능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博物館 水旋館 곤충사 等이 갖추어야할 일반적인 시설외에 学習園으로서 갖추어야할 시설을 위한 특수기능은 다음과 같다.

• 모이 주기
• 먹이통 제작설치 관찰
• 급수통 제작설치 관찰
• 먹이식물의 植栽
• 둥지 포켓설치 관찰
• 조류와 동물의 보호작업의 스라이드 제작강연
• 淡水 생태계의 기능관찰
• 淡水 생태계의 오염에 대한 관찰
• 淡水 생태계와 陸上생태계와의 관계관찰
• 인공수질 형성 실험
• 인공토양 제작 실험
• 토양의 유실 침전 실험
• 식물의 발아 관찰
• 토양속의 미생물 분리 관찰
• 곤충의 채집 관찰

기타 植物과 動物, 조류, 포유류, 담수식물, 곤충등의 생태와 그 변화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직접 채집 관찰자료를 제작,의문을 해결하고 이행하는 기능이 충족되도록 計劃되어야 한다. (※)

海外建設工事(Ⅱ)

都 強 會
(삼호 주택)

Ⅰ. 概要

本 現場은 사우디 公共住宅省에서 発注하는 사우디 政府工事로서 사우디 首都 리야드에서 東쪽으로 約 80km 떨어진 AL KHARJ 道路에 位置한 것으로 現場 #1, #2, #4로 되어 있으며 이 現場에는 80年 4月에 崔大統領 각하께서 방문한 적이 있는 韓国과 사우디 兩国間의 관심이 集中되어 있는 現場으로 工事規模의 單一 現場으로서는 只今까지 韓国의 海外工事에서 가장 큰 10億$에 該当하는 것으로써 여기의 現場에 進出한 技術人力은 萬名을 훨씬 넘어 萬弐千 여명에 되고 있다. 여기 現場 #1은 삼호, 진흥으로 現場 #1의 삼호는 아파트 및 住宅工事를 진흥은 外部의 電気工事를 맡고 있으며, 現場 #2는 한신, 진흥으로 現場 #2의 한신은 아파트 및 住宅工事를 진흥은 外部의 電気工事를 맡고 있으며, 現場 #4는 경남, 삼익으로 現場 #4의 경남은 約 千여세대의 住宅工事를 삼익은 六拾여棟의 아파트와 百여棟의 住宅 工事를 하고 있다. 여기 本人은 現場 #4인 三益에 勤務했으므로 여기의 #4인 경남과 三益에 対한 대략적인 工事規模를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道路포장工事, 街路灯工事, 半地下式 構造物의 駐車場工事, 変電室工事, 其他工事가 있다.

Ⅱ. 工事의 特徵

아파트는 4層, 6層, 8層, 10層等으로 低層, 中層, 高層으로 区分되어 있으며 住宅은 一層, 二層으로 区分되어 있다. 다만 一層 住宅은 増築을 감안하여 二層을 増築構築토록 되어있어 屋上의 파라펫은 꼭 P.C나 打設 콘크리트로 하도록 되어있다. 아파트는 骨造工事를 턴벌 형틀과 셧터링 형틀의 두가지로 工事를 할수 있도록 設計되어 있다. 턴벌 형틀은 형틀이 턴벌과 같은 即 굴같이 壁体와 Slab가 一体가 된 형틀로 壁体와 Slab의 鉄筋을 鉄筋 加工場에서 組立하여 tower crane으로 들어올려 組立을 한다. 即 壁体의 鉄筋을 組立한 后 턴벌 형틀을 設置한 后 Slab 鉄筋을 概組立된 Slab 鉄筋을 設置하게 된다. 그 后 콘크리트를 打設하게 된다. 即 壁体와 Slab의 콘크리트를 同時에 打設하는 方法이며, 셧터링 형틀은 壁体工事를 끝낸 后 Slab 工事를 하도록 되어 있는 即 壁体와 Slab 工事를 区分하여 進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住宅은 一層에서 二層으로 通하는 階段은 P.C로 設計되어 있으며 屋大 Slab는 P.C 形態인 5cm 두께의 옴니야 Slab로 되어 Slab는 거푸집이 必要 없고 옴니야 Slab 設置 后 콘크리트 打設을 감안 bow beam 형틀을 設置하게 된다. 그러므로 Slab의 支柱는 必要가 없게된다. 옴니야 Slab 위 10cm 콘크리트 打設 前에 wire mesh를 깔도록 되어있음.

Ⅲ. 設計内容

가) 아파트

(1) 아파트는 2世帯를 한個層으로 하여 4層은 玄関에서 左側은 엘리베이터가 設置되도록 設置되어 있으며, 右側은 창고로 使用할 수 있도록 設計되어 있음. 또한 6層은 左, 右側 両쪽 모두 엘리베이터가 設置되는데 사우디에서는 男女로 엘리베이터가 区分되어 있는것이 普通이다.

(2) 主 階段의 핸드레일은 鉄 핸드레일이며 바닥은 大理石으로 크기는 200×400×20mm 두께 或은 200×200×20mm 두께의 寸数를 使用토록 되어있으며 써비스 階段의 핸드레일은 알미늄 핸드레일로 되어있고 바닥은 테라죠 타일로 그 크기는 200×200×15mm 두께 或은 300×300×15mm 두께의 寸数를 使用토록 되어있으며, 主 階段의 걸레받이는 巾 7cm, 두께 2cm의 大理石으로 길이는 바닥材의 크기와 같은 길이이다. 그리고 面을 약간 접도록 되어있으며 써비스 階段은 또한 걸레받이는 巾 7cm, 두께 1.5cm의 테라죠 타일로 길이는 바닥材의 크기와 같은 길이이다. 即 바닥材料의 크기와 길이와 같은 寸数를 使用한다.

(3) 玄関의 入口의 바닥은 大理石이며, 엘리베이터홀의 로비의 바닥도 또한 大理石으로 寸数는 普通 200×400×20mm 두께 또는 200×200×20mm를 使用한다. 復道 및 各 침실의 바닥, 부엌의 바닥等은 테라죠 타일로 되어있으며 그 寸数는 300×300×15mm 두께를 主로 使用하며 때로는 200×200×15mm 두께를 使用토록 되어있다.

(4) 욕실의 天障·形態는 색깔있는 알루미늄 스팬드빌로 되어있음.

(5) 各室의 天障의 마감은 artex 페인트로 마감하도록 되어있음.

(6) 엘리베이터 홀의 로비 및 各 世帯의 玄関 바닥은

200×400×20mm 두께 또는 200×200×20mm 두께의 寸数의 大理石을 使用토록 되어있음.

(7) 各 建物의 屋上에는 打設 콘크리트로 된 물탱크를 構築하여 물탱크의 內部는 防水層으로 処理한 뒤 몰탈로 마감한 后 再次 水性 페인트로 마감 処理토록 되어있음.

(8) 아파트의 2個棟마다 엘리베이터 스윗치 전동실을 두어 2個棟의 電気의 配電을 하도록 되어있음.

(9) 各 建物의 外部의 마감은 티롤리언 도장으로 마감 処理토록 되어있음.

(10) 各 建物의 外壁은 P.C window unit를 設置한 后 8″ block으로 外壁을 組積하고, 外部의 窓은 日光을 処理할 수 있도록 G.R.C인 유리섬유 補強콘크리트로된 스크린을 窓위 바깥쪽에 設置하고 또한 알미늄 窓門 바깥에는 木材 셔터를 全部 設置하여 太陽光線을 막아서 더위를 피하도록 되어있음.

(11) 建物의 各室의 外壁의 內部쪽에는 断熱材인 우레아폼과 프라스터 보오드를 接着한 두께 3 cm의 phnexpan 보오드를 부착토록 되어 断熱되도록 設計되어있음.

나) 住宅

(1) 住宅은 한 世帯 単位로 하여 요철형의 P.C 담장 울타리를 設置토록 되어있으며 玄関쪽의 方向에는 大門과 바로옆에는 小門이 設置토록 되어 있으며 反対 方向인 뒷쪽의 담장에는 小門이 하나 設置되어있음.

(2) 各 世帯마다 后面의 小門쪽 옆에는 부엌에서 汚物을 処理할 수 있도록 뒷쪽의 담장에 붙어서 汚物処理槽가 設置되어 있음.

(3) 各 世帯에는 地上 화단帯가 玄関入口 右側에 1個所, 大門入口 마당에 잔디밭 1個所, 地下 構造物로된 물탱크가 1個所가 있으며 나머지의 空門의 마당은 콘크리트 포장 타일로 그 寸数는 400×400×30mm 두께를 깔도록 되어있음.

(4) 玄関은 大門쪽의 主 玄関과 后面쪽의 뒷쪽의 小玄関으로 되어 있으며 主 玄関의 바닥은 大理石으로 깔도록 되어 있으며 后面의 小玄関은 테라죠 타일로 바닥을 깔도록 되어 있음.

(5) 増築을 예상 即 二層으로 예상 二層으로 올라가는 階段室은 大理石 階段으로 処理되어있음.

(6) 階段室의 윗쪽에는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設置하여 鉄製로 뚜껑을 만들어 놓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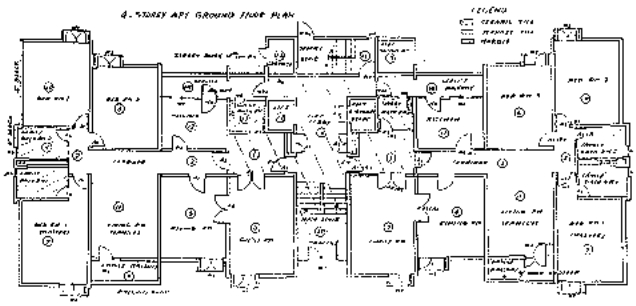
(7) 主 玄関의 바닥은 大理石 200×400×20mm 두께 혹은 200×200×20mm 두께를 깔도록 되어있음.

(8) 부엌의 바닥은 테라죠 타일로 되어 있으며 各室은 역시 테라죠 타일을 깔도록 되어있고, 욕실은 세라믹 타일로 되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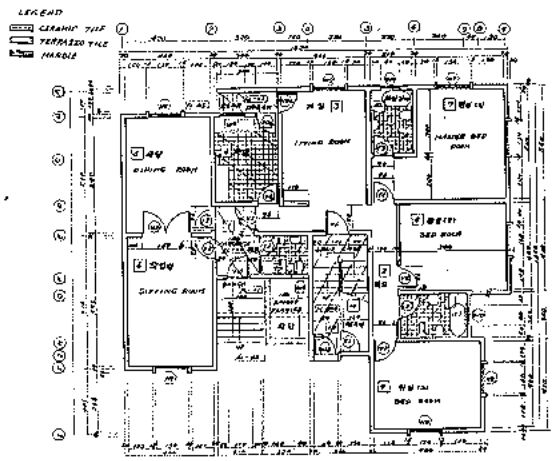
(9) 屋上에는 各 世帯마다 FRP로 된 球形의 水槽가 設置되어 있음.

Ⅳ. 設計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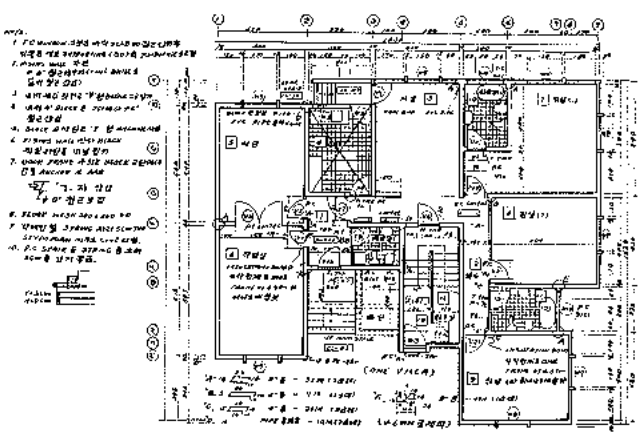
가) 아파트 平面



나) 住宅 平面



다) 住宅 詳細



Ⅴ. 出入門 및 窓門形態

가) 아파트用

記　　述	形　態	寸　　数	유　　리
알미늄出入門 (가족발코니用)		W_1 (W/WS) 1,400W×2,200H	4㎜ float 유리
알미늄出入門 (부엌, 펜타하우스用)		W_3 1,000W×2,200H	6㎜ touchened유리
알미늄出入門 (써비스발코니用)		W3a 1,000W×2,200H	〃

알미늄出入門 (主玄関用)		W7 3,020W×2,200H	6㎜ 불투명유리
알미늄窓門 (W/P.C窓門用)		W2 (W/WS) 1,400W×1,300H	4㎜ float 유리
알미늄窓門 (kitchen用)		W5 1,200W×1,200H	〃
알미늄窓門 (욕실用)		W6 600W× 600H	4㎜ 불투명유리
알미늄窓門 (主써비스階段用)		W8 500W×2,900H	4㎜ float 유리
木材후랏쉬도아 (世帶玄関用)		A1 1,0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침실用)		A2 9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욕실用)		A3 9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부엌用)		A4 9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응접실, 식당用)		A5 1,8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쓰레기処理用)		A6 9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써비스階段用)		A7 1,0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bin store用)		A8 820W×1,950H	
木材후랏쉬도아 (配電盤用)		A9 95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屋上倉庫, 엘레베이터倉庫用)		A10 960W×2,200H	
鉄製門 (地上汚物処理槽用)		A11 1,200W×2,200H	
鉄製用 (配電盤用)		A12 1,400W×1,960H	

나) 住宅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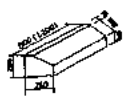
記述	形態	寸数	유리
알미늄出入門 (后玄関및부엌用)		W3a 1,000W×2,200H	6㎜ 무늬불투명유리
알미늄出入門 (主및階段室入口用)		W13 1,100W×2,200H	6㎜ 불투명유리
알미늄出入門 (屋上用)		W14 1,200W×2,200H	6㎜ 투명유리
알미늄窓門 (부엌用)		W5 1,200W×1,000H	4㎜ 투명유리
알미늄窓門 (침실用)		W9 1,500W×1,300H	4㎜ 투명유리
알미늄窓門 (욕실用)		W10 800W× 600H	4㎜ 불투명유리
알미늄窓門 (階段室用)		W11 1,100W×1,800H	4㎜ 투명유리
木材후랏쉬도아 (물펌프室用)		V1 9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침실, 식당, 대기실用)		V2 9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욕실用)			
本材후랏쉬도아 (부엌用)		V4 9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식당-대기실用)		V5 1,860W×2,200H	
木材후랏쉬도아 (階段室用)		V6 1,060W×2,200H	
외겹鉄板門 (汚物処理槽用)		S1 1,065W×1,495H	

Ⅵ. 其他詳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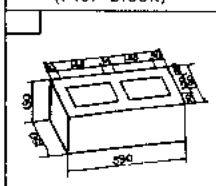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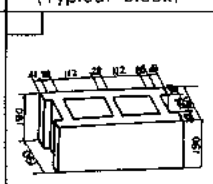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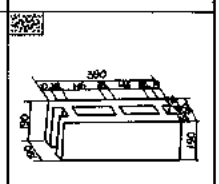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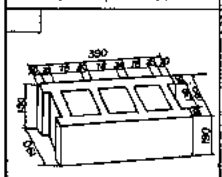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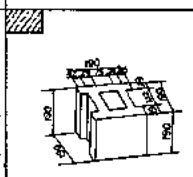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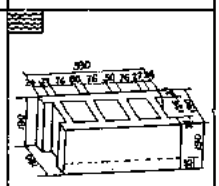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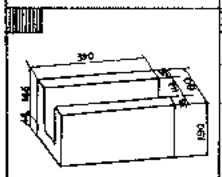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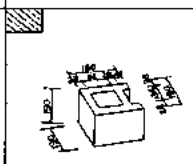
가) 住宅用

콘크리트 문지방 및 웃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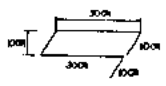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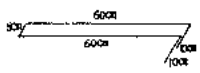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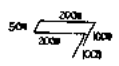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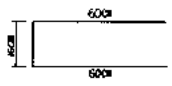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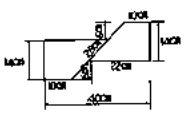
TYPE	SECTION	LENGTH
LINTEL		V_2 1,400 (4"BLOCK) V_3 1,400 (〃)
LINTEL		V_2, V_3 1,400 (8"BLOCK) W_3 1,400 (〃) W_{3a} 1,400 (〃) V_4 1,400 (〃) V_5 2,000 (〃) V_6 1,500 (〃) V_{13} 1,500 (〃) V_{13a} 1,500 (〃))
LINTEL		W_3 1,400 (8"BLOCK) W_{3a} 1,400 (〃) V_2 1,400 (〃) V_4 1,400 (〃)

SILL			W_3 1,200 (8"BLOCK) W_{16} 800 (〃)

블록 形態 및 寸數

Pouble corner block (Pier block)	TWO-core block (Typical block)	TWO-core block(4")
		
Three-core block (Temporary)	one-core block (half)	Three-core solid bottom
		
U-Suape block (solid bottom)	Single Corner block	
		

블록 삽입용 앙카용 멧쉬

"A" TYPE (8") 52EA	"B" TYPE (4") 7EA	"C" TYPE (4") 21EA
		
"D" TYPE (FOR PIPE) 14EA	"E" TYPE (8") 7EA	
		

NOTE: MAKE USED WITH 6MM ROUND BAR

Ⅶ. 示方書

示方書란 Specification이라고 하며 普通 약자로 Spec. 이라고 한다. 여기서 꼭 알아야할 몇 가지만 紹介코저 하는 바이다.

(1) 사우디에서 使用하는 시멘트는 두가지 種類가 있는데 그 한 種類는 사우디는 땅에 염분및 酸性이 많기 때문에 地中構造物에는 S.R.C(Sulphate resistant cement) 即 耐酸 시멘트인데 그것을 Type V라고 하며 地上構造物에 使用하는 시멘트는 O.P.C (ordinary portland cement) 普通 포틀랜드 시멘트로 그것을 Type Ⅰ 이라고 한다.

(2) 鉄筋콘크리트 피복

스라브, 壁	20mm
스라브, 外壁	30mm
지붕 스라브	20mm
內部의 보	25mm
外部의 보	35mm
內部의 기둥	25mm
外部의 기둥	35mm
地中에는 最少限	65mm임.

(3) 거푸집 탈형期間

기둥옆, 壁옆, 보옆	2日
스라브 하측	4日
스라브 支柱	11日
보의 下側	8日
보의 支柱	15日

(4) 壁美裝

壁內部 美裝

材料	混合	最少두께
石灰, 시멘트	石灰 1	2回層 合計
모래 (內部 표준치수에 맞는 미장)	시멘트 2½ 모래 10	壁 15mm 天障 12mm
시멘트 石灰 (外部 평활한 表面)	시멘트 1 모래 1	2回層 合計 壁 15mm 天障 12mm

壁外部 美裝

材料	混合	最少 두께
石灰, 시멘트 모래 (內部 표준치수에 맞는 미장)	石灰 1 시멘트 2½ 모래 10	2回層 合計 壁 15mm 天障 12mm
시멘트, 石灰 모래초벌, 뿜칠 마감.	초벌 시멘트 1 모래 4	2回層 재벌 뿜칠한 것이 全部 13mm
(外部)	재벌 시멘트 1 모래2혹은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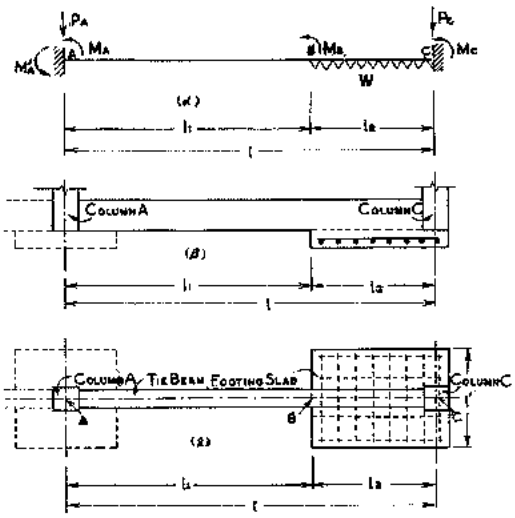
偏 心 基 礎

金 澤 辰
(三原設計事務所)

偏心基礎

都市 한복판에 땅값이 極히 비싼垈地에 建築을 할때에는 한치의 땅이라도 더써서 조금이라도 집을 넓혀볼나느냐고 하여서 隣接垈地 境界에 붙여 집을 지을때가 많다. 그런 建築을 計劃할 때에는 기둥 中心에 基礎슬래브 中心을 一致시키는 普通 方法으로 設計를 하랴니 남의 땅을 파고 들어가서 基礎를 設置하여야 하니 不可能한 일이라 不得已 그림 (a)와 같이 기둥 밑에서 안쪽기둥쪽 基礎보 밑에 붙여서 偏心基礎를 設置하는수 밖에 없다. 이런 工法으로 할 것 같으면 기둥 下端部에는 勿論이고 基礎보에도 相当히 큰 휨모멘트가 作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닥치었을 때에는 조금 망설이며 어찌하여야 좋을지 걱정은 하면서 그저 괜찮겠지 하는 式으로 普通基礎와 같은 設計를 하는 일이 普通이고 좀 걱정이 되면 偏心을 받는 기둥을 조금 補強할 程度의 設計로 그치는 수가 많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偏心荷重을 받는 기둥과 기초보에는 많은 휨모멘트가 생기는데도 不拘하고 工事를 한뒤에 좀 탈이나도 地中에 붙여서 보이지 않는지라 여기 対한 対応策 없이 그저 無関心하고 넘겨버리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設計를 한다는 것은 大端히 危險한 일이다. 対応策이 없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対한 適切한 方法으로 設計를 하여놓으면 安心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過去에 한번 本誌를 通하여 그 対応方法의 原理만 提示한바 있었으나 이번에는 計算에 必要한 圖表를 提示하면서 説明하여 보겠다. 現行 建築法에 依하면 商業防火地区에서는 높이 12m以下일 경우에만 隣接垈地 境界線까지 建物을 붙여 지을 수 있으니 기둥에 주어지는 偏心荷重에 依한 影響을 直接 받는 기초보다 不可能할 程度의 過多한 휨모멘트는 作用하지는 않는다. 여기 必要한 関聯数式을 먼저 提示하고 그다음 例에 依하여 計算하여 보겠다. 그런데 여기 提示하는 数式은 휨모멘트를 反時計方向의 것을 正으로 表示하기로 한다.

그러면 数式에 対하여 説明하면 偏心이 作用하는 建物外郭 기둥C 下部에 생기는 휨모멘트를 Mc, 建物안쪽 기둥A 下部에 생기는 휨모멘트를 M'A, 偏心荷重이 作用하는 建物 안쪽 기초슬래브 끝地点 기초보에 생기는 휨모멘트를 MB, 偏心기초가 받는 反力(地耐力)에 対抗하여 기둥C의 荷重과 저울질 作用으로 平衡을 이루기 為하여 안쪽 기둥A에 주어져야 하는 二次応力을 PA, 기초슬래브 單位길이当(기초보 方向) 받는 地耐力度를 W라고 하면



$$
\left.
\begin{aligned}
M_C &= \frac{\alpha+\alpha^2}{2(1+\alpha+\alpha^2)} P_C \ell \\
M'_A &= \frac{-\alpha^3}{2(1-\alpha^3)} P_C \ell \\
M_B &= \frac{\alpha^3(2\alpha-1)}{2(1-\alpha^3)} P_C \ell \\
P_A &= \frac{\alpha^3}{1-\alpha^3} P_C \\
W &= \frac{P_C}{\alpha(1-\alpha^3)} \ell \\
\alpha &= \frac{\ell_2}{\ell}
\end{aligned}
\right\} \cdots\cdots (1)
$$

上式은 기초보를 両端 固定状態로 하여서 求한 式이다. 그런데 現在 通常的으로 하는 構造計算에는 建物 最下層 기둥을 固定状態로 하여서 그 解를 求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偏心基礎를 썼을때에는 기초보도 한개의 部材로 取扱하여 上記式으로 求한 固定모멘트를 모멘트計算에 挿入하여 解를 求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計算方法을 쓸 때에는 建物 各기둥에 不等沈下가 없다고하는 前提条件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建物의 不等沈下가 全然 없다고는 保障될 수 없다 하더라도 不等沈下가 없다는 前提条件이 얼마쯤은 滿足될 수 있을 程度의 微小한 不等沈下

로 그치기를 希望하면서 上記式에依한 解를求하기로한다.

(1)式은 상기와 같은 式으로 만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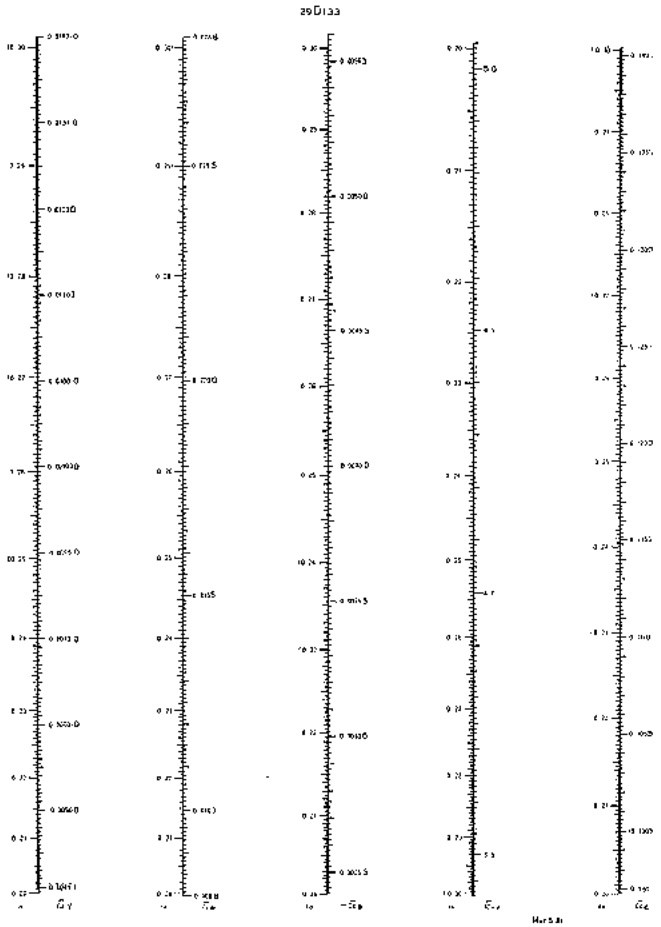
$$\left.\begin{aligned} C_C &= \frac{M_C}{P_C\ell} = \frac{\alpha+\alpha^2}{2(1+\alpha+\alpha^2)} \\ C_A &= \frac{M_A}{P_C\ell} = \frac{-\alpha^2}{2(1-\alpha^2)} \\ C_B &= \frac{M_B}{P_C\ell} = \frac{\alpha^2(2\alpha-1)}{2(1-\alpha^2)} \\ C_P &= \frac{P_A}{P_C} = \frac{\alpha^2}{1-\alpha^2} \\ C_W &= \frac{W\ell}{P_C} = \frac{1}{\alpha(1-\alpha^2)} \end{aligned}\right\} \cdots\cdots\cdots\cdots(2)$$

또 (2)式을 그림 $_{29}D_{133}$ 으로 만들어 數値를 簡單하게 計算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例를 하나 設定하여서 說明하여 보겠다.

例 : —

그림에 依하여 說明하면 建物外郭 기둥C에 주어지는 荷重 $P_C=100t$. 기둥C와 建物 안쪽기둥A 사이의 스팬(中心距離) $\ell=10m$, 基礎슬래브의 길이(기초보에 나란한 方向) $\ell_z=2.5m$, 許容地耐力度 $\sigma=20.0t/m^2$이라 할때 各要点의 휨모멘트 및 基礎슬래브의 必要한 스팬 ℓ'를 求함과 同時에 기둥C에 주어지는 荷重 P_C에 저울질로 平衡을 이루기 為한 기둥A의 荷重 가운데 一部가 되는 P_A를 求하라.



解 : —

먼저 α를 求한다. $\ell_z=2.5m$, $\ell=10m$ $\therefore \alpha=\frac{\ell}{\ell}=\frac{2.5m}{10.0m}=$ 0.25 이 α의 값으로 그림 $_{29}D_{133}$ 에서 (2)式에 提示된 各數値 C_C, C'_A, C_B, C_P, C_W를 求한다.

그림 $_{29}D_{134}$ 에는 垂直線으로된 다섯개의 줄이 있는데 各줄마다 줄左便에는 α의 눈금이 그리어져 있고 右便에는 그 α값에 該当되는 C의 값이 各各 그리어져 있다. 그리하여 第一左便의 垂直線上에서 $\alpha=0.25$에 該当하는 C_A'값으로 $C_A'=-0.007937$이 읽어지고 그 오른쪽 垂直線上에서 赤是 $\alpha=0.25$에 該当하는 C_P의 값 $C_P=0.01587$이 읽어지고 그 오른쪽 線上에서도 $\alpha=0.25$에 該当하는 값 $C_B=-0.003968$ 그 다음線에서 $C_W=4.0635$, $C_C=0.1190$ 等 (2)式으로 나타나 있는 各값이 求하여 진다. 다음에는 $P_C\ell$의 값을 求한다. 곧

$P_C\ell=100t\times10m=1,000tm$.

그러면 (1)式에 依하여

$M_C=0.119\times1,000t.m.=119.0t.m.$

$M_A'=-0,00797\times1,000t.m.=-7.937t.m.$

$M_B=-0.003968\times1,000t.m.=-3.968t.m.$

$P_A=0.01587\times100t.=1.587t.$

$W=4.0635\times\frac{100t.}{10m.}=40.635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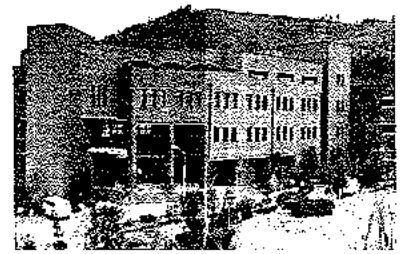
以上으로 各要点에 주어지는 휨모멘트와 荷重이 알아졌다. 다음으로 基礎슬래브에 주어지는 荷重에 対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 求한다. 기초슬래브 單位길이에 주어지는 地耐力이 W이니 기초슬래브의 스팬을 ℓ'이라 하면 기초슬래브 單位面積当 주어지는 地耐力度 σ는 $\frac{W}{\ell'}=\sigma$가 된다. 그러므로 許容地耐力度가 $\sigma=20.0t/m^2$ 기초보 單位길이当 求하여진 값(地耐力)은 $W=40.635t/m$이니 $\ell'=\frac{W}{\sigma}=\frac{40.635t/m.}{20.0t/m^2}=2.03m$. 이것이 許容地耐力度 $\sigma=20.0t/m^2$일 때의 기초슬래브에 必要한 最小스팬 ℓ'의 크기이다. 그러나 이 때에는 그보다 조금이라도 큰 $\ell'=2.1m$程度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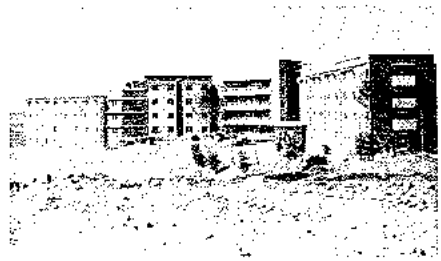
以上으로 기초슬래브의 스팬 ℓ'가 求하여지고 기둥에 結合된 기초보 両端固定모멘트가 求하여지면 이 固定모멘트로 構造計算(라멘計算)을 하여 기초보에 주어지는 実地의 端모멘트 $_RM_C$가 求하여지는데 $_RM_C$가 求하여지면 다음 式으로 기초보 B点의 휨모멘트도 求하여진다.

$$_RM_B={}_RM_C+\frac{2\alpha^2+\alpha-2}{2(1-\alpha^2)}P_C\ell\cdots\cdots\cdots\cdots(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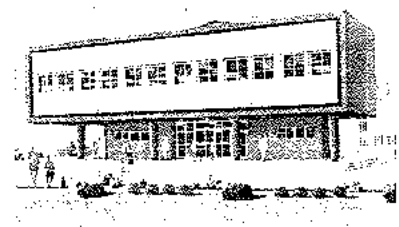
構造計算에 依하여 端모멘트가 修正된다 하더라도 앞서 求하여 놓은 基礎슬래브의 스팬과 面積에는 変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 添言하여 둔것은 앞서 P_C에 저울질로 平衡을 이루는 기둥A에 주어지는 荷重을 P_A라 하였는데 이 P_A는 기둥A의 總荷重에서 P_A로 計算되는 量만큼을 偏心기초슬래브가 負担하여 주는 것이므로 기둥A 下部基礎는 上記 P_A의 量만큼 작게 負担하게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기둥A 밑의 기초슬래브는 面積이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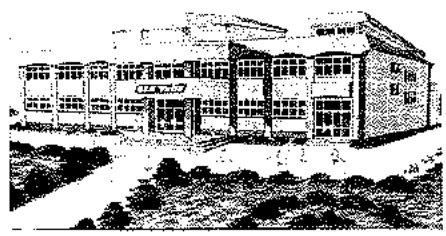


學　校
金止澈



寄宿舍
金　浩

合宿所
金基弘



住　宅
朴吉榮

体育館
金哲秀

會　館
印炷成

幼兒院
金光煥

영락상업고등학교

金 正 徹
(주 · 정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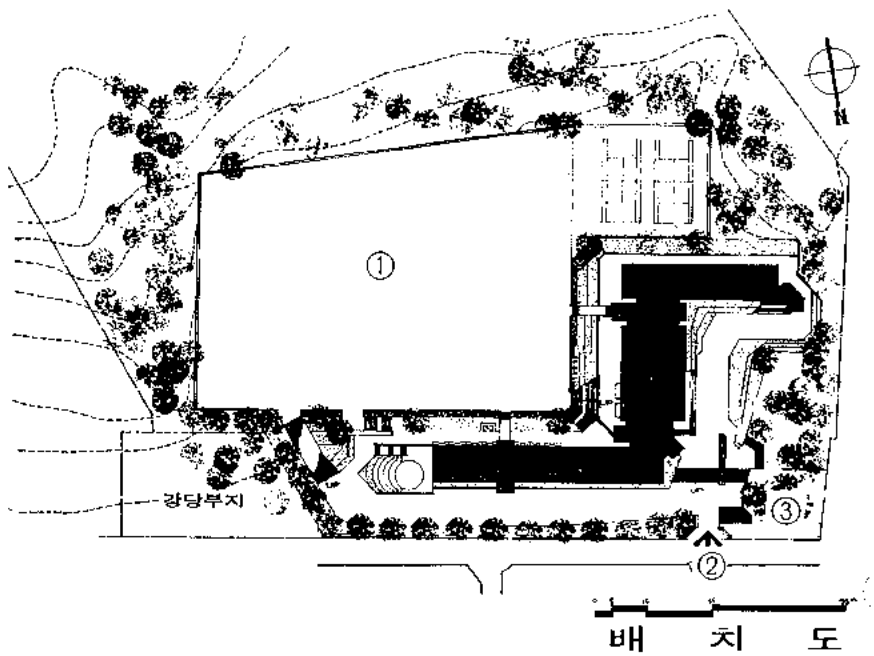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174의 12 / 대지면적 / 50,714.83㎡ / 건축면적 / 2,191.48㎡ / 연면적 / 7,481.9㎡ /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옥탑1층 / 건물높이 / 20.2m / 구조 / R·C조 / 설비 / 중앙집중식스팀난방

■ 設計概要

북측으로 트여진 야산 중턱에 본 교정이 위치하며 대지 여건상 운동장에로의 접근은 중앙동 Piloti를 거쳐 유도된다.

중앙동에 공용기능들을 수용하고 그 좌우측동은 각기여학생, 남학생의 교실군으로 형성되며 모두 남면하여교정, 녹지, 태양을 향해 열려지도록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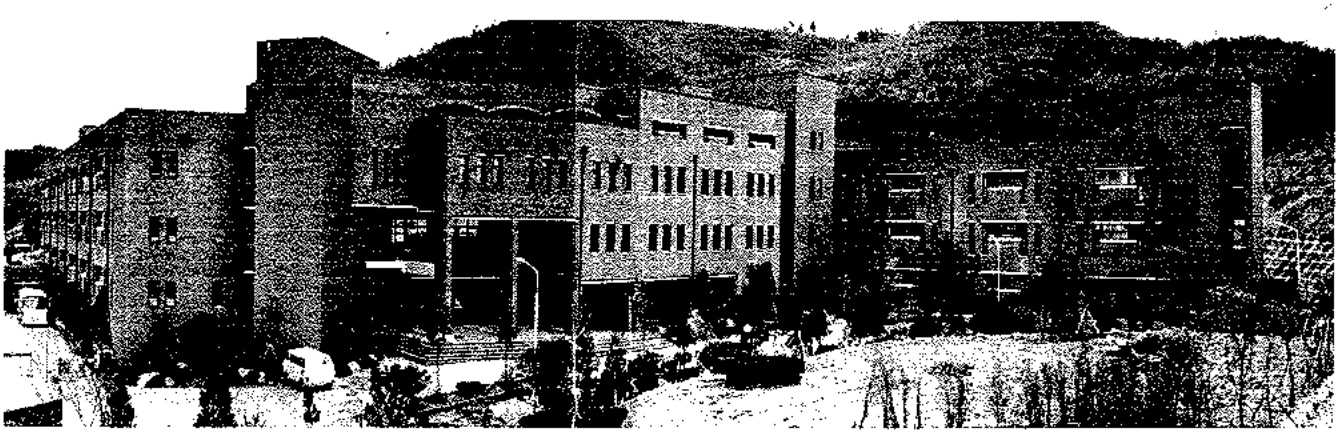
실업계열에서 결여되기 쉬운 정서적 분위기의 유도 및 "배움의 장소"로서의 공간을 위해 시설 환경의 질을 건축적으로 높히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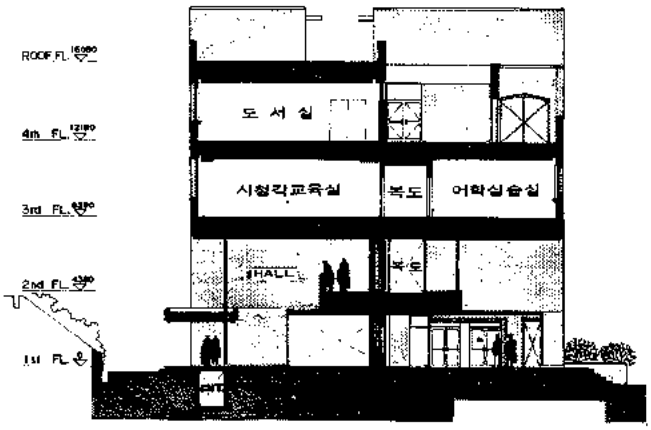


① 운동장
② 교 문
③ 수위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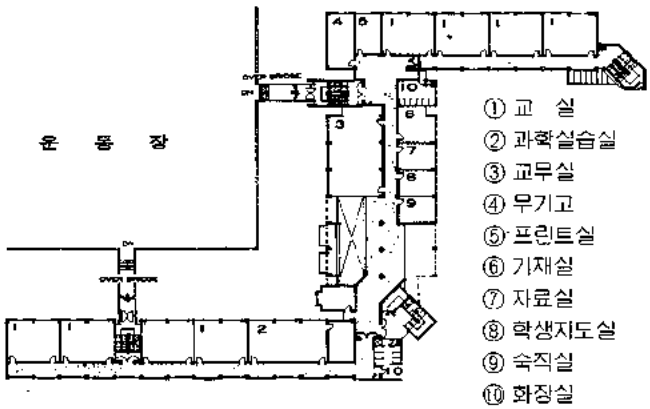
① 가사실습실 ⑥ 회의실
② 타자실 ⑦ 교장실
③ 상업실습실 ⑧ 화장실
④ 은 행 ⑨ 로 비
⑤ 서무실 ⑩ 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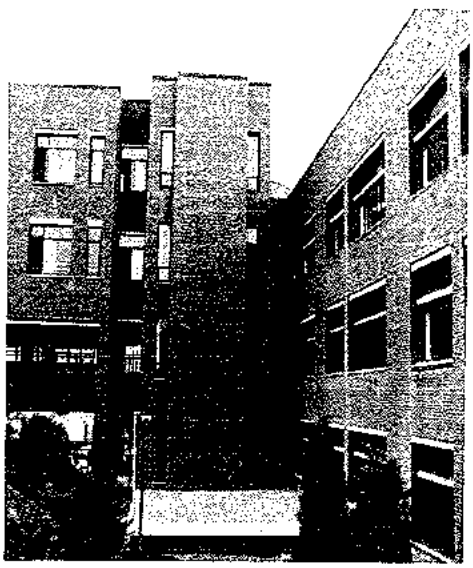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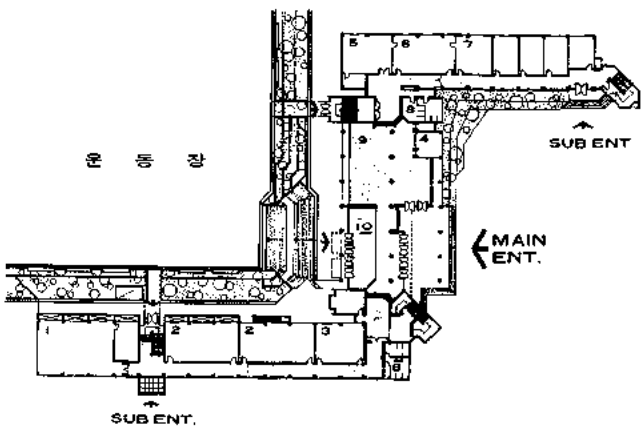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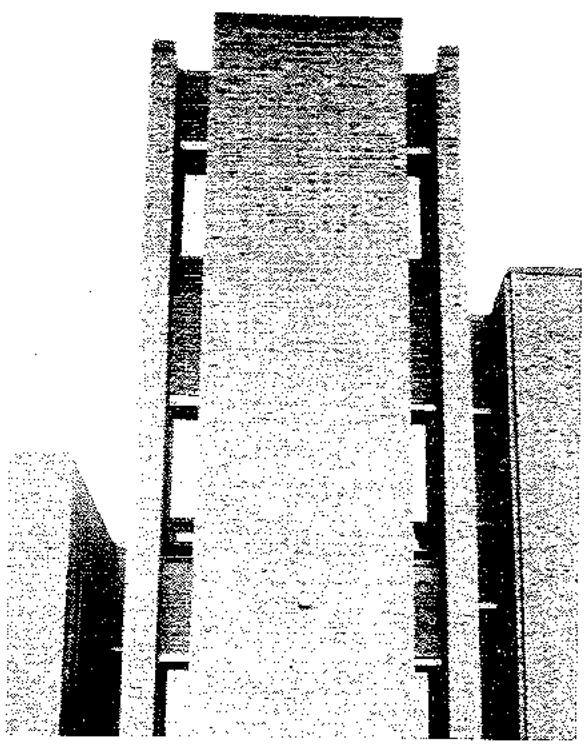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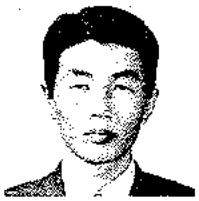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중앙대 안성기숙사

金 浩
(주·부림종합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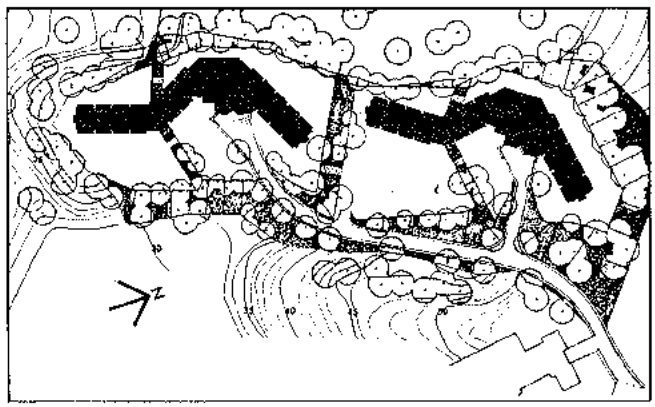
소재지 /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내리 / 건물면적 / 지하층 573㎡ 1층 1,137㎡ 2층 1,108㎡ 3층 1,108㎡ 4 층 803㎡ 옥탑층 31㎡ / 연면적 / 4,761㎡ /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2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說計概要

一般的으로 学校의 기숙사는 한정된 空間에 多数의 人員을 住房시키려는 욕심때문에 建築空間이 획일적이고 單純化 되기 쉽다.

이러한 要素를 배제하고 学生들이 친밀감을 느낄수 있으며 使用에 便利한 空間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計劃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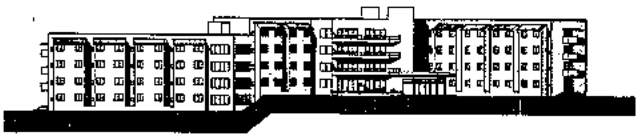
1. 自然에 순응 : 自然的인 坐地條件이 언덕인점을 감안하여 단면적으로 SKIP를 주어 지세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2. 內外 部空間의 変化 : 복도 動線에 変化를 주어 動線의 지루한 감을 줄였으며 아울러 外部空間의 획일적인 立面을 피했다.
3. 적절한 對話의 空間 : 学生들 相互間의 對話를 위한 휴식및 담소空間을 풍부히 배려하였다.
4. 生活의 独立性 : Unit에서 가구의 일열식 배치를 지양하여 各 개인에 独立性을 주었다.
5. 經済的인 層高 : 위생기구의 배열대 별로 수직배관 방법을 채택하여 중천정을 없애 모로서 전체층고를 경제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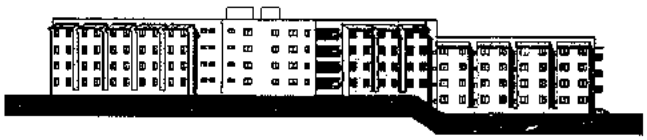
배치도

① 공부방
② 오락실
③ 기계실
④ 창고
⑤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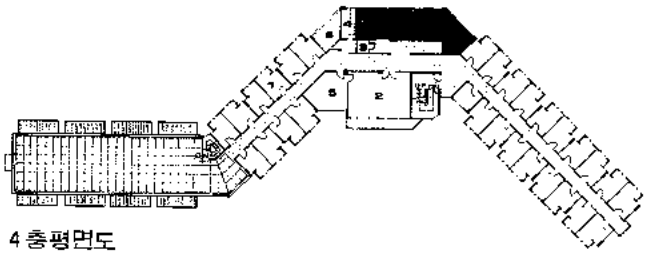
① 공부방
② 휴게실
③ 화장실
④ 주 방
⑤ 담소실
⑥ 발코니
⑦ 샤워실
⑧ 창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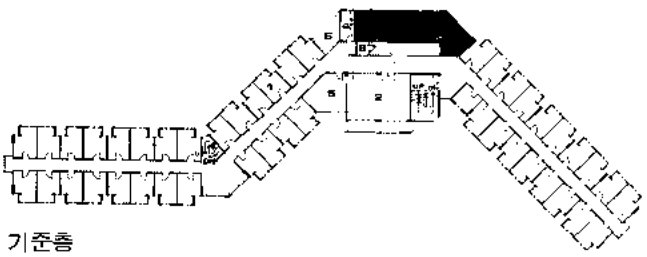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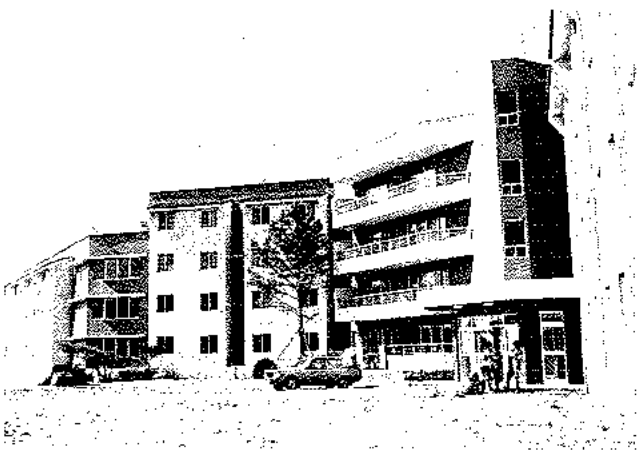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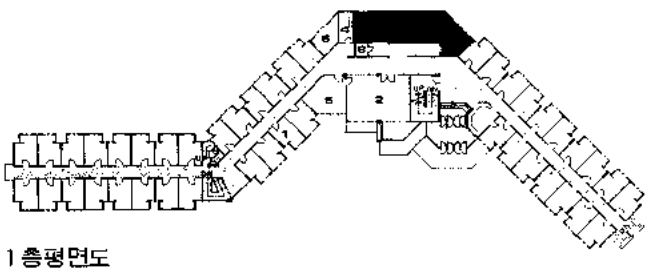


4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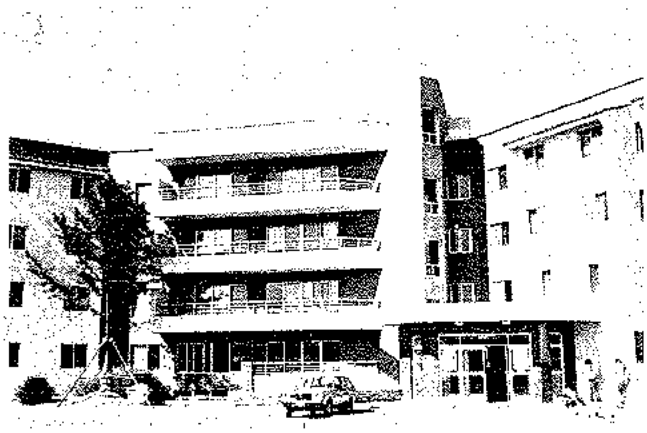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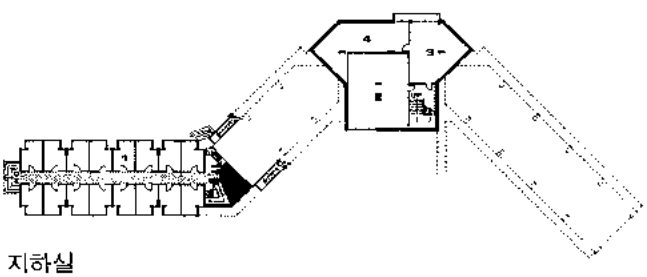
기준층





1 층평면도





지하실

商銀 속초직원합숙소

金 基 弘
(서인건축연구소)

소재지 / 속초시 영랑동223- / 대지면적 / 1627.0㎡ / 건축면적 / 630.9㎡ / 연면적 / 1475.04㎡ / 층수 / 지하1층 지상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설비 / 난방 · 콘벡터 · 파이프온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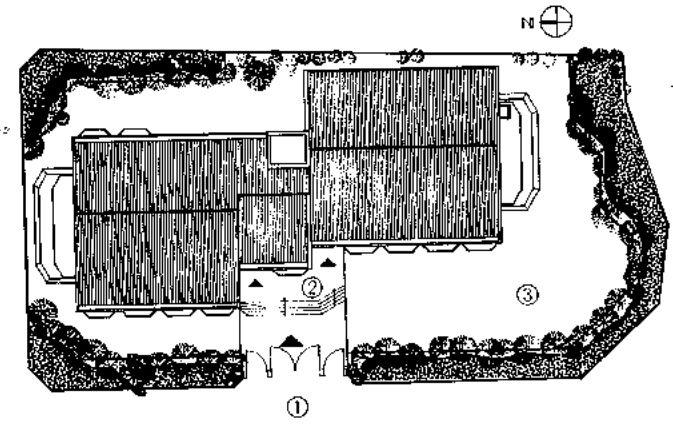
■ 設計概要

비교적 풍부한 대지와 주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본 대지는 전면으로 관광지로 개발중인 영랑호를 바라보고 있으며, 후면에는 동해바다와 설악산이 조망되는 매우 바람직한 주위환경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무엇보다도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본 건물은 지방근무자를 위한 장기체류용 합숙소와 계절적 성격을 띤 단기체류자의 휴양소의 성격을 공동으로 띠고있는 관계로 당일 건물이가는 하나 평면 기능상으로 관리사무실을 중심으로 출입구를 양분하여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블럭을 단위로 구분하여 서로 균등한 조건(좋은 시야)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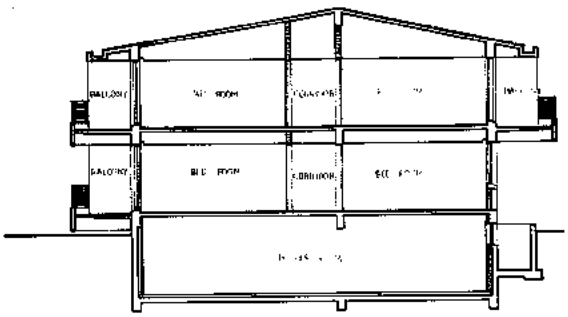
관리 및 기능상의 편의를 위하여 합숙소 부분에는 침실과 관리자가 주도하는 공동식당을 설치하고 휴양소에는 중가온돌의 침실과 각 세대들의 공동 취사장을 설치하였으며, 각 기능별로 구분하여 각각 충분한 공유면적(욕실, 세면실, 휴게실)을 계획하였다.

또한 지붕재료는 지역적인 기후에도 불구하고(풍량)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감안하여 스페니쉬 기와지붕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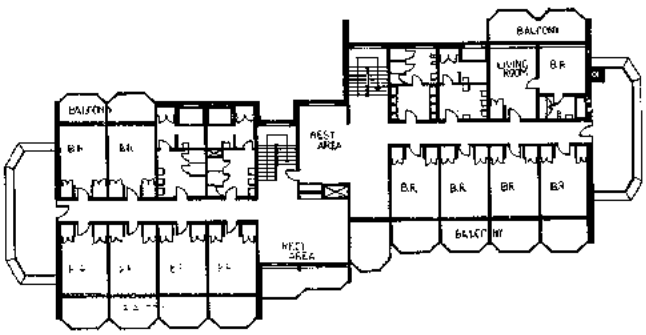
배치도

① 주출입구	⑨ 휴게실
② 입 구	⑩ 객 실
③ 정 원	⑪ 사무실
④ 가게실	⑫ 취사장
⑤ 창 고	⑬ 휴게실
⑥ 대피실	⑭ 부 엌
⑦ 보일러실	⑮ 식 당
⑧ 오일탱크	⑯ 도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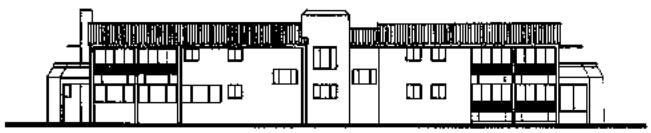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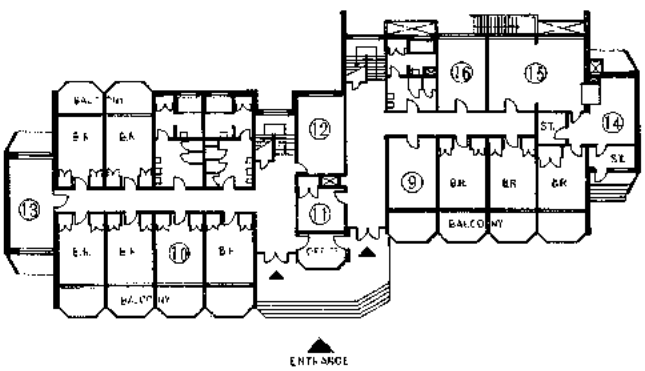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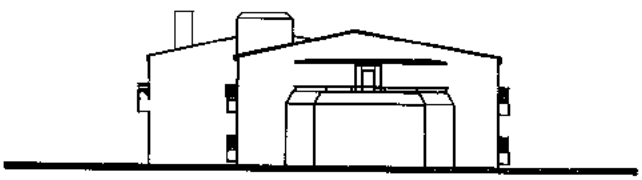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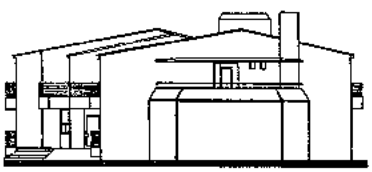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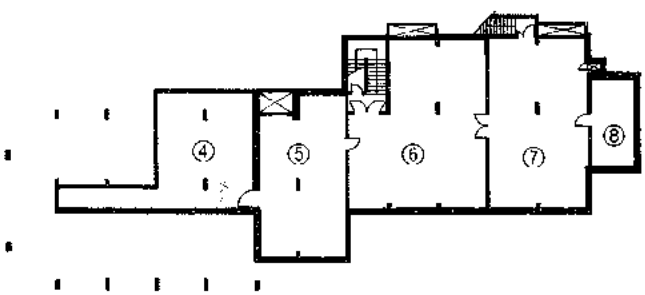
1층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지하층 평면도

김사장 댁

朴 吉 榮
(삼원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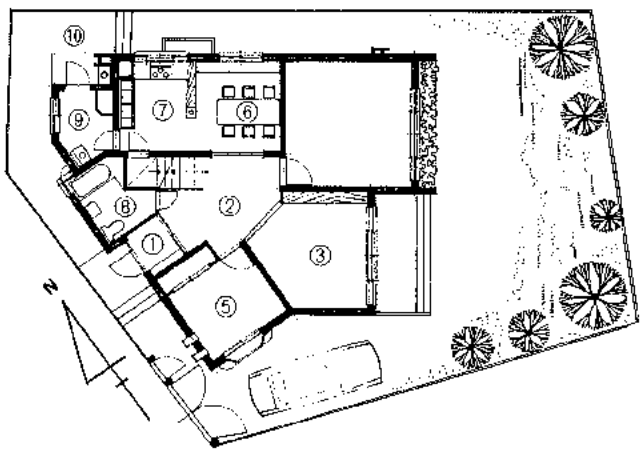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대지면적 / 249.47㎡ / 건물규모 / 지하층 23.31㎡ 1층 93.59㎡ 2층 / 구조 / 적벽돌 · 평스라브지붕 / 난방 / 온수난방

■ 說計槪要

대지형태가 동서로 길고 남측과 북측은 2층 건물이 이미있어 주택지로는 부적격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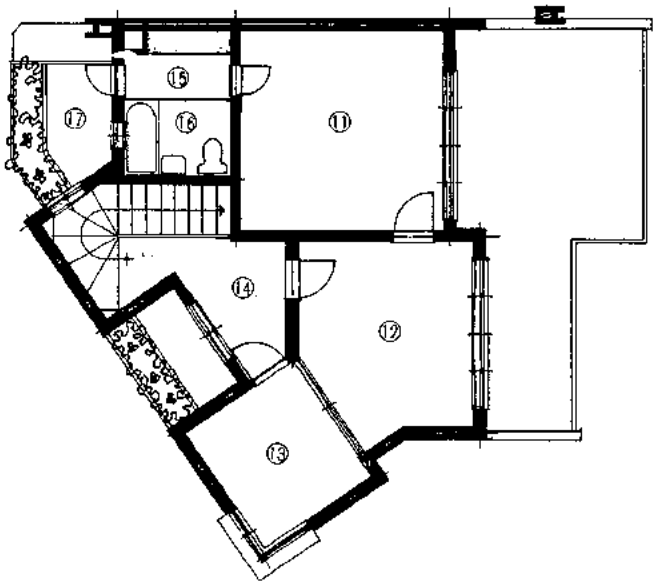
남북으로 넓게 뚫린 성산대로가 훤히 내려다보이나 거리가있어 자동차 소음은 없었으며, 동쪽앞 도로밑 대지는 약 8미터가량 낮아 동향으로 배치해도 지장이 없을것 같았다.

주인은 음악감상이 취미이므로 남쪽창은 인접 상호간에 피해가 없도록 작게하여 채광 및 환기만 가능하도록 했고 2층은 부부전용으로 계획했으며 1층 다용도실 옆에는 재래식 부엌 연탄아궁이를 설치하여 부엌살림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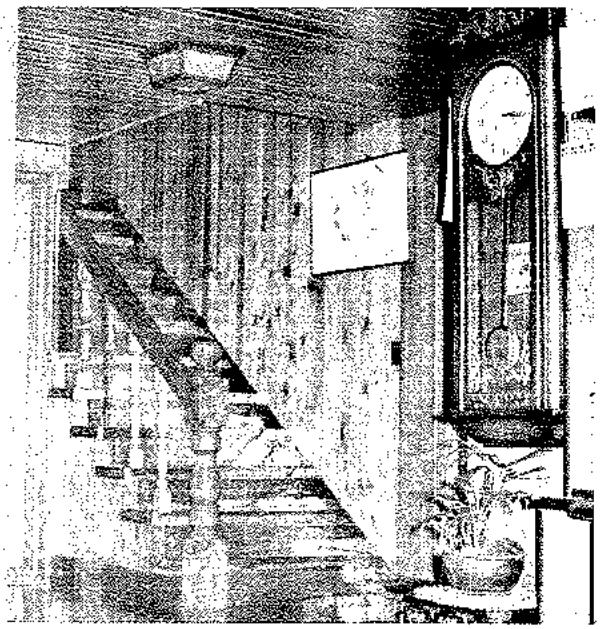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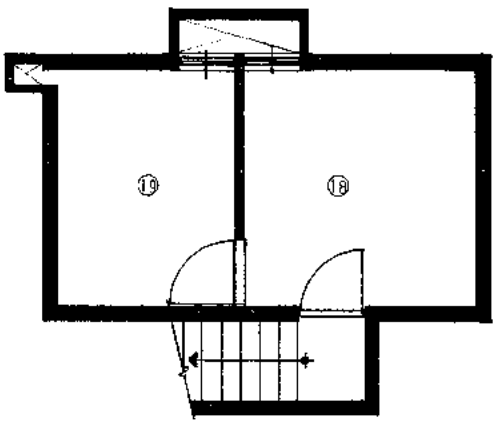
일층평면도

① 현 관
② 홀
③ 거 실
④ 온돌방
⑤ 온돌방
⑥ 식 당
⑦ 주 방
⑧ 욕 실
⑨ 작업실
⑩ 한식부엌
⑪ 침 실
⑫ 가족실
⑬ 서 재
⑭ 계단실
⑮ 갱의실
⑯ 욕 실
⑰ 베란다
⑱ 창 고
⑲ 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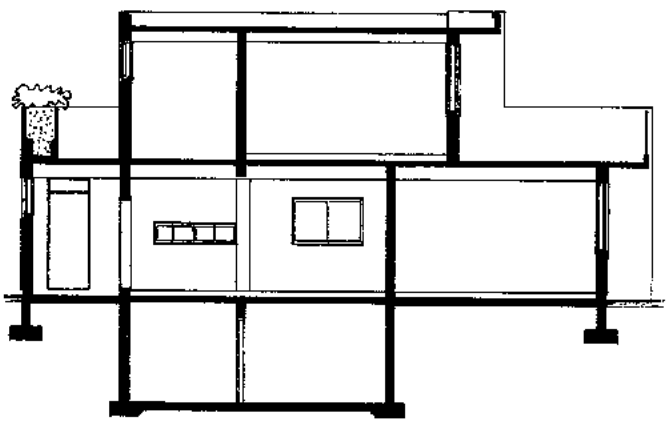


2 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주단면도

전주유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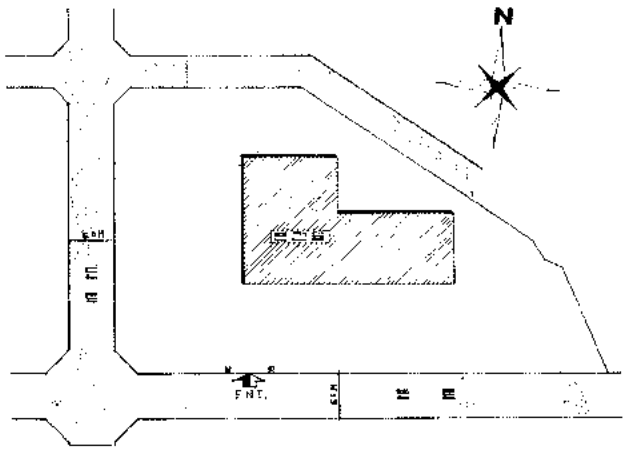
金 光 煥
(전주건축사무소)

소재지 / 전주시내 / 건평 / 344.55㎡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및 군벽들 조적조

■ 說計概要

전주유아원이 위치하고있는 곳은 전통적인 고전도시로서의 높은 긍지를 자랑하는 주태가에 자리를 잡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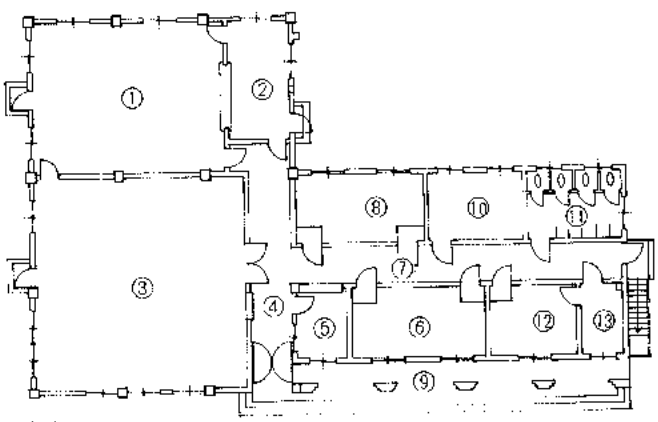
설계상의 기본바탕을 어린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는 데에 두고 건물의 내외형태를 우아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동선도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활동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서 편리한 공간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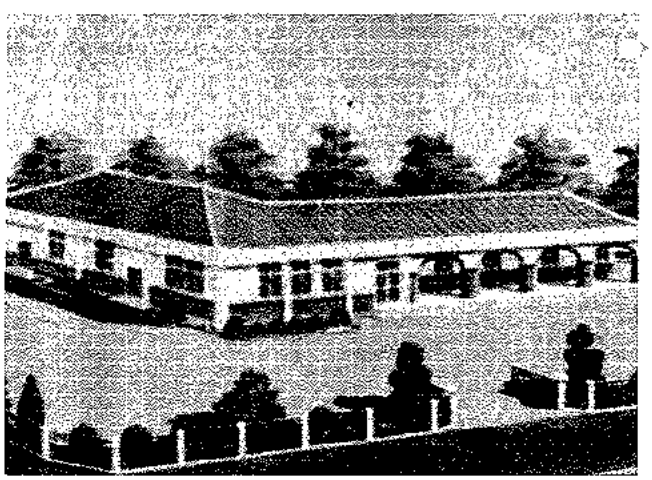
건물배치도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① 급식장
② 주 방
③ 유희실
④ 현관
⑤ 관리실
⑥ 영아실
⑦ 복 도
⑧ 영아실
⑨ 테라스
⑩ 팅
⑪ 변 소
⑫ 원장숙소
⑬ 식 당

전주시 경로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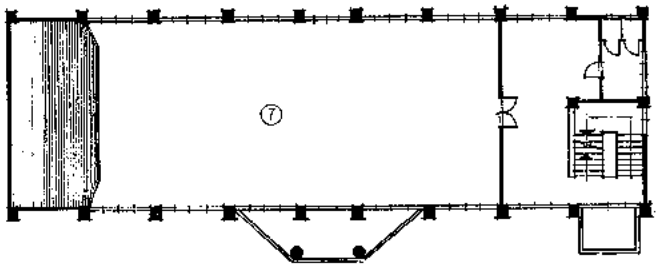
印 柱 成
(한주성연합건축연구소)

소재지 / 전주시 6지구 / 연면적 / 660㎡ / 건축면적 / 330㎡ / 규모 / 1층 330㎡ 2층 330㎡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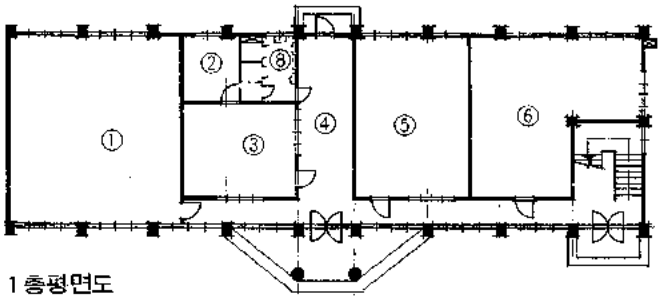
■ 說計概要

현대 문명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 복지 시설인 경노회관을 전주시 당국은 이에 부응해서 전주시내 노인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인과 관계의 도모를 위해 조용하고 아담한 K B S 전주 방송국 주변에 건립하게 되었다.

건물 내부에 다양한 방을 마련하여 자기 적성과 취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작품 전시장을 두어 자기의 기량을 모든 사람에게 발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층에는 강당을 마련, 주기적인 시간에 발표회와 오락회를 할수 있게 했으며 3층에는 전망대를 설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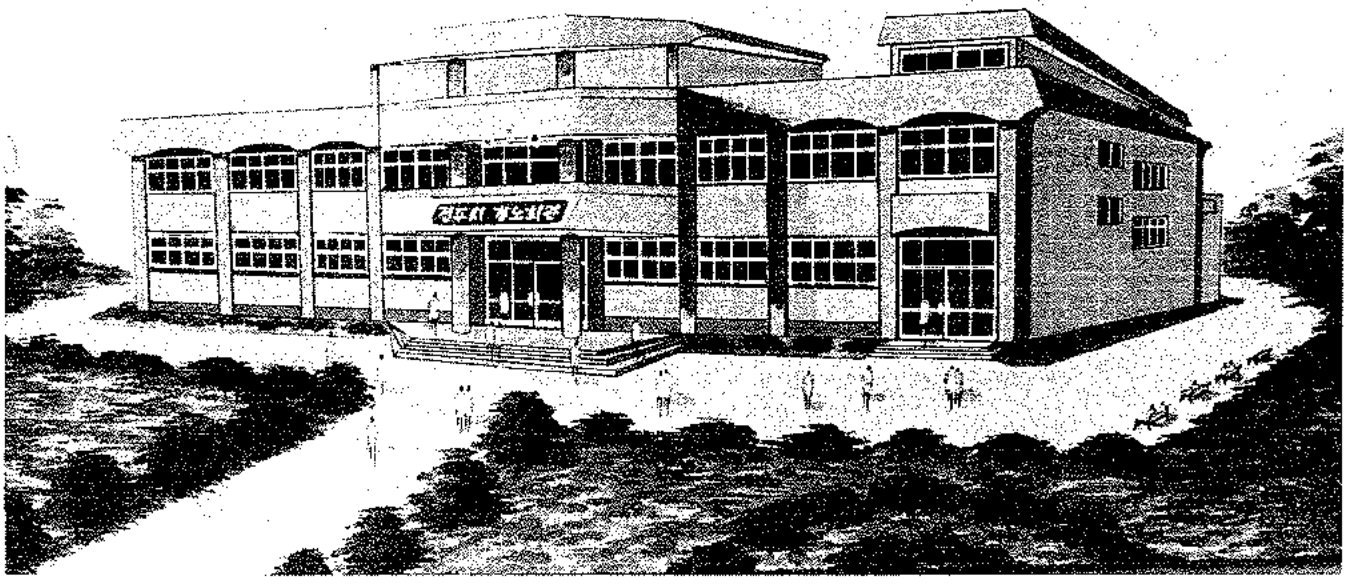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① 작업장
② 숙직실
③ 사무실
④ 로 비
⑤ 위락실
⑥ 전시장
⑦ 강 당
⑧ 화장실



전북체육고등학교체육관

金 哲 秀
(신원건축대왕사무소)

소재지/전주시 송천동 111번지/대지면적/16,500㎡ /건축면적/994㎡/연면적/2,147㎡ /걸물높이/17.5m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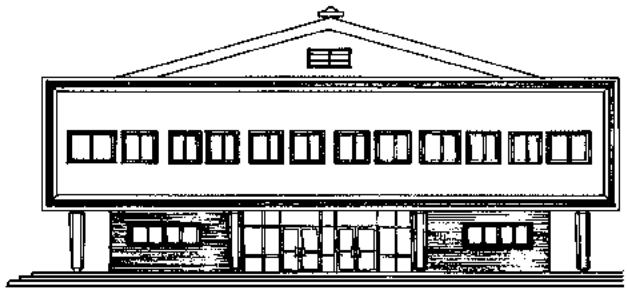
■ 設計概要

교육의 근본목적인 인간형성을 계획의 기본으로 해서 체육고교의 긍지를 심어주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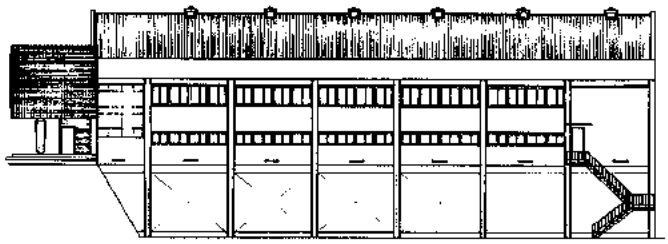
아울러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단체활동과 체력향상에 중점을 뒀으며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해서 구조의 간소화와 시공의 편이점으로 경제성과 工期 단축을 꾀했다.

통풍및 실내의 채광을 고려해서 상하장을 구분했으며, 지형을 이용한 1층은 소경기장등 다목적 운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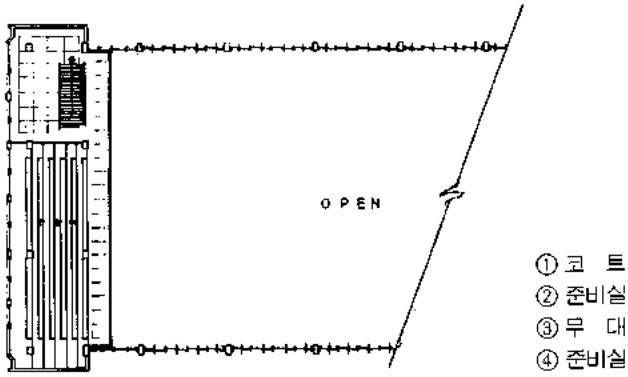
실내경기장은 농구장으로 활용토록 했으며 스탠드는수용인원 1백50명 정도이고 선수대기실등으로 이용토록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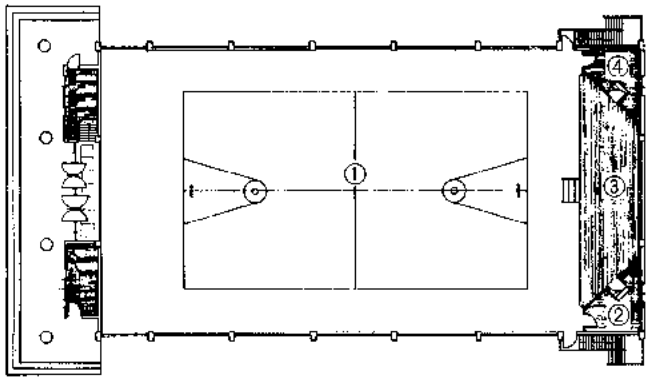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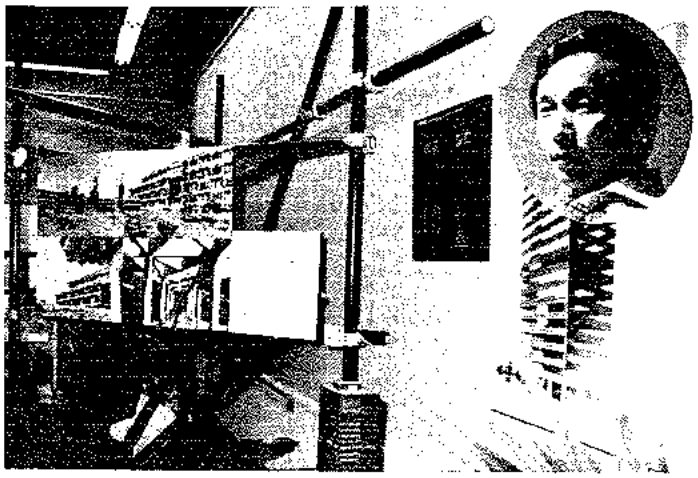
3 층평면도



2 층평면도

제1회 용마루모임 建築作品展 / 趙成龍씨

"하나를 이루는 공동의 작업"



『용마루 모임』—.

仁荷大学校工科大学 建築科출신들이 모여 만든 동인 그룹의 이름이다.

그리고 바로 이 모임이 지난달 2일부터 6일까지 옛새동안 종로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芸總画廊에서 첫번째로 용마루모임 建築作品展을 펼쳤다.

"우리의 作品을 과시하려는 하나의 전시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作品展을 연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在学生들과 함께 합동으로 作品展을 계획했으나 쉽게되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우리회원들 作品가운데 25점의 作品만으로 전시회를 갖게 된겁니다. 후배들을 위한 교육적효과에 치중한 전시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 이라는 우리 모임의 뜻을 펼쳐 보이기 위한 계기마련이고요."

본회 회원이기도 한 용마루모임의 리더인 趙成龍회장(우원건축연구소 대표·건축과 3회출신) 은 이번 전시회가 개인전이 아니고 같은 学校를 나온 同門出身들이 모여 벌인 잔치로서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활약상도 보이고 더불어 그들로하여금 作品에 대한 의욕을 북돋게 하기위한 하나의 시도였다고 말한다.

용마루모임이 처음 시작되기는 지난 75년 7월에 発起되면서부터였다. 10여명정도가 모여 첫 모임을 가졌던것이 5, 6년이 지난지금은 50여명의 큰 식구를 거느리게 되었다.

또 하는 일도 폭이 넓어져 同人誌도 発刊키로하고 研究発表会도 개최하며 在学生들과 공동으로 전시회도 열기로 작정을 하는등, 비록 他大学의 비슷한 모임들에 비해 出発은 좀 늦었으나 알맹이있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도 단순한 平面的展示方式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作品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構造物을 이용한 立体的展示로 여늬 건축작품전에 비해 動的이고 能動的인 전시장분위기를 자아내게 했다.

"공동전시의 목적도 개인적인 作品의 모습을 제각기 보여주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공동테마에 의한 作図法의 통일등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하나의 줄기를 이루어 보려는 시도를 年次的으로 추진하는 것"이 용마루모임의 계획이라고 趙회장은 말한다. 이러한 시도는 또 용마루모임 내에서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在学生들까지 포함해서 공동보조를 취해 분명한 한개의 흐름을 보여주자는 의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해마다 두어차례씩 선배회원들이 모교에서 特講형식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들과 학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고.

"여러가지로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군요. 다른나라의 경우는 건축학도들의 실력이 대단한것 같아요. 우리도 그네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보다 깊이있고 넓게 공부해야 할겁니다"

지난 6월 폴랜드 바르샤바에서 열렸던 국제건축가연맹(U·I·A) 대회에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던 趙회장이 구라파등지를 돌아보고 느낀 그곳 건축학도들의 정도를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努力도 중요하지만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그리고 건축이라는 행위가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작업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도 協力, 協助에 의한 協調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용마루 모임의 회원들은 절반가량이 설계사무소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시공회사등에 근무하고 있다.

건축에의 정열과 집념이 하나의 모임으로 뭉쳐져서 또다른 의식의 구조체가 형성되었다고나할까 —. 더욱 빛나는 良質의 作品으로 昇化하려는 作業이 진행되면서 …

江原道支部編

다음은 江原道 地方의 一般的인 現況과 그밖에 地域社会開発方向 그리고 本会会員業務와 관련된 諸般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問 1 江原道의 一般的인 現況을 紹介해주십시오.

答 江原道는 地理的으로는 우리나라 中半部에 位置하여 太白山脈과 大關嶺을 中心으로 그東쪽을 嶺東海岸地方과 嶺西 山嶽地帶로 區分되고 山林과 地下資源이 豊富할뿐만 아니라 全國의 어느 道보다도 自然景觀이 美麗하여 觀光地로 각광을 받고 있읍니다.

面積은 總24,633km² 이나 그중 休戰線 以上이 32.2%인 7,832km² 以南이 16.800km² 이다. 人口는 總1백80만명으로 他道에 比하여 人口密度가 낮은便이며 行政 區域은 6個市 15個郡 18個邑 90個面으로 構成되고 住宅普及率은 80.2%로서 大体的으로 良好하나 鑛山地域인 太白市를 비롯한 舍北寧 越等地가 70%程度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은 鑛山地區 特有의 現狀으로 이러한 問題는 今年 7월1日字로 昇格된 鑛山中心都市인 太白市街地整備事業과 이에 附隨되는 各種基盤施設 및 鑛夫住宅 建立等으로 점차 解決될것으로 봅니다.

本道의 産業은 他道와 달리 總面積의 80%가 山地로 되어있어 大單位 工業團地의 開發은 없으나 第一次 産業을 든다면 무엇보다도 全國石炭生産量의 70% 以上을 供給하고 있는 鑛山開發이며 春川을 中心으로 北漢江 上流의 4개 댐의 水資源은 우리나라 動力資源開發에 主軸을 이루고 있읍니다. 또한 東海의 絶景을 끼고 雪嶽山과 五大山 國立公園이 있고 雉岳山道立公園이 있으며 內陸地方의 人工湖水等 觀光資源이 全國에서 가장 많은 道임을 자랑합니다.

問 2. 江原道의 地域社會 開發方向?

答 本道의 開發方向은 過去에는 뚜렷한 方向이 없이 단편적으로 各市郡別로 都市開發方向을 設定하고 있었으나 70年代에 와서 農村人口가 都市 流出로 因하여 道內人口 減少現狀이 나타나 이를 分析한 結果 都市所得이 農村의 所得을 훨씬 上回함으로서 생기는 自然離農現狀이므로 이를 防止코저 他道로 流出되는 人口를 흡수키 爲한 都市開發事業에 역점을 두고 春川 洪川 橫城 原州를 連結하는 軸과 原州 江陵을 直結하는 軸 및 東草 江陵 東海三陟을 直結하는 軸 즉 H형 形의 軸을 中心으로 開発을 推進하여 왔읍니다. 따라서 거점 都市 開發을 目的으로 하는 綜合開發計劃과 2,000年代를 目標로한 都市長期開發計劃이 新設 太白市를 除外 하고는 確定 完了 되었으며 現在 本道全体의 五個年開發計劃을 樹立中에 있읍니다.

問 3. 建築士業務와 關聯하여 당국의 建築行政 全般에 對한 意見

答 現代社會에서 建築은 傳統的인 文化의 繼承 發展과 國民生活의 安定基盤을 確保하는데 重要한 몫을 차지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建築行政은 民願人 個個人의 財産權을 保障하여주는 業務와 直結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分爭의 要素를 안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業務를 담당하고있는 建築士는 단순한 構造物의 設計와 許可수속을 代行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國民의 住居生活 改善과 都市美를 創造해내는 造形藝術人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建築主에게 編在 하거나 違法되는 일이 없이 公明正大하고 신속 正確한 業務処理를 함으로서 建築物의 質的向上에 努力해 나가야할 줄압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建築行政은 制度上의 모순점과 운영上에 不合理한 規制事項이 많이 있읍니다. 특히 建築과 關聯되는 法規가 너무도 많은데다 자주 바뀌어 每日같이 取扱하고 있는 專門職도 잘모르고 있는 事項이 허다합니다. 더욱이 本道 建築行政은 道地域計劃課와 一線市郡 許可官廳에서 다루고 있읍니다만 大部分의 建築담당 公務員들이 非專門 이여서 技術面에 미흡하여 거의 그 모든 業務를 建築士가 代行하고 있는 實情이며 이에 뒤따라 發生하는 民怨 또한 建築士가 責任을 져야하는 어려운 與件하에 있읍니다. 現在 合同業務區域에서 實施하고 있는 住宅許可 制度는 設計 鑑理 竣工業務에 이르기 까지 그 全部를 建築士가 代行 하고 있으며 市長 郡守는 許可란 要式行爲 만을 거치는데 不過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는 行政節次를 簡素化 시키고 不條理의 要因을 除去하는데 도움이 되어 온것은 事實이나 反面에 壁地一般 郡地域(単独業務區域)에 까지도 波及擴大 實施될 부작용을 안고있을 뿐만 아니라 既히 制定 施行中인 建築士 處罰規程이 이러한 制度 와 業務限界가 全的으로 無視된채 行政당국에서 一律 的으로 適用하고 있다는 事實은 早速히 是正되어야할 重大한 課題로서 持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

춘천시건축조례

(제993호 1981. 5. 14. 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법"이라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의 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 도시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풍치지구내의 건축 제한

제 3 조 (용도제한) 풍치지구 내에서는 영제14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
2. 창고시설
3. 운수시설
4. 교정시설
5. 영부표 제 4 항 (근린생활시설) 중 제 6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 4 조 (건폐율등) 1)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건폐율은 10분의 2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주거지역내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로 한다.

2) 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대지면적의 10분의 6을 초과할수 없다.

제 5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0평방 미터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00평방 미터로 한다.

제 6 조 (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및 바닥면적 30평방 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 미터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거리 : 2 미터

제 7 조 (용적율)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60%를 초과할수 없다.

제 8 조 (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수 없다.

제 3 장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

제 9 조 (용어의 정의) 이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 1 종 미관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2. 제 2 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3. 제 3 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노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4. 제 4 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5. 제 5 종 미관지구라함은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게기한 경우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를 말한다.

제10조 (건축심의) 1)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용도제한) 1)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건축 할수 없다.

1. 도매시장, 시장
2. 철물 기타제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3. 공장
4. 창고시설
5. 교정시설
6.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7. 정육점,세탁소, 장의사
8. 묘지관리시설
9. 자동차 관련 시설
10.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2) 제 2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9 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 할수없다.

3) 제 3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8 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 할수 없다.

4) 제 4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 할수 없다.

5) 제 5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게기한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 할수 없다.

제12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 1 종 미관지구 : 300평방 미터
2. 제 2 종 미관지구 : 200평방 미터
3. 제 3 종 미관지구 : 200평방 미터
4. 제 4 종 미관지구 : 150평방 미터
5. 제 5 종 미관지구 : 200평방 미터

제13조 (대지안의 공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은 주거면도로 측의 건축선으로 부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 방향에

의 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종 미관지구 : 2미터
2. 제 2종 미관지구 : 2미터
3. 제 3종 미관지구 : 2미터
4. 제 4종 미관지구 : 2미터
5. 제 5종 미관지구 : 2미터

제14조 (건축물의 높이) 제 4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건축물의 규모) 1) 미관지구내에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 주택을 제외한다은)다음표에게기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구 분	건축물의 앞면길이	건축물의옆면길이
제 1종 미관지구	10	8
제 2종 미관지구	8	6
제 3종 미관지구	8	6
제 4종 미관지구	–	–
제 5종 미관지구	8	6

2) 제 1종 내지 제 3종 및 제 5종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게기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평방미터

층 의 수	건축면적
3층이하	50
4층 – 10층	100
11층 – 15층	200
15층이상	400

제16조 (건축물의 모양)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는 그 지구의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구조 형태 등을 제한 할수 있다.

제17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1)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2) 미관 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수 없다.

3) 시장은 미관 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수 있다.

제 4장 고도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18조 (최저 고도 지구내의 건축 제한) 최저 고도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건폐율, 용적율 및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건폐율 : 10분의 3
2. 용적율 : 100%
3.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 300평방 미터

제19조 (최고 고도 지구내의 건축 제한) 최고 고도지구내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비율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10미터 이내에서 시정한 최고 고도 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폐율 : 10분의 6
2. 용적율 : 800%

제 5장 교육 및 연구 지구내의 건축 제한

제20조 (용도제한) 교육및 연구 지구 내에서는 영 제147조 제 1호 내지 제 7호에 게기한 건축물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 할수 없다.

1. 공장
2. 운수시설
3. 교정시설
4. 영부표 제 4항 (근린 생활시설) 중 제 6호 내지 제 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 6장 재해 위험 구역내의 건축 제한

제21조 (건축제한) 재해 위험 구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 할수 없다.

1. 자동차 관련 시설
2. 동물 관련 시설
3. 운동 시설
4.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용도에 사용하는 존치 기간 6개월 이내의 가설 건축물

제 7장 벽면 및 담장의 구조

제22조 (벽면의 위치) 영제 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폭 8 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은 1층의 벽면을 건축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제23조 (담장의 구조) 1)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담장에 철조망, 유리파편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시계획 구역내의 담장의 높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담장 및 벽면의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구역내의 건축물의 벽면 및 담장의 색채를 제한 할수 있다.

제25조 (지붕의 구조 및 색채)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지붕의 구조 및 색채 를 제한 할수 있다.

제 8장 대지내의 조경

제26조 (대지내의 조경) 영제168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내의 식수등 조경은 다음표에 게기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당시로 기준으로 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 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 )	상록 비율(%)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상록수 40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0.2 본 이상	낙엽수 40

높이자라는 나무)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치 않고 키낮은 나무)	0.4 본 이상

제27조 (조경공사비의 예치) 영제168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 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의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적용범위) 이장의 규정은 법 제5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 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완화 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제29조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10분의 9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전용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영제18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10을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30조 (용적율) 1)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2 이하의 면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로 한다.

2)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인 대지엔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제1항에 적용하는 용적율이하로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배수 = \frac{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면적}{당해 대지 면적}$$

제31조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2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한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서 영제 168조의 2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띄어야할 거리의 1/2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등) 건축물의 기능상 부득이한 구조부실 ,설비등은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과 종전 규정의 범위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할수 있다.

제10장 건축 위원회

제34조 ((기능)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제 171조 제 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건의한다.

제35조 (조직)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3)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6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수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8조 (소위원회) 1)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2) 소 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한다.

3) 소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소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 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가름 할수 있다.

5) 소 위원회는 전원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전문위원) 1)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또는 연구를 하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수 있다.

2) 전문위원은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3)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이 발언할수 있다.

제40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자료 제출의 요구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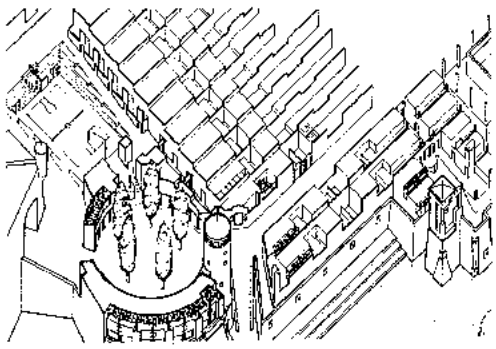
2)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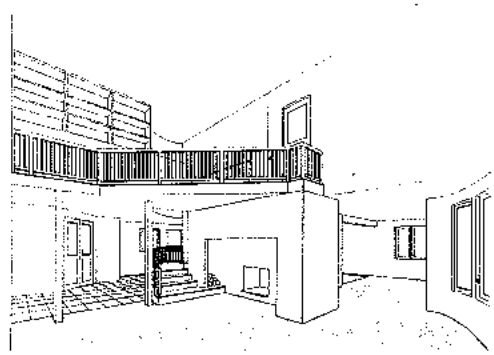
제4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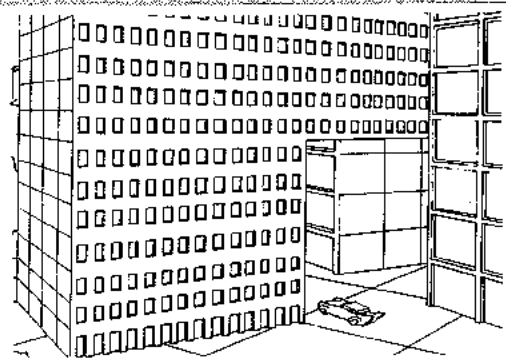
제43조 (비밀준수) 위원회위원 · 전문위원 · 간사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로서 기준 면적의 10분의 5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할수 있다.







建築家의 資質

田中 清 原著
朴商浩 訳
(石林建築研究所 代表)

(一) 專門家의 能力

現在, 우리나라 学制에 의한 大学의 建築学科 학사과정이 四년간이고 大学院의 석사과정이 二년간이다.

초창기 이후, 변모해 온 教育의 方法에 있어서 큰 進步가 있었고 그에 따라 教育의 기회도 대단히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이 教育面의 発展과 向上에 비해서 우리 学生들의 実力面은 과연 어떻게, 얼마나 변했을까?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교사진에 대해서 말해보자.

단적으로 말해서 교사진은 지금이 훨씬 우수하다. 왜냐하면 根幹으로되는 学問과 理論에 있어서의 鮮明이 크게 進步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각국간의 人的인 交流, 技術情報의 大量流通, 実験機器의 눈부신 발달, 施工技術面에서의 경이적인 工業化 등등. 이 모든것이 종전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비약적인 進步를 가져왔다.

学生들의 実力面은?

유감스럽게도 다 「玉」이 아니다. 「돌」이 섞여 있다. 그 비율에 있어서도 「玉」은 적고 「돌」은 많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은 데서 찾아 보자.

첫째로, 전문학생의 大量生産 즉 粗製量産과, 둘째로는 双方 모두의 情熱의상실 즉 배우는 측이나 가르치는 측이 다 같이 情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直接的인 原因일 것이다.

물론 모든 大学이 다 그렇다는것은 아니다. 優秀한 人材를 사회로 많이 내보내고 있는 大学 建築学科도 몇은 있다. 하지만 教育界도 社会의 그때그때의 영향을 어쩔수 없이 아니 받을 수 없어서 経営에 치중한 拡大化를 指向한 결과라고 의심해 보는 것이 나혼자만의 지나친 생각일까.

学生의 質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大量供給에 열을 올리고 있는 意図에 問題가 있는 것이다.

좀 俗된 表現을 해보자. 「一流半」 쯤 되는 大学을「一流半」쯤 되는 성적으로 四年制 学部를 졸업한 学生이 社会에 나가서 종합적으로 設計監理能力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보통 10年쯤의 実務経験과 努力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도 당연히 그 사람이 実務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努力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선배를 가졌느냐, 가졌다면 그와의 関聯度 여하에 따라서 同一한 素質의 所有者라 할 지라도 그 사람이 能力 발휘하는 데에는 커다란 差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 建築家에게 必要한 專門家的 能力

그 職能으로부터 요구되는 專門家的能力이란 어떠한 조건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知性－洞察力·分析力·判断力 知識, 教養, 理解力을 토대로 해서 研磨되는 能力이다.

知性이란 人間形成에 있어서 대단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히 능력이라 하기보다는 人格의 範疇에 속하는 部分이 오히려 큰 것으로 洞察力, 分析力, 判断力은 물론 創造力과도 크게 관련되는 性質의 特性이다.

知性의 総合効果에 의해서 発揮되는 힘을 「知力」이라 한다.

洞察力이란 当面한 事態에 관련하는 문제, 사태의 발전방향 등을 파악해서 事前에 또는 臨機応変해서 대책을 세우는 能力이다.

分析力이란 問題의 把握 및 관련문제의 인식, 나아가서는 그 軽重의 판단등

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判斷力이란 事態의 本質을 理解해서 健全 適切하게 進言하고 決斷 措処하는 能力이다.

□ 感性－觀智·感受性·追求力

우리 建築界의 선배 한 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나는 感性에 의한 建築을 하려고 努力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디테일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말씨가 차분하고 태도는 공손하다. 나는 그분이 建築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追求心과 더불어 그의 人品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人間에 있어서 情熱이란 것은 感性에 속하는 기능인데, 최고의 힘을 발휘케하는 에네르기이다. 좀이 쑤셔서 가만히 앉아서 배길 수 없고 설레이는 마음, 로망으로서 분출되어 나오는 源泉은 理性 그것이 아니라 뜨거운 「熱氣」와 「싱싱하게 젊고 건강한 것」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지」나 강한 追求心이 생겨나는 힘으로 되는 것이다.

感性을 硏磨하는 노력도 当然히 필요하지만 원래부터 타고 난 先天的인 素質이 能力으로서 보다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아닐까?

사물을 창조하는 情熱과 「재치」가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建築家란 職能에는 적당치 않을 것이다.

創造力—

建築이란 創造와 技術의 所産이다.

創造力은 感性과 知性의 建築家로서 要求되는 能力중에서 不可缺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리이더로서, 또 경영자로서도 必要한 能力이다.

計劃을 전개하고 発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주로 知性的 能力에 의존함이 크다고 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発想, 構想, 단계에 있어서는 感性이 풍부하고 예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能力도 어느것이나 할 것 같으면 先天的인 素質이 優先한다고 말하고 싶다.

□ 表現力－自己主張, 昇華, 說得力

思想, 즉 自己主張의 表現, 造形에 대한 디자인에 있어서 혹은 技術的 表現力 및 그들을 상대해서 共感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說得을 하는 힘을 종합한 것이다.

본인의 思想, 전문가로서의 力量 視野가 넓은가 하는것등에 의해서 同一한 테에마에서도 크게 相異한 表現으로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管理能力—

業務管理, 組職管理, 人的管理, 情報管理, 自己管理 등 여러가지 分類方法과 目標가 있다. 管理하는 데는 計劃→組織化→指導→教育訓練→統制→確認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또 全体로서 콘트럴하는 能力이 요구되는 것이다.

現代는 완전히 개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能力만으로 일을 처리해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協同者로서의 人間関係도 선배, 후배, 동년배 등의 內部的관계가 있으며 또 外部에도 事業의 協同者나 建設関係業者와의 調整事務가 있다.

그들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効果를 거두는 能力, 혹은 그들을 指導하고 統制하는 能力이 要求된다.

기타의 能力

專門家라고 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職業人으로서 一般的으로 必要한 能力을 말해 본다면,

經濟感覚能力—自己가 바라는 目的 達成을 위해서 投入해야 할 코스트를 책정하는 데에 過하거나 不足함이 없는 適切한 判斷을 하고 또 이것들을 그때그때에 잘 調整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한다.

情報処理能力—情報는 人的인 情報 와 物的인 情報로 区分된다. 情報의 収集→取捨選択→分類·整理→→活用하는 能力.

企劃力—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方法과 順序로서 하면 만족한 成果를 올리느냐 하는 것에 対処하는 能力이다.

個性的인 아이디어와 共感을 얻을 수 있는 対応方法이 필요할 것이다.

(二) 建築家와 人間性

建築家가 独立해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專門家能力과 經営者能力이 필요하다.

이 二面的인 能力을 한 사람의 人間으로서 어떠한 밸런스에 의해서 그 힘을 발휘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当事者의性格, 志向, 그리고 재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등에 의해서 個人差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나 일정한 수준 以上의 能力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建築의 創造行為에 있어서 建築家의 思想, 力量, 人生観의 諸要素가 必然的으로 그 作品에 나타나듯이 經営者能力의 기본으로 되는 것도 역시 經営者의 人格能力, 人生観, 人間性이며 이것을 뒷받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經営理念」인 것이다.

近代經営学에 있어서는 經営도 하나의 「技術」이라는 해석을 하고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그격을 「技術」이라고 肯定해 보자. 그렇더라도 그것이 「살아 있는 人間을 対象」으로 하고 있는이상 卓上 위에서나 数理만으로 運営되어 지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무릇 「經営」이란 돈과 물질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設計事務所의 經営에 있어서 가장 큰 要素는 人材—量인 것이 아니라 質的인 것이다.

「人材」를 中心으로 한 「經営組織」인 設計事業所에 있어서는 經営者의 經営理念과 서로의 人間性의 관련이 조직의 充実度를 決定한다.

經営理念이란 社会観(經済社会를 全体의 立場에서 보느냐, 아니면 自己中心的으로 보느냐) 企業観(企業의 存在基盤, 存在価値에 대한 見解) 從業員観(企業을 構成하는 從業員을 自己의 協力者로 볼 것이냐 아니면 労動力利用만의 立場에서 볼 것이냐)의 세 가지에 의해서 判斷評価해야 할 性質의 것이다.

人間性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 人間関係観, 家庭観, 物質観, 自然観 등 제각기 다른 見地에서 判斷 評価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喜劇經営理論에서는 社会人과 經営者에 대한 評点法으로서 그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곱 段階로 区分하고 있다.

1. 感化力이 있는 사람.

高尚한 人格, 모범적인 行動으로서 世上을 感化시켜 나가는 사람—例를 들면 링컨, 李舜臣.

2. 包容力이 있는 사람.

유유히 흐르는 大河처럼 清濁을 모두 包容하는 사람.

3. 指導力이 있는 사람.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힘을 통솔할 힘이 있는 사람.

4. 開拓力이 있는 사람.

問題가 발생하면 自進해서 그것을 解決하려고 나서는 사람.

5. 自立者.

権利와 義務를 분별하며 항상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의식하는 사람.

6. 表面協助者

表面上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言行이 一致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信

賴度가 약하다.

7. 自己中心的인 사람.

제멋대로 처리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

즉, 自立能力의 所有者는 上記한 것중에서 5번 以上의 사람들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外에, 長期間에 걸친 調査와 実験結果에 의한 백분율에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数字도 있다.

일하는 사람 1천명에 대한 対比分類比率.

1. 指導力을 가진 사람 0.3% 겨우 3명.

2. 開拓力을 가진 사람 10.5% 105명.

以上의 그룹을 「喜労動者」라고 부른다. 이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職場을 歩進시키고 向上시키는 原動力이 되는 사람들이다.

3. 自立者－14% 1백40명. 이 사람들은 判断力이 있기 때문에 喜労動者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問題는 上部의 指導力과 영향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것이다.

4. 表面協助者 56.2% 5백62명.

5. 自己中心主義者 19% 1백90명.

4와 5의 非自立人들은 「労動者」로 分類되는 사람들이다. 일한다는 것은 참 괴롭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 가능한한 편히 지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 다시말해서 풍요한 人生을 살고 싶지만 상대방으로부터, 社会로부터 부여되는 크기에 대해서 자기가 提供해야할 価値의 内容을 뚜렷이 理解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왜 以上과 같은 測定이 必要하느냐 하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金品이나준다는 것만으로는 解決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글은 先進国의 한 老建築家가 機関紙를통해서 그나라 会員들에게 보낸 글의 一部分이다. 이 老建築家는 한평생 자기 나라 建築界의 순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다.

◎ 建築家여! 矜持를 가져 주십시오.

建築家는 商人이 아니다. 商人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建築家는 일을 위해서 생활한다.

◎ 建築家는 注文을 받으러 다녀서는 안된다.

保険会社의 外務員 처럼 訪問하는 事業이 아니다.

相対方으로부터 訪問 받음으로써 비로소 事業이 가능한 것이다.

医師나 辯護士는 일을 구하려고 다니지 않는다. 이러한 理想을 갖지 못한다면 언제까지고 建築家는 별볼일 없을 것이다.

◎ 大都市의 建築家는 中小都市建築家의 몫까지 침범해서는 안된다.

中小都市의 建築家를 원조하고 協助함으로써 이나라 변두리 지역까지 온 建築家의 손에 의한 格調 높은 建築物을 創作해서 国民의 생활향상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젊은 이여! 奮発하라.

이 나라의 장래, 아니 온 世界의 建築物이 이나라 建築家의 손으로 훌륭하게 完成되기를 기원한다.

◎ 써어비스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 奉仕가 아니다.

誠実과 親切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일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값을 낮추고 싸게 파는 것으로는 올바른 써어비스가 되지 못한다.

衣食住가 足한후에 비로소 禮節을 지킬수있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제대로 써어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 人間은 神이 아니다.

悪意가 없이 過誤를 범하는 수도 있고 無知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책망에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절하게 指導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悪意가 있는 過失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다. 철저하게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 他人이 말하지 않더라도 正当한 일을 실천하는 것은 最上이다.

他人이 시켜서 하는 것은 上이고, 시켜도 하지 않는 것은 下.

시켜도 시켜도 하지 않는 것은 最下이다.

◎ 建築家는 流行的인 芸能人이 아니다.

교양과 人格과 科学知識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구실을 하게 되더라도 부단히 努力해서 前進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努力을 日常生活化해서 一生동안 관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人口는 많지만 国土는 좁다.

사실 우리나라는 国土에 비해서 人口가 많다. 더구나 그것이 都市로 集中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커진다.

人口가 많다고 하는 것이 無秩序 해도 된다는 口実은 안된다. 人口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混乱을 피할 수 있는 研究와 努力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고 現在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動物은 感情만으로 살고 있다.

집이 나면 짖고 배가 고프면 울고 성이 나면 물어뜯는다.

理性과 理念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나는 그러한 짐승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 広範囲한 知識

내가 오래전부터 존경해 온 R教授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現代의 건축이 재미가 없는 것은 建築家가"建築"밖에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建築家는 단순히 머리로서만 『建築』을 할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身心을 다해서 建築을 해야 할 것이다."

建築家가 하는 일은 創造的인 行為이다. 때문에 天才는 天才다운 建築을 이룩하고 秀才는 秀才답게 理知的인 建築을 考案해 낸다. 또 잔재주에 뛰어난 建築家는 역시 오밀조밀하기 짝이 없는 建築을 해 낸다.

이와같이 建築家는 作品을 함에 있어서 本人의 性格이나 人間性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이것을 숨기려고 애를 써도 어쩔수 없이 나타나고 마는 것이다.

技術과 経験만으로 建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建築家의 個人的 이고 内在的인 것은 一般的으로 外部로 나타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情性的으로 이뤄지는 建築도 역시 우리에게 아무런 表情도 보여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建築들은 모두 R教授의 말과 같이 "아무 멋대가리도 없는 建築"에 해당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뭔가를 호소하며 파고드는 建築—거기에는 精神的인 그 무엇이 表現되어 있는 것이다. 例컨대 그것은 우아하고 親密感을 풍기는 따스하고 素朴한 魅力일 것이며 혹은 端正, 厳格, 神秘感이라고 할수 있는 尊厳性 등일 것이다.

生産技術의 発達과 工業化에 따라서 그 一面的인 메릿을 駆使해서 만들어진 建築에서 無機的인 얼핏보아서 時代의

尖端을 걷는 느낌을 주는 화려한 建築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感動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아무리 밸런스가 잘 잡히고 또 값진 재료를 되었다해도 고작해서 「참 솜씨 한 번 좋았군」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일 것이다.

感性에 의해서 이뤄진 建築(古今 東西를 莫論하고)을 보라. 거기에는 그 작가의 思想, 哲学, 品性, 教養이 깃들어 있는 우아한 아름다움과 神秘感이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精神性은 그 人間의 人格과 教養에서 오는 것으로 建築專門書籍이나 技術書籍으로 부터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技術者나 匠人이 자칫하면 人間的으로 편협한 性格이 되기 쉬운 것도 自身의 專門分野에만 熱中한 나머지 人間形成分野를 소홀히 하기 때문일 것이다.

建築이란 단순한 道具나 裝置인 것이 아니라 人間의 生活, 人間의 生存과 함께 있는 것이며 社会의 存在와 不可分의 関係에 있는 것이다.

建築에서 얻을 수 있는 表面的 直接的의 나아가서는 그 깊은 곳에 内在하고 「人間精神이 希求하는 것과 生活 本然의 姿勢」에 대한, 깊은 認識과 理解를 基調로 한 「技術」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터득하는 方法으로서 歴史書, 文学書, 美学書 등을 비롯해서 社会科学 思想, 経済, 経営分野까지 関心을 갖고 책을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폭과 깊이가 있는 당신의 知性과 教養은 반드시 당신의 作品에 풍요함과 精神的인 것이 깃들여져서 表現되기 마련인 것이다.

요사이 와서 흔히 만화, 극화 같은 것을 熱心히 읽고 있는 大学生이나 成人들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잠간쉴 때나 또는 일시적인 기분전환에는 効果的이겠지만 「熟讀」이나 「愛讀」이란 것은 事物에 대한 価値感을 그르치게 하는 作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것이다.

□ 趣味 人間性

精神的인 頭脳労動을 業으로 삼는 建築家는 메탈하고 解放感을 맛볼 수 있는 趣味를 갖는 것이 理想的이다.

욕심껏 말한다면 建築과 결부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例를 들면 絵画, 彫刻, 陶芸, 音楽등 芸術과 결부되는 것, 혹은 機械組立, 家具制造 등 技術과 결부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自体부터가 즐거운 것이지만 実利도 얻을 수 있다.

평소에 책상 위에서만 일을 하던 사람이 頭脳의 전환을 図謀하기 위해 큰소리를 외쳐보기도 하고 몸을 크게 움직여보기도 하는 것에서 生命의 躍動感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前者에는 声楽, 판소리, 시조 등이 있고 後者에는 골프, 水泳, 테니스, 낚시 등의 스포츠가 있다.

이와 같은 趣味나 스포츠의 分野에서 建築家 중에는 쟁쟁한 実力者가 많이 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지 일에 造詣가 깊은 사람은 多芸多才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 같다.

趣味와 人間性은 不可分의 関係가 있는 것으로 일할 때는 그다지 나타나지않던 그 사람의 特徴이나 長点과 短点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말한다. 하더라도 좋은 趣味를 갖출 必要가 있을 것이며 벤탈한 趣味일수록 깊이가 있는 真正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趣味는 그 사람의 人格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不可避的인 作用이 있는 것이니까 어쩌다가라도 gamble, 기타 不健全한 分野에는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된다.

自己自身이 하는 일이 社会에 貢献하고 相対方을 기쁘게 하고 나아가서는 自身의 趣味에 人生의 充足感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은 人生으로서 다시 없는 보람과 기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建築家에게는 높은 教養과 풍부한 人間性이 要求된다는 것을 항상 強調하고 싶다.

(三) 経営者의 能力

찬란한 未来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각에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決定하는 것이 社長의 책임이라고 한다.

建築家의 경우, 社長이란 「職制」를 組織의 리이더란 「役割」로 바꿔 놓아도 좋다. 말하자면 組織의 톱이며 보스이다. 또 一般世上에서는 「会社」라고일컫는것을 設計事業所의 경우에는 情報 其他의 것으로 武装된 專門家集団의 조직이라고 理解하면 좋을 것이다.

社長이니 所長이니 建築家니 하는 呼稱은 달라져도 経営責任者로서의 役割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해야 할 일은 「自身의 意志와 責任下에 組織의 目標를 定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部下에게 提示하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社員의 행동기준이 提示되면서 同時에 社長 自身이 해야 할 일도 뚜렷해지는 것이다.

封建時代나 工業社会에서의 리이더는 時間的 여유가 많아서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時代였지만 오늘날의 情報化社会에 있어서는 도리어 리이더가 가장 바쁘게 일해야하는 時代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責任은 무거워지고 時間余裕는 없는, 육체적으로는 고된데도 收入은 별 것 아닌 것이 오늘날의 中小企業経営者의 一般的인 형편이다. 建築設計事業所의 経営者도 이러한 점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이것은 대단히 重要하다. 즉 建築家의 경우는 企業의 共通目的인 利潤의 追求, 規模의 拡大와는 相異한 目標인 存在目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나 自身이 좋아서 自進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特殊性이 存在한다.

더구나 프로페션으로서의 業務性格을 띄는 経営의 展開는 方法如何에 따라서 복잡하게도 변화될 수 있고 단순하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方法으로 経営形態를 展開해 나가더라도 経営톱은 어디까지나 항상 組織의 리이더 쉽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저 民主主義라고 해서 重大한 問題를 안이하게 多数決로만 처리해 버리는 愚를 犯해서는 안된다. 経営에는 多数決의 原理는 適用되지 않는 것이다.

비록 少数意見일지라도 珠玉같은 것이 있을것이며 多数意見이라도 衆愚를 代表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 判断과 最后의 決断은 반드시 経営톱이 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그 結果에 있어서의 成敗與否도 経営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 할 나위조차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経営者가 된 사람은 항상 研究心을 가지고 情報를 正確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는 안된다. 経営이란 自己自身과의 부단한 싸움이다. 여기에 経営者로서의 人格成長과 識見의 向上이 있는 것이다.

「建築家」와 「経営者」는 어느것이 더 어려울까?

個人的인 能力의 差에 의해서 그 대답은 다를 수 있겠지만 「建築家」이기보다는 経営者이기가 더어렵지 않을까?

이 冷厳함을 극복하고 経営의 理想을 추구하고 具現시키기 위한 原動力으로되 것이 「経営者로서의 哲学」이다.

例컨대 社会奉仕의 信念, 苦盡甘来의

精神, 솔선수범하는 자세, 自己利益을 희생해서라도 会社를 위하고 社会를 위하여 経営을 하려고 하는 思考方式이다.

그러한 哲学을 터득함에는 그 사람이 先天的으로 가지고 태어난 才能, 자라난 환경, 過去의 経験, 스승이나 벗으로부터의 영향 등에 의해서 各者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깊이와 크기에 따라서 経営者로서의 評価에도, 事業의 成果에도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経営者로서의 哲学을 주위에 있는 社会사람들이나 組織内의 部下들에게 받아들이게 해서 協力을 얻기 위해서는 人間的인 魅力이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 経営者에게 必要한 基本的인 能力

以上에서 経営者에게 要求되는 세가지의 基本에 대해서 言及해 보았다. 첫째로 経営者의 役割, 둘째로 経営者의 哲学, 세째로 人間的인 魅力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経営者로서 必要한 基本的인 能力에 대해서 말해 보겠다.

先見性—

人間은 누구나가 다 어느 程度의 先見性은 갖고 있는 것이지만 특히 経営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会社 内外에 対応함에 있어서의 判断과 予測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노릇인 것이다.

단순히 앞으로 닥쳐 올 일을 보통사람 以上으로 予見해야 함은 물론, 가능한한 빨리 講究해 두는 데에 重要한 意義가 있다.

先見性을 가지려면 풍부한 知識과経験의 토대 위에 「번뜩이는 예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날카로운 着想力과 創造的인 思考力에서 생겨 나는 것이다. 이를 위한 修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先天的인 資質에 의한 能力差의 문제가 보다 더 큰 것이다.

知識과 経験은 풍부한 지식과 넓은 視野를 기르는 기본이 된다.

그러나 知識, 経験, 常識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한편으로는 創造力과 独創性은 빈약해지는 矛盾性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二律背反性을 해결하는데는 経営者 自身의 人間性과 스케일의 大小가 그 열쇠로 될 것이다.

情報化時代에 対応하는 能力

情報化時代란 情報가 「価値」로서 인정되는 時代를 말한다.

封建社会에서는 身分이 최고의 가치였지만 工業社会에서는 資本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어 왔다.

現代는 情報化時代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建築設計事業所는 当然히 労動集約型을 부정하고 知識集約型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情報化時代의 특징으로서 消費者意識의 多様化, 個性化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 経営者에게는 이러한 것에 대한 情報収集能力과 이것을 分析, 活用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답할 수 있는 附加価値가 높은 個性的인 作品을 만들 必要가 있는 것이다.

□ 経営管理能力

建築設計事業所의 경우, 部下라고 하기보다는 파트너라고 해야 할 것이며 사람을 통솔한다 하기 보다는 組織活力의 最大効率力를 도모하여 業務의 質을 最高의 상태로 確保할 수 있도록 指導, 管理, 調整하는 能力이 필요하다.

組織이라고 하는 것은 経営者의 능력 이상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그것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반드시 問題가 発生하게 되고 따라서 改革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自身의 능력을 스스로가 正確하게 인식하는 것도 어렵지만 自己의 현재의 능력과 潜在的 能力을 区分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나 現実問題로서 自身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을 때는 위험한 拡大政策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며, 과소평가했을 경우에는 縮小均衡型의 消極経営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経営을 발전시키려면 経営者로서 반드시 그만한 力量이 具備되어 있어야만하는 것이다.

□ 直感과 決断力

第六感, 「번뜩이는 재치」와 같은 精神作用, 혹은 霊感과 같은 現象은 人間의 모든 能力이 凝縮된 것이 瞬間的으로 일어나는 爆発現象이 아닐까? 経営者에게 부과된 가장 根本的인 것은 「意志의 決定」이다. 意志의 決定을 다이리하게, 그리고 果敢하게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組織의 浮沈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이 意志의 決定을 내리게 하는것이 経営者의 예지에 의한 直感(第六感)과 決断力이다.

経営学者가 名経営者로 되기가 쉽지 않듯이 経営이란 반드시 合理性에 의한 一貫된 것이 아니다. 「물건」과 돈으로서만 움직이는 일이라면 혹은 計数化나 予測이 그대로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人間과 情報라고 하는 또 다른 重要한 要素가 「생생하게」존재하고 있는 한 計数的이고 合理的인 것을 초월한 判断力이 必要한 것이다. 그리고 이 「直感」力이 꼭 必要한 경우가 어느 때냐하면 아주 重要한 課題에 直面해서 「意志의 決定」을 強要당하는 때이다.

그러면 그 直感을 어떻게 研磨할 것이냐 하면,

1. 潜在能力의 範囲를 拡大하고 活性化할 것. 「修行」이나 스포츠가 단순히 身体의 鍛練役割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潜在意識에 대한 援護的인 역할을 활발히 하는 作用도 있다고 한다.

그와는 반대로 알콜이나 설탕은 顕在意識과 潜在意識을 交感시키는 바이패스(그로뮤·毛細血管 80에 대한 1의 비율)을 溶解하는 作用이 있으니까 가능한한 삼가할 것을 전문가는 가르치고 있다.

또 그것의 解毒効果로서는 新鮮한 生水, 비타민C의 섭취, 温冷浴 등을 권장하고 있다.

2. 일에 몰두할 것. 자기가 전문하는 일과 日常的으로 맞붙어서 열중하는 마음가짐이 自己内部에서 감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能力을 각성시키고 直感을 研磨하게 되는 것이다.

3. 情報処理能力을 研磨할 것, 책을 읽고 文友를 넓히고 他人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음으로써 質좋은 受信機를 자기몸에 具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情報의 選別受信, 分析, 計劃, 管理로 連動되어 가는 能力이 「直感」과 연결된다.

□ 健 康

安定된 상태에서 자기가 하는 일과 맞붙어서 生命의 活性力을 발휘할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한다. 自身의 건강에 의해서 頭脳의 活力, 일에의 気力을 유지하고 拡大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健康하다고 하는 것은 人間으로서 또한 職業人으로서 最大의 「能力」으로 생각해야 하며, 人生—일이나 趣味도 健康없이는 그 즐거움을 충분히 맛볼수 없다.

그리고 평상시의 「마음의 자세」가 重要하다. 밝은 마음으로 이 世上을 対処하고 善意로서 他人을 접하는 것이 自己自身의 몸과 마음의 健康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하다. 〈*〉

鉄筋콘크리트 슬래브의 構造最適化

(Structural Optimization of Reinforced Concrete Slabs)

全 成 男
(경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1. 序 論

지난 30年間 급격히 발전해온 콤퓨터産業, 시스템工学, 그리고 이들과 같은 속도로 발전해온 現代構造理論 特히 有限要素法은 超大型 構造시스템의 自動化 設計나 解析을 可能케 하는 各種 General Purpose Program 또는 Useroriented System Program의 開発을 촉진시켰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Man-machine Communication에 의한 Computer aided design System의 開発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장차 이러한 Computer aided design system의 自動化 設計部分을 担当할 構造最適化分野도 60年代以后 Operations Research의 급속한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크게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構造最適化(Structural Optimization)는 在来의 設計方法에 代置될 만한 実用的인 設計法으로 脚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構造物의 幾何学的 形状, 配置, 및 部材의 設計 全般에 걸친 効率的인 最適化 理論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反面에 각종 構造 System의 電算化解析 및 設計를 위한 商用 Package応用Programs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현재에, 이들 自動解析·設計用 Programs이나 CAD System의 部材設計法으로 代置할 수 있는 実用的인 최적설계방법의 연구개발이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래의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와 응용은 주로 鋼構造의 最適化만을 다루고 있으며, 많은 設計変数를 포함하고 設計条件이 복잡한 鉄筋콘크리트 構造의 最適化를 다룬 研究는 많지않다. 1971年 Sandhu는 単鉄筋슬래브와 擁壁의 최적설계를 위하여 過少鉄筋보의 모우먼트 方程式을 制約条件으로 취한 후, 未知数인 内力 偶力間의 팔길이를 나타내는 를 평형보의 j 로 代置하고 Differential Calculus方法에 의하여 最適鉄筋比를 유도하였고, 1974年 Friel은 極限強度設計法(Ultimate Strength Design Method)에 의한 극한 모우먼트식을 제약조건으로 취한 후 Lagrange mulitplier法에 의하여 보의 최적 철근비공식을 유도하였다.

외국에서는 R.C. 휨부재의 간단한 最適化方法에 관한 Huang, Kohli등의 研究와 P.C. 部材의 최적화에 관한 Birkeland, Rozvany, Naaman, Morris, Kirch등의 연구와 최근에 와서는 Zagajeski 등의 뼈대 構造의 耐震設計를 위한 最適化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된바 있다. 이들 문헌에서는 대개의 경우 R.C. 휨부재, 평면뼈대구조, R.C. 또는 P.C. 교량상부구조 등에 대한 재래적인 WSD 또는 USD설계법에 의한 最適化問題設定과 数学的 計劃法의 線型 또는 非線型計劃法, 라구랑즈승계수법(Lagrange Multiplier METHOD) 등의 최적화기법을 적용하여 대개의 경우 数値的으로 最適解를 구하였다. 본 研究의 目的은 WSD에 의해 철근콘크리트슬래브를 설계하는 경우에 実務設計者들이 予備設計段階에서 使用할 수 있는 最適鉄筋比 및 最適断面을 提供하는데 있다.

本 研究의 最適化技法으로는 過少鉄筋設計의 경우에는 解析的인 方法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経費函数(COST function)를 철근비의 함수로 유도하여 이를 수치적으로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 한편 보와 거어더위에 놓이는 슬래브의 경제성을 분석한다.

2. 鉄筋콘크리트 断面의 最適化

鉄筋콘크리트 단면은 철근콘크리트 시방서의 設計諸般要求条件을 만족시키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즉 설계는 휨응력뿐만 아니라 最少鉄筋比, 最少鉄筋間隔, 전단력, 부착력 또는 처짐限界 等의 모든 制約条件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러한 多制約条件(mutiple constraints)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最適化問題를 形成하면 非線型計劃(nonlinear programming)問題로 된다.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 이는 非線型整数計劃(nonlinear integer programming)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상 사용하는 철근은 표준치수로만 존재하며, 단면의 높이도 표준 거푸집 치수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非線型整数計劃問題의 解를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設計変数를 連続変数로 取하여 非線型計劃問題로 다루게 된다. 이와 같은 非線型計劃問題는 SUMT(Sequential Unconstrained Minimization Technique)나 SLP(Successive Linear Programming) 문제로 변화시켜 解를 구하거나 또는 直接的으로 各種 Descent Agorithm을 적용하여 해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한 最適設計시스템의 開発은 현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内包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연구개발할 부분으로 남겨둔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는 휨모멘트만을 고려하는 単一制約条件을 가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最適鉄筋比, 最適断面치수를 解析的으로 또는 数値的으로 誘導하고자 한다.

2.1 目的函数

철근콘크리트구조의 最適化를 위한 目的函数를 設定함에 있어서 콘크리트는 鋼材와는 달리 重量이나 체적이 最適化하는 것은 대체로 큰 뜻이 없으므로 콘크리트슬래브의 最小経費設計를 행한다. 콘크리트 구조를 만드는데는 콘크리트와 철근 그 자체의 경비, 거푸집비용等이 포함되는데 단면자체의 재료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最小経費를 얻기 위한 目的函数는 다음과 같이 설계변수(d, A_{sy1}, A_{sy2}, A_{sx1}, A_{sx2})의 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C = C_c l_x \times l_y \times d \times 10^4 + C_s\left(37.5 l_x^2 A_{sy1} + 75 l_x\left(l_y - \frac{l_x}{2}\right) A_{sy2} + 50 l_x\left(l_y - \frac{l_x}{4}\right)(A_{sx1} + A_{sx2})\right) \quad \cdots\cdots\cdots (2-1)$$

여기서 C_c : 콘크리트 경비(원/cm³)

C_s : 철근 경비(원/cm³)

l_x : 슬래브 짧은 변의 길이(m)

l_y : 슬래브 긴변의 길이(m)

A_{sx1} : 짧은변지간에 의한 중간대 −M에 의한 소요철근단면적(cm²)

A_{sx2} : 긴변 지간에 의한 중간대 +M에 의한 소요철근단면적(cm²) 짧은변

A_{sy1} : 긴변 지간에 의한 중간대 −M에 의한 소요철근단면적(cm²)

A_{sy2} : 긴변 지간에 의한 +M에 의한 중간대 소요철근단면적(cm²)

d : 슬래브의 유효길이(cm)

C : 슬래브의 건설총경비(원)

위의 건설경비함수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인 경비를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경비함수가 엄밀한 경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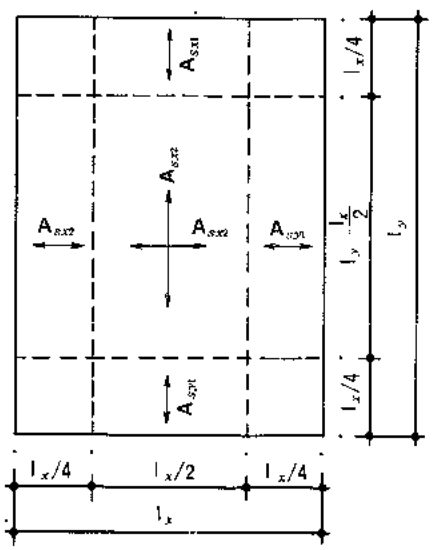


그림 2-1. 슬래브 평면

2.2. 制約条件式

制約条件에는 応力, 変位, 振動数, 座屈, 断面의 치수等等이 있으나 슬래브는 일종의 휨部材이므로, 本研究에서는 応力制約과 치수 및 철근비제약에 대한 制約条件만을 고려하여 제약조건식을 유도하면 식( )과 같다.

유도과정에서 휨 부재는 単鉄筋보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금까지 Over-reinforced beams or sections은 balanced sections이나 Under-reinforced section에 비하여 不経済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balanced나 Under-reinforced section에 대하여만 제약조건식을 유도하였다.

応力制約条件式 :

$$M_i - A_{si}\sigma_{sa}\left(d - \frac{1}{3}k_i d\right) \le 0$$
$$k_i - k_o \le 0 \qquad (2-2)$$

여기서 $k_o = \dfrac{\sigma_{nca}}{n\sigma_{ca} + \sigma_{sa}}$

$k_i = \sqrt{(np)^2 + 2np} - np$

$p = \dfrac{As}{bd}$

$i = 1, 2, 3, 4.$

$\sigma_{ca} = 0.4F_c$

σ_{sa} : 철근의 허용응력

슬래브의 두께제약조건식 :

$$5 - d \le 0 \qquad (2-3)$$

철근비제약조건식

$$0.2 l_x d - 2A_{sy1} \le 0$$
$$0.2 l_y d - 2A_{sx1} \le 0 \qquad (2-4)$$

2·3. 최적화 문제의 형성 및 최적화 알고리즘

앞에서 유도된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식을 최적화문제의 일반형식으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text{Minimize } C(\vec{X})$$
$$\text{Subject to } G(\vec{X}) \le 0 \qquad (2-5)$$
$$(\vec{X} \ge 0$$

여기서 $\vec{X}$: 설계변수(d, A_{sx1}) A_{sx2}, A_{sy1}, A_{sy2})

$C(\vec{X})$: 설계변수로 표시된 목적함수

$G(\vec{X})$: 설계변수로 표시된 제약조건식의조합.

위의 식에서 모든 制約条件式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C(\vec{X})$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설계변수의 조합$\vec{X}$를 구하는 것이 최적설계이다. 본 연구의 슬래브구조에서는 설계변수에 대하여 목적함수는 선형함수이지만 제약조건식이 비선형이 되므로 본 최적화문제는 비선형계획문제(non-linear programming problems)로 된다. 현재 이러한 비선형계획문제의 구조최적화 해석기법으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技法인 Feasible Direction Method, SUMT(Seguential Unconstrained Minimization or Successive Linear Programming)等이 利用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조최적화문제의 최적해를 얻는데 매우효율적이고 Liner Proqramming과 같은 보편적인 알고리즘(algorithm)을 인용할수 있는 축차 선형계획기법을 적용키로 한다.

SLP기법은 초기가정설계점 $\vec{X}^{\circ}$에서 출발하여 최적해가 얻어질때까지 설계점 $\vec{X}^{k}$주위에서 비선형식을 Taylor 급수전개에 의하여 선형화하여, 선형계획문제로 변환한 후 LP문제는 해를 Simplex method로 구하여 그것을 다음단계의 설계점으로 택하는 반복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설계점을 개선해가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임의의 설계점$\vec{X}^{k}$에서의 문제형식을 표시하면 식(2-6)과 같다.

$$\text{Minimize} \quad C(\vec{X}) \qquad (2-6)$$

$$\text{Subject to} \quad J(\vec{X}\ )\vec{X} \geq J(\vec{X}^{k})\vec{X}^{k} - G(\vec{X}^{k})$$

여기서 $\vec{X}^{k}$ 임의의 k번째단계의 설계점

$J(\vec{X}^{k})$: $\vec{X}^{k}$단계의 Jacobian matrix

3. 數値計算例

本 硏究에서는 建築內의 連續된 슬래브를 model로 택하여, 1方向슬래브와 2方向슬래브의 최적화 경향을 분석한다. 대상 model은 $l_x \times l_y = 36m^2$을 고정적인 양으로 $\frac{l_y}{l_x}$을 1에서 2까지 변할때 이론적인 최적단면을 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적재하중 $w=300kg/m^2$, $Fc=210kg/cm^2$, $\sigma_{sa}=1300kg/cm^2$, $n=9$을 이용하고, 경비함수의 경비계수는 1981년 현재를 기준으로 개략계산하여 $Cc=0.0344$원/㎤, $Cs=2.1745$원/㎤을 택하고, 제약조건에는 응력제약, 슬래브두께제약, 철근비제약조건을 취하여 최적화 한다.

3.1. 一方的슬래브

一方的슬래브의 경우에는 폭b=100㎝를 가진 보에 해당로

一方的슬래브의 경우에는 폭 b=100㎝를 가진 보에 해
당되므로, 제약조건을 갖지 않는 無制約条件式으로 유도하면 다음식(3-1)과 같다.

$$C(\vec{X}) = \sqrt{\frac{M}{\delta_{sa}}}\left[Cs\sqrt{\frac{P}{1-\frac{k}{3}}} + \frac{Cc}{\sqrt{P(1-\frac{k}{3})}} \right]$$

여기서 $k = \sqrt{(np)^2 + 2np} - np$

$$n = \frac{Es}{Ec}$$

$$p = \frac{As}{bd}$$

$$k \leq k_o = \frac{n\sigma_{ca}}{n\sigma_{ca} + \sigma_{sa}}$$

주어진 조건에 $C(\vec{X})$가 최소가 될수 있는 최적철근비는 σ_{ca}와 σ_{sa}에 따라 크게 변한다. 즉 현$\sigma_{ca}=0.4Fc$일때는 $k \leq k_o$에 제약을 받아 최적철근비 $P_{opt}=1.2\%$가 되지만, $\sigma_{ca}=0.45Fc$ 수준에서는 $P_{opt}=1.4\%$가 된다. 즉$\sigma_{ca}=84kg/cm^2$, $\sigma_{sa}=1300kg/cm^2$ 일때는 최적철근비는 balanced beam의 철근비가 최적차이지만, $\sigma_{ca}=94.5kg/cm^2$까지 증가하면 최적철근비는 balanced beam의 철근비보다 적은 값에서 최적해가 존재한다. 최적

3.2. 二方向슬래브

連續된 二方向슬래브 구조에서 $\frac{l_y}{l_x}$의 비를 1에서 2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최적해를 구하면 표3.1과 같다.

표3.1. 최적설계의 최적해

l_x (m)	l_y (m)	l_y/l_x (m^2)	$l_x \times l_y$ (m^2)	최적해						
				t (cm)	d (cm)	A_{sxi} (㎠/m)	A_{sxt} (㎠/m)	A_{syi} (㎠/m)	A_{syt} (㎠/m)	C 원
6	6	1	36	9.0	5.77	4.46	6.84	4.46	6.84	137,799.7
5.5	6.55	1.19	36	9.5	6.10	4.73	7.26	3.50	5.35	139,517.3
5.0	7.2	1.44	36	9.5	6.12	4.74	7.27	2.86	4.37	137,215.9
4.9	7.35	1.50	36	9.5	6.08	4.78	7.22	2.79	4.21	136,399.7
4.5	8.0	1.78	36	9.0	5.83	4.52	6.92	2.42	3.69	130,246.6
4.24	8.29	2	36	9.0	5.59	4.33	6.64	2.24	3.41	125,105.0

표3.1에 따르면 $\frac{l_y}{l_x}=1.2$일때가 가장 不經済的이고, $\frac{l_y}{l_x}$가 증가할 수록 보다 經済的인 設計가 얻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뼈대구조전체와 기타 건물의 경비에 영향을 제 요소들을 추가하고, 재료의 강도를 변화시키고, 제약조건을 더 추가하게 되면 최적해도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건물의 가장 이상적인 부재의배치도 최적화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다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4. 結 論

本 硏究에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구조최적화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최적기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채택한 구조모형의 수치계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방향슬래브의 최적화는 간단하게 무제약조건의 최적화문제로 해석될 수 있고, 콘크리트의 허용휨 압축응력의 수준이 최적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2) 평면의 면적을 고정시키고 $\frac{l_y}{l_x}$만을 변화시킬때 주어진 조건에 대하여 대략 $\frac{l_y}{l_x}=1.2$일때 가장 不經済이고, $\frac{l_y}{l_x}$의 비가 증가할수록 經済的인 슬래브의 設計가 可能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뼈대구조전체와 결합하고, 각종 재료의 응력의 변화에 따른 최적화를 시도하면 건물구조의 經済的인 設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의미에서 볼때 本稿는 장차의 연구에 대한 기초단계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R. E. Melchers "Optimal Design of Variable Thickness Reinforced Plates"
2. 趙孝男, 梁川鉉 "플래트 플레이트 鉄筋콘크리트 構造시스템의 電算化最適設計法" 大韓土木学会論文集 1980. 2.
3. 변 근 주 "철근콘크리트 뼈대 구조물의 최적화를위한 최적단면의 결정에 관한 연구" 1976.
4. 변근주, 조효남, 황학주 "철근 콘크리트단면의 최소 경비 설계를 위한 최적철근비에 관한 연구" 대한 토목학회지 1975. 9.
5. 대한건축학회 "철근콘크리트 構造計算規準 및 解說" 1977.

/建築講座/

建築積算資料

(시리즈 2)

曺 浚 鉉
(建設部技術指導課長)

1 - 2 積算資料

1-2-1 外部 비계 가설표준

구 분	복식비계(쌍줄비계)	단 식 비 계(외줄비계)
비계기둥	1.8m 간격으로 배치하고 지중 60cm 매립한다.	간격 1.8~2.1m, 벽체와의 거리는 30~45 cm로 한다.
비계띠장	수평간격 1.65m이하, 지면에서 첫번째 띠장까지 거리는 3 m로 한다.	한손으로 작업할 때는 1.2~1.5m간격, 두손으로 작업할때는 0.9m간격으로 한다.
비계장선	비계띠장에 1.5m 간격으로 배치, 띠장에서 양쪽 머리가 10cm이상 나가게 한다.	
가 새	비계 기둥간격 10cm내외 각도 45°내외로하여 띠장 및 기둥에 긴결한다.	비계 기둥간에 45°각도로 가설한다

1-2-2 단관비계 가설표준

구 분	표 준
기 둥 간 격	1.8m
장 선 간 격	1.5m (지상 첫번째는 2.0m임)
비 계 목	1.2m
전 면 보 강 가 세	수평간격 15m마다 교차
수평, 수직보강가세	필요할때 설치
비 계 하 중	KSF 8002규정에 준한다.

1-2-3 낙하물 방지 가설표준

1. 지상에서 높이3.5m되는곳의 비계 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정도로 경사지게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 높이 15m이내마다 방지망을 설치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은 10mm눈크기 이하의 철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발, 거적등을 친다.

1-2-4 비계재료규격

구 분	종 별	규 격		비 고
		지름(cm)	길이(m)	
긴 비 계 목	낙엽송	7.5~12	5.4~7.2	
짧은비계목	낙엽송	6 ~12	1.2~3.6	
발 판	육송, 삼송, P. S. P.	두께 3.6 폭 21~27 폭 40	2.7~3.6 3.0	
철 선	누구린것	# 8 ~10	50kg다발 30kg다발	1개소당 1.5m
새 끼		1.2~1.5	65m다발	1개소당 8m

1-2-5 비계목 결속선 규격

(비계목 결속은 보통 #8~10燒鉄線을 使用한다)

지 름	SWG	#4	5	6	8	10	12	14	16	18	20	22
	mm	5.9	5.4	4.9	4.1	3.3	2.6	2.0	1.6	1.2	0.9	0.7
단 면 적	mm²	27.3	22.9	18.9	13.2	8.5	5.3	3.2	2.0	1.1	0.6	0.4
둘레길이	mm	18.5	17.0	15.4	12.9	10.4	8.2	6.3	5.0	3.8	2.8	2.2
무 게	g/m	213	192	164	108	71	47	27	17	9.5	4.8	3.1

1-2-6 가시철선 규격

종 별	핏치	선 지름	#12	#13	#14 (2mm)
	mm	in	m	m	m
가시철선 (4포인트)	63	2½	330	365	545
	75	3	360	400	575
	100	4	395	460	650
	125	5	430	500	700

비고 : ① 가시철선(철조망, Barbed Wire) 1 둘레(卷)50kg짜리와 30kg짜리가 있다.
② 포인트는 한군데 가시수, 핏치는 가시의 간격이다.
③ 가시철선은 보통 2줄 꼬기로 하지만 외줄(単線)에 가시를 감은 것도 있다.

1-3 一位代價表

1-3-1 假設 事務所

1㎡當

區分	品 名	規 格	單位	數 量	單 價	金額	備 考
3個月以內	목 재		㎥	0.0501			0.167×0.3
	못		kg	0.3			
	철 물		kg	1.89			6.3×0.3
	골 함 석	#31 1.8×0.9m	매	0.22			1.1×0.2
	(루 우 윙)		(㎡)	(1.3)			
	창 호	(설계수량)					(설계수량)×0.3
	유 리	(설계수량)					(설계수량)×0.6
	건축목공		인	0.8			A
	함 석 공		인	0.03			
	(루우윙공)		(인)	(0.01)			
	인 부		인	0.25			
	기구손료		식	1	A×2%		
	계						
6個月以內	목 재		㎥	0.0751			0.167×0.45
	못		kg	0.3			
	철 물		kg	2.835			6.3×0.45
	골 함 석	#31 1.8×0.9m	매	0.385			1.1×0.35
	(루 우 윙)		(㎡)	(1.3)			
	창 호	(설계수량)					(설계수량)×0.4
	유 리	(설계수량)					(설계수량)×0.65
	건축목공		인	0.8			A
	함 석 공		인	0.03			
	(루우윙공)		(인)	(0.01)			

內	인 부		인	0.25				
	기구손료		식	1	A×2%			
	계							
1	목 재		m³	0.1002				0.167×0.6
	못		kg	0.3				
	철 물		kg	3.78				6.3×0.6
	골 함 석	#31 1.8×0.9m	매	0.605				1.1×0.55
週	(루우핑)		(m²)	(1.3)				
	창 호	(설계수량)						(설계수량)×0.6
年	유 리	(설계수량)						(설계수량)×0.75
	건축목공		인	0.8				
以	함 석 공		인	0.03				A
	(루우핑공)		(인)	(0.01)				
內	인 부		인	0.25				
	기구손료		식	1	A×2%			
	계							

가설건물의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재

(m² 당)

구분 \ 수량		소요량	비 고	구분 \ 수량		소요량	비 고
사무실	바 닥	1.0m²	콘크리트, 보도블록, 후로링, 합판	창 고	바 닥	1.0m²	콘크리트, 보도블록, 후로링, 합판
	내 벽	0.5m²	합판위 유성페인트		외 벽	1.2m²	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
	외 벽	0.5m²	골함석 또는 합판위 유성페인트		창 문	0.017매	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
	천 정	1.0m²	합판위 유성페인트		출입문	0.017매	〃
	창 문	0.04매	목재 창호철물, 유리, 페인트,				
	출입문	0.01매	〃				

1. 사무실 창문(유리창) 크기는 1.5m×1.4m미서거 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크기는 0.9m×2.1m여닫이문을 기준하였음.
2. 창고 창문은 1.3m×1.2m미서거유리창을 기준하였으며 출입문은쌍여닫이 문으로 2.0m×2.1m를 기준하였음.
3. 본표 이외의 지붕잇기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4. 지붕잇기 재료는 골함석 루우핑중 선택하여 사용하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에는 골함석을 사용하고 6개월 미만일 때는 루우핑을 사용한다. 단, 공사특기 시방서에서 정함이 있을 때에는 그에 준한다.
5. 특수구조의 가설건물을 요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3-2 假設倉庫

1㎡當

區分	品 名	規 格	單位	數 量	單 價	金額	備 考
3	목 재		m³	0.0402			0.134×0.3
	못		kg	0.25			
	골 함 석	#31 1.8×0.9m	매	0.22			1.1×0.2
	(루 우 핑)		(m²)	(1.3)			
個	창 호	(설계수량)					(설계수량)×0.3
	유 리	(설계수량)					(설계수량)×0.6
月	건축목공		인	0.47			
	함 석 공		인	0.03			
以	(루우핑공)		(인)	(0.01)			A
	인 부		인	0.17			
內	기구손료		식	1	A×2%		
	계						
6	목 재		m³	0.0603			0.134×0.45
	못		kg	0.25			
	골 함 식	#31 1.8×0.9m	매	0.385			1.1×0.35
	(루 우 핑)		(m²)	(1.3)			
個	창 호	(설계수량)					(설계수량)×0.4
	유 리	(설계수량)					(설계수량)×0.65
月	건축목공		인	0.47			
	함 석 공		인	0.03			
以	(루우핑공)		(인)	(0.01)			A
	인 부		인	0.17			
內	기구손료		식	1	A×2%		
	계						
1	목 재		m³	0.0804			0.134×0.6
	못		kg	0.25			
	골 함 석	#31 1.8×0.9m	매	0.605			1.1×0.55
個	(루우핑)		(m²)	(1.3)			
	창 호	(설계수량)					(설계수량)×0.6
年	유 리	(설계수량)					(설계수량)×0.75
	건축목공		인	0.47			
以	함 석 공		인	0.03			
	(루우핑공)		(인)	(0.01)			
內	인 부		인	0.17			
	기구손료		식	1	A×2%		
	계						

1-3-1 假設事務所 備考에 準함.

1-3-3 假設 作業 현간

1㎡當

區分	品 名	規 格	單位	數 量	單 價	金額	備 考
3	긴 비계목	ℓ=5.4m	개	0.0675			0.27×0.25
	짧은비계목	ℓ=1.8m	개	0.0288			0.24×0.12
	못		kg	0.05			
個	골 함 석	#31 1.8×0.9m	매	0.22			1.1×0.2
	(루 우 핑)		(m²)	(1.3)			
	철 선	4.2mm(#8)	kg	0.24			
月	건축목공		인	0.07			
	함 석 공		인	0.02			A
以	(루우핑공)		(인)	(0.01)			
	인 부		인	0.2			
內	기구손료		식	1	A×2%		
	계						
6	긴 비계목	ℓ=5.4m	개	0.0945			0.27×0.35
	짧은비계목	ℓ=1.8m	개	0.0408			0.24×0.17
	못		kg	0.05			
個	골 함 석	#31 1.8×0.9m	매	0.385			1.1×0.35
	루 우 핑		m²	(1.3)			
	철 선	4.2mm(#8)	kg	0.24			
月	건축목공		인	0.07			
	함 석 공		인	0.02			A
以	(루우핑공)		(인)	(0.01)			
	인 부		인	0.2			
內	기구손료		식	1	A×2%		
	계						
1	긴 비계목	ℓ=5.4m	개	0.135			0.27×0.5
	짧은비계목	ℓ=1.8m	개	0.060			0.24×0.25
	못		kg	0.05			
個	골 함 석	#31 1.8×0.9m	매	0.605			1.1×0.55
	(루 우 핑)		(m²)	(1.3)			
	철 선	4.2mm(#8)	kg	0.24			
年	건축목공		인	0.07			
	함 석 공		인	0.02			A
以	(루우핑공)		(인)	(0.01)			
	인 부		인	0.2			
內	기구손료		식	1	A×2%		
	계						

1-3-1 假設 事務所 備考에 準함.

1-3-4 假設 宿所

1㎡當

區分	品 名	規 格	單位	數 量	單 價	金額	備 考
3	목 재	육 송	m³	0.0456			0.152×0.3
	못		kg	0.8			
	골 함 석	#31 1.8×0.9m	매	0.22			1.1×0.2
	(루 우 핑)		(m²)	(1.3)			
個	창 호	(설계수량)					(설계수량)×0.3
	유 리	(설계수량)					(설계수량)×0.6
月	건축목공		인	0.5			
	함 석 공		인	0.03			
以	(루우핑공)		(인)	(0.01)			A
	인 부		인	0.17			
內	기구손료		식	1	A×2%		
	계						
6	목 재	육 송	m³	0.0684			0.152×0.45
	못		kg	0.8			
	골 함 석	#31 1.8×0.9m	매	0.385			1.1×0.35
個	(루 우 핑)		(m²)	(1.3)			

月以內	창 호	(설계수량)						(설계수량)×0.4
	유 리	(설계수량)						(설계수량)×0.65
	건축목공		인	0.5				
	합 석 공		인	0.03				
	(루우핑공)		(인)	(0.01)				A
	인 부		인	0.17				
	기구손료		식	1	A×2%			
	계							
1個年以內	목 재	육 송	m^3	0.0912				0.152×0.6
	못		kg	0.8				
	골 함 석	#31 1.8×0.9m	매	0.605				1.1×0.55
	(루우핑)		(m^2)	(1.3)				
	창 호	(설계수량)						(설계수량)×0.6
	유 리	(설계수량)						(설계수량)×0.75
	건축목공		인	0.5				
	합 석 공		인	0.03				
	(루우핑공)		(인)	0.01				A
	인 부		인	0.17				
	기구손료		식	1	A×2%			
	계							

1-3-1 假設事務所 備考에 準함.

1-3-5 假設便所

1m^2當

區分	品名	規格	單價	數量	單價	金額	備考
3個月以內	목 재	육 송	m^3	0.0501			0.167×0.3
	못		kg	0.70			
	골 함 석	#31.1.8×0.9m	매	0.22			1.1×0.2
	(루 우 핑)		(m^2)	(1.3)			
	출 입 문	(설계수량)					(설계수량)×0.3
	건축목공		인	0.8			
	합 석 공		인	0.03			
	(루우핑공)		(인)	(0.01)			A
	인 부		인	0.25			
	기구손료		식	1	A×2%		
	계						
6個月以內	목 재	육 송	m^3	0.0751			0.167×0.45
	못		kg	0.70			
	골 함 석	#311.8×0.9m	매	0.385			1.1×0.35
	(루 우 핑)		(m^2)	(1.3)			
	출 입 문	(설계수량)					(설계수량)×0.4
	건축목공		인	0.8			
	합 석 공		인	0.03			
	(루우핑공)		(인)	(0.01)			A
	인 부		인	0.25			
	기구손료		식	1	A×2%		
	계						
1個年以內	목 재	육 송	m^3	0.1002			0.167×0.6
	못		kg	0.70			
	골 함 석	#311.8×0.9m	매	0.605			1.1×0.55
	(루 우 핑)		(m^2)	(1.3)			
	출 입 문	(설계수량)					(설계수량)×0.6
	건축목공		인	0.8			
	합 석 공		인	0.03			
	(루우핑공)		(인)	(0.01)			A
	인 부		인	0.25			
	기구손료		식	1	A×2%		
	계						

1-3-1 假設事務所 備考에 準함.

1-3-6 水平 規準枠

1個所當, 1m^2當

區分		品名	規格	單位	數量	單價	金額	備考
個所當	평 규	목 재	육 송	m^3	0.0112			0.014×0.8
		못		kg	0.03			
	준 틀	건축목공		인	0.20			
		인 부		인	0.40			
		계						
	귀 규	목 재	육 송	m^3	0.0176			0.022×0.8
		못		kg	0.06			
	준 틀	건축목공		인	0.40			
		인 부		인	0.60			
		계						
面積當	水平規準枠	목 재	육 송	m^3	0.0016			0.002×0.8
		못		kg	0.004			
		건축목공		인	0.045			
		인 부		인	0.045			
		계						

제작·가설 철거를 포함한 것이다.

1-3-7 세로 規準枠

1個所當

區分	品名	規格	單位	數量	單價	金額	備考
귀(1층)	목 재	육 송	m^3	0.0168			0.056×0.3
	못		kg	0.032			
	건축목공		인	0.25			
	인 부		인	0.40			
	계						
평(1층)	목 재	육 송	m^3	0.0186			0.062×0.3
	못		kg	0.06			
	건축목공		인	0.25			
	인 부		인	0.40			
	계						

높이 3.6m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3.6m 이상일 때는 비례적으로 가산할 수 있다.

1-3-8 외부외줄비계

비계면적 1m^2當

區分	品名	規格	單位	數量	單價	金額	備考
3個月까지	긴비계목	ℓ=5.4m	개	0.060			0.24×0.25
	짧은비계목	ℓ=1.8m	개	0.011			0.1×0.11
	발 판	육송36×250×3,600	개	0.243			0.972×0.25
	철 선	# 8~10	kg	0.18			
	(새 끼)	높이 3~7m 일때	(다발)	(0.06)			
	비 계 공	10	인	0.030			
	〃	〃	인	0.033			
	〃	13m 〃	인	0.037			
	〃	16m 〃	인	0.041			
	〃	20m 〃	인	0.051			
	〃	23m 〃	인	0.061			
	〃	26m 〃	인	0.076			
	계						
6個月까지	긴비계목	ℓ=5.4m	개	0.084			0.24×0.35
	짧은비계목	ℓ=1.8m	개	0.016			0.1×0.16
	발 판	육송36×250×3,600	개	0.340			0.972×0.35
	철 선	# 8~10	kg	0.18			
	(새 끼)	(다발)		(0.06)			
	비 계 공	높이 3~7m 일때	인	0.030			
	〃	10m 〃	인	0.033			
	〃	13m 〃	인	0.037			
	〃	16m 〃	인	0.041			
	〃	20m 〃	인	0.051			
	〃	23m 〃	인	0.061			
	〃	26m 〃	인	0.076			
	계	〃					
1個年까지	긴비계목	ℓ=5.4m	개	0.12			0.24×0.5
	짧은비계목	ℓ=1.8m	개	0.023			0.1×0.23
	발 판	육송36×250×3,600	개	0.486			0.972×0.5
	철 선	# 8~10	kg	0.18			
	(새 끼)		(다발)	(0.06)			
	비 계 공	높이 3~7m 일때	인	0.030			
	〃	10m 〃	인	0.033			
	〃	13m 〃	인	0.037			
	〃	16m 〃	인	0.041			
	〃	20m 〃	인	0.051			
	〃	23m 〃	인	0.061			
	〃	26m 〃	인	0.076			
	계						

質疑 · 応答

(건축관계 법령에 대한 각지부회원 및 일반인의 질의와 본협회의 답변 요지)

(질의 1) : ① 토지구획 정리사업 인가시 상업지역이며 공공용지(시장)로 인가고시된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시장용도로 건축을 하여 현재 시장법에 의거 지상층만 개설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② 동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상 세부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세부시설 결정사항이 아닌 상태에 있어서 신개발 지구에 건축된 관계로 유통인구가 적을뿐 아니라 지상층임대가 절반이상 남아 건축물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지하층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제주지부)

(답변 1) : 귀 질의의 경우 상업지역안에서 위락시설의 건축(또는 용도변경)은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시설(시장) 내에서 동시설 결정의 목적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토지이용상 불가피하다고 당해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시장의 일부분을 위락시설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부)

(질의 2) : 소방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중 "개구부가 없는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제2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화구획으로 사료되는바 내화구조의 벽으로 완전히 구획되어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포항분소)

(답변 2) : 개구부가 없는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됨은 갑종방화문등 일체의 모든 개구부가 없는 완전 구획됨을 의미하는바, 건축법상 방화구획과는 그 뜻이 다릅니다. (내무부)

(질의 3) : ① 건축주가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건축사의 동의없이(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감리자를 정하지 않을때)건축주 임의로 착공하였을경우와,

② 건축주가 동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동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을때)건축주 임의로 사전 입주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행정처분에 따른 해당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부? (기술부)

(답변 3) : ① 건축주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정하여 공사를 하여야 하나, 동 공사감리자를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 임의로 착공했을 경우 동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이 취소 또는 폐쇄명령 규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② 또한 건축물이 준공되기전 사전에 무단입주를 방지함은 원칙적으로 감리자의 책임한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위법사항을 발견하였을때에는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시정토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에게 보고토록 한 건축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이 감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부)

(질의 4) : 건축법 시행령 제162조를 운용함에 있어서

① "토지구획 정리를 시행한 지구"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별도지정이 필요치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토지구획 정리가 되어있는 지구에 대하여는시장·군수의 지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② "폭12M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로서 그 단변의 길이가 120M이하인 것에 한한다"라는 괄호안의 규정은 "토지구획 정리를 시행한 지구를 제외한"기타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의 가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부? (부산지부)

(답변 4) :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를 시행한 지구라 할지라도 도시계획법의규정에 의한 행위제한구역등의 조건상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의 가구에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폭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로서 그 단변의 길이가 120M이 하인것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질의 5) : 건축사법 부칙에 의하면 종전 2급건축사는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M² 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대지내 수개동을 합계한 연면적인지 아니면 1동의 연면적인지의 여부? (강원지부회원)

(답변 5) : 종전 2급 건축사의 업무한계는 3층이하의 건축물로서 1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 (동일 대지내에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할때 동당 연면적을 적용) 이하이면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행할수 있읍니다.

(질의 6) : ① 외국인 용역업체의 국내지사가 건축사법에 의한 사무소의 개설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미군사 시설의 용역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의 필요 여부? (서울지부 회원)

(답변 6) : ① 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 설계용역 업체로서는 국내의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므로 사무소의등록은 불가하며,

② 허가대상이 아니고 국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행위라도 국내 건축사의 설계 용역에 있어서는 사무소개설을 득하여야 하며 외국인 설계용역 업체가 국내 건축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미군사 시설내의 설계 용역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무소 등록이 불필요 합니다.

(질의7) : 건축법 제6조 제6항에서 건설업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있는바 그 연면적이라 함은 동별단위 연면적으로서 일반건축물은 661M², 특수건축물은 495M²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로서 건설업 면허 소지자를 선정토록 되어있는바 기존면적을 초과한 증축의 경우와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면적을 초과한 경우의 건설업자 선정 여부? (경남지부) 의

(답변7) : 기 존건축물을 증·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증·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연면적으로 적용하고, 신축중인 건축물을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연면적과 증가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적용합니다.

(질의8) :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의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법상의 많은절차(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고시, 공람, 공사의 시행, 준공검사 등)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시점 이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 여부? (경남지부)

(답변8) : 건축법 제53조의 7 제2항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동시행령 제180조 제2·3·4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대한 발효시기는 "고시"와 동시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질의9)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 운영을 하던 A, B 2개의 사무소에서 각 1인이 기한부 사무소 폐쇄명령을 받았는바, 동 행정처분을 받지않은 A, B사무소의 나머지 2명이 신규로 합동사무소 등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충북지부)

(답변9) : 사무소 폐쇄처분에 대한 공동 또는 연대책임이 없는 건축사가 기존사무소의 폐업후 새로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할 수 있읍니다. (건설부)

(질의10) : 주택건축 허가시 합동으로 등록된 건축사가 많을경우 2인의 연대책임 날인만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또는 합동으로 등록된 건축사 전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경북지부)

(답변10) : 합동으로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연대책임 날인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2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동으로 등록한 건축사 전원이 연명으로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新刊書籍紹介

建築士, 建築技師, 應試를 爲한 必携의 指針書!

(主觀式 • 客觀式)

建築計劃問題研究

黃在雄
金聖培 共著

A5 494面 定價 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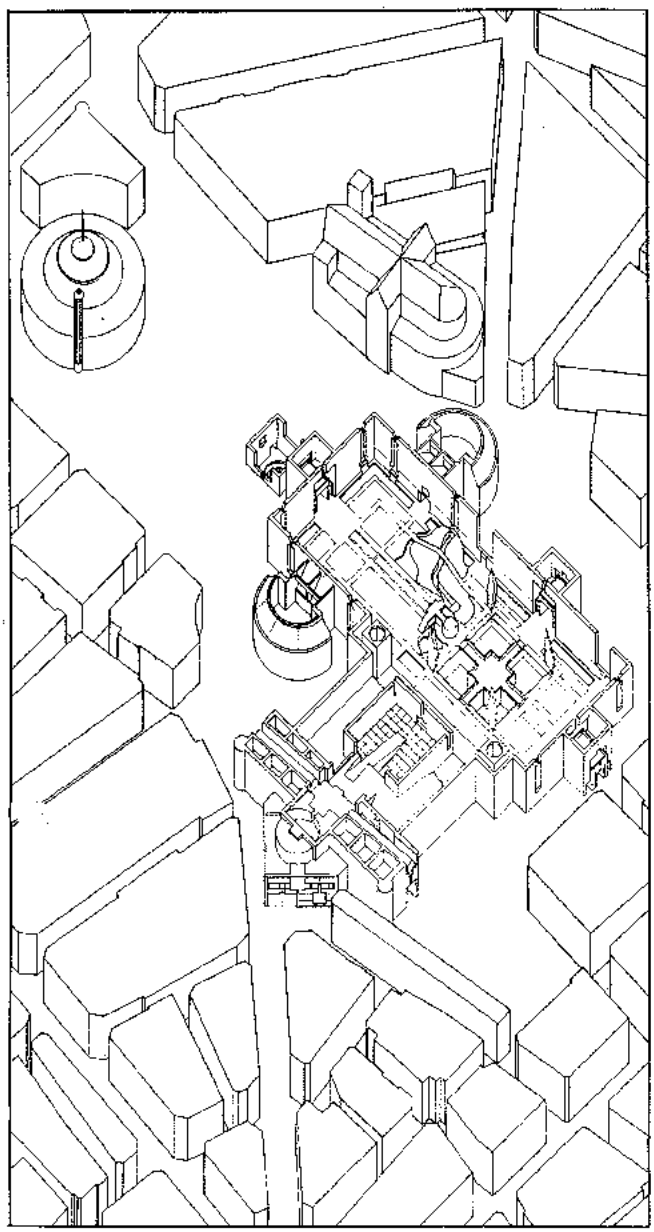
隨其出版 世進社 ☎ 92-3422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22-13

建築計劃問題의 集大成

☆. 主觀式 183問題 · 客觀式 1217問題 收錄
☆. 試驗案內(應試資格 · 試驗科目 · 出題基準) 및 過年度 出題問題 收錄.
☆. 各 問題의 重要度 및 出題빈도, 出題水準에 따라 *표로 表記.
☆. 現行 國家技術資格 問題와 出題型式의 一致
☆. 客觀式 · 主觀式 問題의 比重을 均等히 하여 科目別로 計劃各論 · 計劃原論 · 建築意匠 · 建築史 · 建築設備 問題 總整理.

月 間 建 築 情 報

81. 8. 11~9. 10



大型아파트 新築규제方針

서울市는 14일 総坪数基準 60坪 전용면적 50坪이 넘는 大型아파트의 建築을 規制할 방침이다. 市는 아파트 建築承認 申請이 들어올때 아파트건설업체들이 政府의 住宅政策에 呼応토록 説得 지나치게 規模가 큰 아파트를 짓지 않게 하기로 했다. 市의 이같은 方針은 大型아파트 건축이 小型을 많이 지어 住宅供給을 拡大하려는 政府방침에 어긋날 뿐아니라 아파트 分譲価格의 急騰을 刺戟하고 違和感을 조성할 憂慮가 많기때문에 마련된것이다. 最新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분양가격 規制撤廃以後 大型아파트에 人気가 몰리자 小型아파트 짓기를 꺼리고 있다.

再開発사업 管理처분 計劃

서울市는 再開発事業区域인 영등포구 신길 4동 247·249 一帯 8천287坪과 신길 5동 산14·15 一帯 3천80坪에 対한 住宅改良管理処分計劃 및 건축계획을 마련 10일부터 30일間 土地 및 建築物所有者등에게 供覧시킨다고 公告했다. 市는 管理処分計劃内容은 個別通報하며 関係図書는 建築局再開発2課 및 管轄区庁住宅課에 備置 閲覧 시키기로 했다.

体育공원 追加조성

高水敷地등 3개所에 体育공원을 追加造成하기로 했다. 체육공원이 들어설 地域은 △ 여의도 샛강 高水敷地 23만 7천坪 △ 安養川에서 高尺동까지의 高水敷地 14만坪 △ 천호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의 잠실쪽 高水敷地 3만6천坪등 모두 41만 3천坪이다. 이들 3개지역에는 現在 漢江 高水敷地에 造成중인 体育公園처럼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코트 롤러스케이트장등 운동시설과 주차장등이 設置된다. 市는 82년初에 造成工事를 始作 7월안에 工事를 마칠 計劃이다.

品質검사 運営규정 改正

建設部建築資材品質検査運営에 관한 規程을 一部 고쳐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直轄市長 道知事는 建築資材에 대해 年2回 定期検査를 実施하고 随時検査는 分期別로 1回以上 実施토록하여 이를 지난 13일字부터 施行케 했다. 建設部는 또 検査를 받고자하는 業体는 이를 地方長官이 指定하는 検査機関에 検査申請이 申請에 의하지 않는경우 이들 地方長官이 負担토록 했다. 建設部는 이밖에도 再検査申請期間을 従前15일에서 10일로 短縮시켰다.

文井洞一帯 새市街地 개발

서울市는 江東구 可楽동, 文井동一帯 218만坪을 人口 15만명을 収容할 수 있는 新市街地로 開発할 計劃이다. 20일 서울市에 의하면 이를위해 10억원의 予算을 確保 都市基本計劃 樹立에 들어갔으며 明年에는 敷地造成을위한 区劃整理事業을 始作할 計劃이다 市는 可楽地区 開発의 基本方向을 △ 快適한 住居環境 造成 △ 便利한 道路網 形成 △ 必要한 緑地 공간마련 △ 充分한 商業 文化施設 確保등에 두고 이 地域을 하나의 生活圏으로 묶어 住民들이 日常生活에 不便이 없게 開発하기로 했다. 또 住居地域에는 5층以上 10층以下의 아파트를 重点的으로 建設하되 単独住宅도 按排하여 田園風景에 調和를 이루도록할 計劃이다. 可楽地区안에는 国立鏡技敷地 50만坪이 들어있어 実際開発面積은 168만坪 規模이다.

再開発사업 地区로고시

서울市는 弘済洞 322一帯 8천800坪과 東大門区 踏十里 645一帯 2만4천坪을 再開発事業地区로 告示했다. 이와 함께 孝昌2地区등 5개 再開発事業地区의 事業拡大를 위해 再開発面積을 従前의 6만8천坪에서 13만6천 坪으로 拡大했다. 再開発事業이 拡大된 5개 再開発地区와 再開発事業面積은 다음과 같다.

△ 新孔徳地区=4만800坪 △ 孝昌2地区= 1만1천679坪 △ 上渓5地区=2만2천677坪 △ 忠正1地区=2만2천904坪 △ 典農3地区=3만8천526坪

体育공원 造成등 施行

江東区庁은 21일 本庁으로부터 새마을 就労事業費와 上水道施設事業費로 4억1천163만원을 配定받았다. 配定된 予算의 費目別로는 △ 上水道事業費(受託工事費) 2억원 △ 共同水道施設置費(81개소 130栓) 8천263만원 △ 새마을 就労事業費 1억2천975만원등으로 区分되있다.

이에따라 江東区庁은 △ 새마을 就労事業費로 「高水敷地体育公園造成工事」를 施行키로하는 한편 △ 共同水道設置費로 臣餘,馬川地区에 共同水道 81개소를 設置할 計劃이다. 또한 上水道事業費 2억원으로는 江東区管内에 受託工事를 施行할 計劃이다.

地下鉄公社 任員陣

오는 1일 発足予定인 서울地下鉄公社는 서울市 局長과 区庁長級幹部 5명을 理事陣으로 内定했다.

内定된 理事陣은 △ 総務에 産業局長 金埈洙씨 △ 管理에 冠岳区庁長 李集弘씨 △ 施設에 서울大公園 建設事業所長 鄭頤鉉씨 △ 設備에 水道局長 金仁柱씨 △ 監事에 企劃管理官 都志薫씨등이다. 理事陣으로 内定된 이들은 모두 서울市 古参級으로 이번 地下鉄公社 人事는 앞으로 있을 機構縮小作業과 関聯된 整地作業의 性格을 띤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市는 이에따라 곧 本庁의 局長級과 区庁長級에대한 大大的인 人事異動을 断行할 것으로 보인다.

住宅건설 促進法시행령

앞으로 建設業免許를 更新할 때 国民住宅債券을 買入하지 않게됐다.

지난 24일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이 大統領令 제 10448호로 改正됨에 따라 従前에 一般工事業을 비롯 特殊工事単種工事業免許更新時 資本金(個人의 경우 資産評価額)의 1천分의 2에 該当하는 国民住宅債券을 買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買入하지 않아도 되게했다. 그러나 新規免許을 発給받을때는 従前과 같이 住宅債券을 買入해야 한다.

区劃정리 事業연내 着工

麗水시가 住宅難解消를 위한宅地造成과 北部地域 開発을 위해 서둘러온 19만5천坪 規模의 제3土地区劃 整理事業에 대한 計劃決定이 建設部로부터 承認돼 本格的인 推進을 보게됐다.

麗水시는 当初 美坪 麗西동등 2개 地域 15만坪을 対象으로 実施했던 計劃을 五林 文水 美坪을 屯徳동 一部까지 拡大시켜 総 19만5천坪 規模를 区劃 整理하기로 計劃을 樹立 建設部告示 제289호로 告示됐다.

麗水시는 細部実施計劃등을 마련해 建設部認可를 받는대로 年内에 着工, 오는 84년 換地措置까지 마칠 予定인데 所要事業費는 43억원으로 推算되고 있다.

생활 便益시설 造成

서울市는 1일 地域別로 生活便益施設을 造成하는 生活圏計劃을 마련 1차로 冠岳구를 対象으로 82년부터 年次的으로 開発하고 이어 江西 江東 東大門 城東 江南 道峰 九老 銅雀등 8개区에도 漸次 拡大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市의 이같은 計劃은 서울이 지난 60년代初부터 始作된 人口集中으로 量的 膨脹만해왔을뿐 基本的인 便益施設을 갖추지 못한데서 発生되고 있는 갖가지 不便을 없애려는 것이다.

서울市가 그동안 学術研究用役을 거쳐 確定한 冠岳구 生活圏計劃에 의한 開発計劃에 의하면 冠岳구를 大·中·小 生活圏등 3개地域으로 区分 各地域마다 그 地域住民들의 日常生活에 반드시 必要한 公共施設 学校 病院 市場 등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시 재개발 事業法 시행령개정

国務会議는 1일하오 都市再開発事業法施行令을 고쳐 再開発区域의 指定要件중 建築垈地로서의 効用을 다할 수 없을 程度의 過小土地등의 基準과 老朽不良建築物등의 基

準을 定했다.

過小土地의 規模 및 建築物의 老朽 不良基準은 △ 建築法上 垈地面積의 最小限度에 未達되는 土地 △ 土地의 모양이 建築하기에 不適合한 土地 △ 建築構造上 또는 衛生上 危害를 発生할 憂慮가 있는 建築物등으로 規定했다.

이 改定案은 또 再開発事業의 원활하고 迅速한 施行을 위해 市長 郡守가 立案하는 再開発事業計劃에 대한 建設部長官의 決定権限을 서울市長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 에게 委任했다.

基準尺度 적용의무화

건설부는 공공부문과 민간주택건설업자가 짓는 주택(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축 기준 척도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이의 적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31일 건설부에 의하면 주택의 기준척도 적용은 건축자재를 규격화하여 주택의 대량공급체제를 갖추기위한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공급부문과 민간주택건설업자가 짓는 20호이상의 주택에 적용된다.

住宅공사가 짓는 주택은 내년 1월부터 민간건설업자등 기타 사업주체가 짓는 주택은 내년 7월부터 이의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 기준척도는 주택 1개층의 높이를 2.6m2.7m 8.2m로만 설계토록 했으며 천장의 높이는 2.3m를 원칙적으로 하고 면적 9㎡(2.2평)이하의 침실 부엌 및 변소의 천장높이는 예외적으로 2.2m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계단의 폭은 1.2m이상으로하되 1.2m이상 크게 할때는 10㎝ 폭(1모듈)으로 늘려가도록 하고 계단의 창(계단과 계단사이의 모퉁이)의 폭도 계단의 폭이상으로하고 그 이상으로 크게할때도 1모듈을 적용하게 된다.

복도의 폭은 1.5m이상으로하고 2이상으로 크게할때도 1모듈을 적용하며 난간(발코니·옥외계단·복도 및 옥상)의 높이는 1.1m이상으로 그이상으로 높게할때도 1모듈을 적용하게 된다.

또 거실의 크기는 1변의 길이를 최소3m 이상, 침실 1변의 길이는 최소2.1m 이상으로 해야하며 그이상 으로 크게 할때는 3모듈(30㎝)을 적용해야 한다. 이같은 주택의 기준척도 적용은 덴마크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규격화와 공업화를 촉진 주택의 대량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71평형 아파트 設計

소형평수 의무화 해제이후 가장 큰 평수인 71평형의 아파트가 清和企業에 의해 선보일 예정이다.

清和企業은 서울 龍山区 梨泰院洞에 지을 清和아파트를 설계변경 사업승인을 받았던 32평형과 56평형 6백36가구 대신 전용면적 58.4평인 71평 72가구를 비롯 4개평형 5백22가구로 바꾸었다.

당초 청화아파트는 2개평형을 혼합배치로 설계되었으나 소형평수 및 혼합배치의 의무화가 철폐되어 사업계획이 전면 재조정된것인데 새평형은 국민주택인 36평형이 90가구 46평형 2백40가구 60평형 1백20가구와 소형평수의 의무화 철폐이후 가장 넓은71평형 72가구등이다.

3층이상만 新築허용

서울시는 8일 阿峴洞3거리~東橋洞 로터리간 길이2.9km의 도로양쪽 폭 20m이내지역을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적고시했다. 서울시는 현재 폭 30m인 이 도로가 폭 40m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짐에 따라 미관지구의 폭도 12m 에서 20m로 확장하기로 한것이다.

이에따라 이 지구안의 建築 최소대지면적은 1백평이상 건물 높이는 3층이상돼야만 신축허가가 난다. 또 이 지구안에는 정육점, 세탁소, 방앗간, 연탄공장, 제재소, 철물점등은 들어설 수 없게된다.

체비지 공개입찰

서울시는 오는 9월3일 長安坪 구획정리지구등 총5만5천2백48평의 체비지를 공개입찰로 매각한다. 이번에 매각되는 체비지는 모두 2백96필지로서 택지가 2백86필지로 4만5천4백60평 시장부지가 10필지로 9천8백23평이며 지구별로 보면 長安坪이 1만5천2백99평 京仁지구가 1만5백48평 蚕室지구가 7천3백29평등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지난 7월중순에 유찰된 4만여평의 체비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7월중순 매각때 가격은 시장부지가 평당 90만원 택지가 평당 40만원으로 알려졌다.

武橋·清進지구 再開発計劃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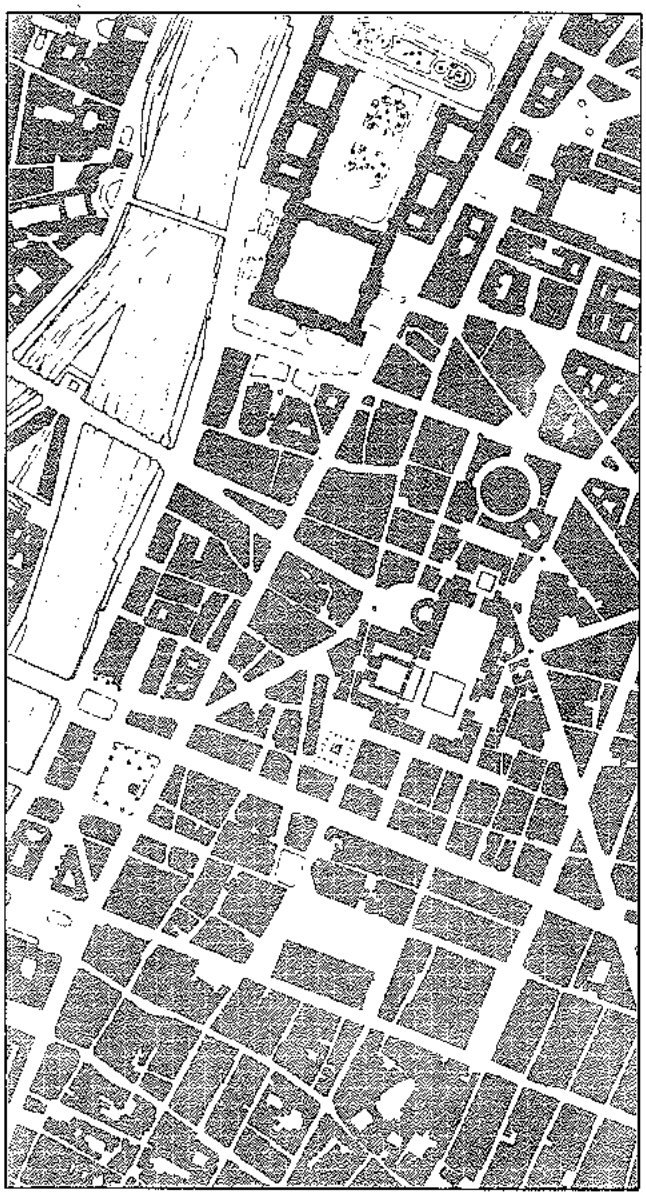
서울시는 3일 武橋 재개발구역(잔여분)과 清進재개발구역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乙支路1가 등 6개개발구역에 대해 건물고도를 조정하는 등 건축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잔여분에 대한 재개발 사업계획이 확정된 武橋구역에는 12지구(太平路1가18)인 중부국세청 자리에 지하3층 지상1층의 사무빌딩이 14지구(太平路1가 31외3)인 서울신문사 자리에 지하4층 지상1층의 새사옥 및 프레스센터 빌딩이 각각 들어서게 된다.

또 중부소방서자리 3백23평은 武橋공원으로, 武橋동88, 太平路1가 82일대는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엠파이어호텔 북쪽으로 너비10m의 주차장 진입로가 신설되며 뉴국제호텔의 앞길을 너비5m에서 너비10m로 확장하는등 3개 도로가 넓혀진다. 清進구역 가운데 1지구인 현재의 신신백화점 자리에는 第一銀行이 15~18층(연건평 1만9천2백평이하)의 본점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清進동20 일대에는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建築行政相談

81. 9. 1~9. 30



-建築法에 関한 事項-

문1 :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때 전시실을 거실로 볼 수 있는지요?

답 : 법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거실입니다.

문2 : 3면이 지하에 있고 1면이 도로에서 노출되었는데 지하실로 간주됩니까?

답 : 1면이 노출되면 지하층으로 인정되지 않읍니다.

문3 :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규모가 얼마까지 신고가 가능합니까?

답 : 1층으로서 연면적 1,000m²이하, 2층인 목조로서 연면적 1,000m²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문4 : 1.5m축대가 있고 3m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시에 건축선은 어디입니까?

답 :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입니다.

문5 : 일단의 대지내에 2개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읍니까?

답 :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대지를 말함으로 일단의 대지내에서의 건물 동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문6 : 녹지지역의 제한 사항은?

답 : 용도에 따른 제한과 건폐율 20% 용적율 60% 입니다.

문7 : 자기 대지경계내 담장을 축조코자 하는데 이웃의 진정이 있으면 쌓을 수 없는지요?

답 : 자기 대지경계내에서는 담장 축조는 가능합니다.

문8 : 도로폭 4m 미만인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한 경우 후퇴로 제외된 대지 면적은 건폐율에 적용이 되는지요?

답 :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폐율 산정시에도 포함되지 않읍니다.

문9 : 교육 지구내 높이제한을 건축법 이외에 규정한 것이 있는지요?

답 : 건축법 시행령 이외 별도로 제한 규정이 없읍니다.

-建築法施行令에 関한 事項-

문1 : 상업지역내에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합니까?

답 :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에서 12미터를 감한 높이의 1/40에0.5미터를 가산한 수평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문2 : 주택의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산정시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를 때 평균치로 하는지요?

답 :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산정은 각 부분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문3 : 8미터 이상 도로의 교차점에도 도로 모퉁이 가각정리를 하여야 합니까?

답 : 안해도 됩니다.

문4 : 준공업지역에 단독주택이 가능한지요?

답 : 시장이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를 한 구역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문5 : 6층 이하로 건축할 때 엘리베이터 시설을 안해도되는지요?

답 : 6층 이상의 바닥면적 150m²미만일 때에 안해도 됩니다.

문6 : 이웃 경계선과 1m 떨어져 창문을 설치하였는데 이웃집에서 차면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으로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 : 이웃 경계선으로 2m 이내의 건축시 창문이 설치되어 이웃 내부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도록 차면시설을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문7 : 지하층 면적이 50m²이상일 때는 옥외로 통하는 계단을 꼭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답 : 건축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하층은 바닥면적 50m²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이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문8 : 지하층 부분을 용적율 산정시 제외하는지요?

답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공포후에 시행 가능합니다.

문9 : 독서실이 특수 건축물인가요? 근린생활시설 내의 사무실을 독서실로 변경시 허가 여부?

답 : 특수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읍니다. 용도변경중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합니다.

문10 : 옥상의 물탱크실, 기계실, 계단실이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요?

답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계단실, 기계실, 물탱크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문11 : 10,000평 건축물을 건축할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몇 m 띄어야 합니까?

답 : 3m 이상 띄어야 합니다.

문12 :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데 개정되면 2,000m²이상 건축시 몇 %를 조경해야 됩니까?

답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2,000m²이상 건축시는 15%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문13 : 주거지역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옥탑이 건축면적의 1/8미만인 경우에도 일조권 규정에 저촉을 받는지요?

답 :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령 제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14 : 대수선 범위를 알려 주십시요.

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15 : 건축물을 연립으로 A.B 각 소유로 허가를 득하여 A지분이 먼저 공사를 완공하여 가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한 허가당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미달로 허가를 득했다고 가사용 승인을 할 수 없는지요?

답 : 가사용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부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적합하면 승인처리 가능합니다.

허가는 금지사항을 해제하는 행위로 이미 허가된 건축물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建築條例에 関한 事項-

문1 : 당구장이 위락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 건축법상 당구장은 위락시설이 아니나 보건사회부에서 81. 6. 2일자에 의하면 당구장을 유기장에 분류하고 있읍니다.

문2 :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일 때도 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까?

답 :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6m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문3 :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는 몇 m²까지 건축이 가능한지요?

답 :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증, 개축은 30평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읍니다.

문4 : 비상용 승강기의 1대 크기는?

답 : 승용승강기 1대의 크기와 같읍니다. (8인용)

문5 : 옥외 주차 비율은?

답 : 주차대수의 50%이상이며 아래 건폐율 이하일때는 25%입니다.

4대문내 : 40~45%

기타지역 : 50%

문6 : 주택 25평을 시공후 재무 채권 관계로 소유권을 변경코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 건축물의 시공공정이 30% 이상이 되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읍니다.

-其他規程에 関한 事項-

문1 : 2종 미관지구인데 건물 층수 제한이 있읍니까?

답 : 2종 미관지구는 3층 이상 지어야 됩니다.

문2 : 주거지역, 풍치지구내 건축 가능한 층수 및 높이는 얼마입니까?

답 : 2층 또는 8m까지 입니다.

문3 : 2종 공지지구의 용적율, 건폐율은 얼마입니까?

답 : 2종 공지지구 는 건폐율 30% 용적율 60%입니다.

문4 서울시 공동주택의 조례에 관한 규정이 조례개정으로 없어졌는데 주택 건설관계법에만 맞게 하면 되는지요?

답 : 조례개정으로 삭제 되었어도 종전 규정에 의거 행정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읍니다.

문5 : 풍치지구내 별동으로 10평 미만의 방만 증축이 가능한지요?

답 : 가능합니다.

문6 : 5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인동간의 거리는?

답 : 건물높이의 1.25배이고 경계와의 거리는 0.625배 입니다.

문7 : 대수선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미관지구의 경우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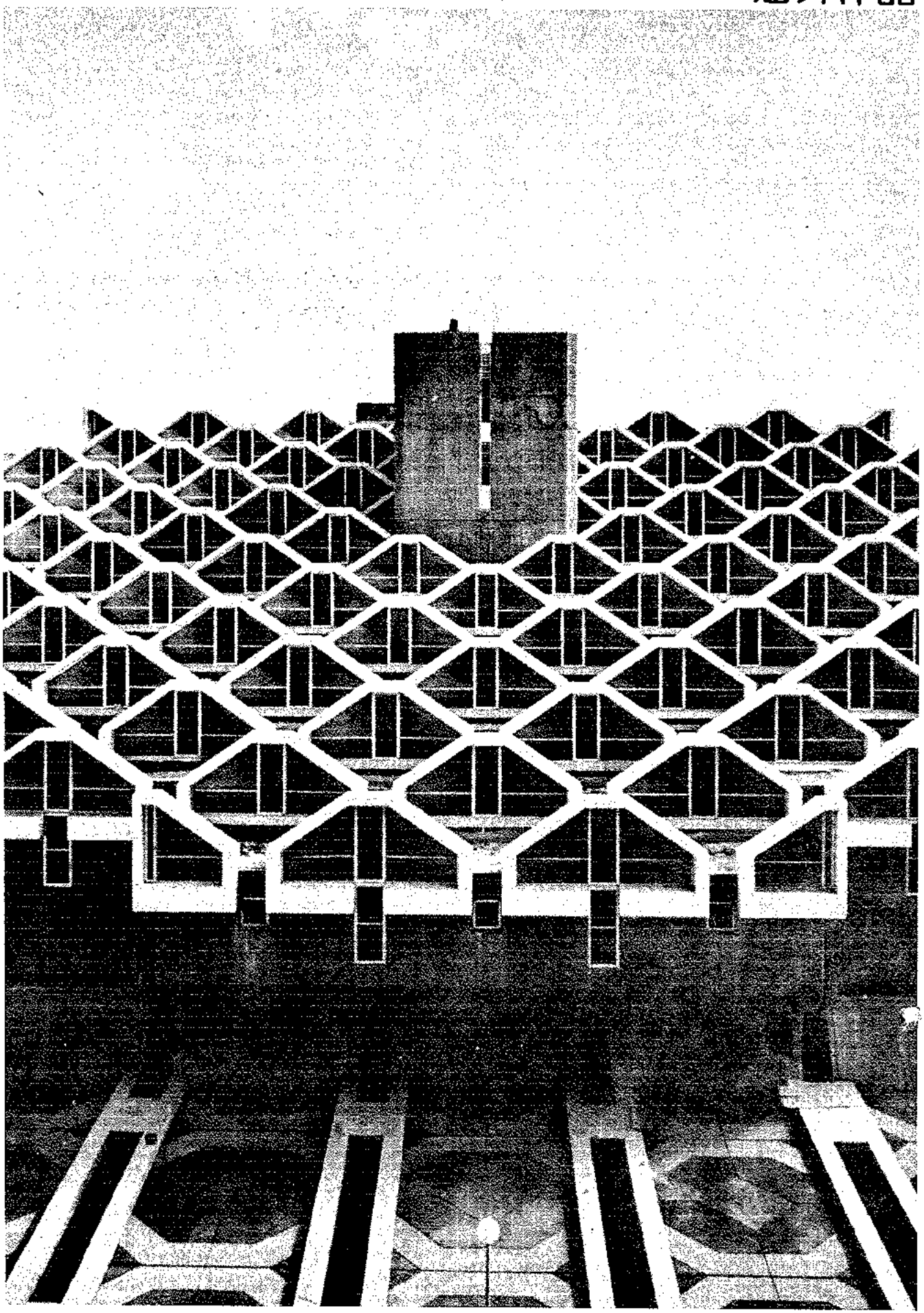
답 : 대수선 허가도 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문8 : 고도지구의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얼마입니까?

답 : 건폐율은 3/10이상, 대지면적은 600m²이상입니다.

문9 : 주거지역, 2종 미관지구내 대지 50평 주택의 2층 증축 가능여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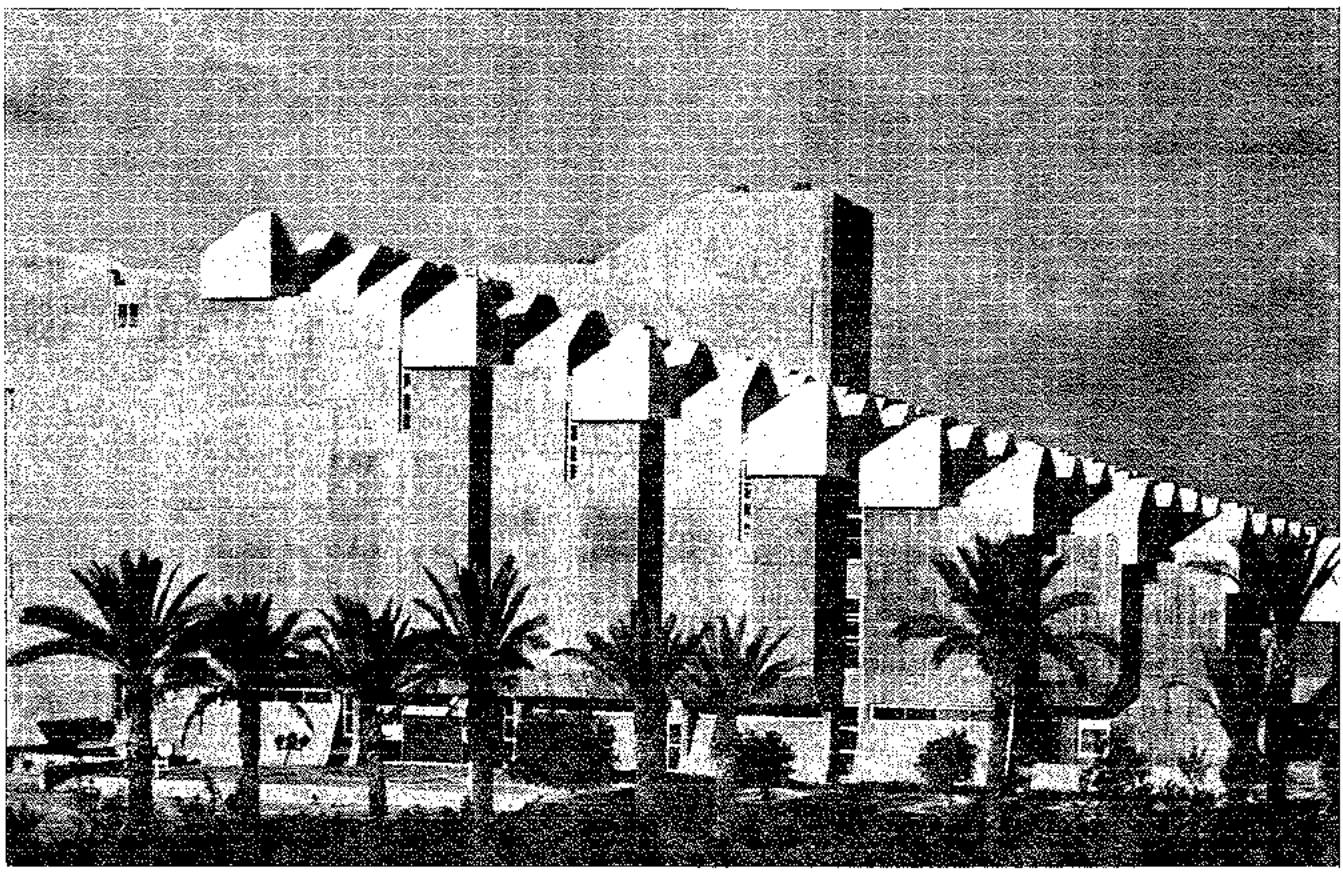
답 : 2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330m²이므로50평 대지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읍니다.



네게브大学 中央図書館 / 비어세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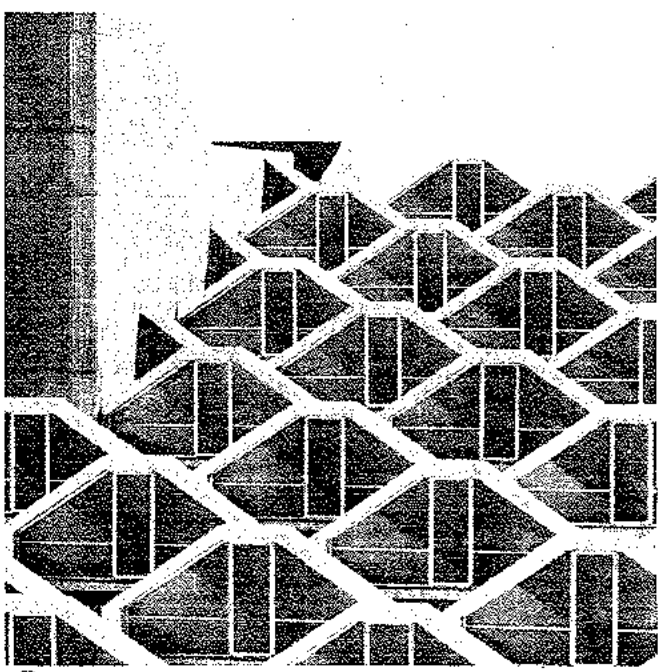
Nadler Nadler Bixon Gil-Architects Ltd.

① 북쪽전경 ⑤ 4층평면도
② 동 쪽 ⑥ 3층평면도 ⑨ 배 치 도
③ 남쪽입구 ⑦ 2층평면도 ⑩ 천정개구부
④ 북 쪽 ⑧ 1층평면도 ⑪ 열람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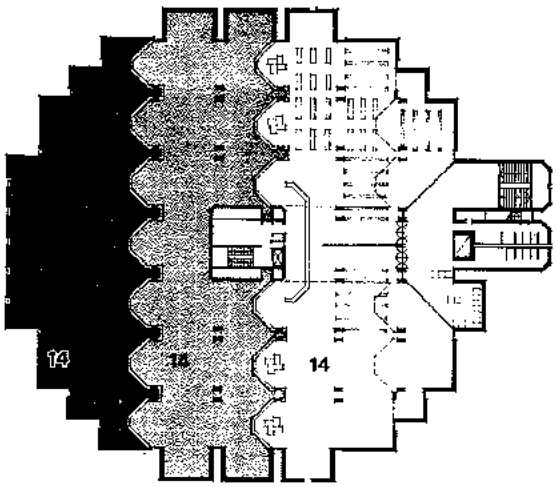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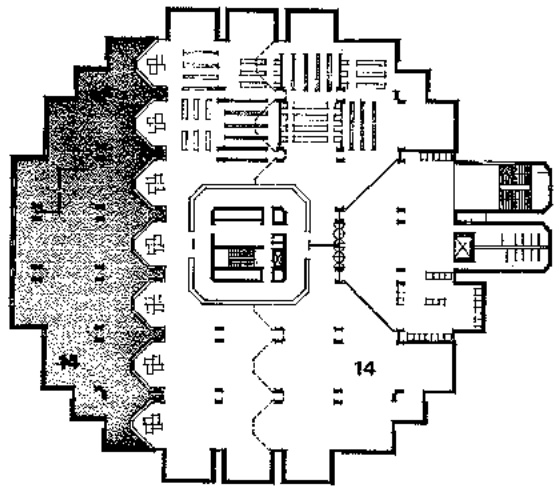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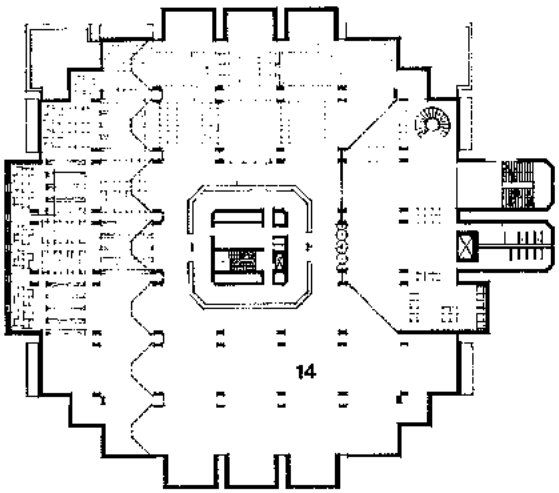
1. 중앙입구
2. 현 관
3. 위 탁 소
4. 목 록 실
5. 대 출 실
6. 목 록 실
7. 간 행 물
8. 열 람 실
9. 사 서 실
10. 부사서실
11. 하 역 실
12. 구 매 실
13. 작 업 실
14. 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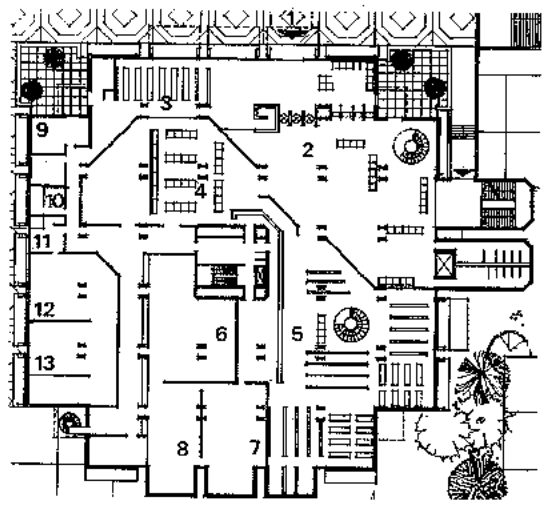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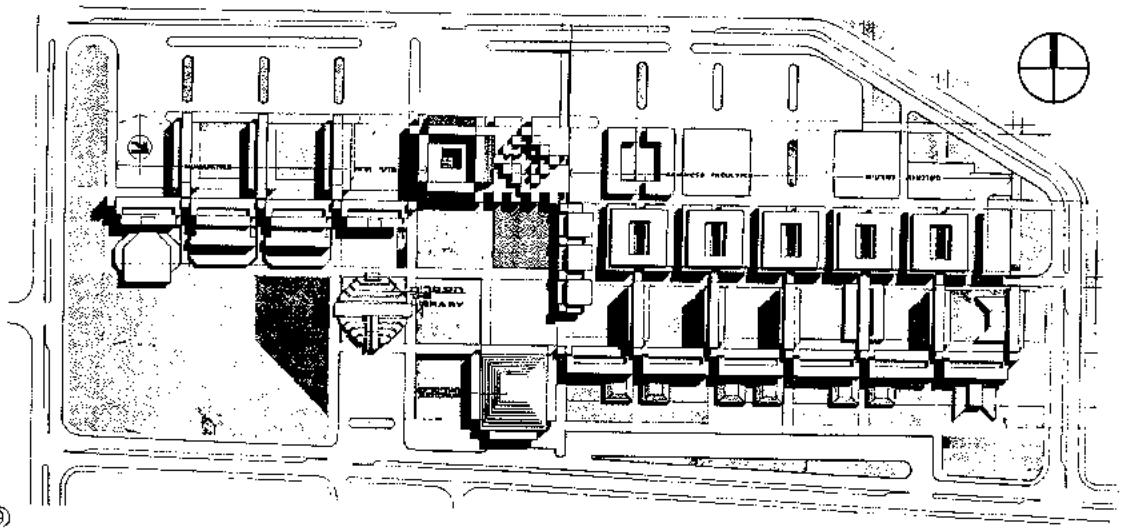
⑤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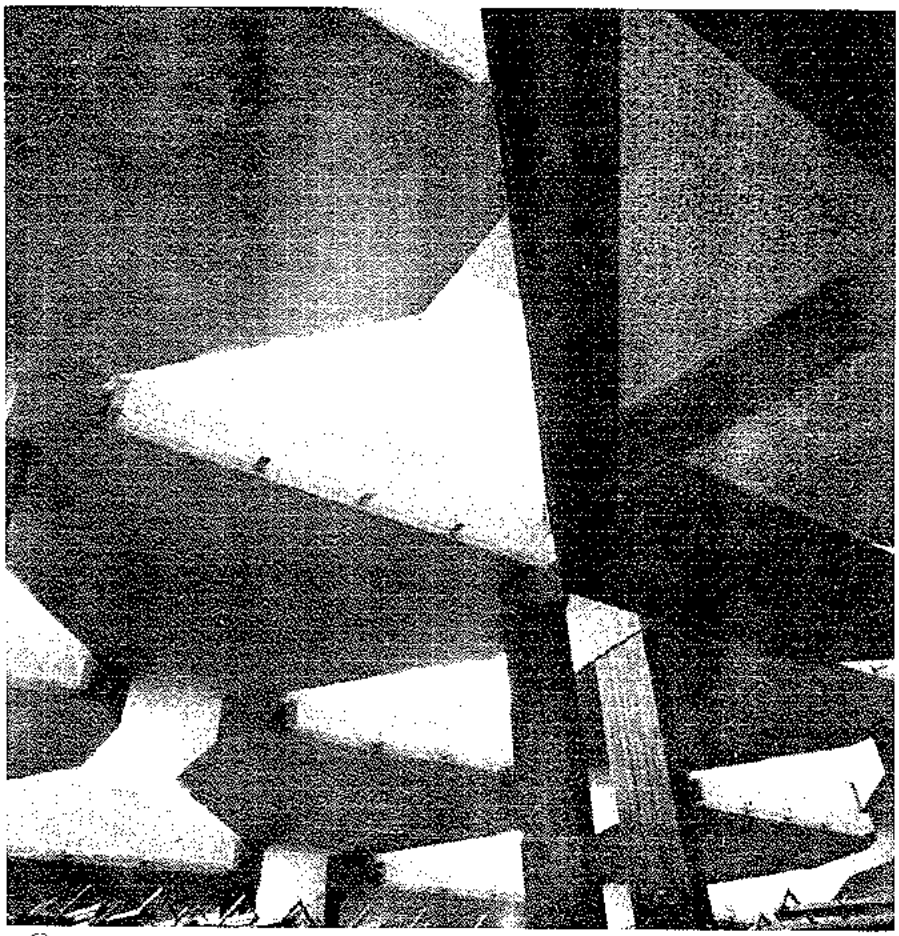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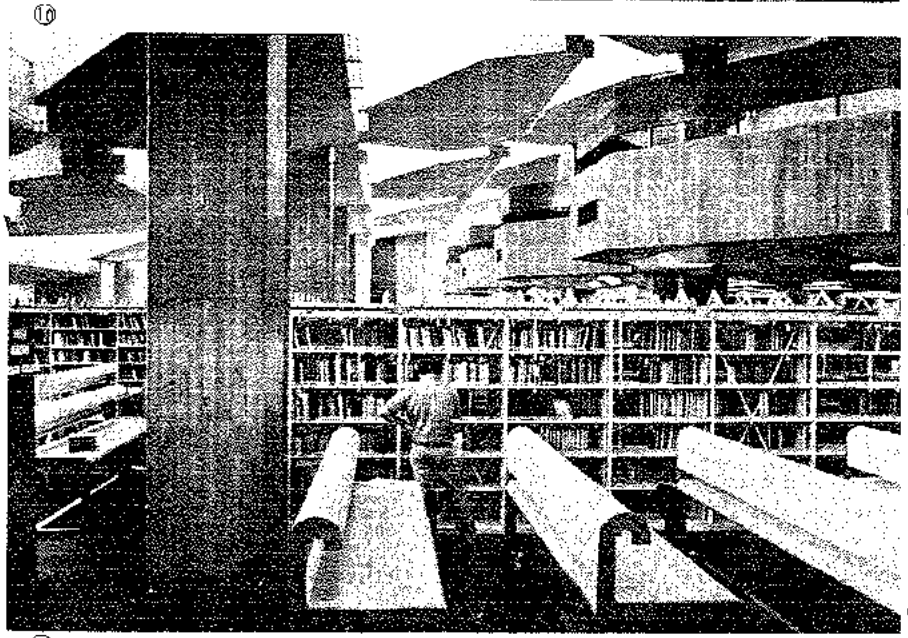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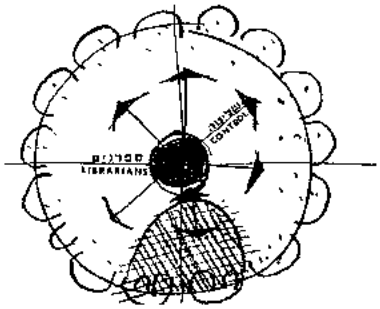
a. 도서의 취급과 본관에는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b. 자래식 도서실과 비어세바에 있는 잘못된 도서서.
c. 직사광선을 막고 북쪽으로부터 간접광선을 받는다.
d. 재래의 창문은 크고 인쪽도서실에 충분한 광선을 주지못했다.
e. 비어세바의 단면 : 북쪽으로부터의 빛이 방을 구석구석까지 밝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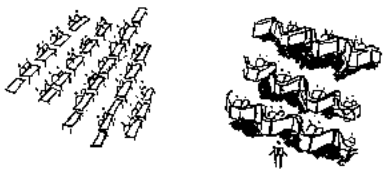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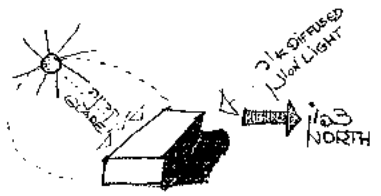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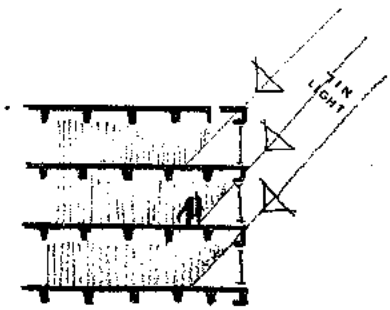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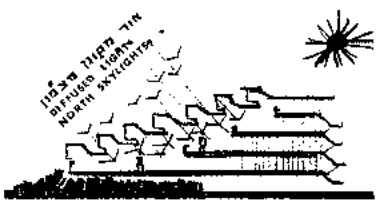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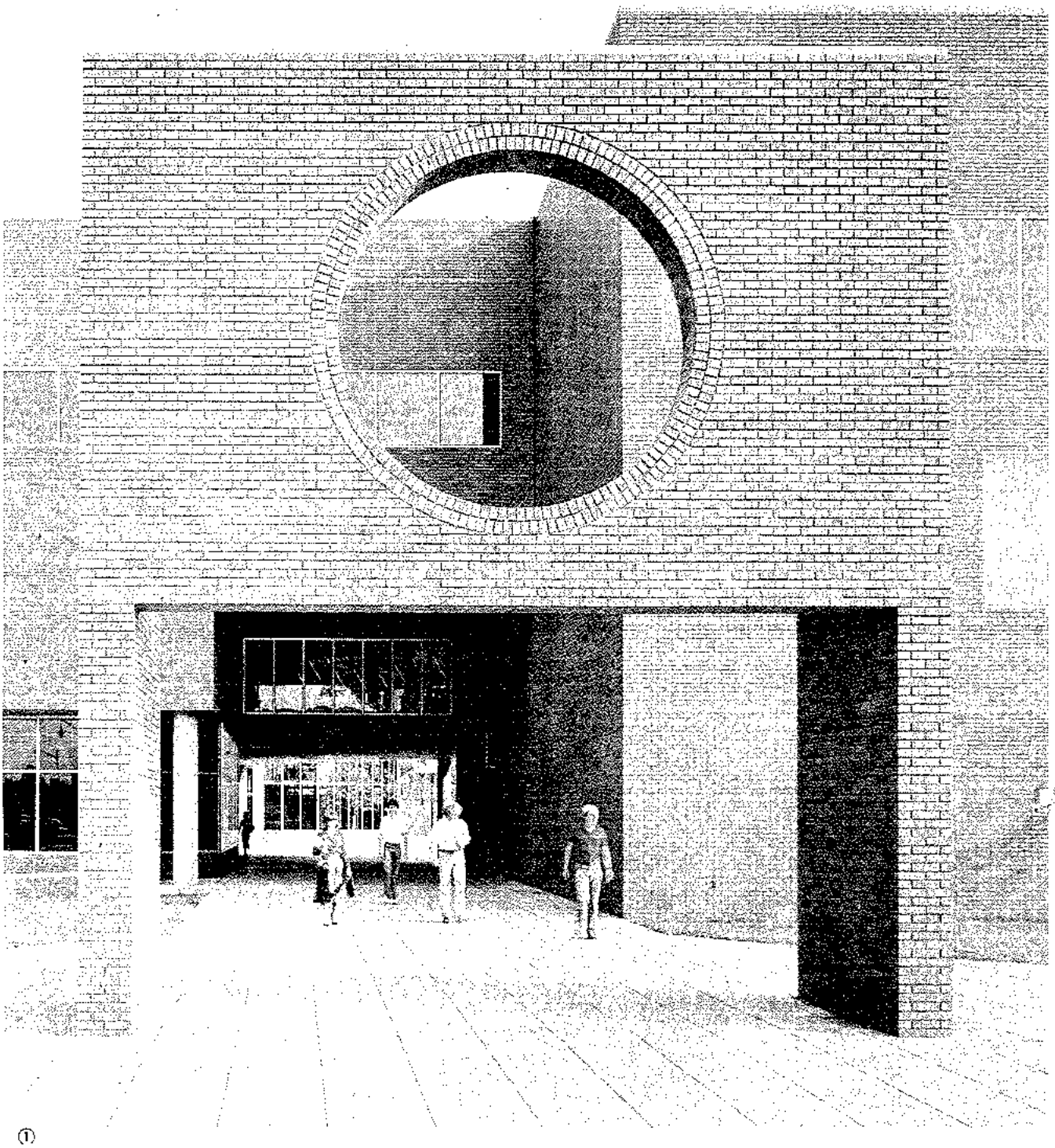
ⓒ



ⓓ

미시간大学 대학센터/미시간주 훌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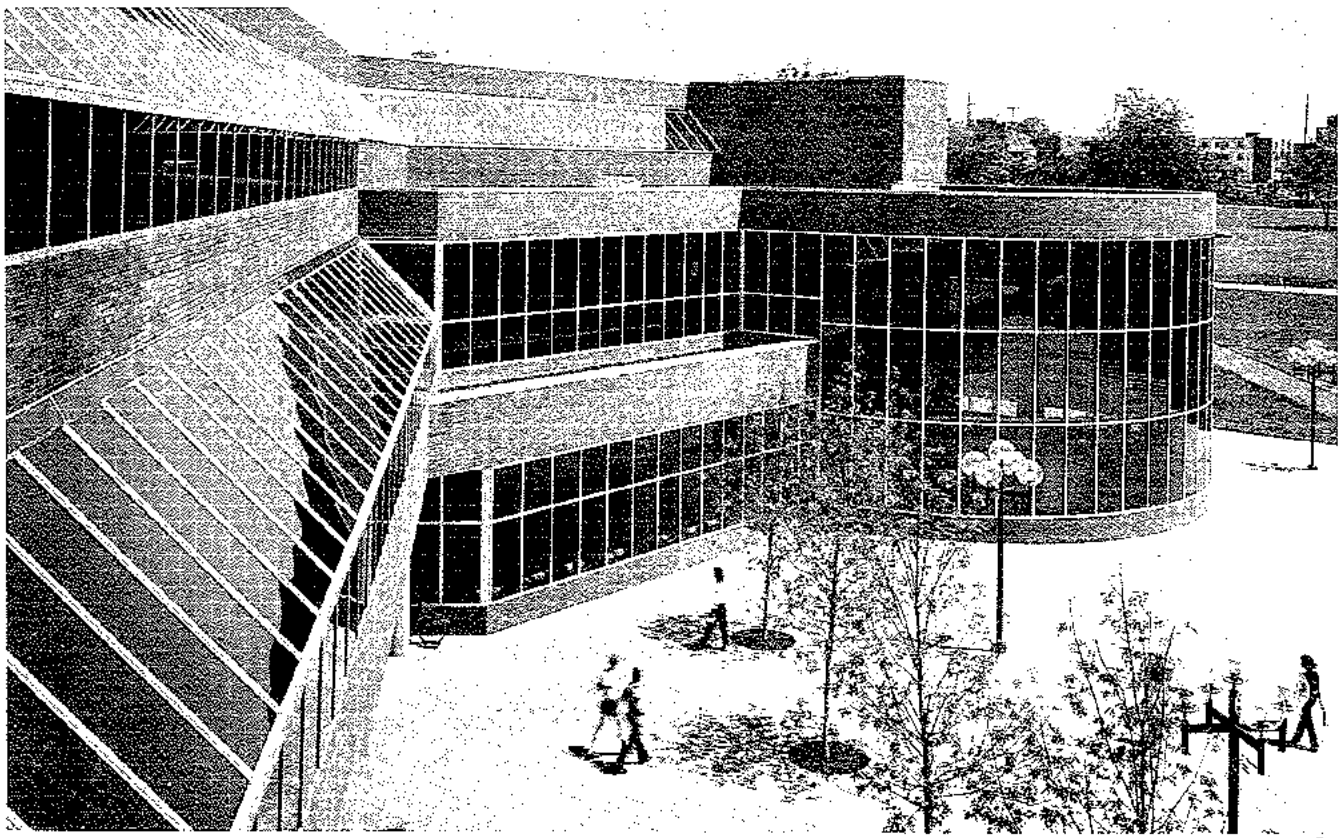
Ulrich Franzen and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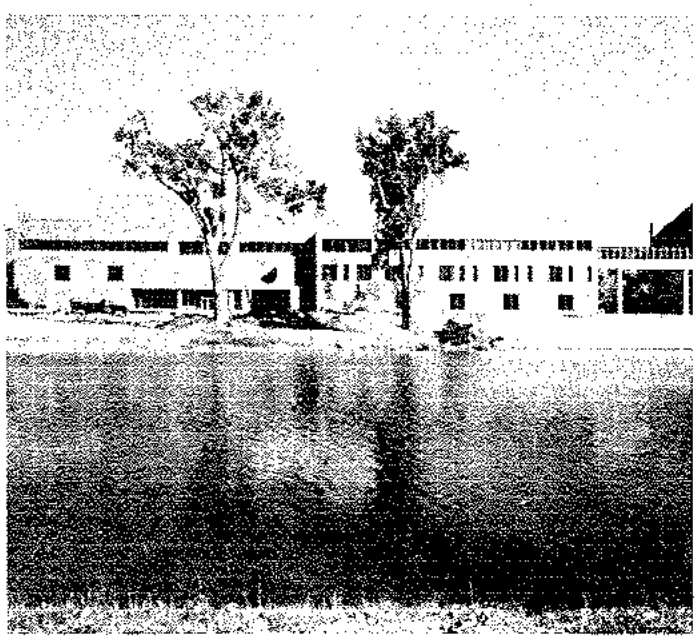
①

① 북쪽출입문
② 서쪽 모양
③ 강건너에서 본 북쪽
④ 3층평면도
⑤ 2층평면도
⑥ 1층평면도
⑦ 3층홀에서 본 1층홀
⑧ 다리
⑨ 투시도
⑩ 1층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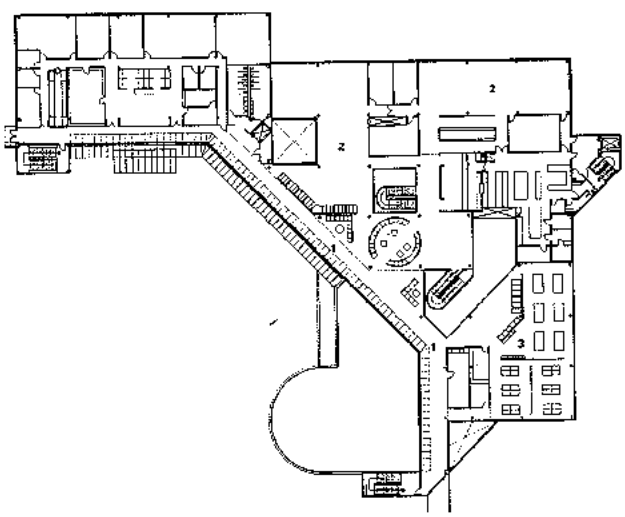
1. 학습라운지
2. 활동라운지
3. 식 당
4. 매 점
5. 수 영 장
6. 회 의 실
7. 극 장
8. 현 관
9. 휴 게 실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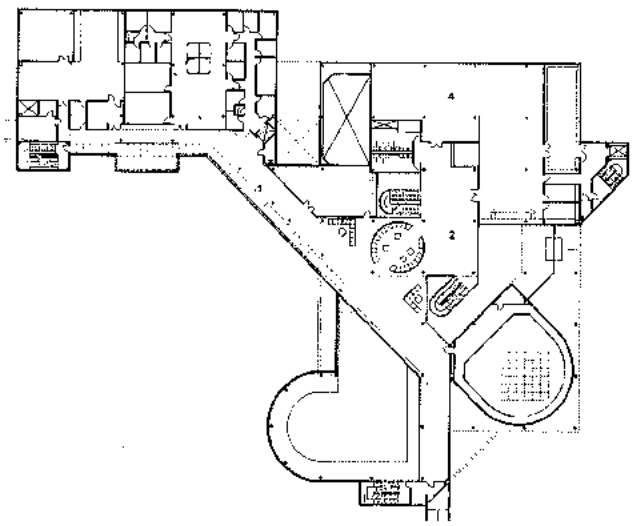
미시간대학의 대학센터는 캠퍼스 여가선용생활의 중심이다. 회의실을 비롯한 극장, 풀장등 管理部門이 1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2층과 3층에는 라운지, 食堂, 매점, 카운세링室, 工芸品가게, 게임실, 샤워실, 기계설비실(地下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의 형태상 특징은 복합형태이며 그 형태가운데 集合室이 둘러져 있고 內部動線의 系路가 독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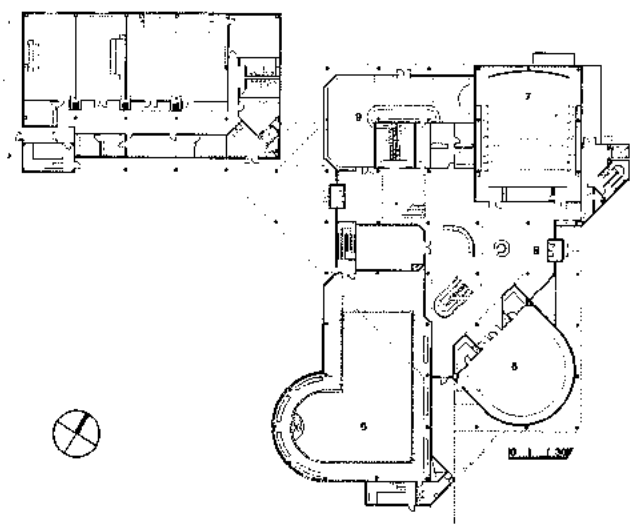
이 形態의 윤곽은 강변쪽을 向해 차양으로 되어 入口둘레를 맴돌며 L字形으로 구부러져 창밖의 集合室을 둘러싸고 네방면으로 두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外部벽은 콘크리트, 브릭온기와 타일 또는 단열, 열반사유리로 되어있으며 內部 천정은 콘크리트, 스라브일부는 내려뜨린 천정이며 택스류는 모두 밖으로 나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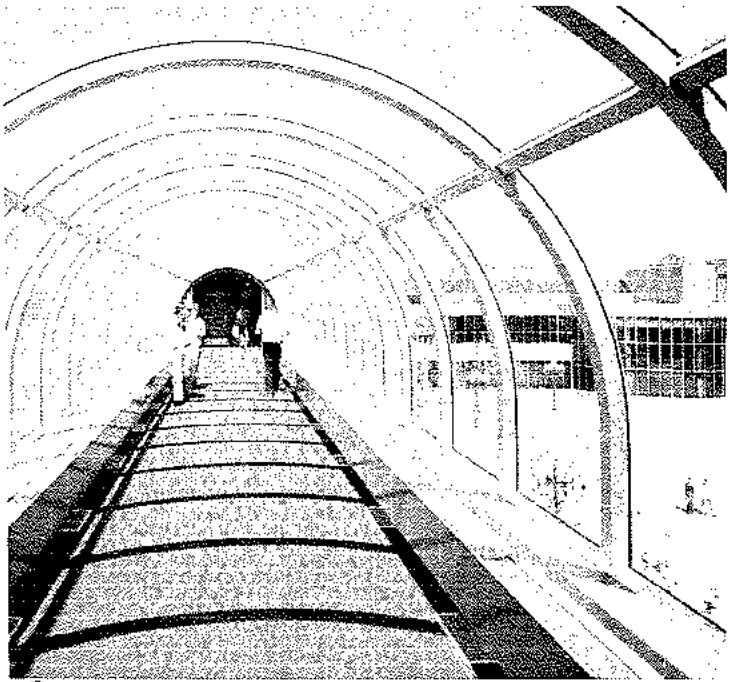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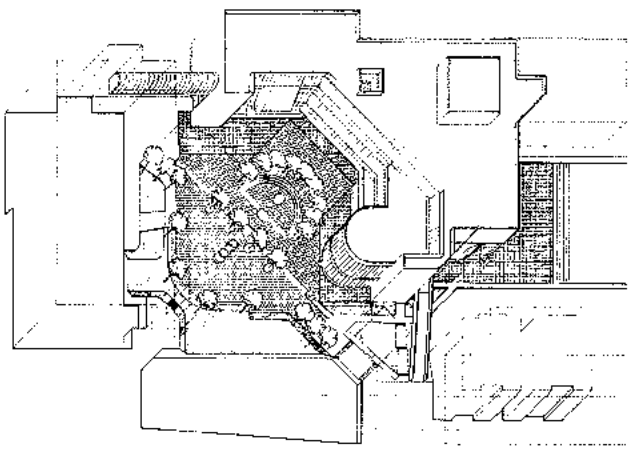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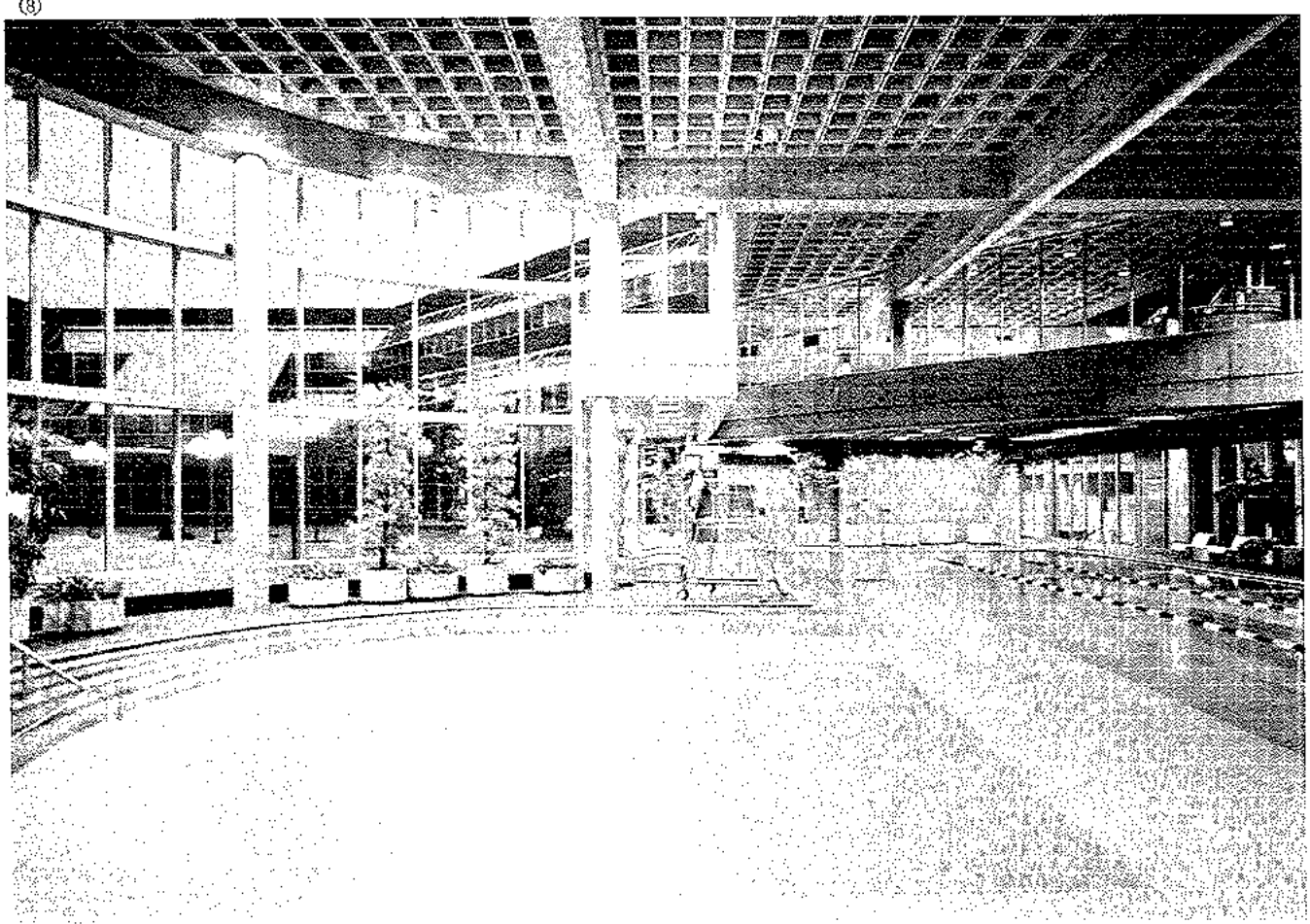


⑧



⑨

⑨



⑩

전국건축허가통계

용도별건축허가 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용도별 \ 월별		8월 '80	8월 '81	8월 대비%	1~8월 '80	1~8월 '81	1~8월 대비%
주거용	동수	5,912	4,806	81.3	59,343	36,712	61.9
	연면적	1,158,978	900,208	77.7	10,876,095	7,073,182	65.0
상업용	동수	1,395	1,136	81.4	11,748	10,153	86.4
	연면적	454,058	385,414	84.9	4,092,354	3,450,977	84.3
공업용	동수	225	235	104.4	1,657	1,657	100.0
	연면적	196,666	208,056	105.8	1,444,294	1,627,715	112.7
문교사회용	동수	226	100	79.6	1,546	1,511	97.7
	연면적	167,396	135,555	81.0	1,273,654	1,102,209	86.5
기타	동수	418	335	80.1	3,239	2,641	81.5
	연면적	89,778	70,578	78.6	8,821,178	671,072	81.7
계	동수	8,176	6,692	81.8	77,533	52,674	67.9
	연면적	2,066,876	1,699,811	82.2	18,507,575	13,925,075	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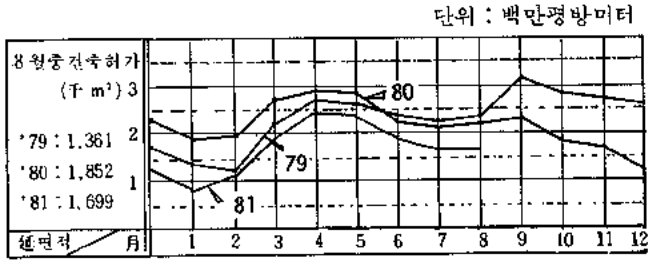
월별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월별	'80 동수	'80 연면적	'81 동수	'81 연면적	전년대비 %
1	5,998	1,846,698	2,364	843,447	45.7
2	6,344	1,851,785	3,536	1,040,968	56.2
3	13,530	2,883,090	8,123	1,931,949	67.0
4	144,129	2,906,362	9,875	2,481,179	85.4
5	11,595	2,803,050	8,401	2,370,273	84.6
6	9,330	2,094,130	7,866	1,923,246	91.8
7	8,431	2,055,584	5,817	1,634,202	79.5
8	8,176	2,066,876	6,692	1,699,811	82.2
계	77,533	18,507,575	52,674	13,925,075	75.2

건축허가전년대비도표

단위 : 백만평방미터



시도별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시도별 \ 월별		8월 '80	8월 '81	8월 대비%	1~8월 '80	1~8월 '81	1~8월 대비%
서울	동수	1,140	1,121	98.3	12,123	8,570	70.7
	연면적	454,867	474,239	104.3	4,433,322	3,764,184	84.9
부산	동수	625	404	64.6	6,512	3,260	50.1
	연면적	152,851	141,788	92.8	1,818,594	1,146,490	63.0
대구	동수	—	284	—	—	573	—
	연면적	—	66,977	—	—	138,569	—
인천	동수	—	206	—	—	451	—
	연면적	—	69,741	—	—	144,900	—
경기	동수	1,862	1,067	57.3	15,233	8,452	55.5
	연면적	540,653	266,188	49.2	3,720,211	2,299,832	61.8
강원	동수	301	342	113.6	2,861	2,895	101.2
	연면적	73,711	72,357	98.2	738,566	720,478	97.6
충북	동수	393	420	106.9	3,372	3,059	90.7
	연면적	67,467	56,382	83.6	519,621	465,846	89.7
충남	동수	677	648	95.7	7,344	4,908	66.8
	연면적	114,446	91,189	79.7	1,279,621	952,958	74.5
전북	동수	360	462	128.3	5,083	2,819	55.5
	연면적	72,026	88,145	122.4	933,002	452,034	48.5
전남	동수	792	461	58.2	6,452	4,853	75.2
	연면적	143,270	94,863	66.2	990,665	805,576	80.6
경북	동수	1,024	429	41.9	9,872	6,141	62.2
	연면적	258,895	87,452	33.8	2,866,358	1,456,647	63.7
경남	동수	742	701	94.5	6,733	5,238	77.8
	연면적	159,112	164,653	103.5	1,510,547	1,296,162	85.8
제주	동수	260	147	56.5	1,945	1,405	72.1
	연면적	29,578	25,837	87.4	267,868	280,599	104.8
계	동수	8,176	6,692	81.8	77,538	52,674	67.9
	연면적	2,066,876	1,699,811	82.2	18,507,575	13,925,075	75.2

구조별건축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 평방미터

구조별 \ 월별		8월 '80	8월 '81	8월 대비%	1~8월 '80	1~8월 '81	1~8월 대비%
철근철골조	동수	1,719	1,432	83.3	16,182	12,659	76.2
	연면적	1,237,461	1,053,178	85.1	10,810,084	9,237,842	85.5
조적조	동수	6,076	5,019	82.6	58,560	37,868	64.7
	연면적	788,328	619,468	78.6	7,412,637	4,481,604	60.5
목조	동수	194	109	56.2	1,596	1,275	79.9
	연면적	12,180	8,005	65.7	111,695	88,769	79.5
기타	동수	187	132	70.6	1,195	872	73.0
	연면적	28,907	19,160	66.3	173,159	116,860	67.5
계	동수	8,176	6,692	81.3	77,533	52,674	67.9
	연면적	2,066,876	1,699,811	82.2	18,507,575	13,925,075	75.2

청탁풍조 배격하여 정의사회 앞당기자

/ 資料 /

다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 9월19일에 개정공포된 도시재개발법시행령과 25일에 공포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된 부분을 각각 옮긴것이다. / 편집자 /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

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를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로 하고, "당해시의"를 "당해시 또는 군의"로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규모 및 건축물의 노후불량의 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2. 토지의 형상이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의 토지
3. 건축구조상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4.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건축물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경미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부장관의 결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의 군소한 위치변경 및 구역안의 세부도로의 변경
2. 건축시설의 규모의 변경이 없는 위치 또는 형태의 변경
3.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의 각 20분의 1미만의 변경
4. 용도의 변경 다만, 주된 용도(당해 건축시설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그 면적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② 법 제5조제5항단서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계획을 입안한 시장 또는 군수가 건설부장관에의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건축물 층수의 변경이 없는 높이의 변경으로 한다.

제6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높이·배열 및 주된용도

제7조 제1항 본문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재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결정권한.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재개발사업계획중 공원(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에 관한 결정권한.

제20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각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2.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 또는 법 제23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제2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합의 합병·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제47조 제1항중 "대출이자에 의한다"를 "대출이자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都市再開発法施行令中改正令 主要骨子

가. 再開発区域의 指定要件중 建築造地로서의 効果을 다할 수 없는 정도의 過小地土등의 基準과 老朽·不良建築物등의 基準을 정하였음. (令 第3條의 2)

나. 再開発事業計劃의 変更事項중 中央都市計劃委員会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建設部長官이 決定할 수 있는 軽微한 事項과 당해 再開発事業計劃을 立案한 市長 또는 郡守가 建設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決定되는 変更事項을 정하였음. (令 第5條)

다. 再開発事業의 원활하고 신속한 施行을 위하여 市長·郡守가 立案하는 再開発事業計劃에 대한 建設部長官의 決定権限을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였음. (令 第7條第1項第3號)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시설
2. 문화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통신시설
5. 자동차접사시설
6. 유수지시설

제3조 제1항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을 마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전거전용도로

제3조 제1항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자연공원

제3조 제3항중 "화물자동차정류장"을 "도매시장과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5조 제1항제3호중 "퇴적"을 "적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다)의 도시계획구역
2. 제1호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구역과 관계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계획구역.

②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성격
2. 도시지표
3. 인구계획
4. 토지이용계획
5. 교통계획
6. 공공시설계획
7. 산업개발계획
8. 생활환경계획
9. 공원녹지계획
10. 사회개발계획
11. 재정계획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도시기본계획에는 개괄적인 기본구상도(축척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제4호를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 단위도시계획시설 구역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구역의 변경(공원 및 녹지를 제외한다)과 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사업계획구역 면적의 25분의 1 미만인 사업계획구역의 변경(변경면적이 3만3천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3. 이미 결정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계획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및 시설내용의 결정 및 변경.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와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관하여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도면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고시할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때에는 지적도록써 당해 신청도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등) ① 법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광장·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한한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정류장중 시내버스 자동차용 정류장을 제외한다)·철도·고속철도·항만·공항·운동장·유원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에 한한다)·하수도(종말처리장에 한한다)·공동구·유통업무설비 및 문화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2.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의 규모는 도로 및 광장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접
정하는 규모로 하고, 기타의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이 규모에 관계없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 폭 12미터 이상
2. 광장(교통광장에 한한다) : 폭 12미터 이상 도로와 연결되는 광장

③ 집행계획은 매년 1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계획의 수립시점을 기준으로하여 당해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이 4년이후에 착수될 것으로 예정되는 경우와 사업시행기간이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단위로 이를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계획이 국가계획 또는 도계획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⑤ 건설부장관·시장 또는 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기간
4. 사업시행계획 도서

제10조의 3 (집행계획의 공고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계획의 공고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의 2 각호의 1에 규정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매시장(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3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운동장(정구장 및 수영장에 한한다) 및 지하도로
5.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도시계획시설

제2장에 제14조의 2 및 제1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등)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는 도시계획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공청회는 시장 또는 군수나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⑥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

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⑦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 6 항의 공람기일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또는 법 제1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진술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요지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의 의견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 (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 법 제16조의 2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이란 경우"라 함은 제 7 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제 3 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 2 내지 제19조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 법 제20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및 산업발전상황등을 고려하여 5 년이상20 년 이내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 3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 법 제20조의 2 제 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시가화조정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지정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19조의 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허가대상행위) ① 법 제20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축사·퇴비사·잠실·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관리용 건축물(기존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양어장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 2제 4 항제 1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평방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평방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2. 부락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행위.
   가.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나. 새마을회관의 설치
   다. 기존정미소(개인소유를 포함한다)의 증축
   라. 정자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마.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바.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3.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가. 토지수용법 제 3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다. 보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읍·면·동사무소의 설치
   라.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공중변소 및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농업협동조합·축산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아. 교정시설의 설치
   자.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4. 광공업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중소기업 진흥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과 부대시설의 설치
   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5. 기존 건축물의 동일 용도 및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6.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부력·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7.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신축이 허용되는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행위,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행위(오염물질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에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와공장 또는 주택 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서 용도변경 행위
8.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20조의 2 제 4 항제 2 호에서"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위

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나.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 농림·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 을 위한 경우

라. 시가화조성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경우

2.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다만, 분할의 경우에 허가받아야 할 면적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9조의 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2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주변토지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기준으로서는 제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죽목의 재식과 조림을 위한 죽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1.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2. 건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3.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중 농업 또는 어업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의 내용이 시가화조정 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의 6 (허가신청서등) ①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법 제2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위허가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행위의 종류 및 내용

4. 행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제19조의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의 허가신청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9조의 7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0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이미 준공된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로서 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내용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완료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의 분할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 규모와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신청서에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신청서"로 하고 동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주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제2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재원조서

3. 공사설계도서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제26조 제1항중 "그 신청서를"을 "제2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재원조서

3. 개략설계도서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 2 (서류의 공람등) ①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신청의 요지

2. 공람의 일시 및 장소

② 법 제25조의 2제1항의 공고는 공보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8조의 2 제 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 3항중 "도시계획시설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동조 제 5항중 "관계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 제 1호중 "부산시"을 "직할시"로 한다.

제61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당해시의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시의 부시장이 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의 규모) 법 제86조제 1항에 의하여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일단의 공업용지지조성 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에 공할 토지의 면적 규모가 5만평방미터 이하인 사업
2.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에 공할 토지의 면적 규모가 15만평방미터 이하인 사업

〔별표 5〕중 "인천시" 및 "대구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都市計劃法施行令 改正理由

都市計劃法의 改正(1981. 3. 31法律 第3,410號)에 따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하고, 現行規定의 施行上의 未備点을 補完·整備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都市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할 都市計劃区域의 범위와 都市基本計劃에서 정하여야 할 事項을 정함. (令 第7條第1項 내지 第3項)

나. 市長·郡守가 建設部長官에게 都市計劃 地籍告示를 신청함에 있어 告示할 地籍의 境界가 行政区域의 境界와 일치되는 때에는 地籍図로써 申請図面에 갈음하도록 함. (令 第9條第1項)

다. 每年 年次別 執行計劃을 수립하여야 할 都市計劃의 범위와 樹立方法 및 節次를 정함. (令 第10條의 2 第1項 내지 第5項)

라. 都市基本計劃의 수립에 있어 住民 및 관계專門家들이 意見을 発表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公聽会에 대한 事項을 정함(令 第14條第1項 내지 第8項)

마. 市街化調整区域에서의 市街化 留保期間은 당해 都市計劃区域안의 人口·土地·産業発展狀況등을 고려하여 5年이상 20年이내의 범위에서 決定하도록 함. (令 第19條의 2)

바. 市街化調整区域안에서 施行可能한 都市計劃事業의 內容, 許可対象行為의 種類 및 基準을 정함(令 第19條의 3 내지

사. 換地에 관하여 土地区劃整理事業法을 準用할 수 있는 一団의 住宅地 造成事業 또는 一団의 工業用地 造成事業의 規模를 정함. (令 第67條)

⊙대통령령제10, 480호 (1981. 10. 8 공포)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적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지하층의 설치) ①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20만이상의 시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에는 이들 지상층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진애 및 오물처리장·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층의 평균 바닥면적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그 대지안에 법·이 영 또는 조례에 규정된 건폐율에 의한 공지외에 따로 지하층을 구축할 수 있는 여유공지(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8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하층중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전용되는 부분과창고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300평방미터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 (도로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① 법 제2조 제1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간·연장·폭 및 위치와 폐지 또는 변경 전후의 도로의 상태.
2. 당해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

제145조 제3항중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다음에 "(단독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제146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관계자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선구 및 어구의 점포

제155조의 3을 삭제한다.

제15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여하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8조의 제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정하고 10분의 4 (주거 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8조의 3을 삭제한다.

제15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대지면 적은당해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적용하는 기준면적에 그 대지안의 단독주택의 동수를 곱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168조의 2 제2항의 표중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란의 다음에 "공동주택"란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미터)

구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까지의 정북방향수평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직방향수평거리 직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공동주택	—	3.0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2.0 이상)	2.0이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1.5이상)

제16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5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당해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 2천평방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4.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② 제1항의 경우에 조경을 하는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옥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하는 지붕 외 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상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 이를산입한다.

제17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은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3층 이하이고, 지하층이 없는 것으로서 전기·가스 및 수도의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3. 법·이 영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것. 다만, 시장경역안에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3·법 제30조·법 제39조 또는 법 제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내력을 갖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 인접대지(건축하는 당해대지를 포함한다)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손괴방지를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로서

제180조제3항중 "10년간에 한하여"다음에 "(제2호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동항 제2호중 "및 공해방지시설"을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로 한다.

[별표2]중 ⑦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관람집회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 및 집회장을 제외한다)

[별표6]중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 및 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것 및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를 제외한다)

[별표10]의 표중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품명
(1)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	1. 포트랜드시멘트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4. 나왕베니어코어합판 5. 수도용아연도강관 6. 인입용비닐절연전선 7. 옥내용소형스위치류 8. 콘센트 및 플러그

	8. 도아크래우지 10. 도아록 11. 수도꼭지 12. 배관용벨브 13. 복층유리 14. 성 첩

〔부 표〕의 ④근린생활시설의 1. 중 "동일건축물인" 다음에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동일 건축물로 본다. 이하같다)"를 삽입하고, 7. 중"200평방 미터 미만인것"을 "200평방미터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하며, 동표의 ⑬판매시설의 3. 중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 에 게기하는 용도중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고,"를 "제4항제1호의 용도와 동항 제2호·제3호 또는 제9호의 용도중 1이상의 용도가 복합되어"로 하고, 동표의 ⑭위락시설의 5. 중 "유기장(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유기장업에 의한 유기장·기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동표의 ⑲본문 중 "소방법"다음에 "가스사업법·석유사업법·"을 삽입하고,동표의 ⑳해운시설 6. 중 "해운시설"을 "해운시설 : 항만법 제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主要骨子

가. 建築物의 容積率의 算定에 있어서 地下層部分의 面積을 제외하도록 하였음. (第3条第1項第4号但書)

나. 人口 20万이상의 市 또는 建設部長官이 指定· 公告하는 行政区域안에서 地上層의 延面積이 200平方미터이상인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原則的으로 延面積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面積의 地下層을 設置하도록 하였음.(第113条第1項本文)

다. 6層이상인 建築物에는 乘用昇降機를 義務的으로 設置하도록 하였으나, 6層建物의 경우에 한하여 各層의 居室의 用途로 사용되는 바닥面積 300平方미터마다 1個이상의 直通階

다. 6層이상인 建築物에는 乘用昇降機를 義務的으로 設置하도록 하였으나,

다. 6層이상인 建築物에는 乘用昇降機를 義務的으로 設置하도록 하였으나, 6層建物의 경우에 한하여 各層의 居室의 用途로 사용되는 바닥面積 300平方미터마다 1個 所 이상의 直通階段이 설치된 경우에는 昇降機의 設置義要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음. (第129条但書) 務

라. 都市計劃施設予定地안에서 許可할 수 있는 假設建築物의 범위를 緩和하였음. (第174条第1項)

마. 工業標準施設予定地안에서 国工業規格表示品의 使用義務 対象인 建築材料의 品目에 6個品目을 追加하였음. (別表 10)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国

⊙대통령령제1 ,481호 (1981. 10. 8 공포)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학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가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 이라 한다)을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가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설정일자와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정화구역의 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 를

제3조의2 (정화관리의 구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복 된 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1. 상·하급 학교간의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하급학교. 다만, 학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에는 그 상급학교

2. 같은 급의 학교간에 정화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 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③ 학교간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정화구역 안에서 법 제6조제13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부교육감이 없는 교육위원회는 학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소속직원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해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하

⑤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 및 기타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⑦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당해 시·군·구의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 정화위원회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정한다. 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정화의 요청) 교육구청장 또는 교육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에 한한다)·군수·구청장에게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등교중지)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된 전염병환자. 다만, 제3종 전염병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 学校保健法施行令中改正令 主要骨子

가. 改正要旨

(1) 学校環境衛生浄化区域을 設定할 때에는 絶対浄化区域(学校出入門으로부터 50미터까지의 地域)과 相対浄化区域(学校境界線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地域으로 区分하여 設定하도록 함. (令 第3条)

(2) 学校環境衛生浄化義務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教育監 所屬下에 学校環境衛生浄化委員会를 두도록 함. (令 第4条의 2)

(3) 傳染病患者 및 傳染性이 강한 疾患에 感染된 者에 대하여는 学校의 長이 登校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令 第13条)

(4) 学校環境衛生浄化区域 設定権을 教育委員会로부터 教育区廳長 또는 市·郡 教育長에게 委任함. (令 第14条第1項)

会員動静

입경 □釜山支部 : △김택진 / 김택진건축설계원 / 단독75 / △이건영, 배종원 / 건양 설계사무소 / 합동68 / △이상철, 구준건 / 성도건축설계사무소 / 남구 남천동 8 ~ 8 /

□京畿支部 : △김영복/동구현대건축 / 합동79 / △유재현 /(주)삼우건축 / 합동79 / △한부성 /보림종합건축 / 합동25 / △홍재혁/화성종합건축 / 단종24 / △박태신 / 명성 건축설계 / 단독90

□慶北支部 : △김준필 / 청우 건축설계사무소 / 동구신암동249~6 / 단독15 / △전성필, 최병민/경산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5 /△김봉수 / 선산건축설계사무소 / 구미 시원평동374~13/ 단독 5 / △엄주남 / 국일건축연구소 / 단독 6 /△손재수 권영구 / 경주제일건축사무소/합동 1 / △조성현, 이영희 / 동아건축연구소 / 합동 2 / △도정기, 송재성, 김영철 / 김천건축설계사무소/합동 3 / △권순호, 송질환 / 화신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4 / △김옥배/현대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1 /△조문환 / 합동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2 /△정구윤 / 합동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3 / △백운학 / 동양건축설계사무소 / 단독 4 / △이신환/중앙설계사무소 / 종합 1/ △김태웅 / 홍한건축설계감리공단 / 종합 2 /△양임수 / 세진건축감리공단 / 종합 3 /△김영길, 조문환, 조극환 / 포항종합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6 / △최종배/최준한 / 포항세진건축설계사무소/합동 7 / △이명환, 신명수 / 연합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8 /△현석홍, 김용관 / 한양건축설계사무소 / 합동 9 / △조정상, 김인곤/(주)스매크건축 / 합동10 / △양병모, 김준식 / 동서건축연구소 / 합동11/△이상만, 임병욱 / 건축사구미합동사무소 / 합동12 / △김성종, 이우상/ 합동건축설계사무소 / 합동13 / △김 용성, 권영근 / 내외영풍건축설계사무소 / 합동14 / △장상현, 이백종 / 영림건축합동설계사무소/합동15 / △박재광 / 동신 건축연구소 / 단독 7 / △권혁태 / 한일건축설계 사무소 / 단독 8 / △김봉일 / 대흥건축 설계사무소 / 단독 9 / △정원성/부림건축설계사무소/단독10/안호일 / 협동건축연구소 / 단독11// △장학학선 / 대진건축설계사무소/단독12 / △최병창 / 신도건축설계사무소/단독13 / △전한권 / (주)스매크/신고 3 / △김영태 / 태창건축설계사무소 / 단독14 / △서상문/구정건축설계사무소 / 단독15 / △김두하/신진건축설계사무소 / 단독16 /

전입 □서울支部 : △안일남/석림합동건축연구소 / 종로구 윤니동 98 - 5 / 면허1876/합동293

□京畿支部 : △오재영 /(주)삼우건축설계 / 남양주군 구리읍 교문리200~ 2 / 면허668 / 합동79/△강용원 / 삼호종합건축연구소/의정부시의정부 4 동223~54 / 면허415/단독21 / △김영길 / 동구현대건축/남양주군구리읍수택리449~ 2 / 면허 2 - 954 / 합동80

성금 □慶北支部 : 대구 건축사 회원 일동은 수재의 연금 70만원을 대구 적할시장에게 전달했다. / 9.26일 /

결혼 "축하합니다"□서울支部 : 이백길회원 4 남 9 월26일/ △장기인회원 4 남 9 월29일 /

주연 "오래사세요"□서울支部 : 한광수회원 9 . 10 / △유순규회원 9 . 10 /

□忠南支部 : △안중삼회원 부친 9 . 14 /

별세 "삼가명복을 빕니다"□서울支部 : 신덕항회원부친별세 9 . 30

□忠南支部 : △김길수회원 모친별세 9 . 7